

회상록을 내면서

준엄했던 지난 년대들에 눈비에 젖고 땀에 절은 야전복차림으로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소리없이 쌓이던 소원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신 회고록을 언제면 보게 될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었다.

조국과 인민, 정의와 진리를 위한 간고한 투쟁에 한생을 바친 위인들의 회고록이 민족의 큰 자랑이 되고 힘이 되며 후손만대의 재부로 된다는것을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있는 우리 인민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나날 자신의 한생을 추억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여러권을 내놓으시였을 때 정녕 우리 인민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만고풍상을 헤쳐오신 절세위인의 체취가 가슴뜨겁게 어려오는 회고록의 갈피갈피, 구절구절에서 피끓는 의분과 가슴저린 교훈으로 젖어오는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더듬으며 수령을 모시지 못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생각했고 망국과 독립의 피어린 력사속에 전진해온 세기의 년대기우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혁명선렬들, 유명무명의 애국지사들의 간고한 운명사, 불굴의 투쟁사가 과연 어떻게 빛이 나게 되였는가를 깨달으며 다음권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전 30권으로 구상하시였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제1부도 다 끝내지 못하신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령전에서 터뜨린 우리 인민의 곡성과 눈물은 그래서 더더욱 사무쳤고 것처럼 처절했다.

문득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 회고록을 쓰시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미처 쓰지 못하신 우리 혁명의 간고한 투쟁사에 대해서도 읽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생겨난데 이어 날이 갈수록 그이의 회고록을 기다리는 인민의 마음은 더욱 강렬해졌다.

하지만 우리 인민앞에 또 한차례의 아픔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그 누가 알수 있었겠는가.

애국의 열과 정으로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최대급행으로 달리는 야전철차우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로 자신의 생을 무섭게 채찍질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시였던것이다.

청천벽력같은 이 비보를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리고내리는 12월의 눈발을 피눈물로 적시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반세기 긴긴세월 《영명하신 옷분》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살아온 장군님에 대하여, 그이와 뜻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행복한 인생을 엮어온 자신들에 대하여 돌이켜보았다.

우리 인민은 지금껏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자기자신처럼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였다. 장군님께서 어느때 제일 기뻐하시고 어느때 제일 분노하시며 그이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이의 불같은 혁명생애를 눈물속에 더듬어보는 인민에게는 가슴을 찢는 모진 아픔이 있었다. 지금껏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 생의 박동을 잇고 살아왔다는 우리가 그이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이였다.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늘 지으시던 그 밝은 미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중환을 깊숙이 묻어두고계시였다는것을 인민은 몰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차에 두고 내리군 하신 지팡이가 가슴에 댕혀 우리 장군님만은 잘 모셔드리자고 맹세했건만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은 그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광장에 높이 올려퍼진 장군님의 음성, 지구를 깨치는 퇴성같이 우렁차고 봄날의 새벽같이 기운찬 그 음성처럼 우리 장군님은 언제나 힘에 넘치시고 청청하게 젊어계시리라고 굳게 믿어온 이 나라 인민이었다.

하건만 장군님께서서는 이 강산을 따듯이 덮혀주시던 해빛같은 그 미소와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던 타고나신 건강, 온밤을 깨고도 만복을 불러들일 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먼저 여시던 그 억척의 힘과 열정과 패기를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한 길에 짱그리 바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일대전의 피어린 전장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2월의 그 새벽부터 사회주의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해 포성없는 전구를 찾으시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그이께서는 어느 하루, 한순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전장을 떠나계신적이 없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에 최대의 애국이 있고 인민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있다는것을 어린시절부터 필생의 좌우명으로 새겨안으시고 한평생 수령님의 뜻으로 혁명을 이끄시였고 수령님의 후손답게 인민을 키우시였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받들수록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전사라고 하시면서 수수한 잠바옷차림으로 수령님께서 걸으실 멀고 험한 길도 먼저 밟아보시고 그이의 념원과 리상을 쫓피우시기 위하여 낮과 밤을 보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력사에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그렇듯 책임적으로, 그렇듯 희생적으로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민족의 운명을 구

원하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나라의 존엄을 세계의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민족은 온 생애를 다 바쳐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을 선군으로 더욱 빛내여주시고 무진막강한 힘을 지닌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해갈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은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핵억제력과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를 보유하였다는것을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력사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업적을 쌓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자신을 위한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

하늘처럼 민고살던 아버이를 목놓아부르며 눈내리는 12월의 하늘 밑에 펼쳐나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겐 찾아가 고향을 터칠 곳이 없었다. 장군님의 사랑어린 발자취가 찍히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땅우에 그이의 동상과 그이의 초상화를 모신 광장만은 없었다.

전생애 그이께서 남기신 저작들과 교시들을 더듬어보면 언제나 수령님과 인민에 대한것, 조국과 동지들에 대한것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철석같이 약속하시였다.

앞으로 승리의 날이 오면 우리가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어떻게 피눈물의 바다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어떻게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승리를 이룩하였는가를 회고록에 꼭 쓰겠다.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과 우리 인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겠다....

장군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서거와 함께 력사는 가장 심오한 혁명철학과 풍부한 인간생활, 탁월한 지성이 집대성된 거대한 혁명유산에 받아안을 기회를 영영 잃었다.

이제 이 나라 문인들과 력사가들이 지혜와 열정을 다 합쳐 장군님에 대한 몇백, 몇천권의 책을 쓴다면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걸어오신 혁명활동로정에 대해서는 기록할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허나 위대한 령도의 나날 그이께서 나라의 중대사를 두고 홀로

속태우며 묻어두신 사연들과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이야 어떻게 다 써 낼수 있겠는가.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회고록을 대신할수 있는 회상록 《위대한 한생》을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혁명유산으로 편찬할데 대한 최상의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필자들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위대한 스승이신 장군님의 슬하에서 수십년세월 인생을 알고 혁명의 원리를 깨우쳤으며 일하는 법, 투쟁하는 법, 인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심장의 피를 다 기울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중대사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저술사업이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가장 중대한 혁명임무라는 자각을 안고 장군님을 모시고 투쟁해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더듬어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김정일동지의 한생을 담은 회상록을 집필하였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일편단심으로 새겨진 진리, 백두산혈통만 따르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철의 신념이 그대로 담겨진 이 책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회고록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하고저 하시였던 심중의 사연을 다소나마 대신할수 있게 된다면 필자들로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쳐나가고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 힘있는 추동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앓으면서 회상록 《위대한 한생》을 련속권도서로 내놓는다.

회상록편찬위원회

차 례

제1 장 선 언

1. 1964년 6월 19일 (9)
2. 당중앙위원회의 봄 (3 4)
3. 새날의 방송개시신호악 (6 4)
4. 만년초석 (8 4)
5. 100년사상사 총화 (1 1 2)
6. 위대한 선포 (1 4 9)

제2장 강철의 당으로

1. 새 출발 (1 7 5)
2.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2 0 0)
3. 우리 당은 간부당, 귀족당이 아니다 (2 2 8)

제3장 친애하는 지도자

1. 70일전투 (2 5 9)
2.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2 8 6)
3. 인민이 낳은 전설 (3 0 9)

제4장 혁명은 동지

1. 초행길을 함께 걸으며 (331)
2.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362)
3.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 (387)

제5장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0돐에 즈음하여

1. 1964년 6월 19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기를 혁명의 군기로 휘날리며 우리 인민이 걸어온 70년력사우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의의가 더욱 뚜렷해지고 빛나는 날이 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이날은 우리 당이 자기의 창건을 선포하던 날과 함께 운명적이고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날이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고 걸출한 실천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인류정치사상 가장 오래고도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집권당령도사를 창조하여올수 있었으며 수령의 사상체제와 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지금도 당중앙위원회 청사앞에 마주서면 반세기전의 6월 19일 그 한밤을 집무실에서 교박 새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지척에서 뵈옵게 될것만 같다. 수수한 혼방직옷차림으로 새벽 이슬에 젖은 당중앙위원회 구내길에 서시여 펄펄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보시던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과 굳은 맹세는 그대로 우리 당의 모습으로 되었다.

1960년대는 격변하는 시대였다.

우리 당은 대외적으로 세계자주화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당제4차대회에서 제시된 제1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

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년평균 19.1%의 경제장성속도를 기록하며 사회주의공업화실현에로 내닫고 있었다.

1960년대에 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수령님께서 국가경제사업전반을 틀어쥐시고 자동차와 트랙토르, 공작기계의 일생산량과 강철생산량, 유색금속생산량, 철도수송량을 비롯한 주요경제지표들을 수자로 따져가시며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신 덕분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대안의 사업체제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다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집무실보다 내각청사로 출근하시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인지 나라의 경제전반이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비해 당중앙위원회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에 싸여있는것 같았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였다. 그 당시 우리 당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진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준비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한편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방해하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밖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로골화되고 안으로는 수정주의의 독소가 흘러들어 사람들의 넋을 오염시키던 때가 바로 이무렵이였다.

당 제4차대회전부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업하던 내가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위해 현대수정주의자들과의 리론투쟁을 벌리고있던 국제생활사 부주필로 전임된것은 주체52(1963)년이였다.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가 끝난 후 중국의 등소평이 쓰촨린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쏘련의 배타적립장을 비판하는 사설원고를 들고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

등소평은 모택동주석이 직접 받기하고 당정치국 성원들의 심의를 거쳐 완성된 글이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의 의견을 받아 그 글을

《인민일보》에 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글을 보시고 그러지않아도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분열될 위험에 처한 때 사회주의나라들끼리 공개적인 논쟁을 벌리면 적들이나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원칙적으로 투쟁하되 공개적인 지상론쟁은 삼가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었다.

사실 수정주의자들한테서 가슴아픈 상처를 많이 입은것은 우리당이였다. 그런것만큼 우리에게는 그들의 옳지 못한 처사를 두고 반격을 가할수 있는 웅당한 도덕적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최대의 아량과 인내력을 발휘하여 공개적인 비판투쟁만은 삼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세계자주화위업에 대한 책임감과 위인적도량을 알수 있다.

그러나 흐루쇼브수정주의집단과 그 하수인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세계의 면전에서 저들의 지휘봉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따돌리고 그런 나라들과 공개적인 싸움을 벌릴 잡도리를 하고있었다. 1963년 1월 도이췌란트사회통일당대회가 열렸을 때 소련의 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대표단에 중국과 알바니아를 공격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우리 당대표단이 그것을 거절하자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 레닌동지의 당이 위협을 받고있는데 보고만 있겠는가?》고 하면서 로골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왔지만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수정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하여 국제생활사가 조직된이래 수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완성한 첫 론설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자》가 그해 10월 28일부 당보의 옹근 3면에 걸쳐 실려 세상을 뒤흔들었다.

제국주의와의 《평화적공존》을 웨치며 미국으로 날아간 흐루쇼브를 케네디가 어떻게 맞이했는가, 오늘 《쁘라우다》는 중국공

산당에 대해 뭐라고 비난했는가, 알바니아와 뿔스까, 유고슬라비아문제에서 쏘련이 취하고있는 립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등 모두의 관심은 밖으로만 향해지고있었다.

우리 당내부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새날을 맞이하였다.

주체53(1964)년 4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찍으시였던것이다.

그 이틀전인 3월 30일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날이었다.

당시 수령님의 서기로 사업한 리건일의 회상에 의하면 그날 저녁택에 돌아오시여 장군님의 대학졸업증과 학업성적증을 받아보신 수령님께서서는 공부를 잘했다고 평가하셨을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였다고 한다.

이튿날 새벽 수령님께서서는 장군님을 산책길로 부르시였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생각이 많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결심인가고 물으시는 수령님께 장군님께서서는 민청중앙위원회에서 청년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대답올리시였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도 젊어서 청년사업은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건의를 하신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청년사업을 하는것도 좋겠지만 당에 들어와 일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찍으시던 아침을 회고하시면서 영광은 하늘에 닿았으나 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사명감으로 뛴뛰었으나 마음은 착잡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떤 영광과 사명감이 20대의 젊으신 지도자로 사회주의집권당의 최고참모부에 첫 자욱을 찍으시던 그이의 가슴을 무겁게 하였는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날 오전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소환된 여러 일군들과 함께 조직지도부 부장 김영주와의 담화에 립하시였다.

담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담화에서는 국제 및 국내정세, 정치, 경제, 문화, 개인적취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이 제

기되었다. 그다음 담화자들은 각 부서들에 배치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직지도부에서 사업을 보게 되시었다.

그날 김영주조직지도부장은 수령님께 나는 김정일동지와 공식적으로는 처음 담화를 했는데 그이의 명석한 두뇌와 정치적안목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이를 파에까지 안내해드렸다고 말씀올리었다고 한다.

부서에 오신 장군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조직지도부 부부장 한상규와 한영학파장, 김종호부과장 그리고 한룡팔을 비롯한 지도원들이었다.

부서일꾼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의 과에서 사업하게 되시었다는 통지를 받자 서둘러 김종호부과장이 리용하던 방을 내고 그이의 사무실로 꾸리었다. 보통살림방만 한 방에 사무용책상 1개, 결상 1개, 서류함 1개가 놓인 수수한 사무실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앞에서 방안을 둘러보시다가 《이 방에는 왜 책상을 한개만 가져다놓았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일꾼들이 대답을 올리지 못하자 그이께서는 다른 지도원들은 어떤 방에서 몇명씩 일하는가를 알아보시였다.

한상규부부장이 이와 똑같은 방에서 3~4명씩 일한다고 말씀드렸다.

나도 동무들과 함께 사업하겠습니다. 여러명이 함께 일할수 있도록 책상을 더 가져다놓읍시다. 그래야 과사업실래도 빨리 료해할수 있고 아래단위의 실정도 제때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한상규부부장이 성의를 마다하지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과 섞쓸리지도 못하는 독방에 고립무원하게 앉아서 무슨 일을 배우겠는가하고 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라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후날 한상규부부장은 그날에 있던 첫 상봉에 대하여 자기의 회상자료에 이렇게 썼다.

《앞으로 많이 배워달라고 하시는 그이의 겸허한 말씀을 솔직히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10여년간 또는 그 이상의 당사업년한을 가지고 새로 오신 그이를 맞이하게 된

우리들이었던것이다. 우리가 과연 배워드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당장은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웠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사업하게 되시었다는 소식은 날개가 돋쳐 삼시간에 모든 부서들에 퍼졌다.

그이는 어떤분이신가?

20대의 대단한 리론가이시라고 한다.

쏘련류학을 거절하시었다는게 사실인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실 때에도 그랬고 졸업후 쏘련당학교 연구원에 가실것을 건의할 때에도 반대하시었다고 한다. 중앙민청에서는 사무실까지 꾸려놓았고 군대내의 항일투사들도 그이를 모시고 싶어했지만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었다고 한다.

...

그 소식에 접한 나의 심정은 류달랐다.

나는 이미 그이를 몸가까이 만나뵈온적이 있었던것이다. 아주 짧은, 어쩌면 스쳐지났다고도 할수 있는 잠간동안의 상면이었지만 뇌리에 사진을 찍어 남긴듯 강하게 새겨진 그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주체50(1961)년 9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열렸을 때 나는 쏘련공산당대표단의 안내를 맡았었다. 단장은 쏘련공산당 조직비서였던 꼬즐로브였다.

9월 9일 저녁 수령님께서는 쏘련공산당대표단을 위해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만찬회장에 나오시였을 때 나는 대표단을 그곳으로 안내한 다음 어떻게 할바를 몰라 복도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때 오백통호위총국장과 함께 행사과정을 살피시던 장군님께서 나에게로 다가오시였다.

《왜 여기에 서있습니까?》

첫 순간 나는 지어 당황해지기까지 했다. 그때까지 먼발치에서 가끔 뵈온적밖에 없는 내가 그이를 이렇게 만나뵈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런 때에는 안내자가 손님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머뭇거리는 나의 등을 떠미시었다.

그찰나 의례원이 달려와 수령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전달했다.

만나뵈은 시간은 짧았으나 느낌은 강렬했다. 특히 그이의 눈빛이 부드럽고 인자해보이면서도 매우 당당하고 뜨거웠다.

그런 느낌을 나는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받아본적이 없었다. 위인의 비범성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설사 자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때인가는 반드시 나타나고야마는것이다.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되시었다는 소식에 접한 얼마후 어느날의 일이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일정을 더듬으며 아침출근길에 올랐던 나는 당중앙위원회 본청사 앞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일군들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다음엔 놀랐다. 그때까지 당중앙위원회 본청사지붕우에 게양되어있던 공화국기대신 당기발이 펄펄 휘날리고있었던것이다.

눈부신 해빛과 부드러운 바람결에 휩싸여 산 생명체와 같이 퍼덕이는 붉은 당기를 당중앙위원회 프락에서 바라보느라니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변화였다. 단순한것 같으면서도 거대한 변화였다.

당기발을 게양하신분이 다름아닌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을 알았을 때 놀라움과 충격은 더욱 컸다. 장군님께서는 그날 당시 재정경제부 부부장이였던 로명근과 함께 당기를 게양하시였다고 한다.

당기발을 품에 안고 당중앙위원회 계단을 오르실 때 그이께서 념원하신것은 무엇인지, 그 기발을 창공높이 띄워올리며 다지신 맹세와 바라보신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는 미처 알수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당기발을 바라보며 출근하고 당기발아래서 사업하고 당기발을 마음에 얹고 퇴근하였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우리의 붉은 당기가 머리우에 나뭇기고있음을 생각하면 숭엄한 그 무엇이 가슴에 짝 차오르곤 했다.

김정일동지의 숨결, 김정일동지의 의지는 이렇듯 조용히 우리의 가슴에 흘러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조직지도부의 김종호부과장이 나를 찾아와 밀도끝도 없이 《내 나이는 나의 재산》이라는 구절이 있는 시를 모르는가고 물었다. 자기가 《문학신문》이랑 잡지들을 뒤져봤는데 찾지 못해서 혹시 외국문으로 된 시가 아닐가싶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도 처음 듣는 시여서 사실대로 말해주고는 그 시는 갑자기 왜 찾는가고 되물었다.

김종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전 청사접수에서 김종호에게 강원도 이천군에 사는 삼촌이 찾아왔다는 전화가 걸려오자 그는 자기에게는 그런 삼촌이 없다고 딱 잘라냈다. 얼마후 접수에서 삼촌이 조카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가겠다고 그냥 기다리니 잠깐만이라도 좀 나와줄수 없겠는가 하는 전화편락이 또다시 왔다. 그는 자기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것을 전해 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에 함께 계시던 장군님께서 그 전화내용을 들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종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삼촌이 먼길을 찾아왔는데 만나보아야 도리가 아니겠는가고 나직이 이르시었다.

김종호는 눈물이 그렇해서 자기의 과거지사를 털어놓았다. 그는 3살때 어머니를 잃고 누이와 젓먹이 녀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다. 10살나던 해에는 아버지마저 잃고 삼촌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는 그의 누이를 제사공장에 팔아버렸다. 누이가 도망쳐오자 이번에는 13살난 그를 27살난 사람에게 돈 100원을 받고 시집을 보냈다. 그자신은 삼촌대신 일체의 《보국대》에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그때부터 김종호는 마음속에서 삼촌을 영영 지워버리고말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삼촌이 정말 너무했구만.》라고 하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말쑼을 이으시었다.

《그래도 부과장동무야 당일군이 아닙니까. 부과장동무에게는 그가 삼촌이지만 우리 당에는 평범한 공민입니다. 지나간 일은 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남긴 상처입니다. 고생스럽게 자란 조카가 큰일을 하는것이 대견하여 찾아왔겠는데 삼촌을 외면하는것은 인륜에도 어긋

나고 당일군의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나보십시오.》

그제서야 김종호는 생각을 고쳐먹고 삼촌을 집에 모시고가 온밤 울고 웃으며 모진 세월이 남긴 상처를 가시고 혈육의 정도 다시 이었다. 다음날 그는 출근하자바람에 장군님을 찾아가 나이를 헛먹은것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잃을번 한 혈육을 다시 찾아주시여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젊은 사람에게 이러면 되는가고 만류하시며 자신께서는 나이든분들에게서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내 나이는 나의 재산》이라는 시구절이 있는데 그동안 년년이 쌓아온 《재산》을 많이 물려달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김종호는 이야기를 마치고 벌개진 눈굽을 훔치면서 《참으로 뜨거운분이십니다. 눈빛도 뜨겁고 손길도 뜨겁고... 말씀은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종호와 삼촌의 정을 다시 이어주신것은 인정세태로만 볼 문제가 아니었다.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부서일군들에게 하신 첫 부탁이 있었는데 자신께서 자리를 뜬 사이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나 주소, 이름을 기록했다가 꼭 알려달라는 참 류다른것이였다. 그리고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수행하시거나 아래단위사업을 지도하고 돌아오시면 그새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가부터 알아보시고 있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만나보군 하시였다.

그이께 사람을 만나는것이상 중요한 일이 없으신것 같았다. 그러다나니 일부 일군들은 젊으신분이 나이지숙한 사람들과 좁은 사무실에 함께 있기가 답답해서 그러시는줄로 생각한적도 있었다고 한다.

한상규는 조직지도부 부부장사업을 하면서 주체51(1962)년 1월부터 부서당위원장사업을 겸하고있었다. 말하자면 큼직한 직무를 여러개나 맡고있는셈이였다.

그런데 매일이다싶이 김정일지도원동지를 만나뵈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어느 파장이나 부부장을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이전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것을 느끼며 한상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

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였다.

한상규는 어느때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하시던 그이의 첫 부탁이 ऐसा롭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직장에 찾아가시고 정 시간이 허락치 않으면 전화로라도 꼭 만나보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던 장군님의 사업태도는 당일군은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과 이야기하고 인민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당사업의 진리를 이끌어내시는 과정이었다.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 이것은 우리 당의 존재방식입니다.

엥겔스는 단백체의 존재방식이 생명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야말로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방식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9(1970)년 6월 29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에게 하신 교시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하시고 그것을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생명력으로 규정해주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이렇듯 키낮은 편수책상과 결상, 서류함들이 놓여있던 주체53(1964)년의 그 크지 않은 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군님을 뵈고져 찾아왔던 사람들의 주소가 적혀있던 글쫂지며 김중호의 삼촌과 같은 사람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우리 당의 시야에 비껴들게 된것은 또 하나의 변혁이었다.

언제인가 《내 나이는 나의 재산》이라는 시구절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김중호가 마침내 그 시를 보게 된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기였다. 문학잡지에 공훈기자이며 번역작가인 하수홍이 번역한 로쥬쓰프웬쓰끼의 시 《내 나이》가 실렸던것이다.

분초를 아끼며 살아온 년년에
곳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았네
돈은 비록 모으지 못하였지만
내 나이는 나의 재산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원형인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이전날 신양군인민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취재를 온 기자들에게 《나 혼자서야 무슨 재간에 고난의 행군시기 군살림살이를 떠메고 올수 있었겠나요. 내결에는 정말 좋은 당일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당책임비서동지지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군당책임비서가 다름아닌 1960년대부터 장군님의 슬하에서 인민과 말하는 법을 배우며 새 나이를 먹은 당일군 김종호였다. 새 나이가 정말 재산이 된셈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퇴근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사무실에 제실 때면 펼쳐놓았던 문건들을 밀어놓고 창가에 기대신채 나직한 음성으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부르시며 사색에 잠겨계시곤 하였다.

언제인가 김종호는 그이께 노래를 무척 좋아하신다고, 그런데 왜 그 노래만 자주 부르시는가고 물음을 올린적이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절규하던 이 땅에 황금나무 능금나무 설레이는 인민의 무릉도원을 펼쳐주신 수령님의 은덕을 진심으로 노래한 명곡이라고 하시면서 부를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서의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때문에 자주 부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체53(1964)년 4월 23일부터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현지도도를 보좌해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전천공업품상점 판매원 정춘실을 만나주시고 그가 운영하는 《우리 가정수첩》을 보아주시며 사회주의상업의 좋은 본보기라고 높이 치하해주신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4월 25일 자강도가무단에서 창조한 가극 《장자강반에 핀 꽃》을 보아주시고 5월 1일 강계광장에서 진행된 강계청년발전소조업경축 강계시군중대회의 주석단에 정춘실과 박관옥을 내세워주시였다. 박관옥은 수년간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학생을 업고다니면서 공부시킨 녀교원으로서 가극 《장자강반에 핀 꽃》의 원형이다.

자강도사람들은 그때 강계청년발전소조업식을 준비하면서

수령님을 모시고 가극 《장자강반에 핀 꽃》을 공연할수 있게 해달라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가극을 본 일군들은 대번에 그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가극이 온통 민족악기, 민족음악, 민족무용일색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 제때에 가극의 내용을 료해하시고 수령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으셨더라면 《장자강반에 핀 꽃》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수령님께서서는 가극이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영화로 옮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수령님께서 좋다고 하신 작품을 일부 일군들은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는다고 비평하였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당사상사업부문의 일군들이 수령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서 헤매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당사상사업부문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가깝게는 장군님께서 사업하시는 부서내에서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한가지 실례가 당과 직맹조직을 섞어놓고 범벅이 된 2중조직생활을 하는것이였다. 지금사람들은 잘 리해되지 않을수 있지만 당시 평당원들은 물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까지도 당조직과 직맹조직에 2중으로 소속되어 생활하였다. 이 2중소속제도는 해방직후 허가이나 박창옥과 같은 사람들이 쏘련에서 끌어들인것이였다.

세포위원장사업을 맡고있던 김종호는 부과장이라는 직제를 가진데다가 조직지도부 직맹위원장까지 겸하다나니 량쪽옆구리에 두가지 사업수첩을 끼고 이쪽저쪽에서 지시를 받고 집행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들볶이였다.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할것없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직맹올타리안에서 뒤섞여돌아가던 때여서 어찌보면 당사업보다 직맹사업에 더 많은 품을 들이는듯 한 형세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자강도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장군님께서 세포에 찾아가시였을 때 김종호는 머리를 싸쥐고앉아 직맹사업총화보고서를 쓰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김종호가 권하는 자리도 마다하시고 선자리에서 물으시었다.

《내 언제부터 논의해보려고 했는데 부과장동무는 당조직과 직맹조직이 뒤섞여돌아가는것을 놓고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글쎄 제생각 같아서는 당원이 당조직에 소속되어 생활하는것은 응당한 일이겠지만 근로단체조직에까지 소속되어 2중생활을 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 장군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되뇌이시고 다시 그에게 시선을 주시었다.

《불합리란 말이지요. 그러면 합리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조직을 가르면 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도 수령님의 사상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김종호가 말한것처럼 정치생활에서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47(1958)년 3월에 소집되었던 제1차 당대표자회때 벌써 현대수정주의의 침투에 경종을 울리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단언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것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있으며 벌써 반당파들은 그것을 리용했습니다.

...김두봉이 상임위원회가 당보다 높다고 한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상임위원회가 당의 령도를 거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서휘가 <당이 직맹을 령도할수 없다. 당원보다 직맹원수가 많으니 직맹이 당보다 큰 조직이다. 당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직맹원들이기때문에 직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직맹은 당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것이라든지 김을규가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가 아니고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한것이 다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당대표자회가 있는지 여섯해가 지나도록 아직 당조직과

직맹조직이 뒤섞여있으며 엄중하게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부터가 이를 범상하게 여기고있다는것은 당안에 수령님의 사상과 뜻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나도 목격한바이지만 그 시기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중 쏘련에서 당사업을 배웠다는 일부 인물들은 자서전에 쓰팔린동지를 위해 목숨바치겠다고 쓰는가 하면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택동동지께 충실하겠다고 버젓이 써놓는 형편이었다.

당의 체내에 그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의 사상만이 짝 차흐르지 않는다는것은 다시말하여 당의 실체는 있으나 넋이 흐리터분하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동맥경화는 올수 있지만 사상경화가 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의 당중앙위원회가 이를테면 사상경화로 진통을 겪고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령님께 올리는 문건정리실태를 놓고서도 알수 있었다. 당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물론이고 내가 있던 국제생활사에서조차 수령님께 드리는 문건표지에 늘 《당지도부 앞》이라는 고정표제를 달아 올리곤 하였다.

《당지도부》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당을 지도하는 그 어떤 다수인물들로 이루어진 《그루빠》라도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 《지도부》에는 누구들이 속하는가? 《해외조선혁명운동》의 경력자들인가 아니면 해방과 함께 하루밤사이에 《당중앙》을 척척 만들어내던 《국내공산주의혁명가》들인가?...

누구도 이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는 더욱 생각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몰라야 할 당중앙위원회에서 《령도핵심》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울려나오고 수령님께 올리는 문건에까지 《당지도부》라는 표제를 단것은 수정주의자들이 떠들어대던 《개인미신》소동에 《집체적지도》라는 표현으로 맞장구를 보내는것이였다.

우리 당에 기여들었던 수정주의분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

는 수령의 정도적지위를 허물어보려는 목적밑에 《지도자》라는 존칭대신 《지도부》라는 표현을 썼고 《핵》이라는 말보다 《핵심》이라는 말을 썼으며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는 등 우리 혁명에 있어서 유일체로 향한 모든 초점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우리 당을 핵이 없는 두리뭉실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했다. 그 덩어리는 당의 체내에 전이되어 혁명을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암과 같은 것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7(1968)년 8월 22일 당시 국제부 부부장이었던 최영림에게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파란 당의 흑이고 암입니다. 흑을 떼버리고 암을 수술해야 당이 건전하고 강력해 지는 것입니다.》라는 뜻이 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체내에 수술칼을 들이댈 수 있는 심장을 지닌 일군은 누구인가, 누가 그런 의지를 지녔고 그런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이 그 시대에 우리 당이 직면했던 운명적과제였다.

어느날 장군님께서서는 그간 사업과정에 느끼신 점을 놓고 말씀을 나누시기 위해 한상규를 만나시었다. 해방직후부터 공청사업에 뛰어들었고 전쟁에도 참가한 마음씨 무던한 로병은 언제나 그러하듯 웃는 얼굴로 그이를 맞이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어 왔다고 하시는 장군님께 한상규는 《예, 어떤 문제입니까?》하고 기꺼운 표정을 지었다.

그이께서는 과사업의 중심은 무엇인가고 물으시었다.

한상규는 깊이 생각해볼 것도 없다는 듯 제각 시안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라고 대답올렸다.

《예.》 그이께서도 긍정하시었다.

《그러면 지도사업에서 기본을 어디에 두고있습니까?》

장군님께서 점차 사업을 파고드시자 한상규는 긴장해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요즘 지도사업에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 기본을 두고있습니다.》라고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실정이 그렇기때문에 내가 따져묻는 것이라고 하시며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고 재차 들이대시였다.

한상규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로서는 받아안은 질문이 너무 예상밖이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일군들이 당사업에서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당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리론적기초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이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고, 때문에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에서 수령님의 교시집행정형을 하나하나 엄밀히 따져가며 검열총화하고 잘못된것은 시정시켜주며 미진된 부분은 재포치하여 수령님의 의도를 제때에 무조건 관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생활지도를 잘하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백가지, 만가지 문제를 다 풀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하며 행동상일치성을 보장하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고 당은 자기의 존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될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그이께서는 숨소리마저 죽이고 긴장해서 듣고있는 한상규에게 내가 오랜 당원앞에서 너무 혼시조로 나온것이 아닌가고 하시며 량해를 구하시였다.

한상규는 두손을 내저었다. 《아니, 아닙니다. 확실히 부서사업에 빈틈이 많았습니다. 오늘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듣고보니 사방이 구멍투성이인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당사업을 잘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자고 하시며 지도파답게 한번 본때있게 체크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파사업에서는 눈에 띄이게 변화가 일어나는것 같았다. 당시는 지금처럼 사업보장용승용차도 없었고 통신체계도 불비했지만 모든 일군들이 신들메를 단단히 조여매고 이 단위에서 저 단위로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빠스를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했으며 걸어다니기도 하였다.

5월 하순에 이르러 장군님께서서는 거의나 사무실에 계시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너렁청한 사무실에 올방자를 틀고앉아 당사업을 하는

것은 락제라고 하시며 당일군으로서 첫 신을 신으시는 심정으로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빠짐없이 수행하시였다.

황해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로 줄곧 이어진 5월의 현지도도에서는 농촌에 대한 지도가 기본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으며 3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에서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을 주시고 주체55(1966)년 4월에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주체53(1964)년의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3 700여개 협동농장들중 농업현물세를 면제받은 농장수는 1 331개였는데 수령님께서서는 나머지 농장들에 대해서도 2년사이에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생산열의는 나날이 높아지고 분배몫도 많아지니 집집마다 재봉기와 라디오가 생겨나고 살림살이가 윤택해졌다. 그해에는 농촌들에서 결혼식회수도 부쩍 늘어나 새 집, 새 가정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듯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는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나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인민들이 환영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혁명의 교과서로, 지름길로 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4일간에 걸치는 황해남도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치고 평양에 돌아오신지 얼마 안되어 일찌기 보리장마가 시작되였다.

하늘을 뒤덮은 비구름속에서 붉은 당기밭이 유난히 나뭇기고있던 잇을수 없는 초여름이였다. 그 초여름에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충격적인 평양베아링공장 당지도소조사건이 일어났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베아링 150만개를 최단기일내에 무조건 생산보장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고 공장에 파견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지도소조가 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도중에 철수한 사건이였다.

베아링 공장에 당지도소조를 파견하는 사업은 조직지도부에서 맡아하였는데 소조성원들중에는 장군님을 한사무실에 모시고 사업하던 일군도 있었다. 지도소조가 현지에 도착하여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상동원사업을 벌리는 한편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준비하고있을 때 김광협이 공장에 나타났다.

김광협으로 말하면 당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내각 부수상으로서 자칭 당의 《2인자》라고 거들먹거리던 박금철이까지도 얼굴을 면바로 마주보기 어려워하는 인물이었다. 전쟁때 박금철이 김광협의 군단에서 군사위원을 했는데 그때 벌써 김광협이라면 꿈쩍 못했다고 한다. 박금철이나 김광협은 다같이 수령님의 과분한 신임을 받아안았으나 당을 배반하는데서는 짝지지 않았다.

김광협은 공장의 현존생산능력으로 150만개의 베아링을 생산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획을 70만개로 낮추라고 내리먹였다. 지도소조가 반발하자 김광협은 자기는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이라고, 경제사업을 잘 모르는 당신들은 공연히 고생하지 말고 공장에서 손을 떼라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하였다.

결국 지도소조는 당중앙위원회에 실정을 알리면서 철수할것을 제기하였고 부서에서는 토의끝에 소조성원들을 모두 소환하였던것이다.

지도소조에 망라되었던 일군으로부터 사연을 전해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선뜻 믿기 어려우신듯 《그래 계획을 70만개로 낮추었다단 말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예, 하도 내리먹이는 바람에...》

《150만개의 베아링을 생산하라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인데 누가 감히 해라말라 할수 있습니까.》

그래 개별적인 간부가 그만두라고 했다 하여 도중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먹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치시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리였다고 한다. 그렇듯 격하신 모습을 처음 뵈게 된 일군들은 커다란 자책속에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당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은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당사업에서는 이런 주선이 없이 바람이 부는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당조직사업에서뿐아니라 당선전사업에서도 이런 편향이 나타나고있다고 하시며 출판보도부문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편집물이 상대적으로 적다, 선전하는 경우에도 깊이가 없고 노래도 수령님을 흠모하는 노래가 적은 대신 향토를 찬미하는 목가적인 노래들이 자주 울려나온다, 내가 당중앙위원회에 와서 두달 어간에 확실히 느끼게 되는것은 우리 당사업에서 주선이 모호한것이라고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선이란 무엇 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측면을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문제를 푸는데로 집중시킨다는것을 말합니다. ...

우리 당사업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주선을 세워야 합니다.》

당사업에서의 주선을 수령중심론의 견지에서 정립하신 그이의 말씀은 우리 당력사에 깊이 아로새겨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후날에 중앙검찰소 소장으로 사업한 한상규는 이날 받아안은 충격에 대하여 《그이께서 방에서 나가신 다음에도 부서성원들은 못 박힌듯 앉아있었다. 나는 문득 김정일동지께서 당사업을 배우기 위해 당중앙위원회에 오신것이 아니라 당사업을 변혁하기 위해 오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회상하였다.

어떤 력사적사변도 당대에 그 의미를 다 리해하기는 어렵다. 하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장군님의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사업시작에서 무엇이 비범하고 관건적이였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미 당내에 흘러내려오던 사업방법을 그대로 전수하려는 신입일군의 자세에서가 아니라 대학시절에 벌써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

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신 투철한 수령중심론자의 안목으로 당중앙위원회를 보시었다는것이다.

나는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옳바른 수령론이 창시된 주체49(1960)년 12월 5일을 감동깊이 추억하군 한다. 그날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시게 된 직접적동기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공산당, 노동당 대표들의 회의였다. 바로 그 회의에 나도 조선로동당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참가하였던것이다.

그해 11월에 열린 회의에 수령님께서서는 김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파견하시였다.

회의는 근 한달동안이나 진행되었는데 크레플리에 회의장을 꾸려놓고 옆방에는 간식과 음료를 가득 차려놓았다. 아마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 그렇게 회의를 한적이 없었을것이다. 회의때는 서로 목청을 높여가며 갑론을박하다가 휴식시간이 되면 옆방으로 가서 웃고 떠들고 마시다가 회의가 시작되면 또 싸웠다.

중국공산당에서는 류소기와 등소평이 회의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소련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알바니아공산당까지 합세했다. 흐루쇼브는 흥분하여 연락을 두드리면서 연설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매일이다싶이 김일동지에게 전화를 거시여 수정주의자들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정 힘들면 백두산에 다시 들어가 빨찌산을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정도로 회의는 심각했다.

일정이 거의 끝나갈무렵 선언작성분과위원회에서 마침내 불집이 터졌다. 자기들의 수정주의적립장을 공동선언문에 박아넣자는 흐루쇼브의 요구에 많은 나라 당대표단들이 반발해나섰던것이다. 그 선두에 섰던 우리 당대표단은 제국주의와의 《평화적공존》과 《개인미신》문제를 공동선언문에 박아넣자는 흐루쇼브의 요구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중요한것은 그다음이었다.

우리는 회의에서 견결한 립장을 고수하고 돌아온것으로 만족했을

뿐 앞으로 당건설과 활동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은 무엇인가,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모두가 그 불패한 회의를 잊으려고 애쓰던 때에 력사는 당중앙위원회가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총화되고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산당, 로동당대표들의 회의결과를 놓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과 나누신 력사적담화가 바로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였다.

력사에 대한 총화는 목격자나 체험자라고 해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지로 그 회의에 참가하여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직접 목격하였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크레플리의 회의장을 짝 채웠던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지도자들이 그런 총화를 내렸는가.

바로 이런것을 두고 력사가 위인에게 부여하는 사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오신것은 보통지도원으로서가 아니라 수령중심론의 창시자로서 오시였다는것을 의미하였으며 우리 당에 수령중심론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후날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새기신 4월 1일을 국가적기념일로 제정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군님께서 주체73(1984)년 6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에게 동무들은 내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을 1964년 4월 1일로 알고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시작한것이 1964년 6월입니다. 당중앙위원회에 오기는 미리 와있었지만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것은 6월 19일입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수령님께서 장군님을 부르시어

그동안 두달남짓이 당중앙위원회에서 느낀바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파악하신 당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였는데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내시는 그이의 보고를 수령님께서서는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옳다. 중앙당이 일이 잘 안된다. 내각사업은 괜찮게 되어 경제가 허리를 펴는데 당사업이 안된다. 당사업이 잘돼야 경제가 와썹 일어서고 인민들 사는 형편이 좋아질수 있겠는데, 아직 우리 혁명가들이 할 일이 사방 가뻑한데 중앙당에 틀고앉은 못된 사람들이 건달을 피우고있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서는 길림시절을 더듬으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나는 요새 동북에서 20살도 안된 내가 혁명을 하러 나섰을 때 처음 만났던 차광수나 김혁이를 생각이 자주 난다. 김혁은 나보다 5살, 차광수는 7살이나 나이가 우였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수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른것이 아니였다. 그때 김혁, 차광수, 최일천이들이 변태우렁감을 비롯한 오가자유지들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날 일자에 이를 성자를 놓아 《김일성》이라고 고쳐붙렸다. 그들은 조선의 호걸남아들이였고 대단한 사상가, 리론가들이였다. 특히 김혁은 원래 유명한 배짱군이였다. 어느날 내가 시치미를 뚝 따고 국제당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선혁명을 해서 뭘하는가고 하자 김혁이는 국제당이 다 뭔가고 하면서 주먹을 내흔들었다. ...

당시의 형편을 두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수령님께서 30여년전에 떠나간 동지들의 이름을 떠올리시였겠는가. 그 시절에 대한 수령님의 추억은 김혁, 차광수와 같은 동지들이 있어 당중앙위원회를 믿음직하게 떠받들어줄것을 바라시는 념원이 불러온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길로 당중앙위원회에 나오시여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였다.

그날밤 일감이 쌓여 퇴근을 미루고있던 한상규는 자정이 넘어 졸음을 쫓느라고 밖으로 나갔다. 조직지도부청사의 모든 방들에 불이

꺼졌으나 장군님께서 사업하시는 방에서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아직도 일을 보시는구나!)

한상규는 자신을 다잡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새벽 2시가 지났을 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그를 알아보는 순간 한상규는 놀랐다. 몇시간전에 장군님을 만나 뵈기 위해 찾아왔던 평양시당의 일군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새벽까지 줄곧 그와 담화를 나누신 것이었다.

잠시후 빠른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장군님께서 한상규의 방에 들어서시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고있습니까?》

《지도원들의 방에도 아직 불이 켜있는데 부부장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요. 김정일동지께서 부서에 오신 후로 내가 좀 혼이 납니다.》 하고 한상규는 얼굴에 사람좋은 웃음을 띄웠다.

《새벽 정원의 공기는 맑고 시원하여 좋습니다. 새벽공기를 마시니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이께서는 심호흡을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새벽공기를 마시면 좋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들처럼 새벽공기를 남먼저 마시는 사람은 많지 못할것입니다. 새벽공기는 혁명가들이 남먼저 마시게 됩니다.》

멀리 바라보이는 다층살림집창가에서 마지막불빛이 사라졌다. 눅눅한 대기속으로는 아득한 곳에서 반짝이는 별빛만이 고요히 흘러내렸다. 좋은 밤이었다.

장군님께서 이 깊은 밤에 아이들이 마음놓고 잠들수 있는것은 어머니의 품이 곁에 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화제를 점차 부서사업으로 당겨오시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 대하여 하루생활을 놓고도 밥은 제대로 먹는가, 잠은 제대로 자는가, 밖에 나가 잘못된것은 없는가 하고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오만가지 시름속에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 당일군들은 당원들에 대하여 모르고있습니다. 당원들의 생활속에 들어가지 못하다보니 그들이 말하는것을 듣지 못

하고 행동하는것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당원들이 아파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나타난 결함만 놓고 망탕 욕설하는것으로써 당사업을 대치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며칠동안 아래단위에 내려가 일군들을 만나보니 이런 문제를 인차 느낄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더우기 엄중한것은 당일군들이 당원들을 만나지는 못할망정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만나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 안타까이 보이시였다.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계속하여 당일군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당사업을 하겠다는것은 소경이 바늘귀를 꿰려는것과 같다고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은 당원들스스로가 자각적으로 찾아와 의견을 말할 때 제일 기뻐하고 그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당일군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구하여 새날이 밝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함께 밤을 지새운 일군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오시였다.

청신한 새벽공기속에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휘날리는 당기가 선명히 안겨왔다.

《동무들, 저 당기발을 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저 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혁명의 기발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우리 당의 뿌리도 튼튼히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력사는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온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입니다.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인 김혁, 차광수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나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도록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어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보니 감개무량하기도 하지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떠메고나갈 굳은 결심을 다지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이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일하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에서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신 수령님을 뭉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사업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긍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천백마디의 말보다도 뜻깊은 그날에 하신 력사적인 담화의 내용을 다시금 되새겨보는것이 더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장군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수령님의 당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수령님의 당입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우리 당의 뿌리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당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 이것이 나의 필생의 과업입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이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명을 주신 조선로동당에 뉘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우리 당의 모든것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뒤로는 주체56(1967)년 봄과 주체63(1974)년 2월과 더불어 우리 당이 헤쳐가야 할 준엄한 투쟁로정과 승리와 영광의 년대들이 다가오고있었다.

2. 당중앙위원회의 봄

해마다 봄이 오면 당중앙위원회 구내에는 백살구꽃이 만발한다. 그 나무들을 심은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구름같은 꽃송이들이 년년이 피어나 향기풍길 때마다 나의 눈 앞에는 언제나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여시고 로동당세월의 년륜을 당중앙위원회 트랙에서부터 새겨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온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정깊고 추억깊은 당중앙위원회 구내길을 즐겨 거니시였다.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 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 시여 백살구꽃이 피어나는 당중앙위원회 구내길에 들어서기만 하 시면 매번 차를 천천히 몰라고 이르곤 하시였다. 그리고 조용히 외 우시였다.

《당중앙위원회에 봄이 왔소.》

그 말씀에는 계절의 바뀔만이 아닌 장장 수십년력사의 변화를 당중앙위원회에서 목격하신 령도자로서 느끼시는 이쁨할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있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수십년간 봄을 맞고 보냈지만 돌이켜보면 당사업을 시작하여 3년째 되는 해에 맞이하던 봄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하시였다.

주체56(1967)년을 두고 하신 말씀이였다.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에 모시여 3년째 되던 그해에 우리 당은 창건이래 흘러온 스물두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명실공히 력사의 새봄을 맞이하였다. 그해 5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부터 우리 당은 《유일》이라는 자기의 념을 확고히 간직하게 되였다.

당창건 30돐을 뜻깊게 경축한 해인 주체64(1975)년 12월 4일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지도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전에는 바로 오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주의, 수정주의사상에 물젖어있은자들인 박금철, 박용국이 우리의 대외사업을 다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대주의, 수정주의사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오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주체56(1967)년의 봄은 가물고 빈 우뢰가 자주 울었다.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은 남산기슭에서 우뢰가 울릴 때마다 앞으로 있게 될 그 어떤 사변을 예고하듯 창유리들이 진동하군 하였다.

나는 그 봄을 병원침상에서 맞이하였다.

당조직의 부름을 받고 내가 급히 퇴원해나온것은 4월 15일을 며칠 앞둔 때였다. 나는 긴급한 집필과제때문일것이라고 생각했다. 입원하기 전까지 국제생활사에서서는 전해 8월에 발표한 론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 이어 조선로동당 제2차대표자회정신이 반영된 새 론설과제를 수행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부서에 돌아와 목격하게 된 당중앙위원회의 분위기는 자못 엄숙했다. 청사의 어느곳에나 중압감이 느껴지는 정적이 깃들었고 이따금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낮빛도 근엄했다.

나는 곧 당총회가 준비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당총회는 당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것이지만 이미전부터 당내의 심상치 않은 공기를 감촉하고있던 우리는 모두가 긴장속에 회의를 기다렸다.

4월 15일 아침이었다.

탄생 55돛을 맞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수록하기 위해 당보의 사진기자를 비롯한 촬영가들이 당중앙위원회에 도착하였다.

바로 그때 당중앙위원회 청사 다른 한쪽에서는 초조해난 김도만이 창밖을 내다보며 《저쪽 집에 또 누가 왔구만.》 하고 중얼거리고있었다.

그무렵 박금철, 김도만을 비롯한 속검은자들은 장군님께서 계시는 조직지도부쪽에서 문소리만 나도 안절부절 못하며 밖을 내다

보군 하였다.

당시 수령님께서서는 건강상태가 여의치 않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1월부터 3월사이에만도 방직공업부문 일군협의회, 전국기계공업부문 일군회의, 과학교육부문 일군협의회, 전국농업일군대회, 조선인민군 정치일군회의, 도, 시, 군 및 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을 련속 지도하시였으며 그때마다 연설과 결론들을 하시느라 몹시 분망한 나날을 보내셨기때문이었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직접 촬영가들을 수령님의 집무실로 안내하시였다. 사진촬영은 2차례 진행되였다.

수령님께서 집무실에 계시는 모습과 당보를 읽으시는 모습을 사진문헌에 담았는데 촬영이 끝나자 촬영가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집무실을 나섰다. 그들이 처음으로 수령님의 귀밑머리가 희여지기 시작한것을 가까이에서 보왔던것이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고 전쟁의 포화를 헤치시던 때도 아닌 평화로운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무엇이 수령님께 세월을 앞당겨 흰서리를 내리게 하였단 말인가....

3일이 지난 4월 18일 완성된 사진문헌을 받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대뜸 이렇게 물으시였다.

《사진이 지내 젊어보이지 않습니까?》

촬영가들은 그이의 물으심을 어떻게 가려들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였다. 그리고 당황해졌다. 그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수령님께서 젊어보이도록 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고, 가슴아프지만 수령님의 머리에 이미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나직이 뇌이시였다.

이제 더는 수령님의 젊으신 모습을 뵈울수 없다는 사실앞에서 장군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는지 촬영가들이 다는 알수 없었다.

그날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의 발단으로 된 력사적인 당총회가 열린 다음날이었다. 4월 17일부터 시작된 당총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한상규가 《도, 시, 군 및 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정형에 대하

여》라는 보고를 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박금철, 리효순, 김도만, 허석선 등 당의 요직에 있던자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놀랐다. 이전에는 당 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으로서 부위원장, 부장의 직위에 있던자들의 죄행을 보고문건에 올리고 면전에서 타격을 가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총회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조직지도부 일군들은 여러차례 장군님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나타난 반당수정주의적행위들을 전면적으로 비판분석하지 못하고 빙빙 에돌기만 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준비한 보고서초안에서는 관료주의와 당세도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가 기본으로 전개되고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에 대해서는 극히 일반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고서초안을 마지막으로 보아주신것은 4월 16일 밤이었다.

한상규는 자기 손에서 보고서초안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것을 들고 장군님께 찾아갔다. 그는 3번, 4번 검토한 보고서를 그이께 올리고 맞은편 의자에 가서 조용히 앉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방안조명만으로 부족하시여 탁상등까지 가까이 당겨놓으시였다. 고요한 방안에서는 한동안 문건 번지는 소리만이 울리였다.

《무땀합니다.》

문건을 덮으시며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이께서는 과연 이것으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우리 수령, 우리 혁명, 우리 당앞에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수 있는가고 물으시듯 한상규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한상규는 머리를 숙인채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그가 고심한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수 있었다. 그때의 보고서는 어느때 쓰던 당총회보고서와 근본적으로 달랐기때문이었다. 당의 전도가 비껴있다고도 볼수 있는 보고서를 쓴다는것은 그로서 매

우 아름답찬것이였다.

더구나 당일 회의집행부에 수령님을 모시고 박금철, 리효순, 김도만 등 당내 요직인물들에게 비판을 가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적인 직위에 있으면서 양봉음위하였기때문에 우리 혁명에 끼친 해독적후과가 더 크고 엄중하다고 하시면서 그런자들에 대하여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이름을 다 찍고 죄행자료를 심각히 분석폭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보고에서 관료주의, 당세도, 형식주의, 행정대행 등 낡은 사업방법을 마스기 위한 문제도 제기하여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수립문제를 기본으로 제기하고 이번 총회에서 토의대책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첫째가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수립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번 회의의 기본입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당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총회보고를 청취하면서 놀라움과 분노와 함께 뼈저린 아픔을 감수하였다.

박금철, 김도만, 리효순, 박용국 같은자들이 지하에 숨어서 쏠라닥거린것도 아니고 당중앙위원회의 사무실에 버젓이 틀고앉아 당의 기초를 파헤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수많은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부장, 부부장, 과장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몰랐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보고 듣고 느끼고있었지만 당의 요직에 틀고앉아있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정면에서 호되게 답새길수 있는 용단이 부족했다.

주체64(1975)년 7월 21일부터 8월초사이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장군님께서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내가 조직지도부 지도원의 신분증을 가지고 조직하였습니다. 원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같은 회의는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 조직하였어야

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자신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에 대한 긍지보다도 당의 신임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우리들, 조직사상사업부문의 일군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1960년대에 대한 가슴아픈 추억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현대수정주의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 파동이 우리 당이라고 비켜지나가지 않았다.

큰 나라에서 수령의 권위를 혈뜰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고 생각하는자들이 나타나고 회의장에서도 큰 나라의 국가를 먼저 부른 다음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얼뜨기주장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어지러운 흐름을 타고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봉건유교사상과 같은 잡사상들이 침습하고 일부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변질과 동요가 일어났다.

그러던 주체53(1964)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해에 현대수정주의의 거두였던 흐루쇼브가 실각되었다.

10월 17일부 소련공산당기관지 《쁘라우다》는 3일전까지 소련공산당 제1비서였던 흐루쇼브에 대하여 주관주의자, 정신착란자, 관료주의자라고 평했으며 그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정치적사건들, 례하면 중국에 대한 정책, 까리브해위기, 수에즈운하사건시기의 결정 등에서 범한 오류들을 짚어가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흐루쇼브의 실각은 곧 현대수정주의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흐루쇼브가 실각되었다고 해서 현대수정주의가 퇴색하거나 멸망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시었다. 수령님의 예언대로 흐루쇼브가 실각된지 한달밖에 안되어 소련의 새 지도부는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 47돐 경축대회보고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자기 당 제20차, 제22차대회들의 결정을 유효하게 인정하며 그대로 계승한다는 립장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그것은 일시 움츠러들었던 수정주의자들의 기를 돋겨주는 《강장제》의 역할을 하였다.

주체54(1965)년 5월에 있는 일이다.

그해 4월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5월초부터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보좌해드리시였다. 후날 전국의 농촌들에 일반화된 분조관리제가 이때 수령님께서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에 가시여 창조하신것이다.

문평제련소와 문천기계공장, 6월4일차량공장, 홍남비료공장 무연탄가스화건설장 등 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여 하신 수령님의 교시들은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에 돌아오시자 수령님의 교시집행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상규를 만나시였다. 그의 책상우에는 이미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당조직들에 해당되는 수령님의 현지교시집행계획서가 놓여있었다.

벌써 수령님의 현지교시집행계획서를 만들었는가고 기뻐하시는 장군님께 한상규는 난감한 기색을 지으며 《글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방금 비준에 제기했다가 부결되어 내려왔습니다.》라고 대답올렸다.

그가 드린 문건표지에는 놀랍게도 《부결! 본집행계획서는 현지도단위들에서만 세우게 하고 부서에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대책안부터 만들것》이라는 《지시》가 길게 휘갈겨있었다. 당시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위원장을 하던 박금철이 쓴것이였다. 그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교시가 어떻게 평양시와 성, 중앙기관에 맞겠는가고 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리먹였다.

한상규의 책상우에는 수령님의 현지교시집행계획서와 함께 박금철이 말하는 사업작풍을 바로잡아야 할 일군들에 대한 자료도 놓여있었다.

후날 한상규는 그때 있는 일을 두고 이렇게 회상하였다.

《…그이께서는 내가 통보서에 쓰려고 따로 놓아둔 어느 한 자료를 집어드시였다. 그 자료에는 중요한 생산성의 일군(전기석탄광업성의 한 부상이라고 생각됨)이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현지에 내

려가 생산전투를 지휘하는 과정에 범한 작품상결합들이 적혀있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시었는데 그것도 류사한 내용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료를 나의 앞으로 밀어놓으시며 여기에 써여 있는 결합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타이르고 비판을 주어도 능히 고칠수 있는것이 아닌가, 수령님의 교시를 어떻게 하나 관철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보대상으로 만들면 뭐가 좋을것이 있는가, 이런 자료가 누구에게 필요하며 무엇때문에 만드느라고 물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현지교시집행계획서를 오래도록 다시 보시다가 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이번에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돌아보면서 느끼였지만 나쁜 놈들의 이색적인 <지시>가 벌써 아래에까지 번져갔습니다. 개별적인 <일군>의 <지시>를 수령님의 교시와 구분하지 못하고 다 당정책으로만 알고 집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시고는 수령님께서 청산리교시집행정형총화를 공산주의사회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시면서 지금 당안에는 흐린 공기가 떠돌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한상규는 청산리교시집행정형총화를 그만두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씀에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수령님께서 주체49(1960)년 2월 청산리를 현지도하실 때 직접 수행한 일군이였다.

중앙당학교(당시)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그가 당중앙위원회로 소환된것이 그해 1월이였는데 그는 부서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산리에 나가 수령님의 결에서 당사업의 실천적인 묘리를 터우고 돌아왔다. 그래서 청산리에 대한 감정도 류달랐고 종종 청산리야말로 자기가 다닌 진짜 《당학교》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는 수령님의 결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농민들과 담화하는 방법, 아래실정을 료해하는 방법, 일감을 주고 총화하는 방법,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방법, 당일군이 갖추어야 할 품모에 이르기까지 많은것을 배웠다.

청산리당총회와 강서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도 참가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전과정을 목격한 그로서는 청산

리교시집행정형총화사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섬쩍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방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가 아래단위에까지 잘 관통되지 않고 있는것을 발견했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물으시였다.

《지금 당안에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가 어떻게 서있습니까?》

《수령님의 교시가 계시면 필요한 일군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전달합니다. 간혹 회의실에서 록음을 청취하기도 하는데…》 하고 한상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수령님의 교시를 조직적으로 전달침투하는 체계는 당중앙위원회부터 세워져있지 않았던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지 않기때문에 개별적인 일군들이 지시하면 아래에서는 그것을 당의 의도로 알고 그대로 받아물고있다고 하시면서 부서에서 수령님의 교시가 아래단위들에까지 관통되지 않고있는 원인을 찾아내며 특히 개별적일군들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문제들이 좌지우지되는데 대하여서는 경각성있게 주시할뿐아니라 제때에 수령님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투쟁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나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는 1960년대의 일군들 속에는 당의 요직에 틀고앉아있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외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내부와 아래단위들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을 포착하고도 제때에 보고하는 실례가 드물었다.

때문에 박금철, 리효순, 김도만과 같은자들이 활개치며 제할짓을 다하고 돌아칠 때에도 지방과 성, 중앙기관들에 대한 하부지도체계를 가지고있는 당중앙위원회 중요부서들에서조차 청맹파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당총회에서 보고서는 한상규가 읽었지만 그 하나하나의 자료들은 모두 장군님께서 밝혀내고 비수같이 박아넣어주신 자료들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때 집무실에서 당조직선을 통하여 종합보고된 자료들을 가지고 결론하신것이 아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분쇄하고 당의 운명을 수호하시였다.

그날밤 한상규는 수령님께서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대책해나갈데 대한 문건을 다시 작성하였다.

한 일군의 정신상태를 바로잡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에 의하여 당의 기틀이 흔들리고있는것은 문건이나 몇개 작성하는것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였다.

그 시기 박금철의 독단과 전횡은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지금의 당창건사적관건물에 그때에는 당력사연구소가 들어있었는데 어느날 평양시인민위원장이 수령님을 찾아와 《수령님, 그 집에서 우리 당이 창건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건물을 내도록 지시만 주시면 저희들이 집을 수리하고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의견을 접수하고 당력사연구소에 건물을 내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그러나 박금철은 오히려 건물을 내주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정반대의 《지시》를 재정경리부에 떨구었다. 이렇게 박금철이 당조직부위원장의 직무에 있으면서 한짓이란 하나부터 열까지 실통히도 수령의 명령지시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행동들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박금철의 죄행에 대하여 이렇게 폭로하시였다.

내가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많이 떠드는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서를 만들 때 거기에 나의 이름을 자주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인가 회의장에 들어가니 모두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버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따위짓을 하는가, 하루쏘브가 회의할 때 지도간부들이 나와도 일어서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라고 하였다. 지도간부들이 들어오는데 레절상으로 일어서는것이 어째서 나쁜가, 거기에 무슨 개인미신이 있는가, 우리도 구라파자유주의식으로 다리를 버리고 앉아야 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회의에 온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때까지 그것을 조직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사업담당 부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싶은것은 어떻게 되어 박금철동무가 개인미신문제에 대한 하루쏘브의 사상을 받아들였는가 하는것입니다. 만일 박금철동무가 진정으로 당을 위하고 나를 위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말하였지만 만일 동무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떳떳하게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제기하여 결론을 받아가지고 할것이지 무엇때문에 도적고양이식으로 뒤에서 개인미신, 개인미신 하면서 벅적고았습니까?...

나는 현지지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미 결정한 문제들가운데서 좀 고칠 필요가 있는것을 발견하면 어느 하나도 내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현지지도를 끝내고 돌아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나 비서국회의를 열고 그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과 부수상들을 모여놓고 내가 아무데 가보니 이러저러한것들이 잘못되고있으니 어떻게 시정하는것이 좋겠고 이러이러한것들을 더해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을 제기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하고 내각에서 집행할것은 내각에 과업을 주고 당에서 집행할것은 당에 과업을 주어 집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박금철동무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당결정이나 당중앙에서 지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제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그런 실례는 허다했다.

수령님께서 삼복철 무더위속에서 공장과 농촌들을 현지도 하실 때 박금철은 한가로이 피서지에 갔다오면서 검덕광산에 들러 국가계획이 아름답다면 할만큼 하라고 떠벌였는가 하면 보천군에 자기의 《생가》라는것을 꾸려놓고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운동을 편결시킨 유일한 거점》이라는 요란한 해설문까지 써붙이도록 하였다.

보천보는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땅이다. 어리석게도 박금철은 보천보를 찾는 인민의 흐름을 자기의 《생가》라는데까지 끌어들이고싶어했다. 그 속심은 평양에 만경대가 있는것처럼 당의 《2인자》인 자기의 《생가》도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총회과정에 다 폭로되였다.

당총회 첫날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오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일을 하면서 보름이건 스무날이건 회의를 계속하여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날날이 파헤쳐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첫날 회의가 끝난 후 장군님께서서는 부서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앞으로의 회의진행방향을 가르쳐주시면서 오늘 수령님께서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에 너무 격분하시여 당총회를 15일이건 20일이건 계속 하자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날날이 발가놓고 그 뿌리를 송두리채 뽑을 때까지 이번 당총회를 계속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중요한 투쟁방법의 하나가 회의에서 내리비판으로부터 올리비판으로 전환할데 대한 가르치심이였다. 이전시기 당총회들에서는 간부들이나 발언을 하고 지도원들은 웃일군들에게 비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본것, 들은것이 있어도 내놓고 비판을 하지 못하였으며 아래일군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당회의에서 지켜야 할 도덕인것처럼 여기게까지 되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당총회에서 그런 전례를 깨야 한다고 하시며 심각히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호상비판이 억제되고 당안에 2종구름이 조성되었기때문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에 앉아 나쁜짓을 하는것이 목과되었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당원대중이 각성되지 못한 어스끄레한 곳을 찾아다니며 쥐새끼처럼 쓸라닥거렸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아무리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하여도 각성된 당원대중의 눈은 속일수 없습니다.》

박용국을 비롯한자들이 아래일군들이 호상비판에 참가하지 못하게 은근히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자 장군님께서서는 즉시 그에 대하여 되게 문제를 세우며 전체 회의참가자들이 모인 앞에서 신호를 주어 비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각성된 대중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일떠서자 회의분위기는 마치 불을 환히 켜놓은것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장군님께서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휴게실에서 방송으로 회의진행정형을 청취하시였다. 그리고 휴식시간과 오전회의가 끝난 다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곤 하시였다.

박금철의 반당행위를 폭로할 때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종파 그자체가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집단이기때문에 종파분자들이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중심인 수령을 반대하여나서는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박금철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구호를 없애버리려고 책동한데 대하여 까밝히시였다.

주체52(1963)년 2월 6일 대덕산초소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군인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국방병진방침을 제시한데 대하여 설명해주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으로 준비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날의 현지도에 장군님께서도 동행하시였다.

전군이 《일당백》훈련열풍으로 끓어번지는 속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10돛을 맞으며 경축보고회가 열리게 되었다.

보고는 인민군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총정치국 부국장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으러 가니 박금철은 《일당백》이라는 표현을 색연필로 째 그어버렸다.

총정치국 부국장이 왜 그어버리는가고 묻자 박금철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이야 유물론적사고를 해야지 이런 허황한 구호를 병사들에게 내리먹이면 되겠는가,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소라고 하였다.

당시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을 강현수가 한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일당백》이라는 표현은 수령님께서 대덕산초소에 가서 연설하실 때 하신 말씀이다, 그때부터 인민군대 모든 전사들이 《일당백》 구호를 들고 훈련하고있는데 뭐가 나쁜가고 들이댔다.

박금철은 열이 올라 당에서 빼라면 빼라고 소리쳤다.

강현수가 돌아와서 당일행사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최광총참모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어느 얼빠진 놈이 그따위 수작질인가, 박금철이 아니라 그 하내비가 빼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면서 보고회가 진행될 때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 보고문을 냅다 읽었다.

박금철도 그날 보고회에 참가했다가 아연실색해서 총참모장과 총정치국 부국장에게 해보자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박금철에게 수령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빼라말라 할수 있는가, 당부위원장이 어떻게 당을 대표할수 있는가고 면박을 주었다.

조선공산당 제20차대회이후 흐루쇼브가 보내온 대회문헌이라는것을 깊이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당위원장들과 일부 군당위원장들에게 내려보낸것도 박금철이었다.

그런 인물이고보면 큰 나라의 수정주의자들이 《리성적인 제국주의》와 《평화적공존》을 떠드는 때 인민군대에서 병사 한명이 미국놈을 백놈씩 잡는 운동을 벌리겠다니 달가울수가 없었다.

이렇게 당조직사업부문에 박금철이 틀고앉아 수령님의 교시까지 깔아버리는짓을 하고있을 때 당사상사업부문에서는 김도만이 그에

짜지지 않을 망탕짓을 벌려놓고있었다.

김도만은 어느해 10월 당사상사업방향을 토의하는 선전선동부 파장협의회에서 해방전의 로조, 농조운동도 당의 혁명전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력설했다. 신통히도 박금철이 황해남도 배천군 조옥회중학교에 가서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히고 《국내투쟁》도 그에 포함시키라고 췌친 소리와 꼭 같았다. 그러자 리효순이까지 한몫 끼여들어 박금철이 《갑산전통》을 내세우는데 나도 《길주농조전통》을 내세워야겠다고 고아뻘다. 그자들이 떠들어대던 《전통》이라는게 도대체 어떤것인지 오늘날 세대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달동지가 조국광복회 국내하부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지도할 때 박금철은 거기서 주로 문건을 받고 넘겨주는 통신원역할을 했다. 그리고 《해산사건》때 일제에게 체포되어 전향문을 썼다.

박달, 리제순, 권영벽을 비롯한 동지들이 일제교형리들과 맞서 용감히 싸울 때 박금철은 수치스럽게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했을뿐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였다. 그래서 박금철자신도 후에 고백하기를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북행길에 오르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려운형을 알게 되었다.

려운형은 박금철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 싸우다가 감옥밥까지 먹은 사람이라니 평양에 올라가 장군님을 만나뵙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박금철은 려운형과 허헌이 써준 편지를 들고 수령님앞에 나타났다.

이런 내막을 제일 잘 알고있던 사람이 박달동지였다.

박달동지는 수령님을 만나뵙을 때마다 《수령님, 박금철이를 주의하십시오. 저놈이 앞으로 꼭 수령님의 발목을 물고늘어질 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곤 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님께서서는 당총회에서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정전직후인 1954년에 내가 함경북도에 복구건설사업을 지도하러 갔다가 박달동무를 문안하고 온천욕도 할겸 경성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이날 나는 박달동무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박달동무가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어떤자들은 자기 리

력을 속이고 혁명을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며 너절하게 살고도 깨끗하게 산 것처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회의를 소집한 것도 있고 다른 일도 바쁘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인차 돌아왔습니다.

그후 어느날 나는 박달동무가 건강도 좋다고 하고 또 무슨 책도 쓴다고 하기에 시간을 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사진도 찍고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박달동무는 나에게 박금철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평양에 돌아와서 몇명의 상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금철의 문제를 놓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박금철이 감옥안에서 전향문까지 썼지만 일본놈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8.15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미 그를 간부로 등용한 바에는 앞으로 그가 사업을 통하여 당앞에 공로를 세워서 그 죄를 씻도록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후에도 박금철은 자기 과오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으로 좋게 해석하고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종파분자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박금철의 감옥생활문제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금철을 데려다놓고 종파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에게 과오가 크지 마는 사업을 잘해서 당과 혁명앞에 충실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박금철은 그런 엄중한 죄를 당에서 용서받았으면 정말 겸손하게 행동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적극 몸바쳐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대신에 도리어 잔뜩 교만해져서 마치도 해방전에 조선혁명을 자기 혼자 다한 것처럼 우쭐렁거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비서라는 직권을 악용하여 아래사람들에게 함부로 호통을 치고 모든 사업에서 흑심한 전횡을 부리는 한편 종파주의적수법으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모으는 나쁜 장난질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리효순은 어떤 인물인가.

리효순은 리제순동지가 일제에게 희생된 후 제수인 최채련이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가야했는데 로자를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자 돈이 어데 있는가고 딱 잡아땀다. 빈손으로 길을 떠난 최채련은 로상에서 간난신고를 다 겪다가 다른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자들에게서 어떻게 우리 당의 뿌리로 되고 후대들이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이 나올수 있겠는가.

하기에 수령님께서서는 그런 사실들을 회고하시면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것을 자랑하자고 그 전통을 내세우는것이 아니다, 아무리 찾아보아야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전개한 항일혁명투쟁보다 더 빛나는 전통은 없으며 총을 잡고 15성상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이긴 전통이야말로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빛나는 혁명전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것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정식화를 주시였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창시할수 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의 전통입니다. 혁명투쟁과정에 수령이 창시한 사상, 리론, 방법은 곧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을 이룹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심도와 폭에 있어서 어느 나라 력사에서든 료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며 간고한 혁명실천투쟁속에서 독창적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억년 드높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됩니다.》

장군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항일혁명투사들은 세상에서 제일 크고 든든한 돌을 높이 깎아세우고 자자구구 쪼아박아야 할 명제이라고 감탄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1960년대에 당중앙위원회에서 아침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독보하는것을 제일먼저 일과화한 부서가 바로

장군님께서 사업하시던 조직지도부였다.

주체55(1966)년 5월경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와 성, 중앙기관 사업을 료해하시다가 대학생들이 회상기학습과 사회정치활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나니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반영이 제기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지 대학생들속에서 제기된것이 아니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교묘하게 환기시킨 여론이라는데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상규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영향이 벌써 교육부문에까지 미치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료해한데 의하면 당중앙위원회의 모모한 인물이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회상기책이야 집에서 소설식으로 볼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걸 학교에까지 들고나와 조직적으로 발표한다 어쩐다 야단하지 말라고 떠벌였다고 하시면서 《그 인물이 바로 박금철입니다.》라고 짚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에는 대학생들이 군사훈련이나 실습을 떠날 때 회상기책부터 가방에 넣곤 하였는데 지금은 《목민심서》 같은것을 안고돌아간다고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금 놈들이 하는 행동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실무적인 착오가 아니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만이 할수 있는 의식적인 책동입니다.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이 교훈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기 맑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을 반대한 기회주의자들도 다 자기 수령의 권위와 자기 수령이 이룩해놓은 업적들을 허무는데 온갖 화살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2년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적발폭로된 박헌영도 당을 두목으로 하는 화요계종파도 그랬고 1956년 8월전원회의에서 폭로숙청된 최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엠엘계종파도 레외없이 다 수령님의 높은 권위와 수령님께서 이룩해놓으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거부해나섰습니다.

종파분자들이란 수령을 반대하는자들입니다. 종파는 당을 반대하

는 집단으로서 종파분자들은 다 나라의 역적들입니다.

종파와의 투쟁은 수령님을 옹호보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당내의 심각한 계급투쟁입니다.

그이께서는 요즘 당중앙위원회에서도 혁명전통학습을 잘하지 않고있는데 여기에도 그자들의 영향이 암암리에 미친것 같다고 하시면서 조직지도부에서부터 매일 회상기독보를 진행하여 본보기를 창조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당시 세포위원장사업을 한 김종호의 회상에 의하면 장군님께서 회상기독보분공을 자진하여 맡으시고 아침독보를 집행하신적도 여러차례나 된다고 한다.

원래 이런 본보기는 당사상사업을 맡은 선전선동부에서 먼저 창조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김도만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잠자리에서나 보기 좋은 간단한 옛말이라고 하면서 회상기를 짚을 자재로 왕청같은 《목민심서》를 수십만부나 짚어 온 나라에 퍼뜨렸다.

오죽했으면 수령님께서 당총회가 벌어지던 어느날 밤에 김도만을 전화로 불러 당신은 어째서 하라는 혁명전통교양은 하지 않고 《목민심서》따위 책을 자꾸 짚어 내리먹이는짓을 했는가고 따져물으셨겠는가. 김도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미풍량속을 가르쳐주려고 한번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팬찮더라니 간부들이 모두 읽으라고 내리먹였습니다, 팬히 싱거운짓을 한번 했습니다라고 얼버무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당총회를 지도하시면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나는 어제 저녁에 김도만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사람이 중앙당 비서이고 선전부장이니 우리 당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후날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돌이켜보시면서 그때 아래당조직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제일 잘 싸운 사람들은 한영옥, 조세웅, 리봉길이라고 추억하시였다.

한영옥과 조세웅은 평안북도에서 당일군으로 사업했는데 한영

옥은 창성군당위원장, 조세웅은 어느 한 기계공장 당위원장사업을 하였다.

7개년계획수행기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지방당조직들을 하나씩 담당하여 지도사업을 벌릴 때 김도만이 평안북도를 맡았다. 그 통에 평안북도가 김도만의 수정주의바람에 굉장히 시달렸다.

김도만은 민청조직들에서 올해에는 련못을 파고 정각을 짓고 내년에는 무도장을 꾸리고 오작교를 놓는다는 식의 《10개년계획》이라는것을 작성하며 농촌들에서는 《향토사》를 써바치라고 정신차릴새없이 들볶아댔다. 그자는 당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있는지, 산골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지 그런것은 알고고도 하지 않고 옛날 지주놈들이 즐기던 《나비쌍쌍 날아간다》는 노래나 부르고있었다.

당시 기계공장 민청위원장이 김도만이 조직했다는 《방식상학》이라는데 참가하고 돌아와서 우리 공장에도 《10개년계획》을 써붙이고 무도장도 꾸려야겠다고 반영한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조세웅은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도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뭐 말라죽은 김도만의 과업인가고 하면서 펄펄 뛰었다.

후날 장군님께서서는 조세웅이 기계공장에서 당위원장으로 있을 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지시를 받아몰지 않았다고, 그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지시를 받아몰지 않고 수령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는데서 조세웅과 리봉길이 앞장섰다고 회고하시였다.

리봉길은 자강도에서 어느 한 기계공장 당위원장을 했는데 개별적간부들의 《지시》라면 무작정 모두 거꾸로 집행했다. 수령님의 석고상을 내려모시라고 하면 더 높이 모시였고 《나비쌍쌍 날아간다》를 부르라고 하면 《적기가》를 보급했다.

후날 그는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튼튼히 선 투철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자 《제가 그만한 사람은 못됩니다. 그저 김도만이랑 노는 꼬락서니가 더럽더라니 그것들이 하라는건 다 거꾸로 해야 옳은거라고 생각했지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얼마나 소박한 대답인가.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어디서 특별히 더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실체험을 통하여 오로지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셔야만 잘살 수 있다는것을 절감한 평범한 일꾼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이자 1960년대 우리 인민의 모습이였고 그들의 신념이자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그때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이라는 생각만 앞세우시였다라면 당사업시작 3년만에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송두리채 들어내는것과 같은 력사적인 장거를 단행하기 어려우시였을것이다. 장군님께서 수령님께 충직한 전체 조선인민의 지지와 신뢰의 힘에 의거하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조직지도하시였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였다. 당시 사로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한 김정숙이 체험한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뜨겁다.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일을 보고 예고없이 불쑥 장군님의 부서사무실로 찾아갔던 그는 눈물겨운 광경앞에 그만 굳어지고말았다. 장군님께서 책상우에 팔베개를 펴놓으신채 쪽잠에 드신것이 아닌가. 겹쌓인 피로에 더이상 몸을 지탱할수 없으시였던것이다.

문앞에 굳어진채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노라니 눈굽이 젖어들었다. 그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돌아서는데 장군님께서 깨어나시였다.

《왜 그냥 돌아갑니까?》

《그저, 너무 뵈고싶더라니 잠간 들러보려고 왔했는데 곤하게 쉬시길래...》

장군님께서 마침 잘 왔다고 하시며 손가방안에 입술에 바를만 한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자기가 잘못 들었는가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고 물음을 되올렸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누가 그러는데 물통게가 진데는 입술연지

가 약이라기에 룡담삼아 물어보았다고 하시면서 곧 수령님을 만나 뵈워야겠는데 야단났다고, 눈이 충혈진데다가 입술까지 부르텠으니 걱정을 끼쳐드릴가봐 녀려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던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첫 3년은 이런 로고속에서 흘러갔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준비하는데 얼마만한 시일이 걸렸는가를 누구도 감히 계산해낼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였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아니 그 이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주체75(1986)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들속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 대하여 말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당이 어떤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는가를 알수 있도록 당총회에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재침투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할 때 내가 집행하였다. 그때 객석을 내려다보니 긴장한 나머지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는것만으로도 가슴벅찬데 그것을 눈앞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력사의 온갖 도전속에서 당의 운명을 책임지고 지켜내셔야 했던 장군님의 로고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주체56(1967)년 1월 12일이였다.

하루해가 기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허담의 전화를 받으시였다. 그는 사업을 전폐하고 급히 만나뵈울 일이 있다고 청을 드렸다. 평시에 침착하던 허담이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전해말 우리 나라 당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주은래총리는 나는 요즘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번역하여 읽고있는데 정말 탄복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런 훌륭한 로작들을 번역하여 출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좋은것을 가지고있으면서

도 자랑할줄 모른다고 의견을 준 일이 있었다.

그 말을 전해들은 허담은 자기 사업을 심각히 반성해보면서 수령님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면서 이 문제를 해당 부서에 제기하였다.

그 제기는 대번에 묵살되었다.

박용국은 허담을 전화로 찾아 왜 그리 생각이 짧은가, 큰 나라에서도 내놓지 못한 농촌테제를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서 내놓았다고 자랑하면 그들이 좋아할것 같은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보류하라고 일축해버렸다.

박용국은 당시 국제부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있던 국제생활사의 주필을 겸하고있었다.

그자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것은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때 있었던 일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때 박용국은 중앙민청위원장으로서 주머니에 두개의 연설문을 넣어가지고 회의에 참가했다. 하나는 최창익파가 우세할 경우 당을 반대할 연설문이였고 다른 하나는 정황이 바뀌는 경우 《지지》할 연설문이였다.

내가 국제생활사에서 체험한 사실은 더 생동하다. 그때 우리는 새 론설을 하나씩 써낼 때마다 많은 고충을 겪었다. 당내 교양자료도 아니고 온 세상이 읽어보고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립장으로 받아들이게 될 글을 우리 힘만으로 써낸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때마다 박용국이 나타나 체계는 어떻게 잡고 내용은 어떻게 전개할것인가를 쭉쭉 내리풀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하였다. 솔직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용국의 굉장한 《정치리론수준》에 탄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후날 밝혀진데 의하면 그자가 내리풀곤 한것은 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말처럼 읊긴것이였다.

결국 허담이 장군님께 긴급접견을 요청한 그 당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이미 5만부나 출판되였으나 대외보급은 하지 못하고있었다.

허담은 박용국에게 《세상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뭐가 이르단 말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업은 미룰수 없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리고 장군님께 접견을 요청하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허담을 데리고 모란봉으로 올라가시였다. 땅우에도 나무가지들에도, 고색질은 울밀대와 칠성문의 지붕이며 란간들에도 온통 눈이 덮여있었다. 하지만 장군님의 마음이 그 눈부신 설경에는 전혀 가닿지 않고있다는것을 허담은 감촉하였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서는 불쑥 그에게 물으시였다.

《인도네시아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까?》

《그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나도 잊을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때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육종한 란초과꽃에 《김일성화》라는 이름을 지어 수령님께 올리면서 《김일성수상님의 권위에 비하면 조선의 땅덩어리가 너무 작은것이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수상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니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이어 허담과 함께 수령님께서 드신 숙소주변을 거닐며 지새우신 인도네시아의 마지막밤도 추억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인도네시아방문기간 자신께서 받은 가장 큰 인상은 수령님의 권위야말로 우리 조선의 힘이고 재부이며 영광이라는 진리였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하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인민이 위대하게 살아오지 못한것은 위대한 그 힘을 한 목적으로 향도할수 있는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탓이였다. 현대조선혁명운동만이 아닌 멀리 봉건시대까지 거슬러보아도 우리 인민의 힘은 무궁했으나 뭉칠새 없었고 뭉칠곳이 없었다.

과거 일제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조선사람 한사람은 강하다, 그러나 두사람은 약하다고 하면서 파쟁과 분열이 마치 조선의 민족성인듯이 모욕하였다. 그런 일제를 찌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 아릅드리나무는 꺾지 못하리라는 신념을 안고 때려부신 사람들이 바로 수령님의 두리에 뭉친 새 세대 혁명가들이였다.

홀어졌던 인민의 슬기와 힘을 모으신분, 인민의 의지를 한몸에 체현하고 혁명의 유일중심으로 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런데 한줌도 못되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인민이 찾은 그 구심점을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

아마도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묻고싶을것이다. 어떻게 되어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그런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엄청난 행위들이 저질러질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시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우리 당안에서 이러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이후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토론된바와 같이 1956년에 반당종파분자들을 숙청한 다음 우리는 마땅히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반당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교양사업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데로부터 일부 당원들속에서는 화요파와 엠엘파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분자들이 숙청되었으니 다시는 우리 당안에 반당종파분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것이라는 환상이 조성되었으며 반당종파분자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이 변하는것처럼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은 좋게 변할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상이 썩을수 있으며 따라서 당안에서 반당분자들이 나라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이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안일해이해져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사상

교양사업을 강하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망각하였으며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방해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무심히 대하였습니다.》

...

눈내리는 모란봉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단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묵묵히 서계시다가 《이해의 눈은 왜 그런지 참 무겁구만.》라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어쩌면 이때 그이께서는 멀지 않아 벌어지게 될 반당수정주의 분자들과의 결산을 마음속으로 각오하시였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주체56(1967)년 새해에 내리는 눈이 왜 그토록 그이의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쌓였겠는가.

그날밤 허담은 온몸에 눈을 가득 뒤집어쓰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의 회상에 의하면 허담은 집에 돌아와 탁상등아래 책을 펴놓고 밤새 무슨 글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담이 밤새껏 쓴 글은 《김정일동지께서 최승대에 올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시였다.》라는 단한문장뿐이였다.

거기에 덧선을 얼마나 그였는지 붓글을 쓴것처럼 획이 굵어지고 뒤편지에 눌리운 자리가 생겼다. 허담이 구태여 자기 심정을 따로 피력하지 않았지만 몹시 흥분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라는 말이 왜 그토록 허담을 흥분시켰겠는가.

거기에는 아직 력사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이 깃들여있었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주체34(1945)년 10월 10일은 우리 당의 창건일이다. 그러나 이날 당창립대회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1비서로 선정된것은 평안남도당 책임비서였던 김용범이였다. 2비서로는 함경남도당 위원장이였던 오기섭이 선출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다른 요직들에도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내세워주시였다. 지어 이날 당창립대회에서 선출된 14명의

집행위원들중에 빨찌산출신은 어버이수령님과 김책동지밖에 없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모든것을 양보하시였다.

그럼에도 당창건후 첫걸음부터 우리 당은 소련과, 중국과, 서울과 등 잡다한 세력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이 서로 대립하여 당리당락을 추구하는 혼잡판으로 되어갔다.

누구도 그것을 바로잡을수 없었다.

김용범은 자기 능력으로 분렬와해되어가는 당의 운명을 지켜낼수 없다고 인정하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를 앞두고 수령님을 찾아갔다. 그는 1925년 과거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체험하던 가슴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복잡한 정세를 타개하고 당을 구원하실분은 오직 김일성동지밖에 없다고 정식으로 청원하였다.

그 회의때 함경북도당 선전부장이였던 박우현도 연락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감옥생활과 투쟁경력을 자랑하는데 내놓고 말해보자. 나는 8.15이후에야 감옥에서 나왔다. 당신들은 다 그전에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기껏해서 옥살이를 하고있을 때 김일성장군님은 이국땅 설한풍속에서 20여성상 왜놈들과 싸우며 해방조선을 안아오시였다. 이 자리에 그분보다 더 큰일을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나서보라.》고 웨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력사적보고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와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라는 결론을 하시고 참가자들의 일치한 의사로 우리 당의 수위에 추대되시였다. 주체34(1945)년 12월의 일이었다.

당창건으로부터 제3차확대집행위원회까지 불과 두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당은 자기의 운명을 오직 김일성동지께만 의탁할수 있다는 진리를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깨달았다.

이런 의미에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앞두고 허담이 장군님으로부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아안은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한생을 회고하는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글을 쓰면서 나는 오랜 세대 일군으로서 꼭 이야기하고싶은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인류사상 가장 심오하게 총화지으신분은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이다.

주체55(1966)년 봄부터 주체58(1969)년 여름까지 그이께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신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 나타났던 종파와 수정주의와의 투쟁사를 종합적으로 분석총화하신 나날이었다는데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이 시기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의 일부 제목들만을 적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현대수정주의의 발생에 대하여》(1960년 10월 28일)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끼친 종파분자들의 죄행에 대하여》(1961년 1월 23일)

《제1국제당안에서 벌어진 반기회주의투쟁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1961년 2월 27일)

《제2국제당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에 대하여》(1961년 4월 29일)

《조국해방전쟁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저지른 죄행을 잊지 말아야 한다》(1961년 9월 25일)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한다》(1962년 3월 15일)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반수정주의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에 대하여》(1962년 12월 29일)

...

이렇듯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에 나타났던 수정주의와 우리 나라에서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에 대하여 이미 완벽한 총

화를 지으신분이시였기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와 같은 거대하고도 치열한 정치투쟁을 주도하실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의 보고서를 준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전당적으로 쓰게 되었는데 유일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유일이라는 말은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핵이 없는 물질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당은 오직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당이 존재하는 한 당건설과 당사업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 기본이며 생명입니다.》

어느덧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있었다.

우리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고있었다.

주체56(1967)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9명과 후보위원 60명, 당중앙검사위원 9명이 참가하였으며 방청으로 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첫째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둘째로 조직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문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김일동지가 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완성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의 보고문은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지로 무장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곧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회의장에 보고문의 첫 구절이 울리고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오를 때 장군님께서서는 휴게실에 홀로 조용히 앉아계시였다. 그이께서 무엇을 생각하시였는지, 무엇때문에 눈굽을 적시셨는지 오늘은 누구나 다 안다.

그때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간 주체71(1982)년 6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하신 연설 《당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그때를 회고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때에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정체를 들춰내고 그들을 반대하여 투쟁한것은 그 누구에게서 과업을 받았거나 조직비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과장이 되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하는것이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말아하였습니다.》

오늘날 력사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된 회의라고 긍지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렇다. 주체56(1967)년의 봄은 우리 당에 있어서 력사의 사나운 눈서리를 이겨낸 환희의 봄, 승리의 봄이였다.

오늘날의 새 세대 당원들은 가슴에 붉은 당원증을 지닐 때 우리 당의 창건일과 함께 그 봄을 소중히 새겨안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로동당은 이 봄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기때문이다.

3. 새날의 방송개시신호악

1960년대에 대한 추억은 친근하면서도 숭엄한 두소절의 선율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나라의 새날을 알리며 방송개시신호악으로 울리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이제는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조선중앙방송개시신호악의 선율을 처음으로 듣던 그날의 환희로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때의 벅찬 환희에 못지 않게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것이 있다. 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가 방송의 개시신호악으로 울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혁명과 사람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천을 가져왔는가 하는 그것이다.

그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사상전선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내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율이 새날의 방송개시신호악으로 울리기 시작한 력사적사실에 각별히 력점을 찍는것은 이때문이다.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중학생들까지 혁명적수령관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있지만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이런 표현이 통용되지 않았다.

세계정치사에서 혁명적수령관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내놓고 그것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라고 정식화하신분은 김정일동지이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령은 인민대중

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며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준다. 인민대중은 수령으로부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수령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인다.

이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력사가 이미 증명한 진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장군님의 사상은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며 당면하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에서 출발점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리론적기초로 되었다.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수령님의 력사가 흐르는 이 땅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대를 이어가며 해야 할 항구적인 사업이며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나라가 해방된 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그때까지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 위대한 혁명업적에 대한 연구와 소 개선전은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타파하고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주목하신 곳이 바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였다. 그이께서 방송부문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게 된 것은 당시 우리 방송의 실태와도 관련되어있다.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 와서도 중앙방송위원회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었다.

김도만과 같은자들에 의하여 사상사업분야에 부식된 부르쵸아 수정주의의 물결은 방송부문에 돌리들었다. 방송은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잃고 남의 장단에 흔들리고있었다.

우리의 방송일군들은 남의 나라 방송들에서 보도를 적게 한다고 하여 그 회수를 줄이는 방향에서 보도편성을 하였으며 청취자들이 제일 기다리는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외국의 기악곡들을 지루하게 내보내는가 하면 고정방송시간의 표제와 편집물들의 제목도 남들의

본을 따서 달았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잃고 남의것을 우상화하던 나머지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모방한 《새 형식》들이 《대중교양실》, 《학생무대》, 《아침의 메아리》, 《심야의 멜로디》, 《내가 사랑하는 노래》와 같은 간판을 가지고 연줄연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형식들의 출현은 방송을 계급성이 없는 하나의 오락수단으로만 들려는 무사상적인 경향의 표현이었으며 사상사업을 다양화, 통속화 하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외곡이고 비속화였다.

방송보도와 편집물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느 공장에서 무슨 창의고안을 했다는 사실은 요란하게 내보내면서도 우리 조국의 벽찬 현실과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해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떠들지 않았다.

방송은 음악편성에서도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시대적분위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통속가요》라는 미명하에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저속한 노래들을 망탕 내보내고있었다. 그 무렵에는 방송에서 어느 고망년에 나왔는지 알수 없는 옛 노래들도 왕왕 흘러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의 물을 먹다 못해 그 사상독소에 오염된 사대주의, 수정주의분자들은 방송의 《중립화》를 떠들면서 방송선전에서의 정치성을 거부하는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의 혁명적성격을 살릴데 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니 수령님의 위대성선전도 미미하게 할수밖에 없었다.

방송부문 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면 우선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고 방송사업전반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는 사업기풍을 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한점의 불꽃을 지피고 그 불꽃으로 방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그 한점을 어떻게 선택할것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중앙방송의 개시신호악을 새로운 선물로 바꾸는것으로 방송혁명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로 결심하시였다.

주체54(1965)년 4월 25일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구상을 안으시고 중앙방송위원회 음악조직부를 찾으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지 며칠 안되는 때였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열대의 폭양밑에서 쌓인 피로도 다 잊으신듯이 부서의 창작가들과 열정에 넘쳐 담화를 하시였다.

《그날을 추억할 때면 장군님께서 친히 마련해가지고오신 인도네시아산 남방파일이 먼저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이께서는 그때 과일꾸레미를 터치시고 동무들생각이 나서 가지고왔으니 맛이나 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손수 한알한알 권하시였는데 온 방안에 과일향기가 차넘쳤습니다. 그 향기는 그대로 사랑이었습시다.》

음악조직부에서 작곡가로 활동할 때 장군님의 접견을 여러차례 받은 김영신이 생전에 한 말이다.

그날 누군가 남방파일을 받아들고 이런 파일이 열리는 나라는 분명 살기 좋을것이라고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가로저으시며 얼마나 무더운 나라인지 혼났다고 하시고는 《이것 좀 보시오.》라고 하시면서 팔소매를 걷어올리시였다. 열대의 폭양에 그슬린 그이의 팔굽은 거무스레한 빛을 띠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오래전부터 남다른 인연을 맺어오신 음악조직부의 창작가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는 기간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것을 느꼈다고, 현시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세계의 진보적인사람들과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존경하는가를 생동하게 체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을 국민중의 국민으로 맞이한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환영 열도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였다. 물론 이런 환영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였다.

전후에 중국과 소련에 가셨을 때에도 그렇고 동유럽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을 방문하실 때에도 수령님께서서는 것처럼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였다. 몇해전 상해에 가셨을 때에는 10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수령님을 환영하였는데 세계의 통신과 언론들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크게 떠들었는지 모른다.

세계의 어느 나라 수령이 과연 이처럼 성대한 환대와 환영을 받은적이 있는가. 우리 수령님의 세계사적인 업적과 위인상앞에서는 자본주의나라 수반들과 정객들, 장군들도 머리를 수그린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버이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이고 영광인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예술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 《내고향》, 《산으로 바다로 가자》와 같은 우리 나라 명곡들을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는데 대해 알려주시고 방송을 통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음악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크다, 음악은 호소성이 높고 감화력이 크기때문에 방송에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노래를 많이 내보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것은 방송음악의 주제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시간이 얼마쯤 흐르자 장군님께서는 만남김에 한가지 의논하고싶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인도네시아체류기간 조선중앙방송의 파장을 찾아 조국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좀 생각되는것은 방송개시 신호악문제라고 력점을 찍어 말씀하시였다.

음악조직부의 일군들은 이것이야말로 장군님께서 자기네 부서를 찾아주신 기본용건임을 인차 깨달았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방송의 개시신호악이 푹푹치 않다, 하루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개시신호악은 방송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 방송의 개시신호악은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시였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여서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군님의 다음말씀을 기다렸다.

당시의 중앙방송개시신호악은 리면상이 작곡한 서정가요 《봄노래》의 첫 선률이였다. 《봄노래》의 첫 선률이 어떻게 되여 중앙방송의 개시신호악으로 될수 있었겠는가. 나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는 가요 《봄노래》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전체 인민이 즐겨 부르는 명곡으로 된데로부터 이 노래의 첫 선률을 따서 방송개시신호악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다른 하나는 그 당시 모스크바방송이 레닌상수상작품인 유명한 서정가요 《모스크바교외의 밤》의 첫

선물을 방송개시신호악으로 하고있는데서 일정한 시사를 받고 《봄노래》의 첫 선물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이다.

이 두가지가 다 작용했을수도 있다.

가요 《봄노래》는 1960년대말에 조직된 우리 나라 국가중창단의 여성중창곡으로 형상되어 국제무대에 진출할 정도로 인기를 모은 명곡이었다. 이 노래의 첫 선물을 조선중앙방송의 개시신호악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응당한것으로 받아들이었다. 민족성이 강하고 유순하고 우아한 《봄노래》의 선물이 아침마다 방송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울린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시비하겠는가.

설사 조선중앙방송의 방송개시신호악이 모스크바의 방송개시신호악에서 암시를 받아 만든것이였다고 해도 그것을 크게 문제시할 건덕지는 없을것 같았다.

그런데 김정일동지께서만은 우리 방송의 개시신호악을 두고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시는것이였다.

창작가들은 모두 가슴을 조이였다. 짧은 순간이였으나 그들은 우리 방송의 성격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였다.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로동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이다. 이것이 우리 방송의 성격이고 사명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물이 우리 방송의 성격에 적합한 선물로 될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우리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목소리이며 주체조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송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악은 마땅히 수령님과 관련된 음악으로 되여야 합니다.》

수령님과 관련된 음악!

장군님의 말씀은 지진과도 같은 거대한 충격으로 창작가들의 심장을 흔들어놓았다.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살며 일하고있는 이 벽찬 현실, 위대한 천리마시대가 어떻게 되여 이 땅에 펼쳐지게 되였는가를 두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1960년대는 우리 공화국이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고 폐허에서 새로운 생활을 창조해나가던 격동의 년대였다. 그것은 사회주의라는 새 제도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진 천지개벽이였다.

한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신년사를 청취하곤 하였다. 절벽을 들부시는 파도의 울부짖음도 잠재울수 있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전국도처에서 새로운 공장들과 학교들과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열흘이 멀다하게 준공식이 거행되고 그때마다 수령님께서 가위로 붉은 테프를 끊으시었다. 그 붉은 테프는 건설의 년대인 1960년대의 상징처럼 인민의 망막속에 깊이 새겨졌다.

수령님께서 산을 옮기라면 산을 통채로 옮기고 바다를 막으면 날바다를 단숨에 막는 충직하고 근면한 인민의 로동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부를 쌓아 1960년대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복 많은 년대로 만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고장에 가시여도 인민이 누리는 복이 만족하시여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웃으시었다.

수령님의 그 환하신 영상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간직되어있었던것은 너무나도 웅당한 일이었다. 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흠모의 정은 하늘을 찌르고있건만 우리 방송일꾼들은 이 현실속에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창작가들이 자책과 회오로 몸부림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우리 방송의 개시신호악을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계 인민들이 수령님을 흠모하여 높이 부르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률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주체조선의 목소리로서의 우리 방송의 정치적성격이 뚜렷이 살아날수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안목에 광명을 받아안았을 때와 같은 환희의 감정을 체험하였다. 그것은 만사람을 공감시킬수 있는 착상이었다. 방송개시신호악을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률로 한다는것은 음악이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결합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벌써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음악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었다.

음악조직부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

의 첫 두소절을 목금으로 연주하여 만든 방송개시신호악이 완성되었다.

새로운 방송개시신호악이 우주공간을 가득 메우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인민들속에서는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우리 방송이 이제야 자기 목소리를 찾은것 같소!》

청취자들은 이런 말로 방송일군들을 축하해주었다.

그때부터 새벽 5시만 되면 온 나라가 방송개시신호악인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새날을 맞이하였다. 그 신호악과 더불어 전차들이 달리고 집집의 창문들이 열리고 칼도마소리가 울렸다.

방송개시신호악을 들으며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가까이에 계시는듯 한 이루 표현할수 없는 친근감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을 그렸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름 느끼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려는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다.

조선의 하루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고 《애국가》로 막을 내렸다.

새로운 방송개시신호악의 첫 울림!

그것은 《봄노래》로부터 《김일성장군의 노래》에로의 단순한 선률교체가 아니었다. 이 울림은 당사상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예고였으며 장군님의 력사적인 령도의 시작으로 출판보도혁명을 알리는 의미심장한 서곡이었다.

누구나가 미구에 격랑을 일으키며 밀려오게 될 대하를 예감하였으며 력사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점의 불꽃을 일으키고 그 성과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단 몇해사이에 우리 방송을 수령님의 방송으로 만드시었으며 그 성과를 출판보도사업 전반에 일반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방송개시신호악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로 정하신 후 장군님께서서는 방송부문의 작가,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수령송가창작의 선풍을 일으키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직후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창작가들은 강반석녀사를 노래한 가요 《조선의 어머니》를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다.

이 노래를 거듭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가요의 높은 사상예술성에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사도 좋고 곡도 좋다, 특히 노래의 선율이 민족적정서가 진하기때문에 좋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가요 《조선의 어머니》는 즉시 방송을 통하여 낮에는 녀성중창으로, 밤에는 기악중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전문예술단체들과 예술소조들은 녀성중창으로 저마끔 부르게 되였다.

이 가요가 온 나라에 대대적으로 보급될 때 장군님께서서는 아주 좋은 작품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있다, 노래는 이처럼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가요 《조선의 어머니》의 출현은 수령송가열풍을 예고하는 서곡이나 다름없었다.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빛나는 생애와 고귀한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았다. 이 노래의 보급과 때를 같이하여 강연과 학습회들에서는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을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소개선전이 널리 진행되였다.

주체56(1967)년 8월 16일 동해지구 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방송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여 그들에게 수령송가창작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노래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노래들을 발굴하고 창작하는 사업에서 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방송일군들은 누구나 그이의 말씀에서 출발점은 방송에 두었지만 그 폭과 넓이는 장차 전당과 온 사회를 포괄하게 되리라는것을 한결같이 예상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듬해에도 온 나라에 수령님에 대한 송가가 끝없이 울려 퍼지게 하는데서 방송이 한몫을 단단히 담당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수령송가창작사업의 선포, 이것은 수령송가를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음악포성으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고 전체 인민이 수령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해나가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의지이고 신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9(2010)년 11월 3일 이때를 뜻깊게 회고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송가의 음악포성은 중앙방송에서부터 울렸다고 말할수 있다. 1960년대 후반기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으로 수령송가주제의 노래창작이 중단되고 수령송가음악이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있을 때 나는 중앙방송위원회 창작가들에게 수령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많이 창작하고 그 노래를 방송으로 내보내어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방송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심장속에 수령송가창작의 불을 지펴주었다....

주체45(1956)년에 원종소 작사, 박한규 작곡으로 된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작되어 나온 이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중단상태에 빠졌던 수령송가창작은 10여년만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선 중앙방송위원회 창작가들과 일군들에 의해 다시금 활성화되었다.

그 전렬에 전강우, 김정수, 주민, 박인서, 차학철, 강건홍, 김영신, 김몽금, 정자흡, 리승세와 같은 창작가들과 일군들이 서있었다. 여기에 작가동맹과 음악가동맹의 시인, 작곡가들도 합세하였다. 그들이 1960년대 후반기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음악혁명의 포성을 울린 선구자들이였다. 그들이 창작한 가사와 곡들, 그들이 편성한 한 편한편의 음악들이 그대로 화약이 되고 기폭제가 되어 음악발전의 새

로운 시대를 알리는 포성을 울리었고 온 나라를 수령님에 대한 홀모의 열기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작곡가 김정수였다.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수령님의 손길따라》, 《조선의 어머니》 등은 그의 가요창작에서 대표적인 력작들이다. 위대한 스승의 지도밑에 창작된 이 노래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민의 사랑을 받는 국보급가요로 되었다.

해주음악전문학교출신인 김정수는 주체40(1951)년에 평양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진행된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하여 공연의 총지휘자로 활약한 병사출신의 작곡가였다. 그때 그는 화선악기지휘도 하였다.

음악적감수력이 예민하고 선율도 풍부한 사람이었으나 수령송가창작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때에는 곡상이 제때에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움켜잡고 모대긴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때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헤아리시고 책상머리에서만 빙글빙글 돌아가서야 어떻게 좋은 곡상을 잡아칠수 있겠는가, 백두산에도 가보고 만경대와 봉화리 같은 사적지들에 나가 체험도 해보아야 폭이 큰 송가의 울림도 나올게 아닌가고 일깨워주시었다.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들인 작곡가는 불타는 열정과 흥분을 안고 시인들과 함께 인차 백두산으로 현지답사를 떠났다. 전쟁때 다리와 눈을 상한 그에게는 이 답사가 매우 힘에 부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심을 먹고 무릎을 치는 눈길을 헤쳐나갔다. 그러다가 폭풍이 태를 치는 산정에서 눈무지에 빠져 신고를 겪기도 하였다.

김정수의 귀전에서는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 우리 수령님은 이 세상 모든 풍파를 헤쳐왔고 인간이 당할수 있는 그 모든 고초와 시련을 다 겪으시었다, 수령님 계시여 조선이 있고 조선이 세계에 빛난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계속 울리었다. 그는 백두산 상상봉에 올라서야 장군님의 말씀속에 사상도 곡상도 다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백두산의 눈보라와 장엄하고 웅건한 천만산

악이 마침내 그의 뇌리에 것처럼 찾고찾던 곡상을 실어다주었던 것이다.

작곡가의 가슴은 끓어오르는 창작적충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인들이 눈무지속에서 그를 찾아냈을 때 곡상을 잡은 그는 희색이 만연해서 입속으로 선물을 중얼거리고있었다.

2개월동안의 백두산지구 답사는 결국 작곡가에게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의 주옥같은 선물을 선물하였다. 평양에 돌아와 피아노건반으로 그 선물을 짚어가는 김정수의 눈에서는 환희에 찬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시인 전강우가 썼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수만리 눈보라 헤쳤습니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선의 새 아침 밝았습니다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4천만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수령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유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민족적인 맛이 나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김정수의 창작성과를 치하해주시었다.

가요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는 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충정과 백두산의 설경이 작곡가의 가슴속에 불러일으킨 웅심깊은 감정정서가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걸작이었다.

작곡가 김정수는 수령에 대한 인민의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담은 명곡들을 련이어 창작하여 내놓은 1960년대가 배출한 음악의 재사였다. 그는 주체57(1968)년초에 또 한편의 수령송가인 《수령님 한 품속에 우리는 사네》를 작곡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었다. 이 노래는 수령님탄생 56돛을 맞으며 중앙방송으로 보급되어 온 나라 인

민이 즐겨부르는 명곡으로 되었다.

지금도 기록영화를 볼 때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올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수령님을 그리며 눈물을 짓는다.

장군님께서도 주체84(1995)년에도 이 두편의 노래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추억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때 수령님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나오게 된것은 수령관이 서있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때는 우리 나라에 수령님을 칭송한 노래가 많지 못하였다.

나의 지도밑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노래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와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를 창작하였다. 그 노래들의 창작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전환의 계기로 되었으며 우리 당 발전력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그 노래들의 창작보급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우리 나라 음악예술발전의 새시대를 선언한 포성이었으며 반당수정주의분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개척된 수령송가창작을 발단으로 하여 방송부문에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부식시켜놓은 사대와 교조를 불사르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조선중앙방송이 시간을 고정시켜 수령님의 로작들을 매일과 같이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설선전하기 시작한것이 바로 그때부터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위대한 수령, 천리마조선》, 《위대한 수령,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고정표제들을 가지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덕성을 실감있게 방송하였다. 회상실기도서 《인민들속에서》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방송원들이 랑독할 때면 온 나라의 청취자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었다.

조선중앙방송은 《로동신문》에 실리는 중요기사들도 민감하게 받아물었다.

장군님의 지도와 손길이 와닿은 다음부터 지난날 편집물과 편집물사이의 공백을 메꾸는 보조적수단으로 리용되어오던 방송음악은 대중교양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작가, 작곡가들이 훌륭한 가요들을 창작해낼 때마다 《방송에서 취급할것.》, 《노래가 좋습니다. 방송에 인입.》, 《방송에서 많이 편성하도록 할것.》이라는 친필과 함께 그 작품들을 중앙방송에 넘겨주곤 하시었다. 그이께서 친히 골라주신 수백곡의 명곡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면서부터 우리의 방송은 음악으로 약동하고 음악으로 시대의 전진을 떠밀어주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방송으로 되었다.

방송의 새로운 맥박은 온 나라 가정들과 일터들을 뚫어넘치는 활력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신문사와 조선로동당출판사를 비롯한 다른 출판보도부문에서도 힘차게 벌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것으로부터 우리의 신문들을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선 신문들로 만들어 나가시였으며 1970년대에는 노동신문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기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사설혁명의 불길도 지펴주시었다.

장군님께서 출판사업을 지도하신 때로부터 이 부문 일꾼들은 맑스, 레닌의 고전출판에만 매달리던 고전우상화의 병집을 털어버리고 수령님의 로작출판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주체57(1968)년은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로작출판력사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경이적인 해였다. 이해에 출판된 로작들은 주체55(1966)년에 비해 그 종수에서 6배, 발행부수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었다.

교육내용을 편성하는데서도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각급 학교 교과서들에서는 남의것보다 우리의 것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수의 당정책화는 사회과학과 목뿐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목의 강의들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

작하신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 연극으로 옮기는 사업과 함께 수령님의 친작가요들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혁명전통주제의 영화들과 천리마대고조시기를 반영한 영화들이 쏟아져나와 영사막에 오르고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이 줄줄이 태어나 독자들의 손으로 들어갔다.

이 나라 하늘가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율이 새날의 방송개시신호악으로 울리고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의 숭엄한 서정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들던 때로부터 당사상전선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혁들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화국창건 20돐과 조국해방 25돐, 당창건 25돐을 전후로 하여 창작가들속에서는 수령송가창작열의가 고조되었다.

주체57(1968)년 봄에 들어서자 국립가무단(당시)에서는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장군님께서 《10대정강의 노래》와 함께 합창곡목으로 정해주신 가요가 리영백, 강영희 작사, 작곡으로 된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였다.

주체57(1968)년 5월 이 가요는 《10대정강의 노래》와 함께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공연무대에서 장중하게 울려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수령송가는 군무자예술축전무대와 노동자예술축전무대, 학생소년예술축전무대들에도 올라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의 가슴가슴을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였다.

노래는 말이나 글로써는 불가능한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었다. 이 나라의 모든 공장과 광산, 어장, 전야와 건설장들에서 일어난 기적과 혁신은 수령흠모의 감정으로 안아온 결실이었다.

하기에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송가의 메아리속에서 저물어가는

1960년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셨는지도 모른다.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은 다사다난한 1960년대였다. 카리브해위기와 바크보만사건, 월남전쟁, 중쏘분쟁, 현대수정주의의 범람...

남조선정세도 복잡했다. 4.19인민봉기, 통일혁명당사건 등으로 남조선전역에는 매일과 같이 태풍이 불었다.

우리 당내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제거된 그해 8월 수도 평양이 큰물피해를 입었다. 그다음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이 터져 정세는 전쟁접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로 1960년대의 막을 열어제끼신 수령님께서서는 이 대회에서 인간개조운동을 60년대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었다.

천리마운동은 본질상 모든 근로자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복무할줄 아는 사회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운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간개조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연도 사회도 개조할수 없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였다.

리신자와 길확실은 수령님께서 키워내신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였다. 리신자는 말썽 많던 농장원들을 교양하여 모범농장원들로 만들었고 길확실은 뒤떨어진 작업반을 추켜세우고는 또 다른 작업반에 옮겨가 제사공들을 교양개조하여 천리마를 타게 하였다.

인간개조와 관련한 수령님의 숭고한 리념은 가는 곳마다에서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한 미덕과 미담을 낳았다.

함흥의학대학 학생들과 홍남비료공장(당시)의 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의 살을 떼내여 전신3도화상으로 사경에 처했던 방하수소년을 구원하였으며 정평의 처녀사양공 김정순은 물에 빠져 죽게 된 아이들을 7명이나 구원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았다. 순천땅의 가두녀성 리영숙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11명이나 데려다 친자식으로 만들었다.

어디서나 인정이 첼첼 넘치였다. 넘쳐나는 정은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었다. 보상과 명예 같은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집단을 위해

바치는 사랑에는 타산이라는것이 없었다. 인간개조의 열풍속에서 민족사의 그 어느 페이지에도 없었던 새형의 인간들이 태어났다. 집단주의는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다 용해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은 끝났으나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처마저도 깨끗이 가서주시려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력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체51(1962)년 1월 수령님께서 연안군 오현리를 찾아 남편들이 남으로 나간 여성들의 아픔을 풀어주시던 화폭을 되새겨주고있다. 오현리는 전쟁전까지만 해도 리승만의 통치하에 있던 땅이다. 이 고장에서는 전쟁때 적들의 원자탄공갈에 겁을 집어먹고 많은 남정들이 남으로 나갔다. 적구로 나간 남편들때문에 그 녀인들은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살았다.

수령님께서는 녀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한 녀인이 어린애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인생을 가정의 테두리안에서만 보고 생각하는데 습관된 녀인의 솔직한 고백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침중한 어조로 그 녀인을 타이르시였다.

그것도 좋다. 그러나 어린애를 잘 키우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동무들은 혁명투쟁을 잘하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남으로 끌려간 남편을 내가 구원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생활을 더 억세게 해야 한다. 혁명을 할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사회정치생활을 잘해야 늙어도 늙는줄도 모르게 되고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사회정치생활이라니?!...

그러니 우리도 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단 말인가.

수령님의 바다같은 도량과 믿음에 감격한 녀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리였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후날 그 녀인들속에서 분조장도 나오고 작업반장도 나오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나왔다.

당시의 연안군당위원장이 김기선이였는데 그는 자기의 회상실

기에 그때의 걱정을 이렇게 남겼다.

《그날밤 온 마을에 불빛이 꺼질줄 몰랐습니다.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가슴마다에 봄빛과도 같이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사람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1960년대를 돌이켜보시는 장군님의 추억은 어째서인지 자신께서도 자리를 같이하셨던 오현리의 정경앞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날 밤으로 나간 남편들을 둔 여성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의 웃고름만 적시였던가. 그 눈물은 수령님의 가슴에도 흘러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땅에 웅크리고있던 마지막 한점의 그늘마저도 다 가셔내시고 이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락원의 나라로 건설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험난한 행로는 한 인간이 헤쳐오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행로였고 그이의 업적은 한생에 이루어놓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이였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이렇듯 뜨겁게 더듬어보신것이다.

《세상에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분은 없습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20여성상 백두의 밀림속에서 눈비를 맞으시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시였고 해방후에는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밤을 지새우시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빈터우에서 파괴된 경제를 일떠세운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원수들을 격멸하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잠도 휴식도 다 잊으시고 싸우시였습니다.》

전쟁 3년간 미국놈들이 최고사령부를 향해 퍼부은 수많은 폭탄과 총탄도 우리 수령님을 어찌지는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에 하많은 사연을 아로새긴 1960년대를 되새겨보시던 그밤 창밖에서는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

었다.

하늘가득 메우며 날아내리는 눈송이들의 속삭임속에 깊어가는 11월의 밤에 장군님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시적충동이 일어번졌다. 한평생 이 조국, 이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오신 수령님께 충정의 송가를 드리고싶은 심정을 다잡을길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흰종이 한장을 펴놓고 책상에 마주앉으시였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해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써놓으신 글줄을 다시 외우시는 그이의 눈굽이 불시에 젖어들었다. 격랑처럼 끓어번지는 걱정 of 소용돌이속에서 가사의 구절들이 연방 떠올라 종이장우에 옮겨졌다.

내 조국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혹한에 손발이 얼고 창자가 얼어들던 부후물과 가재수, 홍두산산정에도 이밤 눈은 내릴것이다. 우리 인민은 창밖에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수령님생각을 한다. 현지지도로 반생을 보내시는 수령님의 앞길에 언제나 맑은 날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인민이다.

하지만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눈과 비를 마다하고 좋은 날, 좋은 길만 골라서 인민들을 찾아가신적이 있었던가.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새벽 공장을 찾으시며 이 강산에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게 하신 어버이수령님께 심장으로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그이께서는 밤을 새우며 지으시였다.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새벽 공장을 찾으시네

크나큰 그 은덕은 만대에 길이 빛나리
인민들은 심장으로 충성을 노래하네

3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장군님께서 한편의 송가를 쓰시느라고 밤을 밝히실 때 그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그렇게서 박을 땀돌던 사람이 장춘섭 파장이었다. 다음날 장군님께서 가사를 봐달라고 종이장을 내놓으시자 그는 한번 쪽 훑어보고나서 어디론가 부리나케 사라졌다.

1960년대의 마지막날 부서성원들은 《충성의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다. 비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소박한 합창이었으나 모두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충성의 노래》로 1970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얼마후 국립가무단(당시) 예술인들이 형상한 이 노래는 방송을 통하여 온 나라에 보급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는 순간에 남녀로소가 다 부르는 전인민적송가로 되었다.

장군님께서 당과 인민앞에 터치고싶었던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으신 이 가요가 울려 퍼진 때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수령흠모의 감정이 바다처럼 끓어번졌다. 우리 군민은 수령님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수령의 노래를 부르며 기세충천해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줄달음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리신 수령송가의 포성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 일색화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여기에 수령송가의 포성이 가지는 역사적의미가 있다.

4. 만 년 초 석

주체103(2014)년 1월 2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눈덮인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다.

그때까지 얼마 알려지지 않은 마두산혁명전적지는 평양을 지척에 둔 서부산악지대에 위치한 비밀근거지로서 주체27(1938)년 여름 아버지수령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국내무장소조가 곧 도래하게 될 조국해방작전에서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가지는 평양해방작전기지로 꾸린 곳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글발이 새겨진 구호나무를 비롯하여 투사들의 자취가 력력한 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혁명전통교양에서 혁명전적지들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하여 참으로 귀중한 정의를 내리시였다.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입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을 새기며 나는 망국의 수난사를 더듬었고 항일의 혈전사를 읽었다. 그리고 성스러운 주체의 100년사를 돌이켜보았다.

1월의 사나운 눈바람을 맞으시며 항일의 옛 전적지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삼지연, 왕재산을 비롯하여 이 땅의 수많은 혁명전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려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찾고 또 찾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록하신 모습으로 뜨겁게 어려왔다.

아마도 우리 장군님처럼 항일의 혁명전구들을 자주 찾으신분은 없을것이다.

주체45(1956)년 여름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을 이끄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첫길을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장군님께서 혁명전적지들을 한생토록 찾고 또 찾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도 가시였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와 우리 당과 인민의 령도자로 분명한 나날을 보내시던 때에도 중단없이 가시였다.

눈보라치는 겨울이나 폭우쏟아지는 삼복의 춥고 더운 계절을 가리지 않으시고 조국앞에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일 때마다 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부터 찾으신 장군님의 심중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다져주심으로써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자주적인 삶을 누려온 우리 동시대인들과 후손들이 그이께서 항일혁명전구들을 거듭 찾으신 심원한 의미를 심장깊이 간직하며 부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투사들의 당부를 잊지 말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싶다.

주체58(1969)년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결정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자료들을 정확히 수집정리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이 반영된 이 결정서는 수령님탄생 60돐을 맞으며 그이의 혁명력사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혁명력사자료수집을 위한 그루빠들을 조직하고 지체없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첫 사업이 주체59(1970)년 정초에 각 도소재지들에서 이 그루빠성원들을 위해 당력사연구소가 조직한 실무강습이였다.

장백의 험한 산발과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력사를 민족의 영원한 재보로 정리해놓을수 있는 대강을 받아안은 전국의 수많은 자료발굴성원들과 력사전문가들은 김형직선생님을 비롯한 만경대혁명일가의 투쟁자료와 조선민족해방

투쟁사의 정수를 이루는 항일무장투쟁자료,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국내외혁명조직들의 활동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였다.

이 사업은 수난에서 영광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만대에 전하고싶어하는 인민의 마음에 떠받들린 성스러운 위업인것으로 하여 시작부터 결실이 대단하였다.

그해 3월경부터는 벌써 지방당조직들에서 수집정리한 자료들이 당력사연구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어떤 날은 수백건의 자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때도 있어 주체61(1972)년 봄까지 당력사연구소의 방들에서는 불빛이 꺼진 날이 거의 없었다.

그 사업을 전문해온 당력사연구소 일군들도 수집되는 자료의 방대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욱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할수 있는 무수한 사건자료들과 조직관계자료들, 인물자료들, 반증자료들, 사진자료들이 새로 발굴정리되어 당력사연구소에 등록되었다. 그 과정에 《친일파》로 일가친척들의 눈총을 받던 어제날의 《개순사》, 《개구장》이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으로 고증되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애국자》가 반역자로 낙인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

복잡하게 뒤엉키였던 하많은 사연들이 실꾸리마냥 한오리, 두오리씩 풀리며 력사의 진실로 정리되는 경탄할만 한 현실앞에서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을 20년 전에는 왜 하지 못했던가. 10년전이라도 주체58(1969)년 12월30일 결정과 같은 사변을 맞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벌써 오래전에 더 많은 사적자료들이 발굴정리되었을것이 아닌가.

하지만 것처럼 무심히 흘러보낸 수십년세월의 공백을 두고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장군님이 아니시였더라면 10년, 20년세월이 열백번 다시 흘러가도 우리 혁명의 명맥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질수 없었으리라는것을.

단 몇해사이에 옥같이 귀중한 자료들로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더욱 뚜렷하고 풍부하게 정립한 그 사업의 직접적인 발기자, 조직자

가 바로 조선혁명의 억년기틀로 될 우리 당 기초축성사업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는 김정일동지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더우기 알 수 없었다.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우리 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항일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하여 언급해야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을 걷는 것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혁명전통을 혁명의 명맥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보시고 친히 자료조사발굴을 위한 답사단을 무어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파견하시였다.

중국에서 국내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주체35(1946)년 8월 한설야를 단장으로 하고 김종항을 부단장으로 하는 1차답사단이 수령님의 특명에 따라 중강, 포평, 신갈파, 혜산, 보천보, 대진평, 붉은바위, 회령을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립강, 장백, 연길, 화룡을 비롯한 중국동북지방의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편답하면서 수많은 혁명유적, 유물들과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수집하였다.

그해 10월 중순경에 조국으로 돌아온 답사단은 얼마동안 함흥에 머무르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사진첩을 만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답사단성원들을 친히 접견하시고 그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우리 당 혁명력사의 뿌리를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항일혁명력사와 관련한 토론회도 자주 하고 출판물에 글도 많이 내어 항일무장투쟁을 널리 소개선전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교시는 혁명전통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정립하는데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침이였다.

수령님의 교시에서 큰 고무를 받은 답사단은 신의주에서도 일보사의 주최로 그해 11월 중순부터 20일가량 큰 규모의 사진전람회를 열었다. 주최측의 요구에 따라 어느 한 중학교에서는 2층을 전람회장으로 내주었다.

사진전람회는 첫날부터 편일 대성황을 이루었다. 수천명의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날마다 이 전람회장을 찾았다.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던지 평양사람들도 신의주로 가서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우리 인민은 이 사진전람회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처음으로 파악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수만명에 달하는 참관자들이 그때 사진을 통해 본 화폭들은 그 역사의 일단, 것처럼 장엄하고 종심깊은 영웅서사시의 외피에 지나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몇달후 답사단을 또다시 중국에 파견하시고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가을과 주체42(1953)년 7월, 전쟁이 끝난지 한달만인 8월에도 현지답사단을 동북지방에 들여보내시였다. 주체48(1959)년 5월에는 항일투사들과 박물관일군들, 군사전문가, 작가, 촬영가, 화가들로 무어진 강력한 답사력량이 120여일간이나 중국동북에 들어가 항일의 피어린 전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답사활동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난것이 바로 송영의 답사기행문집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와 참관기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찾아서》였다.

당력사연구소에서는 답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작가, 기자들과 연구사들을 중심으로 집필조를 뒀고 항일혁명투사들의 일대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도서를 집필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투사들이 일정한 소재를 가지고 구술을 하면 기자들이 요점을 숙기해두었다가 정리하여 출판사에 넘겼다.

혁명전통교양도서에서 기본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집필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였다.

한번은 조선인민군출판사의 편집일군이 투사들이 써놓은 회상기를 편집하다가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취재차로 당시 체신상이였던 최현동지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투사는 이마살을 찌프리고 한참동안 무슨 생각인가를 굴리다가 자기가 직접 지휘한 어느 한 매복전투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무런 미사리구도 없는 전투실화였다.

《지하조직으로부터 한개 중대가량의 일본군〈토벌대〉가 다음 날 아침 우리 부대에서 얼마 멀지 않은 령을 지나간다는 정보를 받았단 말이다. 밤중으로 감쪽같이 매복진을 쳤지. 날이 행하니 밝자 철갑모를 쓴 몇놈이 옆구리에 총을 끼고 골짜기에 나타났단 말이다. 왜놈들은 교활하단 말이다. 우리 매복에 걸릴가봐 먼저 총알받이부터 내보냈단 말이다. 그런 총알받이들은 못본척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둔단 말이다. 주력이 나타날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다가 적들이 골짜기에 다 들어섰을 때 〈쫓!〉 하면서 칼을 들고 날치는 놈부터 먼저 쏘제꼈단 말이다. 그놈이 장교거든. 장교가 똥지자 부하들이 〈도쁘께끼〉고 뛰고 다 집어던지고 손을 들었지. 이겼단 말이다. 명심해. 이 최현이 지휘를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거.

우린 그저 〈유격대동작〉에 있는 전법대로 싸웠을뿐이다. 기자, 〈유격대동작〉을 누가 썼는지 알지? 수령님께서 쓰셨단 말이다.》

한 전투에 대한 소개가 5분도 못되는 사이에 끝났다. 기자가 알고싶어한 세부들은 한뼘이나 되는 투사의 눈섭오리의 움직임과 눈빛, 손놀림과 입모양이 다 말해주고있었다.

항일투사들은 자기 자랑을 싫어하였다. 대부분의 투사들은 처음에 회상기라는것이 제 자랑을 하는 글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그래서 출판일군들이 찾아가도 청탁에 잘 응하지 않았다.

《투사동지, 이젠 제 자랑을 하자는 책이 아닙니다. 항일무장투쟁이 어떤 간고한 로정을 걸어왔고 그 담당자들인 유격대원들이 수령님의 슬하에서 어떻게 성장해왔으며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는가를 보여주자는 글입니다. 우리가 인민들에게 쓰팔린그라드격전이나 2만5천리장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줄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투사들은 《그러면 진작 그런 글이라고 말해 줄것이지.》하면서 팔걷고 나섰다.

항일혁명을 소개선전하는데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와 민청출판사(당시)가 앞장에 서고 문필가들과 영화예술인들이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출판사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편속 출판하고 민청출판사가 항일혁명이 배출한 청년렬사들을 도서 《혁명을 위하여》, 《공청생활에 대한 회상》과 같은 책에 묶어 널리 소개선전했으며 영화예술인들이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빨찌산의 영웅 김진동무》, 《북남이와 함께》와 같은 회상기들을 영화로 옮겨 우리 인민들앞에 투사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산 형상으로 펼쳐보이였다.

우리 인민들이 항일혁명투사들과 친숙해지는데서 그들의 회상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

1960년대말 1970년대 전반기에는 회상기독서열풍이 대단하였다.

그때에는 회상기독서를 떠난 생활을 생각할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회상기와 친근해졌다. 어디서나 회상기를 읽었다. 발머리에서도 읽고 작업반휴게실에서도 읽었으며 모여서도 읽고 홀로 려행길을 가면서도 읽었다. 읽은 뒤에는 자신들의 생활과 결부하여 열렬한 토론을 벌리곤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진을 이루고있는 50대, 60대는 회상기독서열풍속에서 인생의 뜻을 터득하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두산에서 총을 들고 직접 싸운 투사들이 쓴 회상실기가 유명한 작가들이 책상머리에서 써낸 같은 주제의 소설보다 혁명전통 교양에 미치는 힘이 훨씬 크다는것을 벌써 중학시절에 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투사아бай들을 만나실 때마다 청소년들과 인민들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체험담들을 써달라고 권고하곤 하시였다.

장군님의 그 권고를 조국의 미래를 위한 혁명의 요구로 받아안고 심혈을 바친 투사들의 전렬에 최현, 오백룡, 림춘추동지들과 같은 로투사들과 전문섭, 리오송, 백학림, 리을설동지들처럼 빨찌산에서 잔뼈를 굳힌 소년중대출신 투사들이 서있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큰 몫을 맡았던 투사가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회상실기를 직접 써내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행의 첫걸음을 떼는데 기여한 림춘추동지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벌가리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로 사업

하는 동안에 째째이 써가지고 돌아온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가 출판되었을 때 그 첫 독자가 되어주시었고 투사의 집필성과를 축하하여 댁에서 친히 따신 복숭아까지 보내주시었다.

혁명의 장래운명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실한 혁명가들이 이처럼 대를 물려가며 읽을 혁명전통교양의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온 나라 인민이 그 교과서를 삶과 투쟁의 거울로 삼아 비추어보며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공들로 성장하고있을 때 그것을 아니꼽게 생각하며 훼방하는자들이 있었다.

김도만은 항일혁명력사를 《옛말》이니, 《낡은것》이니 하면서 흠시하고 외면하면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출판부수를 극력 제한하도록 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국내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책이었다. 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문출판사에서는 대외선전용회상기들을 찍어 외국에 보급하였다. 사실 이것은 선전선동부가 주관해야 할 사업분야였다.

그러나 김도만은 이 사업도 귀찮게 대하였다. 그는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하게 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의 제3권 교열지도 한번 보고나서는 출판사에 내려보내지 않고 여러해동안 방에 묵여 두고있었다.

그 교열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탁에 놓인것이 주체56(1967)년 3월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업보고를 드리려고 방에 와있던 한 일군앞에 부피가 두툼한 그 교열지를 내놓으시었다.

놈들이 오래전에 받아놓고 깔고앉아있던 교열지의 먼지를 오늘에야 털게 되었습니다.

그이의 안팎에서는 섬광이 번뜩이였다.

교열지를 한장한장 번져가던 일군의 손이 굳어졌다. 혁명적인 내용이 두드러지게 서술된 대목마다 붉은색으로 밑줄을 박박 긋고 《고려할것》이라든가 《?》표식을 해둔 개소들이 수두룩했다. 그런데다가 통채로 들어내라는 삭제표시를 한 단락들도 적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런 단락들이 대부분 회상기의 품위를 돋구어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들이라는것이였다.

놈들이 제아무리 잔꾀를 부리어도 결코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혁명전통을 없애버리지 못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가 누구든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끊어버리려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장군님의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온 나라 강산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일군은 그날의 자기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을 나서는 나의 마음속에서는 두 해전에 하신 그이의 말씀이 다시금 쟁쟁히 울려왔습니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천명하시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전통은 순수한 전통이 아니라 혁명전통이다. 다시말하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에 대한 문제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에 대한 문제이다. 사람의 몸에 한가지형의 피가 흘러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형의 피가 섞이면 죽음을 면할수 없으며 혈통을 이을 대가 끊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도 하나의 피줄기, 하나의 전통이 있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피줄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이다. ...》

우리 당이 옹호고수하고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이 어떤 전통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수령님께서 이미 1950년대에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당시 당과 국가, 군대의 요직에 틀고앉았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지방주의자들은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제가꿈 그 무슨 《전통》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김두봉은 조선독립동맹시절의 활동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우리 당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전통을 내세우고 계승하는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었다. 그자가 《연안의 전통》을 운운했다면 박헌영일당은 《화요파의 전통》을 떠들었고 어떤자들은 《길주농조전통》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시비하는 김두봉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으로 계승하지 않으면 무엇을 계승하겠는가. 우리는 결코 당신들이 무정부주의를 하고 테로단을 무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죽이던것을 혁명전통으로 계승할수 없다....

수령님의 이 말씀에 김두봉은 감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계승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검증되었다.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견결한 군사지휘관들은 끝까지 부대를 지휘하여 잘 싸웠지만 쏘련이나 중국 연안에서 나온 김재옥, 리권무 같은자들은 적들이 대병력으로 인천에 상륙하여 인민군대의 퇴로를 차단하자 부대를 버리고 다 도주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전야에 소집하신 당총회에서 《연안의 전통》을 운운하던 이자들의 죄행을 가 밝히시면서 농민투쟁도 전통으로 내세울수 없다, 한 열흘씩 소작쟁의를 하고 뼈라나 불이고 감옥에 잡혀간것을 어떻게 당의 전통으로 계승하겠는가, 또 광주에 가서는 토기굽는 가마에 엮드려있다가 나왔고 상해에 가서는 현 애리스와 런애질이나 하다가 돌아온 박헌영과 같은자들의 활동도 전통으로 내세울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창조된 혁명전통이 명실공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은 이 투쟁이야말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되며 또 그 과정에 이룩된 혁명전통의 내용이 비상히 폭넓고 풍부하고 심오하다는데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6(1967)년 6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전통은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이외에 다른것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전통은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개척되던 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재부이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목적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이어나가자는데 있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계승발전시키고있는 혁명전통의 내

용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신 혁명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있고 항일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으며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품의 숭고한 모범이 전면적으로 풍부하게 담겨져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고귀한 밑천입니다.》

1960년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통과 관련한 리론실천활동을 활발하게 벌리시던 때였다.

문학예술혁명을 지도하시던 첫 시기부터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안목으로 혁명전통과 관련한 사상리론적문제들에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시는 한편 작품창작에서 혁명전통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과 그것을 각색한 예술영화 《사나운 바람》이 범한 사상미학적오류를 분석하시면서 그 오류는 작가들이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깊이하지 않은데 있다고 밝혀주시고 작가들이 혁명전통과 당정책학습을 잘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는 엄중한 파오를 범할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시었다.

그리고 영화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항일혁명투사 오중흠동지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혁명전통주체의 대작으로 완성시켜 대중교양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해주시었다. 영화의 종자와 줄거리로부터 인물설정과 인간관계, 대사와 연기형상, 자막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수령님의 의도대로 완성하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로고는 실로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도 이 영화가 방영되면 시청자들은 텔레비존앞을 뜨지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소설, 가극, 연극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학예술형식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타오른 혁명전통계승의 불바람은 형상과 화폭이라는 날개를 타고 이 나라의 모든 일터와 초소, 가정들에 흘러들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민족해방의 은인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의 도,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 학교들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이 개설되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연구학습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것도 이때부터였다. 이 연구실들에 전시할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은 장군님의 지도밑에 여러차례의 교열을 거쳐 완성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연구하는 학과목이 새롭게 설정되어 각급 학교 과정안에 포함되었으며 수령님께서 온천에서 항일혁명투쟁을 회고하여 하신 교시에 기초한 여러가지 편집물들이 작성되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혁명력사학습과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기 시작하였다.

온 사회가 혁명전통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오늘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만년초석으로 삼고 끝까지 승리를 이룩해야 할 조국의 머나먼 태일이 그려져있었다.

혁명전통교양은 당대에 끝마칠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을 일시라도 중단하면 혁명은 곧 좌절을 겪게 되고 목적하고 떠나온 길에서 탈선하여 결국은 간고하게 개척해온 혁명의 전취물을 죄다 말아먹게 된다. 혁명전통교양이야말로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계속해야 하며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할 영원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자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무엇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대를 이어 참신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원상그대로 꾸려야 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에는 그렇게 품들여 꾸려놓은 혁명전적

지와 혁명사적지는 물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진 혁명사적들을 종합전시한 혁명박물관도 얼마 없었다.

반만년 민족사의 봉우리들을 이루는 항일의 혁명력사, 건국의 력사, 전승의 력사, 건설의 력사, 그 력사의 창조자이시며 향도자이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세계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으리만큼 장엄하고 삼천리강토가 비좁을만큼 거창하나 그것을 전하는 거점으로는 중앙과 지방에 몇개의 박물관과 사적관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날 수령님께서서는 장군님께 만수대언덕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건설하실 의향을 말씀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그 발기와 결심을 열렬히 지지하시면서 때 도마다 혁명사적관을 내오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건설을 대대적으로 내미실 자신의 결심을 터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사업을 전개해보겠습니다.》

《그 결심을 지지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쾌히 동의하시였다.

이 담화가 있는지 몇달후인 주체57(1968)년 7월 장군님께서서는 리오송, 백학림, 김명화 등 항일투사들과 여러날에 걸쳐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주체45(1956)년 여름부터 벌써 세번째로 걸으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이였다. 주체52(1963)년 8월에 있는 두번째 답사때에는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천지에까지 가시였었다.

조국의 북변에 깊이 아로새겨진 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번째로 다시 오신 빨찌산의 아들을 백두의 천고밀림은 열두해전의 그 여름날처럼 너무도 조용히 맞아드리였다. 당시까지도 삼지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었다.

그이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밀영자리들과 전투장소들은 근 30년전의 상태 그대로 방치된채 세월의 비바람속에 서서히 제모습을 잃고있었다. 청봉과 건창, 배개봉과 삼지연도 그사이 초목이 더욱 무성해지고 락엽이 덧쌓여 희미하게 그어져있던 길들과 숙영터들, 우물자

리들은 쉬이 알아볼수 없게 죄다 묻혀버렸다. 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어디가 어딘지 통 분간할수조차 없게 될것이였다.

일행중의 한사람이였던 항일투사 김명화는 후날 이런 말을 남기였다.

《옛 전적지들을 돌아보는 나의 마음속엔 깊은 감회와 함께 이루 말 못할 허전한 감정이 고여올랐다. 근 30년전의 일들이 기억속에는 아직도 생생한데 그 어디에서도 그날에 남기신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소중한 자취를 찾아볼수 없었다.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다고 하시며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일제와 싸워 기여이 나라를 찾자고 하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하고 물에 적신 얼레빗으로 녀대원들의 머리를 빗어주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건만 이제 우리들이 죽은 다음 그 만단사연을 어떻게 후대들에게 전해줄수 있단 말인가. 그 허전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삼지연에 온 소감을 물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드렸다.

〈여기에 귀중한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는 표식비라도 자그마하게 세워놔으면…〉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근엄한 기운이 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 하지 못한 그의 마음속말이 가슴을 저미시는듯 눈길을 드시고 천고의 밀림속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운 항일투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해방한 대가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으며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력사에 기록될 권리, 인민들의 찬양을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후손들은 항일선렬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는커녕 표식주조차 세우지 못하고도 그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해방의 참맛을 수십년 동안이나 향유해오고있었다.

과연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 후손만대의 영광을 위해 청춘도 가정도 목숨까지도 다 바쳐 싸운 혁명선렬들의 자취가 력력한 이 땅에 비석 하나 세워주지 않을만큼 그렇게 도덕도 의리도 없

는 인민이란 말인가.

아니였다. 앞으로도 아닐것이다.

세월의 흐름속에 희미해진 옛 혁명전구들을 돌아보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무거우시였다.

보천보, 삼지연, 대흥단...

과연 여기가 어떤 땅인가.

아직도 안개자욱한 저 가림천기슭에선 그날에 올리신 민족재생의 총성과 암흑에 잠긴 삼천리강토를 밝히며 활활 타오르는 삼단같은 불길을 가리키시며 이 나라 동포들에게 하시던 수령님의 연설이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

조선민족은 일제놈들과 <동조동근>이 아니며 우리는 놈들이 떠드는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의 의의는 적 몇놈 잡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안겨준데 있다고 벌써 여러번 말씀하시였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5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이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보려고 우리 말과 글을 빼앗고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한 일제였다.

그보다 먼저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마저 빼앗아간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때까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

우리 나라는 1912년이전까지 베이징시간보다는 30분 빠르게, 도쿄시간보다는 30분 늦게 표준시간을 정하고 살아왔었다.

1910년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통채로 집어삼킨 일제는 이태후인 1912년 1월 1일부터 조선의 표준시간을 도쿄시간에 맞추도록 강압적으로 내리먹였다.

일제는 이처럼 제놈들의 시간에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맞추어놓음으로써 저들과 똑같은 시간에 조선사람들이 일본왕이 살고있는

하늘쪽에 대고 허리굽혀 《궁성요배》를 하도록 강요할수 있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조선사람의 넋을 뽑고 그들을 철저히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조선의 표준시간을 없애버려야 했던것이다.

조선사람의 얼을 말살하기 위하여 일제가 한짓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일제는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의 송악산을 비롯하여 백두산과 한맥으로 이어진 이 나라 명산들에서 고려태조 왕건과 같은 장수들이 나올수 있는 형세를 가진 《혈》과 《맥》을 찾아 달군 쇠말뚝을 박는가 하면 설설 뚫는 류황을 부어넣고 산허리를 몽땅 끊어버리는것과 같은 유치한짓까지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하지만 이 상상키 어려운 발악으로써도 조선인민의 얼을 뽑지 못했으니 그 얼을 지켜주신분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이라는 민족만대의 사상정신적재부를 가졌기에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신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되었다.

우리의 원쑤들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위대한 혁명전통을 가진 인민은 절대로 이길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보려고 원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선의 혁명가라는 사람들이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는것과 같은짓을 앞장서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후세에 전하는 사업을 주관해야 할 사람들이 제가꿈 자기 《전통》을 내세우는데 급급하면서 여기 백두산쪽은 돌아볼 궁리조차 하지 않고있는것이 문제였다.

주체49(1960)년 3월 23일부 내각명령 《량강도 혜산시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건설할데 대하여》가 채택된 다음 박금철이 혜산에 내려와 공사현장을 돌아보고간 일이 있었다. 그자가 혁명전적지의 관문도시인 혜산땅에 나타나 기념탑공사장을 돌아본것은 서쪽에서 해가 뜬것만큼이나 희한한 일이었다. 그러나 박금철이 량강도에

내려와 해놓은 일이란 공사에 제동을 건것밖에 없었다.

그자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인민영웅탑이므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탑의 중심부에는 일반지휘관으로 형상을 바꾸라고 무엄하게 내리먹이었다. 어떻게 하나 수령님의 업적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공지와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자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혁명전통의 폭을 넓히라고 교시하신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개한 영웅적투쟁과 세계사적업적을 념두에 두신것이였지 그 전통속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오가잡탕을 다 끌어넣으라는것은 아니였다.

박금철은 수령님의 교시를 악용하여 혁명전통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전통》을 내세우는데만 골몰하였다. 나중에는 자기의 처를 원형으로 하는 《일편단심》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평양에서 몇달동안 공연하게 하는 황당한짓까지 하였다.

당사상사업을 맡은 김도만도 그에 짝지지 않았다. 한번은 그가 평안북도당협의회에서 김소월의 시 《초혼》을 낭송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적도 있었다.

사실 혁명의 장래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제 낮이나 내고 남의 사상, 남의 장단에 얼쳐버린 제 취미를 내려먹이려고 미쳐돌아가는 이런 가짜혁명가들이 우리 혁명의 명맥을 잇게 될 혁명전적지건설에 낮을 돌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혁명의 오늘과 래일을 위하여 이 력사적과제를 반드시 자신께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 백두산지구를 돌아보는 과정에 느끼신 소감을 말씀드리시고 혁명전통교양과 관련한 결심을 터놓으시였다.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회상하고있다.

…주체61(1972)년 6월초에 있는 일이다.

우리는 혜산에서 진행된 보천보전투승리 3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러 온 기회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삼지연을 떠나 혜산으로 가던 도중에 차를 세우신 수령님께서서는

멀지 않은 산밭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나직이 되이시였다.

《저기에 나의 전우들이 많이도 묻혀있다. 애젊은 나이에 혁명을 위해 목숨들을 바쳤지. …》

말씀은 짧았지만 거기에 담긴 사연이 너무도 무거워 선뜻 대답을 못 드리고 서있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길옆에 파랗게 자란 잎이 넓은 풀을 뜯어드시더니 나에게 《얼른 차에 가서 간식 샀던 천을 가져오너라.》라고 이르시였다.

말씀대로 보자기를 들고가자 수령님께서서는 그새 줌이 별게 뜯으신 풀잎을 펴놓으시며 《너희들 이게 무슨 풀인지 모르지? 이게 취나물이라는거다. 이걸 곰취, 이걸 참취 …》 하고 하나하나 이름을 대주시였다.

취나물을 보자기에 싸면서 나는 《수령님, 저의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모르고 보면 다 같아보이지만 맛도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하시며 키돋움하듯 자란 취나물을 하나하나 골라 뜯어 나에게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였다. 《이건 비라민이 많은 곰취란다. 그리고 잎이 활촉모양으로 생긴건 수리취, 무우잎사귀처럼 생긴건 개수리취, 종처에 짓뭉어 바르면 좋지. …》

그날 저녁 진지상에 《특식》으로 오른 취나물을 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취나물쌈을 먹어본 사람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 대답이 없는걸 보니 먹어본 사람이 없는 모양인데 많이 들라고 하시면서 먹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고추장을 바른 우에 밥을 한숟가락 떠놓고 곱게 쌈을 싸 입에 넣었으나 먹을수가 없었다. 어찌나 쓰고 뽕은지 입안이 통채로 가다드는데만 같았다. 그래 더는 씹지 못한채 억지로 삼키고나니 눈물이 절끔 나왔다. 나뿐이 아니였다. 종시 넘길수가 없어 입을 싸쥐고 나가는 동무도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얼굴을 찡그리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맛이 없는 모양이구만. 물론 취나물이 사람들의 입에 쉽게 붙는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맛을 잊을수가 없다. 산에서 싸울 때

어쩌다 고추장이 생기면 정숙동무가 취쌈을 해주었다. 내가 취쌈을 좋아하기때문에 정숙동무는 행군을 하다가도 취만 보면 배낭에 뜯어넣곤 했지. ...

그러시고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취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끝까지 할수 없었다,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간 락오자, 변절자들을 보면 레외없이 취의 뚝고 쓴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여름 백학림, 김명화동무들과 같이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고와서 김정일동무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삼지연기슭에 표식비라도 세워놔으면 하고 섭섭해하는 김명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찾는 싸움길에 온갖 고생을 다 겪고도 자기들의 공적보다 먼저 세월과 함께 묻혀지는 수령님과 어머니의 업적을 두고 마음쓰는 그 마음앞에 눈물이 났다고 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시었다고 한다.

수령님,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투사들이 피로써 새긴 력사의 자취를 이제 더이상 묻어둘수가 없습니다. 백두밀림에 새겨진 항일혁명선렬들의 자취를 다 찾아내여 후세에 길이 전하는것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망국노의 설움을 모르며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 지닌 의무이고 도덕이며 투사들에게서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아야 할 새 세대 혁명가들의 제일차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나의 귀중한 천우들의 피가 스민 백두산혁명전구가 비로소 주인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하시었다.

좋은 의견이요. 지난해에 4기 15차전원회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이제는 혁명전통을 가지고 떠들 때가 되었소. 휘방군들도 없는데 일사천리로 내밀어보오. 더 늦기 전에 전당, 전국, 전민이 동원되어 사적자료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는것이 좋겠소.

이렇게 되어 채택된것이 주체58(1969)년 12월 30일부로 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결정서였다.

결정이 채택된 후 국내에서 새롭게 발굴고증된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은 자그만치 2 980여개소나 된다. 력사책에 아직 이름조차 오르지 못했던 왕재산혁명사적지가 발굴고증되어 온 나라에 파문을 던진것도 그때였다.

온성사람들이 1930년대 수령님의 국내진출로정에서 첫 순서의 위치에 있는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발굴한것은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체계화하는데서 대서특필할만 한 가치를 가지는 일대 경사였다.

온성군당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결정이 하달되자 즉시 30여명의 일군들로 자료수집조를 못하고 다음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였다. 자료수집그루빠에서는 우선 1930년대이전부터 온성지구에서 살아오는 50살이상 토착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한 다음 한사람한사람씩 표식을 해가며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나갔다.

1930년대부터 온성지방 인민들속에 전해져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어느날 가랑잎 하나에 수백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태우고 두만강을 유유히 건너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람을 타고 왕재산에 날아오르시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왜놈들의 한개 편대병력이 타막골로 시누렇게 물려들었다. 하지만 수령님의 축지법에 걸려들어 눈깜빡할 사이에 몽땅 녹아났다.

국내 각지에서 온 혁명가들과 함께 투쟁방책을 의논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인차 귀로에 오르시였다. 이번에는 가랑잎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그다음 산밑으로 쓸어드는 왜놈병정들을 한참동안 굽어보시다가 불화살을 날려 모조리 요정내시였다는것이다.

온성사람들이 이 전설을 전설로만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든것은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주체35(1946)년 3월에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온성군 남양을 현지도하시면서 남양은 자신께서 혁명투쟁을 하실 때 보던 낮익은 곳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주체48(1959)년 3월에 청진방적공장을 현지도하실 때는 한 녀성로동자의 고향이 온성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온성은 우리가 혁명투쟁을 하던 곳ियो, 온성지구 인민들이 잘 싸웠소라고 뜻깊게 추억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주체22(1933)년과 그 다음해 두해동안은 거의나 두만강연안에 나와 활동했다는 회고의 말씀도 하시었다.

온성의 자료수집조성원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주민들과의 담화를 통해 수령님께서 소왕청유격구에 계실 때 유격대원들을 거느리고 왕재산에 다녀가신것이 실재한 사실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주체22(1933)년 3월초 수령님께서 대원들을 데리고 얼마동안 활동하시던 왕청의 량수천자일대는 온성대안에 있는 중국쪽 마을이었다. 량수천자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온성땅이다.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소왕청에서 지척이나 다름없는 온성이야말로 항일유격대를 익측에서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무장대오의 력량을 강화해주며 국내중심깊이에로의 진출을 안내하는 교두보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수 있는 리상적인 고장이였다.

자료수집조성원들은 오백룡, 박영순을 비롯한 20여명의 항일투사들과 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 온성지구에서 반일활동을 맹렬하게 벌린 오중화의 아버지 오태희로인을 비롯한 40여명의 지하혁명조직관계자들, 8 700여명에 달하는 토착민들, 3만여명의 온성연고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수령님께서 1개 중대의 유격대원들을 친솔하시고 온성땅에 나오시여 왕재산에서 국내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었다는것과 온성지구에 반유격구가 존재하였다는것, 온성인민들이 유격대의 군량미조달과 정보제공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종합하였다.

온성의 자료수집조는 수령님의 진출경로도 량수천자 술골-온성타막골-왕재산으로 쭉 꿰여놓고 지도작업까지 하여 종합자료에 포함시키였다.

자료를 고증하는데서 미결로 남은것은 수령님께서 지도하신 왕재산회의의 내용이였다. 최춘국동지가 만일 전사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라면 그것도 고증해냈을것이다. 그는 왕청대대 제2중대 정치지도원을 할 때 중대와 함께 수령님의 국내진출을 보좌해드리고 왕재산회의에까지 참가하였다. 최춘국동지는 전쟁 제1계단때 전선동부에서 사단을 지휘하다가 전사하였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항일혁명투사들중에는 왕재산회의참가자가 한 명도 없었다.

최상의 방도는 어버이수령님의 고증을 받는 길밖에 없었다. 온성군당에서는 협의회를 열고 주체22(1933)년 3월에 수령님께서 단행하신 국내진출자료와 왕재산회의에 대한 최종적인 고증을 받기 위해 그동안 수집정리한 자료를 수령님께 보고드리기로 하였다.

항일투사들중 온성지구 혁명사적자료들에 처음 접한 사람이 오진우총참모장이었다. 왕재산회의당시 요영구아동단지도원이어서 그때 일을 잘 알지 못하고있던 투사였지만 력사속에 묻혀있던 사적을 발굴하여 보고드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 총참모장 오진우대장은 온성사람들이 제출한 문건을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을 찾았다.

《온성사람들이 이번에 큰일을 했습니다.》

그는 문건에서 군용지도 한장을 꺼내어 장군님의 응접탁에 놓으면서 흥분된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총참모장의 설명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군용지도에 표시된 수령님의 국내진출로정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시었다.

《오아바이의 말처럼 온성사람들이 파문힐번 했던 사적을 찾아내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 사적이 사실이라는것을 수령님께서 인정해주시게 되면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력사를 다시 써야 할것입니다. 물론 수령님께 보고는 드렸겠지요?》

《예,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그 자료들을 보시고 온성사람들이 발굴한 내용이 다 정확하다고 고증해주시였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변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1933년 초봄에 최춘국동무네 2중대를 데리고 아직 얼음이 짙게 깔려있는 두만강을 건너와 솔골의 한 농막집에서 훈련을 지도하신 사실을 회고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얼음구멍을 까다가 도끼를 빠뜨린 곳이 온성 왕재산기슭 두만강건너편이 틀림없다, 그때 대원들을 왕재산

에 파견하여 그곳에 머물러있으면서 온성시내를 정찰하게 한 다음 내가 직접 두만강을 건너 왕재산봉우리에 올랐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진우총참모장에게 수령님께서 다른 말씀은 더 하시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오진우대장은 수령님께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이상 더 언급하시지 않고 당시 두만강연안 인민들이 잘 싸웠는데 그들의 투쟁사적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내가 군용지도에 그려올린 략도를 보아주시면서도 자신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이 지점들에는 아무런 표식도 하지 않고 대신 온성지구 인민들의 투쟁자욱이 깃들어있는 여러 장소들에 이렇게 표식들을 해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 표식해주신 장소들이란 왕재산밀영, 농민상조회활동장소, 장덕나루과출소습격전투장소, 온성인민들이 유격구에 원호물자를 보내줄 때 리용한 어정원호물자전넌장소 등이었는데 그것은 온성의 자료수집조성원들도 전혀 모르고있던 지점들이었다.

그 지점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은 언제 보아도…》 하시고는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언제나 자신의 업적은 묻어두시고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의 공적을 먼저 내세워주시는 수령님의 겸허한 성품에 가슴이 뜨거워지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격동되신 안색으로 이번에 수령님께서 왕재산지구에서 활동을 벌리신 사적자료를 고증해주셨는데 그것은 대단한것이다, 영영 묻혀버릴번 했던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빛나는 한페지를 찾아내지 않았는가, 온성사람들도 큰일을 했지만 총참모장동지도 그들의 대변자, 지지자가 되어 큰 공을 세웠다, 내가 온성사람들을 대신하여 총참모장동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진우대장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오진우총참모장은 그런 치하를 받자 몹시 웅색해했다.

《모든게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입니다. 사적자료수집과 관

련한 비서국결정을 채택하도록 수령님께 전의하신 분도 지도자동지이시고 이 사업에 전당, 전국, 전민이 동원되도록 밀어 주신 분도 지도자동지이십니다. 그 덕에 왕재산은 온 나라가 쳐다보게 될 명산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한해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주체62(1973)년 3월 7일 오진우총참모장은 당력사연구소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 접견석상에는 왕재산사적자료발굴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온성군당 부부장 김승덕도 와있었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온성군 혁명사적자료수집조성원들의 사업성과를 치하하신 다음 온성일대의 지하혁명조직이 무어진 시기와 그 활동내용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온성지하혁명조직책임자의 이름까지 친히 확증해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왕재산진출사적을 크게 내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온성지하혁명조직이 많았다는것을 인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돌에다 글이나 새기는 식으로 하나 만들자고 말씀하시었다.

오진우대장을 비롯한 자료수집조성원들은 양보하지 않고 온성을 1930년대 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함경북도일대의 반일무장투쟁을 보여주는 지방혁명박물관으로 꾸릴 결심을 말سم 올렸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왕재산에 우리 인민들의 반일애국투쟁을 보여주는 지방혁명박물관을 꾸리겠다면 나도 반대없다, 온성이라는 곳은 항일유격대의 초기활동시기 유격구에 도움을 많이 준 곳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기념비를 크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력사적인 결론을 주시었다.

온성군인민들은 자기네 고장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소식을 접하자 왕재산마루에 구름처럼 밀려올라가 하늘땅이 진감하도록 만세를 불렀다.

장군님께서서는 왕재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꾸릴데 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온 나라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40돛기념 함경북도보고회와 함경북도 청년학생들의 우등

불모임을 조직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현지에서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탄생 60돐을 계기로 혁명사적자료수집열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2년남짓한 사이에 당력사연구소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것에 비하여 수십배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게 되였다.

수만건의 원전자료들을 수집정리고증하여 혁명사적자료실을 가득 채우게 되자 일군들은 그만한 자료이면 전국의 혁명박물관들과 혁명사적관들에 전시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라고, 이제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다 수집했다고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4월이후부터는 자료발굴사업에서 탕개를 늦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의 당대만을 생각하지 않으시였다. 혁명사적사업의 만년대계를 내다보고계시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업!

이것이 사적사업에 대한 장군님의 의도였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이 천대만대로 이어지는 한 사적자료발굴사업도 계속되어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의지였다.

장군님께서 주체65(1976)년 1월 강석송 당력사연구소 소장에게 혁명사적자료수집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하며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신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혁명사적자료수집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그이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각 도(직할시)와 성, 중앙기관들에는 혁명사적자료실들이 나왔다. 그때로부터 혁명사적자료수집정리사업은 당력사연구소의 지도밑에 정연한 체계를 가진 상설적인 기구에 토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될수 있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수만건의 원전자료가 확보됨으로써 사적부문앞에는 각 도 소재지들과 중요사적단위들에 혁명전통교양거점을 꾸릴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료와 교양거점은 혁명사적사업에서 중요한 2대구성요소이다.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사적자료수집사업과정을 통해 양양된 사적부문 일군들의 기세와 열의를 혁명전통교양거점을 꾸리기 위한 대건설전투에로 조직동원하실 결심을 품으시고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삼

지연대기념비건설과 왕재산대기념비건설에 힘차게 불려일으키시었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소집 40돛이 되는 주체62(1973)년 3월 11일에 착공하여 2년반후에 완공된 왕재산대기념비와 주체66(1977)년 10월에 착공하여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돛을 맞는 해 5월에 제막식을 한 삼지연대기념비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밑에 세계적인 대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선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략하려고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만년초석으로 다져지던 력사의 나날들을 서술한 이 글의 마감에 우리 인민이 어떤 심장을 가진 인민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만은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삼지연에 모실 수령님동상의 기초에 놓일 대돌은 근 500t에 달하였다. 룡강화강석광산에서 정성껏 캐낸 이 집채같은 통돌을 삼지연 못가까지 날라가는데 무려 석달이라는 시일이 걸렸다. 무개화차에 올려앉힌 돌이 빠져나가기 빠듯한 차굴들과 양덕고개와 백암령과 같이 넘기 어려운 고개들이 로상에 수없이 많았지만 그 고비들을 무난히 넘겨 났은철길이 끝나는 위연역에 이르렀다. 거기서 대돌을 48개의 바퀴가 달린 대형련결차에 다시 옮겨싣고 앞뒤에서 두석대의 땅크로 끌고 밀고 하면서 포태를 지나 이젠 다 왔구나 했는데 포태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어느 한 근방의 고개길을 오르던중 그만 위태로운 정황이 발생하였다.

가파로운 령길을 한치한치 뚫아오르던 련결차가 중턱에서 힘이진하여 지쳐내리기 시작했던것이다.

그 순간, 길바닥을 무섭게 굽으며 지치는 차바퀴밑에 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

당시 삼지연군 안전부장인 윤성만이였다.

그의 장렬한 희생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돌은 구원되었고 백두의 용암대지를 형상한 화강석대돌로 다듬어져 위대한 백두의 령장을 받드는 초석이 되었다.

하다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대기념비를 받드는 고임돌로 굳어진 윤성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42살의 성실한 당원이었고 충직한 인민의 보위자였다.

공화국창건 30돐을 앞두고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평양에 올라가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천연색텔레비존을 받아안고 돌아오던 그는 혜산역에서 대돌운반전투가 벌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중나온 승용차를 돌려보내고 그 전투대오에 들어섰다. 불의의 위급한 정황이 일어나자 수백t이나 되는 대돌을 실은 차 바퀴밑에 그 누구보다 먼저 몸을 던진것이었다.

그는 얼마 안 있어 세 자식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아들과 딸에 이어 셋째가 태어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군내 인민의 보위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그가 한 말이 있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한 그 말속에 항일의 혁명전통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가 있다.

《나나 동무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지금 어떤 땅에서 살고있소. 항일혁명렬사들이 피로써 찾은 땅에서 살고있지 않는가. 더우기 인민의 보위자로서 우리가 지켜선 이 삼지연은 흙 한줌을 움켜쥐면 그속에 오늘을 위하여 바친 투사들의 피가 한줌, 뼈가 한줌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국진군의 그날 나라를 찾은 다음 삼지연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리자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삼지연땅에 인민의 무릉도원을 건설하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소. 그 설계도를 현실로 꽃피우려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삼지연땅에 찾아와 소중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단 말이요.

우리들이 그 무릉도원속에서 행복의 열매를 부끄럽지 않게 따 먹으면서 살려면 투사들의 피가 스민 이 땅에 자신들의 심장을 바쳐야 하오.》

그의 영웅적희생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윤성만의 안해와 자식들에게 애국렬사증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고 그가 남기고간 아들과 딸을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 보내어 아버지의 대를 잇도록 당에서 맡아 키워주자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해같은 사랑과 배려속에 당시 철부지들이었던

그의 아들과 딸은 물론 유복자로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둘째딸도 혁명학원에서 당의 은덕속에 아버지없는 설움을 모르며 자라 나라의 어엿한 일군들로 성장하였다.

지금 그의 아들 윤창혁은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현역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 선렬들의 넋이 어린 그 땅, 아버지가 그리도 사랑한 혁명의 성지에 태를 묻고 자라는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는 출판보급일군으로서 자기의 생을 바쳐가고있다.

우리 당의 만년초석이 역적으로 다져지던 1970년대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다.

그 나날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충직한 우리 인민의 심장에 받들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과 선렬들의 체취가 어린 혁명전적지마다 대기념비들이 수없이 일떠섰고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었다. 왕재산리와 삼지연군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대흥단군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 세기초에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더 훌륭히 꾸려졌다.

혁명전적지들에 거연히 서있는 불멸의 대기념비들, 그 대기념비들을 정히 받들고있는것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민족의 만년재보로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의 심장들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후손들이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땀은 심장으로 력력히 아로새긴 글발, 오늘도 우리 가슴을 백두의 넋으로 높뛰게 해주는 신념의 이 구호를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이어온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더 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조선혁명의 천만년미래를 고이고있는 만년초석은 드팀없을것이다.

5. 100년사상사 총화

(1)

주체71(1982)년 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나는 당중앙위원회의 여러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임이 시작되자 느닷없이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중삼동무가 왔는가고 물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왔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있던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일순 장내는 조용해졌다. 만장의 시선은 자연히 장군님과 최중삼에게로 쏠리였다.

《나는 1966년 5월부터 1969년 7월까지 한 3년반동안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였습니다.

최중삼동무, 그때 우리가 분석한 고전들이 모두 몇건이더라?》

그가 31건이라고 대답올리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석평가한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는 맑스의 〈자본론〉 5개 분책을 한건으로 계산하여 모두 31건입니다. 맑스주의고전들을 분석평가하는데 최중삼동무가 참가하였으니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자기 본신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그 방대한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였습니다.》

조용하던 장내는 갑자기 감동과 걱정으로 설레였다.

《우리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저서와 정치경제학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 동안 생각하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달동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눈에 피발이 서는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4년 2월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선포가 하루아침에 쉽게 내려진것이 아닙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김일성주의가 선포된지는 8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100년사상 사총화가 시작된지는 16년, 그처럼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며 그이를 경모의 정이 어린 눈길로 우러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일성주의는 20세기 70년대에 선포되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조선혁명은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령도되어왔다.

하나의 새로운 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의 후계자의 자질과 실력을 완벽하게 갖춘 위인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사업이다.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도 맑스와 레닌 자신이 이룩지은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충실했을뿐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을 계승해나갈수 있는 비상히 높은 자질과 실력을 갖춘 엥겔스와 쓰딸린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위대한 사상은 인류를 지배하고 시대를 이끌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인류력사는 사상의 력사였으며 인류가 일으킨 모든 혁명도 사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유럽의 상공에 배회하던 《공산주의유령》을 과학적인 사상으로 전환시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조이며 레닌은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실정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고 그것을 무기로 사회주의10월혁명을 승리에로 이끈 쏘베트국가의 첫 수령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는 이 걸출한 사상가들의 사상에 의하여 시원이 열리고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성공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맑스가 창시하고 레닌이 발전시킨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인민대중의 해방위업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남기였다. 그러나

탁월한 사상인 맑스-레닌주의도 역사적, 지리적제한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세계 노동계급을 자본의 철퇴에서 해방할 사명으로 출현한 맑스주의의 라침판은 착취계급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할 때까지의 방향각은 비교적 옳게 잡아주었으나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현실과의 편차각도가 눈에 뜨일 정도로 커지는것은 어찌지 못했다.

주체49(1960)년 가을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신 직후였다.

어느날 저녁 진지를 드시고 집무실로 나가시던 수령님께서 서재에서 《자본론》을 읽으시는 장군님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나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그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하신 수령님께서는 《자본론》을 읽으면서 느낀바를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주저없이 말씀을 올리시였다.

《자본주의의 착취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경제학적으로 론증한 <자본론>은 단지 경제학뿐만아니라 철학과 공산주의에 대한 맑스주의리론이 집대성화된 훌륭한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장군님의 말씀을 긍정하시였다.

《맑스는 잉여가치설로 자본가들이 은폐하고있던 착취의 비밀을 폭로했지. … 잉여가치설이 노동계급을 각성시키고 자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시고는 《자본론》 1권 머리글에 《나의 립장은 경제사회구성태의 발전을 자연사적과정으로 보는데 있다.》고 서술되어있는데 그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 명제를 놓고 한달동안이나 생각해오시던중이였다. 자연사적과정이란 자연운동처럼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다는 뜻이겠는데 사람과의 관계속에 있는 경제적사회구성태의 발전을 어떻게 자연사적인 과정으로 볼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흥분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렇다.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이다. <자본론>을 쓰던 그때는 맑스와 엥겔스가 매일과 같이 유물론의 몽둥이를 들고 관념론과 형이상학의 잡귀신들과 결투를 하던 때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연운동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 없고 사회운동 일체에 대해서도 유물론적으로, 물질적조건과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맑스의 그런 립장은 당시 서유럽의 사상계를 지배하고있던 종교적, 관념론적사회력사관에 타격을 주고 온갖 환상과 편견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의 비과학적인 견해를 바로잡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관념론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을 두들겨패는 유물론몽둥이를 귀중히 여기던 나머지 사람의 힘보다도 유물론 그자체를 더 위력한것으로 보았다. 다시말해서 자연운동뿐아니라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객관주의적인 물질중심론에 치우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회운동의 방향각을 지시하는 맑스주의의 라침판은 사실 처음부터 편차각을 가지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 편차각이 초기로동운동에서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는 국제로동운동안에서 엄청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맑스도 그렇고 엥겔스, 레닌도 그렇고 모두 물질중심론으로 경제와 사회력사문제를 풀었지만 나는 사람중심론으로 푼다. 나는 책을 보고 논리적으로 추상한게 아니라 혁명실천을 통해 모든 사회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그 담당자인 사람의 사상의식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중심론의 투쟁관을 가지고 빨찌산도 하고 민주건설도 하고 사회주의건설도 하였다. 나의 정치관, 경제관, 력사관은 사람중심관이다....

잠시후 고즈넉한 방안에 수령님의 음성이 다시 울렸다.

《나는 야박하게 <자본론>의 결함을 들추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사람들이 우리의 사상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얼마전에 우리 과학자들이 쓴 <자본론>해설문을 보니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파악하자면 <자본론>을 학습해야 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고전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 교조주

의가 뿌리박혀있다. 우리는 <자본론>을 읽었지만 <자본론>대로 경제건설을 하지 않았다. 100년전에 자본주의생산관계를 대상으로 쓴 경제이론으로 경제건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혁명에서 제일 위험한것이 수정주의라면 제일 해로운것은 교조주의, 사대주의이다.》

그날 저녁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서재를 나서 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왜 그토록 경계하시는지 잘 알고계시였다.

항일혁명시기 수령님께서서는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악용하는 민족배타주의자들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였다. 그들은 《공산당선언》에 실려있는 《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라는 명제와 《1국1당제원칙》의 국제당규약을 전면내에 내걸고 조선혁명가들이 중국땅에서 조선혁명운동을 하는데 대해 《반맑스주의적, 반혁명적》 행위라고 하며 배격하였으며 심한 경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혁명》이 혁명을 교살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수령님께서서는 국제주의원칙을 지키면서 민족해방, 조국해방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시였다. 조국을 해방하지 않고 조선의 로동계급을 해방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공산당선언》에는 어떻게 씌여있든 민족해방다음에 계급해방이라는 원칙을 세우시였으며 계급이 아니라 애국을 공통분모로 하여 항일혁명을 이끄시였다.

애국이 없는 계급의식과 애국주의가 없는 국제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배타주의와 격렬한 투쟁을 벌리시면서 조선 국내와 중국동북지구에서 수많은 조국광복회조직과 우리 당 기층조직들을 꾸리시였는데 마침내는 국제당에서도 그이의 혁명로선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애국적인 지주, 자본가들과도 통일전선을 하여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고 해방후에는 민족자본가들까지 혁명의 동력으로 포섭하여 민주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하시였다.

맑스주의는 지식인을 사회의 간층으로 규정하여 기회주의자로 동요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마크에 마치고 낮과 함께 붓을 새기시여 그들을 애국자, 혁명가로 되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은 피의 바다, 눈물의 바다, 고난의 진펄길을 헤쳐가는 투쟁속에서 형성되고 검증된 정신적결정체였다.

이미 대학시절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맑스-레닌주의의 제한성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해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부터인가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할 결심을 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대하는 교조주의와 허무적으로 대하는 수정주의로 하여 국제로동운동안에 엄청난 후파를 미치고있던 1960년대의 심각한 사태가 장군님으로 하여금 그런 비상한 결심을 내리시게 하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된 때부터 장군님께서서는 100년사상사총화의 절박성을 더욱 크게 느끼시였다. 그것은 이 사업이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수령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과 깊이 련결되어있기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날 맑스주의고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당중앙위원회 일부 일군들속에도 만연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 사업상용무로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찾아가신 일이 있는데 그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것처럼 눈을 꼭 감고 앉아 입안의 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고있었다. 알고보니 농촌지구에 나가 정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레닌의 저서 《협동조합에 관하여》에 있는 《멋쟁이》 명제들을 암기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시여 레닌의 명제만 외워서야 되겠는가, 엥겔스의 저서 《프랑스와 도이쉴란드의 농민문제》에 있는 명제들까지 외우면 더 좋지 않겠는가고 하시자 그는 진담으로 생각하고 그런 책이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때에야 엄한 표정을 지으시며 농촌지구에 나가 정치사업을 하자면 수령님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연구해야지 《협동조합에 관하여》의 명제를 암기하

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는가고 비판하시였다.

《협동조합에 관하여》는 레닌이 신경제정책이후 로씨야의 농촌을 지배하고있던 개인농민정리를 사회주의적정리로 개조하기 위한 문제를 리론적으로 해명할 목적밑에 쓴것이였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때에는 간부들이 아래사람들을 추궁할 때도 맑스와 레닌의 명제에 립각하여 추궁을 했고 칭찬을 해도 맑스와 엥겔스의 명언을 인용해가며 칭찬을 하던 때였다. 입당심의를 받을 때에도 《공산당선언》이나 《쏘련공산당략사》에 있는 명제를 몇개씩 외워야 순조롭게 통과될수 있었다.

주체55(1966)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안남도 온천읍거리를 지나시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시였다. 책방주변에 술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있어 가보시니 옷차림을 멀끔하게 한 중년사나이가 19세기 우리 나라 실학파의 대표적인물인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내흔들면서 열변을 토하고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 나라의 국보인 《목민심서》는 당중앙위원회 《지도부》에서 특별히 지정된 필독문헌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만사에 막히는 일이 없어지므로 간부로부터 려염집아낙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읽어야 한다고 극성스레 선전을 하였다. 책방에 쌓여있는 《목민심서》를 그 달안으로 다 팔아치우지 못하면 우로부터 되게 추궁을 받기때문에 옛날 약장사처럼 엉너리를 치면서 책선전을 하고있는것이였다.

문제의 엄중성은 수령님의 로작이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같은 혁명도서들을 다 제껴놓고 100년전 근로인민에게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하고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한 책을 로동당시대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필독도서로 정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현대수정주의의 독소가 세계적범위에서 역병처럼 퍼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었다.

국내외에 조성된 이런 엄중한 사태로 하여 맑스-레닌주의고전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 문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중대한 역사적과제로 나서게 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의의와 제한성을 똑똑히 밝혀내야만 그것을 무

작정 교조적으로 따라가도 망하고 배신적으로 수정해도 망한다는것, 오직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혁명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때 자주의 길로 곧바로 걸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깨우쳐줄수 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5(1966)년 5월초에 100년사상사총화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수령님께 말씀드리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물론 적극 지지하시였다. 그러나 그 일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잡도리를 단단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실 로동계급은 지난 한세기동안 줄곧 맑스-레닌주의를 운명개척의 무기로 혁명실천에 적용하였을뿐 그것을 한번도 검토총화해보지는 못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그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총화한 실례는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5(1966)년부터 한 3년동안을 연구기간으로 삼고 당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평가사업을 하기로 작정하시였다.

이 방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을 전개하자면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박식한 일꾼들이 필요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하나의 연구집단을 동원시켜도 아까울것이 없었지만 그이께서는 이 아름다운 과제를 시간과 로력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소문없이 조용히 해내실 계획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업에 수령님의 서기들인 중어전문가 김순호, 로어전문가 최원식과 당중앙위원회 파장 최중삼을 동원시키기로 내정하시였다.

최중삼은 맑스-레닌주의철학과 정치경제학에 정통한 실력있는 교육자로서 장군님을 모신 학급에 들어가 강의도 해드린바가 있는 일꾼이였다.

최중삼, 김순호, 최원식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있었다. 최중삼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연구사로 있을 때에도 그렇고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할 때에도 나는 그와 함께 일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성격이 칼칼한축이였으며 입이 무거운 사람이였다. 후날 그가 부부장을 할 때 아래사람들이 《면

도칼 부부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을만큼 부정적 현상과는 무섭게 날을 세우고 투쟁하는 사람이였다.

일제시기 량강도 풍산땅의 막바지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산골청소년들이 로동력으로 팔려 도시로 밀려들 때 그 흐름에 실려 홍남지구로 오게 되였다. 향학열이 높았던 최중삼은 유해가스가 코를 찌르는 홍남비료공장에서 고된 로동을 하면서도 사립학교 야간반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해방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할수 있는 학력을 가지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도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그는 서울해방전투때 대퇴골에 중상을 당하고 수술까지 받은 몸으로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학제를 마치고 정치경제학 연구사, 교원으로 있다가 당중앙위원회에 소환되였다. 생활정력으로 보나 학력과 실력으로 보나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총화와 같은 중요한 사업에서 한몫할수 있는 사회과학자였다.

수령님의 서기인 김순호도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서들을 많이 읽은 견문이 넓은 지성인이였다.

그의 경력이 아주 흥미있었다. 3살때에 부모를 따라 길림으로 간 그는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시절 비밀회합장소로 자주 리용하시던 약왕묘주변에서 항일혁명연고자 황귀현의 집과 가까이 지냈으며 학교도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였다. 그후 길림법정대학을 졸업하였다. 주체34(1945)년에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연고자들로 길림조선인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다가 림춘추의 소개로 귀국하여 외무성에서 일하였다. 김순호는 주체44(1955)년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을 하던 당시 베이징에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는데 그때 중어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였다. 수령님께서 그를 대견히 여기시여 베이징대학 어문학부에서 공부를 더 하고 나와 같이 일하자고 하시였다.

베이징대학에서 중어를 완전히 정통한 김순호는 귀국하여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게 되였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웅장한 사나이였으나 녀인들처럼 성미가 온순하고 조용하였다.

김순호가 중국문제전문가였다면 최원식은 소련문제전문가였다.

최원식은 호방하고 서글서글한 성미에 체격도 미출한 미남형의 멋

쟁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끼예브종합대학 국제관계학부를 졸업한 이후 외무성에서 얼마간 일하다가 오래동안 벨가리아와 로므니아에서 우리 나라 대사관 서기관을 하였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전문이 넓고 사회과학에 박식한 그는 류학생들과 함께 유럽나라 대사관들에 근 10년 동안 나가 살아서 그런지 옷차림과 몸가짐들에 어딘가모르게 유럽풍이 다분하였다. 영국신사와도 같은 틀이 잡혀있어 장군님께서도 이름대신 《영국신사》라고 친근하게 부르곤 하시는 때가 많았다.

장군님께서서는 활달하고 호방한 그의 성격을 특별히 좋아하시였다. 한때 신원동에 있던 그의 집에 자주 찾아가시여 죽음기로 새로나온 노래들과 세계명곡들을 감상하곤 하시였다.

최중삼, 김순호, 최원식은 서로 경력이 다르고 성격 또한 판이한 일군들이였으나 셋이 다 수재형이라고 할만치 머리가 좋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직한 지성인이라는 공통성이 있었다. 그들은 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였으므로 행동상 통일성과 비밀을 보장하는데서도 편리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동서방의 철학과 종교, 국제관계사와 세계정치학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있고 여러 나라 언어에 정통한 이 세사람이면 능히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세계적인 판도에서 선행고전들에 대한 심도있는 총화를 할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후날 최중삼은 당시에 적어둔 일지와 비망록들을 정리하여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해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면서 로동계급의 사상사를 분석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읽은 책들을 다 쌓아놓으면 주체사상탑의 대돌높이만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것은 결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였다.》

최중삼은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의 육체적생명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예감에서 《시대와 위인의 사색》이라는 표제를 달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다 정리해놓았다.

지금 당력사연구소 문헌고에 보관되어있는 100년사상사총화와 관련한 심도있는 자료는 최중삼이 생의 말년에 악전고투하여 정리한 《시대와 위인의 사색》 하나밖에 없을것이다.

(2)

주체55(1966)년 5월 20일 9시경 최중삼, 김순호, 최원식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인사를 받으신 장군님께서 두툼한 책들이 석줄로 쌓여 있는 량수책상을 마주하고앉아 말씀하시였다.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몇년동안에 걸쳐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분석총화하자고 합니다. 말하자면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해보자는것입니다. 선행고전가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가 창시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누구도 그 이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해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분석총화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옳바른 자가 없었습니다.》

세사람의 얼굴에 긴장과 흥분이 엇갈리며 격동된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장군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새로운 사상리론과 정책만이 선행리론을 분석평가하는 기준으로 됩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총화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맑스-레닌주의를 분석총화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총화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장군님의 음성은 나직이 울렸다. 그러나 세사람의 가슴은 격랑을 안은듯 세차게 끓뛰였다. 말씀의 거창한 의미에 숨쉬기조차 가쁠 정도였다.

그들에게 믿음과 격려의 시선을 보내시면서 장군님께서 이렇게 뒤를 이으시였다.

《연구토론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자고 합니다. 나는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다른 날에는 연구로론에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동무들은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려는 나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이 사업을 하는데서 나를 많이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100년사상사총화의 시작은 이렇게 선포되었다. 요란한 축하도 박수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 크지 않은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후날 세월이 갈수록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더욱 무거워질 역사적위업이 시작되었다.

만일 그때 100년사상사총화조에 망라된 일꾼들이 그 사업의 중대성과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앞에 옳지 못한 기록으로 될것이다.

김순호나 최원식은 물론 장군님의 의도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한 최중삼이도 마찬가지였다. 후날에 그는 고백하기를 처음 며칠동안은 무엇부터 읽었으면 좋을지 몰라 이책저책 만지다가 결국 어느 한책도 똑똑히 읽지 못하고 다음번 총화조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4일후 100년사상사총화조모임은 네 벽이 전부 서가로 둘러싸여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고 또 많은 책들을 다루어야 하는것만큼 도서관에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 도서관은 수령님께서 친히 마련해주신겁니다.》

총화조성원들은 한동안 도서관을 경건히 둘러보았다.

《아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후원으로 방도 생기고 총화에 필요한 맑스-레닌주의원전들과 고급동서의 각종 참고서들도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기본토론에 앞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평가하겠는가 하는 총적관점과 방법론부터 옳게 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책상우에 석줄로 높이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키시였다. 3년동안 보고 토론할 맑스-레닌주의고전

들이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 번역판이었다. 책상밑에는 원문판도서들이 따로 무드기 쌓여있었다.

《내가 대학시절에 책을 읽으면서 보니 번역을 잘못된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문판도 구해놓았습니다.》

총화조성원들은 후더워지는 눈으로 높이 솟은 《책탑》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바쁘신 장군님께서 이처럼 많은 책들을 구해놓으신데 감동되었고 이제 탑처럼 쌓여있는 그 많은 책들을 독파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지간히 기가 질리기까지 하였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나 총화조성원들을 부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서랍에서 종이 2장을 꺼내시여 앞으로 총화조성원들이 읽고 토론하여야 할 고전들의 제목을 불러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 불러주신 고전들은 다음과 같다.

— 맑스, 엥겔스의 저서

《유태인문제를 론함》

《헤겔법철학비판 서론》

《경제－철학수교》

《신성가족》

《도이칠란드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공산주의원리》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

《자본론》

《고타강령비판》

《자연변증법》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

《루트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도이칠란드고전철학의 종말》

《반두링론》

《력사적유물론에 관한 서한》

《프랑스와 도이칠란드의 농민문제》

－ 레닌의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

《1보전진, 2보퇴각》

《민중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전쟁강령》

《국가와 혁명》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

《프로레타리아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

《프로레타리아독재시기에 있어서의 경제와 정치》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현물세에 관하여》

《협동조합에 관하여》

《철학노트》

장군님께서 책 한권을 집어들며 말씀하시였다.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은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서들을 숭상하면서 당의 정책이 새로 나오면 맑스-레닌주의리론에 맞추어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혁명에 큰 해독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여놓을것을 우리앞에 제기하고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우리는 매개 고전들을 정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자한자 뜯어 읽어야 하며 단어의 뜻이 잘 리해되지 않으면 몇달이라도 품을 들여 푹푹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고전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리면 의사의 오진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 대단히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기때문이었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선행고전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평가하겠는가 하는 총적관점과 방법론을 세우는 작업을 총화사업의 첫 단계로 정하고 그 준비작업을 한 서너달 한 다음 9월이나 10월에 가서 맑스의 초기저서 《유태인문제를 론함》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자고, 고전평

가를 정확히 하자면 기초준비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법론을 토론하는 첫 단계 작업기간에 고전독서를 병행시킬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고전을 총화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눈으로 고전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 두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그이께서는 최종삼을 돌아보시며 제기한 토론문제에 대해 생각한 바를 말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최중삼은 일상생활에서는 과묵한 사람이지만 연단에 올라서거나 학술토론들을 할 때에는 보기 드문 열변가로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들먹거리게 하였다.

《고전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일동지께서 강조하시였습니다. 그 목적은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적내용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선행고전들에 대한 좌우경적편향을 없애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인류사상발전에서 주체사상이 차지하는 역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있습니다.》

최중삼은 그로부터 선행고전들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서 선행고전들을 절대적인 혁명리론처럼 보아도 안되며 반대로 허무적으로 대해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실천적가치와 제한성을 밝히는데 힘을 넣어야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말을 받으시였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의 가치와 제한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치와 제한성에 대해 다문 한 가지라도 좋으니 실례를 들어 누구든지 말해보시오.》

장군님께서는 김순호와 최원식을 번갈아보시였다. 오늘에 와서는 나어린 대학생들도 맑스-레닌주의리론의 현실적가치와 제한성에 대해서는 능히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주체55(1966)년 당시에는 한다하는 리론가들인 총화조성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했다.

성미가 호방한 최원식까지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것을 보고 장군님께서는 웃으시였다.

《최서기동무가 왜 이렇게 과묵해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말

하겠습니다. 맑스주의의 매 고전들에는 리론실천적가치와 제한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제한성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면 반증적으로 고전의 리론실천적가치를 해명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현대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매우 중시하고있는데 사회운동과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력사적시대와 사회적지반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맑스주의가 언제 발생하였는가 하는것부터 분석해보자고 하시였다.

먼저 최종삼이 맑스주의는 산업자본주의시대에 출현하였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최원식이도 맑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하기 이전시대 다시말해서 자본주의가 아직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고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충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대답을 긍정하시고 당시에는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발전의 불균등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았거나 그 작용이 뚜렷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국제자본주의의련쇄의 어느 한 고리를 끊을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김순호에게 물으시였다.

《그렇다면 맑스, 엥겔스의 학설들이 이러한 시대적조건과 어떤 관계에 있었겠습니까?》

김순호는 녀인들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맑스주의가 그런 시대적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고, 맑스와 엥겔스가 사회주의동시혁명리론을 제기한것도 당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아직 불균등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은것과 관련된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옳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제한성은 그들이 쓴 모든 저서, 그들이 내놓은 모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러면 이제는 맑스주의가 어떤 사회적지반우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보자고 하시는 장군님께 최원식이 말쑼을 드렸다.

《맑스주의는 영국이나 도이쉴란드와 같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지반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맑스주의리론들이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식민지, 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의 실정에서도 다 맞아떨어질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하신 그이께서는 맑스의 저서 《고타강령비판》 하나를 분석해보아도 그 문제를 이해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여러가지 철학리론문제들을 내놓은 이 논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를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맑스가 순수 논리적인 사색으로 반세기후 우리가 실지로 겪고있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를 독자적인 리론적범주로 설정하고 전개한것은 참으로 천재적이다, 그러나 맑스는 이미 19세기 70년대에 농민이 농업로동자로 전환되어 나라안에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만이 존재하던 영국을 표본으로 하여 사회주의동시혁명의 견지에서 그 문제를 연구하였기때문에 오늘의 실정에는 맞을수 없다고 하시었다.

당시 영국과 같은 조건에서는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기만 하면 짧은 기간에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갈수 있으리라고 본것이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매우 짧은것으로 예견하고 또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시간적으로 일치하리라고 보았다.

이 리론이 오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속에서 매개 나라들마다 각이한 속도, 각이한 형태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현시대의 실정에 맞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은 과도기의 임무가 끝나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일치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수정주의자들은 과도기의 임무가 끝나면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를 망치게 하자는 속심입니다. 지금 과도기의 계선문제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심각한 론쟁이 벌어지고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전토론을 할 때 구체적으로 토론합니다.

그러시고는 여기서 명백한것은 맑스주의리론이 시대적제한성과 사회적지반의 제한성을 받고있는 사실이라고 하시었다.

력사적, 지리적제한성,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였다.

《제한성의 요인이 이것밖에 없겠는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해봅시다.》

또다시 장군님께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시였으나 누구도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음으로 맑스주의가 반영하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맑스주의는 유럽로동계급이 처음으로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힘을 자각하고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일떠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학설이였다.

사실상 맑스와 엥겔스가 선행시기 부르쥬아사회과학이 달성한 성과들을 섭취하여 유물변증법인 맑스주의를 형성하는 과정은 판념론, 형이상학과의 사생결단의 투쟁과정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물질중심론으로 장검과 방패를 버린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력사운동도, 경제적사회구성대의 발전도 물질론에 기초한 자연사적운동으로 해석하던 나머지 사람의 사상의식에 대해서조차 도 외시하는 착오를 범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도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되어 움직이게 되는가 하는 요인을 규명할 때 동력을 형성한 세가지 물질적요소인 석탄, 물, 증기압력의 역할만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낸 로동자, 기술자들과 기관차를 조종하고 운행하는 주인인 기관사의 역할을 차요시한것과 같은 엄중한 착오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것이 바로 출발점에서부터 생겨난 맑스주의의 편차각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맑스주의는 세계와 물질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철학에서 더 벗어날수 없었습니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공적은 이 제한성을 발견하고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사람중심론의 철학을 내놓은데 있습니다. 물질중심론과 사람중심론은 취급하는 근본문제부터 판이합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혁신적인 철학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열정에 불타는 시선으로 세사람을 쪽 둘러보시였다.

최중삼은 《시대와 위인의 사색》에서 그때의 격동된 심정을 이

렇게 표현하였다.

《그 순간 나는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어떤 찬란한 물체가 눈앞으로 확 줄달음쳐오는듯 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3시간이 지났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3시간동안 자리를 한번도 뜨지 않으시었으며 한 모금의 물도 드시지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맑스주의의 형성과정과 발전로정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그날 오전 한것동안에 우리는 몇 달에 걸친 대강습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배웠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토론을 마치고 총화조성원들에게 자그마한 지함을 하나씩 나누어주시었다.

지함 한쪽면에는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전우가 되자!》라는 활달한 장군님의 친필이 써여있었다. 지함안에는 고급학습장 3권, 만년필 1개, 가죽구두 1켤레씩 들어있었다. 장군님께서 오늘을 예견하시고 그동안 달마다 모아두신 생활비로 마련하신 선물이였다.

《우리가 이제 100년의 긴 역사를 거슬러 간고한 행군을 하면서 기행평을 쓰자면 많은 신발과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오.》

총화조성원들은 감격이 북받쳐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덤덤히 서있었다.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총화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이때부터 총화조성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장군님을 모시고 100년사상사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단계 준비작업에만도 녀달이라는 긴 시간을 바치였다.

예정대로 주체55(1966)년 10월초에 맑스의 초기저작인 《유대인문제를 론함》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다.

그날 최원식은 《고전토론개통식》날인데 의식을 거행하자고 하면서 자기 집의 축음기를 가져다놓고 소리판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에 맞추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른 다음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감상하게 하였다. 《유대인문제를 론함》이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고전이라고 생각한것 같았다.

발생초기부터 고대로마제국의 탄압을 받는 불행의 운명을 타고난 유대인들의 비극은 맑스가 공산주의활동을 시작한 19세기 중엽에도 도이칠란드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여기서 흥미있는것은 맑스의 가문이 유대인공동체의 두령을 조상으로 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베토벤이 자기 개인의 운명과 결부시켜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였다는 말도 있지만 공산주의창시자인 맑스가 집필한 《유대인문제를 론함》은 개인의 운명을 초월한것이였다. 그 론문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탄압받는 모든 인간들의 해방문제를 론하였다.

맑스는 원래 유물론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였다. 그것은 그가 청년시기에 《헤겔좌파》에 가담한 사실만을 보고도 알수 있다. 맑스는 1842년 《라인신문》 편집자로 있을 때에 관념론으로부터 유물론으로, 혁명적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사상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문제를 론함》은 사상전환기에 집필한 그의 첫 과학적공산주의문헌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 문헌에 대한 분석은 류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최원식에게 문헌의 내용을 개괄해보라고 이리시였다.

최원식은 끼예브에서 공부할 때에도 이 책을 읽어보고 이번에도 또 한번 읽어보았는데 리해하기 힘든 문구들이 너무 많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모를것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문구들의 내용이 아리송한것도 고전의 결함들중의 하나인것 같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겨우 한두번 읽어보고 모르겠다고 하는가, 이 문헌을 정확히 평가하자면 적어도 10번이상 읽어보아야 한다고 가볍게 꾸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실지 그 론문을 10번이상 읽으시였다. 그 론문뿐아니라 토론목록에 오른 31건의 고전들을 이미 그렇게 여러번 읽으시였다. 가장 분량이 많은 《자본론》만 하여도 3번이나 읽으시였다. 이것을 200자원고지로 환산하면 약 8만매에 달한다. 그것도 자자구구 따져가면서 읽으셨는데 어떤 명제들에 대해서는 수십번 읽어보며 몇달씩 사색하시였다.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는 수십번 읽으시였다. 그 테제는 출판하려고 쓴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맑스가 간단히 초안을 잡아놓은것인데로부터 분량상으로는 불과 몇페이지밖에 안되지만 다른 저서들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있었던것이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면 유럽의 어느 한 관념론철학가가 그 테제를 가리켜 《미궁의 숲속》이라고 비난하였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그 《미궁의 숲속》을 해명하기 위해 테제분석에 앞서 읽고 테제를 분석하는 날이면 매번 총화조성원들과 함께 또 읽으시였다. 그것은 의사가 한 생명에 대하여 수십차례 검진을 반복하는것과 같은 책임성이였다. 그이께서는 《진단》을 정확히 내리시기 위해 고전을 토론할 때마다 그와 관련이 있는 다른 도서들도 다 읽으시였다. 레닌의 저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분석평가하실 때에는 그 저서보다 7배나 분량이 더 많은 《제국주의노트》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으시였고 쓰팔린의 저서 《레닌주의 제문제》는 6번이나 반복하여 읽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독서시간을 얻기 위해 주무시는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시였다. 진지를 드실 때에도 책을 읽고 지어 리발을 하시면서도 읽으시였다.

당시에는 도서실에 랭풍시설이 없었다. 총화조성원들은 장군님께선 풍기라도 놓아드리자고 토론하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선풍기를 놓으면 소음이 나서 사색을 집중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성의를 사양하시였다.

《나는 원래 집중력이 있기때문에 선풍기따위의 소음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지만 저 영국신사는 글을 쓸 때엔 안해의 숨소리마저 방해가 되어 <여보, 옆방으로 좀 가오.> 하고 쫓아버리는 사람이니 선풍기를 놓으면 안됩니다. 좀 더워도 다같이 극복합시다.》

한여름이면 도서실에 앉은 사람들의 몸에서는 땀이 연방 흘러내려 속옷이 화락하니 젖어버리곤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무더위도 느끼지 못하시는듯 책을 읽으실 때에는 의자에서 한번도 일어나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집중력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그이께서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을 읽으실 때였다. 내쳐 책을 읽으시던 장군님께서 점심무렵에 고개를 드시고 창박을 내다보며 어리둥절해하시였다. 책을 읽으시기 전에는 분명 하늘이 새파랗게 맑았는데 소낙비가 짹짹 내리고 온통 물판으로 되어버렸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 놀라운 목소리로 언제부터 비가 왔는가고 물으시자 곁에서 누구인가 아니 번개치고 우뢰우는것도 모르셨습니까, 아까 하늘이 무너지는것처럼 요란했었는데 하고 도리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서 31권에 대한 평가는 그저 한두번 읽어보고 손쉽게 내려진것이 아니였다.

첫 순서로 정한 《유태인문제를 론함》에 대한 토론에만도 보름남짓이 걸렸다.

《유태인문제를 론함》에서 맑스는 탄압받는 유태인문제를 정치계급적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해소시켜 도이츨란드의 전제제도에 타협한 청년헤겔파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맑스는 유태인의 인간적해방을 포함한 압박받는 모든 인민들의 해방은 사회계급적해방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수 있다고 하였다. 《유태인문제를 론함》은 인간해방의 계급적성격을 해명한것으로 하여 가치가 있는 론문이였다.

최중삼, 최원식, 김순호들은 맑스가 인간적해방과 사회계급적해방을 같은것으로 본 이 론문에서는 제한성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맑스의 견해를 긍정하면서 최중삼은 《맑스는 〈유태인문제를 론함〉 이후에 인간적해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주로 계급적해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량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 사람을 둘러보며 동무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53(1964)년 2월에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읽어보았는데, 그 테제에 사상, 기술, 문화의 세가지 혁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인간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은 같은것이 아니다, 그 사

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제급적구속에서뿐 아니라 자연의 구속, 로동의 구속, 낡은 사상유습의 구속 등 모든 구속에서 해방될 때 인간적해방이 실현된다고 하시였다.

인간적해방은 계급적해방보다 몇계단 더 높은 문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계급해방이 이루어진 우리 나라에서 아직 제철소로동계급은 고열로동과 같은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하여야 인간해방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총화조성원들과 완전히 상반되게 《유태인문제를 론함》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착오는 인간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같은 개념으로 본것이라고 하신 장군님께서는 레닌이 내놓은 《쏘베트정권+전기화=공산주의》라는 유명한 계산식에도 엄밀히 따지면 착오가 있다는데 대해 밝히시였다.

사상, 문화혁명문제가 빠졌기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답이 나올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는 기술,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를 발전시켜나가면 맑스, 엥겔스에 의하여 유령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된 공산주의리론이 다시 유령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 소련에서는 그만하면 전기화가 실현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수정주의, 자본주의귀신이 나오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간이 모든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될 때 인간적해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수 있으며 결국 그것을 공산주의사회로 볼수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토론자들이 별로 문제거리가 없다고 본 《유태인문제를 론함》에서 이렇듯 큰 문제를 발견하시였으며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정의를 내리시였다.

맑스의 초기론문인 《헤겔법철학비판 서론》과 《신성가족》을 토론할 때에는 종교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였다. 맑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한것이 바로 《헤겔법철학비판 서론》에서였다.

김순호는 종교문제를 토론하는 날 일제시기 자기가 읽은 《종교와 맑스주의》라는 책에서 맑스주의에는 계급투쟁론만 있고 인간이 가장 바라는 영생론과 사랑론이 없다고 한 대목의 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책의 저자들은 엥겔스선생님은 생명이 부정되어 죽음으로 되면 그 죽음은 소멸된 낡은것이어서 영원히 소멸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신학자들은 생명이 부정되어 죽음으로 되어도 낡은것으로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정되어 더 큰 영원한 생명으로 된다고 본다, 이것이 진짜 희망에 넘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아닌가고 력설했다는것이다.

총화조성원들은 신학리론가들의 궤변에 모두 허리를 쥐고 웃었다.

장군님께서도 웃으시면서 종교교리는 비과학적인 세계관속에 인간의 운명개척문제를 결부시켰지만 맑스주의는 과학적인 세계관속에 인간의 운명개척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영생론과 사랑의 인생론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다고, 그러나 주체사상에는 과학적인 세계관속에 계급론, 영생론, 사랑론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속에 존재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다. 령혼과 육체의 종교설은 비과학이지만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생명에 대한 주체의 리론은 완전히 과학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맑스의 저서 《신성가속》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최원식이 일부 사람들은 사회운동발전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판관념론이라고 혹평하고있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런 허망한 소리는 주체사상은 물론이고 주판관념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판관념론은 객관적세계가 실재하지 않는것으로 보지만 주체사상은 물질세계의 객관적존재를 인정한 조건에서 사회를 변혁하는데 참가하는 요인들중에서 혁명적사상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하며 다른 요인들의 작용을 규제하는것으로 보는 철저히 새로운 견해

라고 강조하시었다.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총화기간에 총화조성원들이 장군님께 제기한 질문은 무려 수백건이나 되는데 그이께서는 매번 그 자리에서 명백한 해답을 주시었다.

해학의 능수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을 분석하시면서도 가끔 우스개소리를 잘하시었다.

주체56(1967)년 3월말 맑스의 저서 《철학의 빈곤》에 대한 토론을 하던 날이였다.

장군님께서 총화조성원들을 잠깐 둘러보시고 최원식에게 《오늘은 <철학의 빈곤>을 토론하게 됐는데 <식원최>서기동무가 먼저 원문의 내용을 개괄해보시지요.》라고 짐짓 정색한 어조로 말씀을 건네시었다.

《<식원최>라니요?!...》

최원식의 눈이 휘둥그래졌어도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정색한 표정으로 맑스의 저서 《철학의 빈곤》은 프루동의 철학논문 《빈곤의 철학》을 거꾸로 뒤집어서 붙인 이름이니 오늘은 이름과 성을 다 거꾸로 불러야지요 하고 말씀하시여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도 다른 모임때와 마찬가지로 장군님께서 먼저 《철학의 빈곤》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었다.

《맑스가 저서명을 <철학의 빈곤>이라고 한것은 프루동이 이른바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철학을 자기가 새로 내놓는다고 하면서 쓴 책인 <빈곤의 철학>에는 아무런 리론도, 방법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프루동자신의 철학적인 무식, 철학의 빈곤을 폭로해줄뿐이라는것을 야유적으로 표현한것입니다.

사실 프루동의 리론에는 새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루동은 자기가 새로운 리론을 내놓는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다만 부르주아경제학자들과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의 견해, 헤겔의 관념변증법을 소부르쥬아지의 립장에서 더욱 궤변적으로 개악한것에 지나지 않는것이였습니다.》

프루동은 1846년에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소부르쥬아적생산자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물물교환을 통해 사회적문제를 해

결할수 있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반대해나섰다. 이른바 《인민은행》을 설립하여 가난한자들에게 리자없는 장기대부를 실시하면 빈곤을 없앨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는 자본주의사회도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다 가지고있기때문에 나쁜 측면은 없애고 좋은 측면을 살려서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장군님께서는 맑스는 《철학의 빈곤》을 통하여 프루동의 사회개량주의적인 황당무계한 경제실천방법론을 리론적으로 분쇄하여 로동대중을 각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자본주의제도안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한 궤변의 반동적본질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사실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이날 점심시간에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에 돌아와 자신의 구두를 수리하시였다. 생활비가 나오면 그것으로 총화조성원들에게 다문한가지씩이라도 기념품을 마련해주시면서도 자신의 구두는 사지 않으시고 늘 뒤축바닥이 닳은 닳은 신발을 신고다니 장군님이시였다. 신발수리때문에 처음 몇번은 구두수리공을 찾아다니시다가 그 외출시간마저 아까우시여 어디선가 쓰다버린 징모루를 얻어다놓고 자체로 손질하시였다.

그후 수령님의 서기인 리건일이 그것을 보고 구두수리를 해드렸는데 그 숨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항일투사 김명화의 아들인 그는 해방전에 방랑생활을 하면서 못해본 일이 없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 6월 첫주 화요일에 곧장 도서실로 출근한 총화조성원들은 의외의 광경에 그만 눈이 둥그레졌다.

벌써 장군님께서 도서실에 나오시여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계시는데 책상우에 카드종이가 키를 넘게 쌓여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고전을 읽으실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내용을 카드화하신 다음 그밑에 자신의 견해를 간단히 적어놓곤 하시였다. 여태 장군님께서 작성하신 카드가 키를 넘게 쌓였으니 총화조성원들은 그이의 초인간적인 정력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님의 로작연구자료철은 더 말할수 없이 많았다.

최중삼은 당시에 충격적으로 받아안았던 감정을 《시대와 위인의 사색》의 한 갈피에 이렇게 서술하였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받아안을 때마다 맑스-레닌주의고전들의 책장마다에 그렇게 많은 밑줄을 그으시고 그 내용을 옮기여 분석평가하신 카드의 〈산더미〉를 생각하곤 한다. 그이의 완전무결한 주체리론, 그이의 천재적인 고전적로작들은 이러한 정열의 산물, 노력의 결과물이다.》

주체56(1967)년 6월에는 맑스의 저서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 대한 토론을 하고 7월부터는 맑스의 대표적인 저서인 《자본론》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 19세기 마자르의 시인인 산도르 베찌피의 시 《사랑과 자유》를 친히 읊어주시었다.

생명은 한없이 고귀하다만
사랑은 그보다 더 귀중하여라
...
하기에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 뉘우침 없으리라
허나 자유를 위해서라면
사랑이여, 내 너마저 바치리라

장군님께서 여기서 시인이 노래한 자유는 부르쵸아향락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도, 무정부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자유》도 아니며 인간의 참다운 자유 즉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으로 볼수 있다고 하시었다.

결국 인간은 오랜 옛날에도 변증법의 철리를 모르면서 변증법적으로 사고한것처럼 자기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철저히 자주성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것이다.

잠시후 인간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그 본성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려명기에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노예사회에서는 노예적에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며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적착취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지배를 없애려는 데로 발전하였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자주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한 속성이며 진화에 의하여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자주성은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조하려는 창조성, 의식성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력사가 사람의 이 본성과 밀접히 련관되어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고전들은 일관하게 사회적운동의 원인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만 설명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 이것이 바로 사회력사발전의 주되는 요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사회적운동에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내 말이 리해됩니까?

총화조성원들은 장군님의 비상한 추상력과 해박한 지식, 철의 론리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본론》의 가치와 제한성에 대해서도 여러 형태로 분류하여 명백히 분석하시었다.

《자본론》에 대한 분석평가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던 주체56(1967)년 8월에 평양지구는 큰물피해를 입었다.

계속되는 장마비로 강물이 불어났을 때 서해의 거센 밀물이 대동강으로 거슬러올라오는 바람에 대동강의 수위가 삼시에 7~8m로 높아지고 폭이 터져 온 평양시가 물바다로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졌다. 큰물은 평양시가를 휩쓸면서 수백동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허물어뜨렸다. 교통이 차단되고 전화통신이 끊어지고 공장의 기대들이 감탕물에 잠겨 돌아가지 못하였다.

하여 100년사상사총화사업은 일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책임일군들로 조직된 중앙수해복구위원회가 내각사무국청사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수륙량용차를 타시고 시내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큰물피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장군님의 지휘밑에 인민군군인들은 수륙량용차를 타고 대동강을 오르내리면서 사나운 물살에 밀려내려오는 수재민들을 구원하고 집집승과 가정용품들을 건져냈으며 사회안전성(당시)군관학교 학생들은 사품치는 강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다가 하면 인민군대의 군의, 간호원들은 야전치료대를 편성하여 부상당한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업어나르고 구급치료전투를 벌렸다.

수십만의 수도시민들과 청년학생들도 큰물피해복구를 위한 결사적인 돌격전에 나섰다. 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은 4일동안에 1만여개나 되는 기계설비들의 녹을 말끔히 벗겨내고 공장구내에 뒤덮인 감탕을 깨끗이 걷어냈으며 평양제사공장 로동계급은 큰물이 들어온지 11일째 되는 9월 8일부터 벌써 공장을 다 정리하고 생산을 시작하여 그달계획은 물론 그사이 미진된 8월계획까지 넘쳐 수행하였다.

한편 물에 젖은 1 000만m³의 천을 수도시민들과 황해북도, 평안북도인민들이 날라다 빨아 말리웠는데 1m의 분실도 없이 고스란히 반환되였다.

수십만에 달하는 수도시민들이 그 어떤 대가도 바람이 없이 스스로 삽과 물통, 수세미와 걸레를 들고 달려나와 며칠새에 시내의 감탕을 말끔히 긁어내고 기계와 설비들을 닦아내어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시킨 이 놀라운 기적을 맑스주의고전의 경제학으로써는 설명할수 없다.

돈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상의 힘으로 인민을 움직이고 기적을 창조하여 만복을 꽃피우는 그런 신비스러운 국가의 표본을 100년사상사는 찾지 못하였다.

그 기간에 일어난 경이적인 사실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로써만 해석할수 있다.

100년사상사총화조성원들도 큰물피해를 입었다. 특히 강변아파트에서 살고있던 김순호가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의 집은 2층이었

는데 베란다밑으로 물이 차오르는것을 보고 가족들은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지만 김순호는 방안에 있는 술한 책들과 자료들이 걱정되어 집안에 남아있었다.

물속에 갇히워 한밤을 자고났을 때 웬 수륙양용차 한대가 와릉와릉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베란다앞으로 접근해왔다.

장군님께서 수륙양용차우에 서계시였다. 아빠트앞이 물바다여서 그는 장군님께 들어오시라는 말도 못하고 걱정애 호느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장군님의 옷은 온통 물에 젖어있었다. 그이께서는 김순호에게 강변주민들은 다 안전지대로 피신시켰는데 왜 집에 있는가고 소리쳐 물으시더니 무슨 꾸레미를 장대기에 꽂아 올려보내시였다. 밥꾸레미였다.

《그거라도 요기하시오. 물은 찌기 시작하고 이 아빠트는 무너질 념려는 없을것 같으니 안심하시오. 사람들을 시켜 먹을걸 더 가져오게 하겠소.》

《김정일동지, 제 걱정은 마시고...》

김순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받은 밥꾸레미는 장군님께서 드시려던 아침끼니였다.

《순호동무, 울지 마오. 왜 우는거요? 걱정하지 마오. 일없소. ... 당이 있지 않소.》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보이시고 어디론가 수륙양용차를 몰아가시였다.

100년래의 큰물피해는 수많은 미담과 기담들을 만들어냈다.

엥겔스는 《공산주의원리》에서 가장 풍부한 생활조건이 이루어진 공산주의사회에서만 《한사람의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사태가 제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장 불리한 생활조건과 맞다든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미풍이 더 활짝 꽃피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큰물피해복구가 끝난 다음 총화조성원들은 장군님을 모시고 다시 금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세사람은 장군님의 수척해지신 모습을 뵈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면 며칠사이에 그렇게도 심하게 축

가실수 있을가, 다들 이런 생각으로 아픈 가슴을 달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동안 수해때문에 한차례의 큰 전역을 치르었는데 고생이 많았을것입니다.》

《저희들이야 뭐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수령님을 모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고생이 많으셨지요.》

최중삼이 일동을 대표해서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부정의 뜻으로 손을 저으시였다.

《고생이라니요? 물론 며칠동안은 밤도 잤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침식을 잊고 감탕을 해치며 사방으로 뛰여다닌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야 다 인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동무들도 이번 수해와 그 복구과정을 체험하면서 많은것을 느꼈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

이번에도 최중삼이 격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나는 큰물피해복구과정을 목격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고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재난이나 사변도 이겨낼수 있는 강대한 나라라는것을 느꼈습니다.》

최원식이 뒤를 이어 대화에 뛰어들었다.

《그처럼 엄청난 큰물피해의 흔적을 단숨에 가셔버린 수도시민들의 영웅적위훈은 맑스도 미처 예상할수 없었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중심의 유물사관으로야 해석할수 없는 기적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김순호가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마음속의 걱정을 파헤치였다.

《원식동무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으로써만 설명할수 있는 기적입니다. 나는 이번에 수해복구에 펼쳐나선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였습니다.》

장군님의 존안에서는 시종 해빛같은 미소가 사라질줄 몰랐다.

《그러니 우리는 수해복구작업을 하면서도 100년사상사총화를 계속한셈입니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총화의 결론을 끌어내는 데서 이번 수해가 촉매작용을 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9월부터 100년사상사총화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 어느 고전들보다도 《자본론》에 대한 평가사업이 제일 많은 품이 들었다. 7월부터 시작된 토론이 10월 31일에야 끝났던 것이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자본론》에 대한 토론을 결속하시면서 우리는 경제적사회구성태의 발전을 자연사적으로 보는 경제학이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대로 목적의식적으로 인민의 리익에 복종하는 경제학, 군중로선에 의거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학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는 맑스의 저서와 함께 엥겔스와 레닌의 저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였다.

엥겔스의 저서들중 가장 흥미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토론된 고전의 하나가 《자연변증법》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엥겔스가 《자연변증법》을 쓰기 위하여 10년가까이 자연과학을 연구하였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당시 《자연변증법》은 자연과학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타파하고 변증법적인 유물사관을 심화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연변증법》 역시 다른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오늘에 와서는 응용가치가 없어졌다. 당시로서는 엥겔스가 놀랄만치 넓은 자연과학지식을 소유하고있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자연변증법》의 자료들중에는 적지 않은 부분이 부정확하게 론증되어 과학발전사에 대한 인식에서 혼란을 일으킬수 있는 요소도 있다. …

엥겔스는 《자연변증법》에서 모든 자연과학이 15세기이후부터 참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것으로 규정하면서 서유럽의 자연과학자료들만을 개괄하였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에서의 철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그것은 서유럽중심주의의 잔재를 가시고 사람들에게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주

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레닌의 저서 14권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도 그이께서는 논리의 구체성과 정확성, 과학적심도와 폭의 무한성, 새 이론 정립의 비범성으로 총화조성원들의 경탄을 자아내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맑스주의로서 제2국제당안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를 비롯한 각종 기회주의의 외곡과 공격으로부터 맑스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지키고 주요원리를 로씨야혁명의 구체적조건과 변화된 시대적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나 레닌의 저서들에도 맑스주의의 제한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레닌주의는 세계관적기초로 보나 구성체계로 보나 맑스주의와의 사이에 질적인 계선을 그을수 없다. 총체적으로 볼 때 레닌은 맑스주의의 철저한 옹호자, 충실한 계승자였다. 레닌의 사회발전관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는 《철학노트》만 보아도 맑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과 본질적으로 다른것이 없었다.

《철학노트》는 31건의 고전들중 제일 마지막으로 토론된 도서였다.

주체55(1966)년 5월 20일부터 소문없이 시작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 총화사업은 주체58(1969)년 7월 1일 드디어 끝을 맺게 되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1건의 고전들과 키높이 쌓인 카드 무지들을 한동안 감회깊이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시작하시었다.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구체적으로 말하면 웅근 3년 2개월, 해수로서는 4년에 걸쳐 〈독일이데올로기〉,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 〈자본론〉, 〈반두링론〉,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비롯한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저서 30여건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였습니다. …연구토론기간 우리가 읽은 책을 계산한다면 실로 방대한 량인데 그것도 한번 훑어보고 넘긴것이 아니라 발취할것은 발취도 하고 중요저서들은 몇차례 반복하여 읽고 토론하

였으며 매 저서들에 담겨진 사상과 이론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개별적명제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 측면으로 따져보고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내리였습니다.

…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사회주의승리의 역사를 펼치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응당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가 그 시대에는 도저히 넘을수 없는 역사적 제한성과 사상리론적미숙성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이번 연구 토론과정에 더욱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윽하여 맑스의 저서 《고타강령비판》을 손에 드신 장군님께서서는 맑스-레닌주의는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지며 심화발전될수록 그 역사적제한성과 사상리론적미숙성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사대주의적태도의 해독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우심하게 발로되고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사상의 출현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성숙된 역사적과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이 역사적과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과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어왔다, 오늘에 와서 혁명과 건설을 옳바르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 없다고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총화조성원들은 일어나서 환희와 격정에 넘쳐 열광적인 박수소리를 터쳐올렸다.

장군님께서도 일어나시여 역사의 증견자들을 뜨겁게 바라보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틀로는 짚수도 없고 해석할수도 없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부르고있는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

을 가져온 사상을 그렇게 부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불러야 할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잠시 사이를 두시였다가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그 절대적인 진리성으로 하여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세계를 포괄하게 될것이다....

도서실안에 메아리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며 무한한 공간으로 울려 퍼지였다.

(3)

그때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주체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드디어 김일성주의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었을뿐아니라 전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향도하는 지침으로 되었다.

이 선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신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가장 힘있는 존재로서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을 알게 한 전대미문의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인류의 려명기로부터 발생한 종래의 모든 사상과 철학들을 분석총화한 기초우에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리를 발견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립한 사상이기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발견하시고 그에 기초한 사상을 창시하시였으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신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일성주의가 선포된 1970년대부터 세계각지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각종 사상연구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오늘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아프리카지역주체

사상연구위원회,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등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지구의 모든 대륙에 창설되었다.

력사는 김일성주의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세계를 포괄할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예언이 옳았음을 확증해주었다.

현대수정주의의 두목이었던 흐루쇼브는 1964년 소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는 《평화로선》을 주장하면서 소련에서는 이미 공산주의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20년 이내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것이다라고 흰소리를 쳤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소련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로 되돌아갔다.

시간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거짓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의 《개인미신》타파소동에 수령에 대한 인민의 존경과 신임을 허물어버리고 지도권탈취를 위한 음흉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8(1969)년 7월 1일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 총화사업을 결속하시면서 우리는 공산주의학설의 창시자들을 무한히 존경하고 그들의 저서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였다.

맑스의 탄생 165돐과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논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가 바로 그 말씀의 진가에 대한 시간의 확증이고 세월의 판정이다.

시간과 세월은 력사와 인간에 대한 평가에서 추호의 편심도 모른다.

21세기 첫해 우리 장군님께서 레닌묘를 참관하시였을 때 세계가 경탄과 경모의 눈길로 우러렀다. 그날의 레닌묘방문은 크레믈린성벽에 비록 소련국기대신 로씨야의 삼색기가 날리고있지만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는 소멸되지 않았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쌓아올린 레닌의 업적은 세계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이였고 공산주의학설의 창시자들에 대한 뜨거운 존경의 표시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주의적인 좌경 기회주의자들과 수정주의적인 우경 기회주의자들때문에 21세기 문턱앞에 이르러 세계면전에서 모욕을 당하였다.

2000년대초에 발간된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은 《20세기를 품미했으나 21세기의 문턱을 넘지 못한 6가지 넘어진 열》이라는 글에서 맑스주의를 제일 첫자리에 놓았다고 한다. 공산주의학설의 창시자들의 열이 과연 21세기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쓰러졌겠는가.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우주를 포괄하는 주체사상이 있어 공산주의학설의 창시자들의 녀도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주체81(1992)년 11월 13일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하시다가 앞으로 자신께서 회고록을 쓴다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를 총화한 사실에 대해 쓸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류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그 력사적위업에 대해서 단 한글자도 남기지 못하신채 우리결을 떠나시였다.

이 얼마나 통분한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나긴 인생길을 걸어온 나의 가슴에 그이의 생전의 뜻을 담아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 총화의 의미에 대하여 력사의 한페이지로 아로새겨야 하겠다는 강렬한 충동과 의무감이 사무쳐와 미숙하게나마 이 글을 썼다.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가끔 무포에 가시여 사색을 하실 때 사용하시던 낚시도구를 어느 한 일군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당에 바치였다고 한다.

사연깊은 그 낚시대는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하지만 말 못하는 그 낚시대가 어찌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이 넓고 끝없이 깊은 사색의 전과정을 다 이야기해줄수 있겠는가.

오직 시간과 세월만이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을 천추만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해줄것이다.

6. 위대한 선포

위대한 장군님께서 3년간에 걸치는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신 이듬해인 주체59(1970)년 11월에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열리었다.

대회를 한달남짓이 앞두었던 어느날 최영림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은 그이를 뵈기 위해 찾아갔다.

그는 장군님께 새로 수정보충하게 될 당규약초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규약초안에 대한 전당적인 토의를 불이려고 한다는것과 먼저 김정일동지의 의견을 받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다. 문건을 두고가면서 그는 장군님께서 대회준비와 관련하여 몹시 바쁘게 보내시는만큼 의견을 받자면 며칠은 걸릴것이라고 타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당규약초안을 보았습니다.》

최영림이 급히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문건을 돌려주시며 《새로 수정보충된 조항들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지도사상에 관한 문제는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그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당의 지도사상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세계 공산당, 로동당들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고정불변하며 따라서 매개 나라들이 마음대로 수정보충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것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상일력을 가리켜보이시였다.

《1970년대가 흘러가고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있는 말씀이었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자유와 리익을 대변한 철학으로서 무산계급의 힘을 복종이 아니라 수탈자를 수탈하는 투쟁으로 부른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이 출현한 때로부터 100여년세월이 흐른것이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는 아홉해가 지났다. 바로 그해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신 장군님께서는 입당청원서에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하고 받들겠다는 맹세를 새기시였으며 당대회를 준비하시는 수령님을 보좌하여 보고서를 정서해드리시였다.

당시까지의 그것이 한 당원의 맹세였다. 그 맹세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심장에 자리잡기까지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극복하는 투쟁을 겪어야 했으며 그로부터 당원들, 인민들 스스로가 찾게 되는 보편적진리가 있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당 제4차대회는 의연히 우리 인민들과 혁명앞에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것을 호소하였으며 당의 지도사상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지 못했다.

우리 당이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 일찌기 들지 못한것은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바로하지 못한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이따금 수령님의 교시를 록음으로 전달하기 시작한것이 주체47(1958)년경부터였을것이다. 그것은 말그대로 전달에 불과했고 대상도 극력 제한되어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중앙당내에서 조직하는 유일한 행사라고 할지 그것은 강연회뿐이었는데 박금철이나 김창만이 연사로 출연하여 제강도 없이 제 마음나는 소리를 하다가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나도 그때 박금철의 강연이라는것을 들어보았는데 자기가 반일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어찌했다느니, 출옥하자 《화요》에서도 끌어당기고 《엠엘》에서도 끌어당기는것을 뿌리치고 왔다는니 하는 소리뿐이었다.

수령님께서 당 및 경제관리사업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 회의가 끝나기 바쁘게 돌아앉아 고전을 펼쳐놓고 방금 하신 교시가 맑

스의 어느 책에 있는가, 레닌동지가 말한것과 같은가 다른가부터 맞춰보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후 정규학습제도가 나왔을 때에도 부위원장, 부장급들은 례외로 되었다. 그러다나니 당내에 어느 부위원장의 《지시》요, 《결론》이요 하는것이 마구다지로 내려먹여지고 수령님의 교시를 아래에 대고 제 말처럼 전달하는 사람이 생겨났는가 하면 《당지도부》의 《집체적지도》에 어리둥절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꾼들이 나타났다.

한 유기체안에 심장을 두개나 세개씩 가지고있을수는 없는것처럼 혁명을 향도하는 참모부로서의 당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진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기 전까지 우리 당의 실패가 이러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부터 우리 당안에서 비로소 《유일》이라는 말이 뚜렷이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당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체가 철저히 심어지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57(1968)년 1월 3일 당사상사업부문 일꾼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혁명리론이나 경제건설리론을 배워올만 한것이 없다. 우리는 맑스나 레닌, 스탈린이 써놓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리론가운데서 우리 나라에서 참작할수 있는것은 거의 다 실천에 옮겨놓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갈 길은 자체로 하나 하나 개척해나가는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의 자를 빌려다가 자기의것을 재려 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를 가지고 남의것을 재보아야 하며 우리 당정책으로 재봐서 거기에 맞지 않을 때에는 쓸모없는것으로, 불합격품으로 여기며 사대주의를 해서 들어온것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

당 제4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9년간에 걸치는 총결기간에 사회주의건설에서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혁이 이룩되었다.

주체55(1966)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2차대표자회에서 는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이 전략적으로선으로 천명되었으며 당 제4차대회에서 발표한 제1차 7개년계획을 3년간 연기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결과 원쑤들의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도 일격에 짓부셔 버릴수 있는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59(1970)년에 이르러 공업총생산액은 전후 3개년계획을 수행한 주체45(1956)년에 비해 11.6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화 전 기간에 걸쳐 공업생산이 평균 19.1%의 높은 장성속도를 기록하여 1944년 한해동안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12일동안에 생산해내게 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아래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가 힘있게 추진되어 전반적수리화가 실현되었으며 주체58(1969)년에 이르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트랙토르대수는 3.3배로, 화물자동차대수는 6.4배로 늘어났다.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

이것이 과연 맑스의 철학이 가져다준 현실이겠는가. 레닌의 사상에서 오늘 우리의 천리마가 날아올랐단 말인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영림에게 말씀하시였다.

물론 나는 맑스-레닌주의가 밝히고있는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긍정합니다. 그러나 력사는 전진하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지금 우리 인민은 백여년전의 맑스의 목소리를 듣고있는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사상을 받들고 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사대도 물리치고 종파도 청산하였습니다.

그것을 물리적힘이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확신적으로 당원으로서의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이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후날 최영림은 자기의 회상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평범한 나날에 받아들였던 그이의 사상과 의지가 력사발전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였

는가를 뒤늦게야 깨닫고 후세에 전하려고 보니 아득히 흘러가버린 세월이 무정하다고 한탄하였다.

영원불멸할 위대한 사상이 인류를 위하여 태어날 때 거기에 바쳐진 위인의 사색과 로고를 어찌 일일이 적어놓을수 있으랴만 우리에게 는 후세에 전할수 있는 력사자료들이 장군님께서 남기신 업적에 비하여 너무도 적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매일매시각 하시는 말씀들이 후세의 력사문헌으로 남게 될것을 바라고 일하지 않으시였다. 당력사연구소에 자신에 대한 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도록 엄한 말씀을 주신것만 해도 여러차례나 된다.

우리도 자그마한 수첩이나 사업일지에 짹짹하게 속기해둔 장군님의 교시들이 오늘날에 와서 당의 귀중한 재부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수정된 당규약초안은 전당적인 토의에 붙여졌으며 전체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당의 지도사상의 새로운 명시, 그것은 김일성주의선포에로의 확정적이며 력사적인 큰걸음을 내디딘 일대 정치사변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당이 새로운 구호나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려고 하면 주 객관적조건과 요구가 성숙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어야 하며 또한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당의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인한 당 제5차대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 제5차대회 폐회사에서 대회는 주체사상이 오늘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었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 제5차 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불리울수 있을것입니다.》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말씀이었다.

당창립대회때에는 전화료금을 물 돈이 없어서 체신소에 저당을 잡히면서 대표들을 불러들이고 적산물자에서 담요를 골라 대표들의 숙식을 보장해야 했던 우리 당이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이때에 와서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서의 체모를 완비하고 기록적인 경제장성속도와 찬란한 전망을 안고 전진하는 힘있고 활력있는 당으로 되였다.

당대회대표들은 그때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휘장을 가슴에 정히 모시고 자기들의 초소로 돌아갔다.

붉은 기폭을 배경으로 찬란히 쏘는 태양의 해발속에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초상휘장은 장군님께서 직접 도안을 하신것이였다.

도안이 완성된것이 대회개막 3일전이었다. 남은 기일에 전체 대표들에게 수여할 초상휘장을 제작한다는것이 쉽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에서 사업한 박윤판이 초상휘장제작사업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가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초상휘장을 안고 당대회장소인 만수대의사당에 나타났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조직지도부일군들의 가슴에 초상휘장을 모시도록 하시고 멀리에서도 보시고 가까이에서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첫 초상휘장은 자신께서 모시겠다고 하시였다.

박윤판이 그이의 오른쪽가슴우에 초상휘장을 모셔드리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아니요. 심장우에 모셔야 하오.》라고 하시였다.

솔직히 그때 많은 일군들이 당의 지도사상을 새롭게 명시한 당 제5차대회에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신 장군님의 뜻이 훌륭한 결실을 맺은것으로 생각하였다. 허나 그이의 사색과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체60(1971)년 8월 28일 아침 평양역을 떠난 한대의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북쪽으로 달리고있었다. 동해선을 따라 달리는 열차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신인하, 리명제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의사 양형만이 타고있었다.

목적지는 삼지연이었다. 일행에 의료일군까지 동행하게 된것은 려행목적이 장군님의 건강상리유로 조직된 보기 드문 휴식차이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한달동안 휴식을 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완강한 요구에 어찌는수가 없는듯 동의하시면서도 《그렇지만 오래 가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난 며칠동안만 가있겠습니다. 나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으시였다.

목적지도 그이께서 정하시였다.

의사들은 약수나 온천으로 유명한 휴양지들을 권고하였지만 그런 곳에 가기보다는 백두산바람을 맞는것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다고 하시며 굳이 북행길에 오르시였다.

하필이면 선기도는 계절에 북쪽을 택하시는 까닭을 알수 없었지만 여하튼 휴식차가 아닌가고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이튿날 아침 일행은 삼지연군에 도착하였다.

아침식사후 장군님께서는 군내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한낮이 기울어서야 숙소로 돌아오시여 수령님께 올릴 새 기록영화를 보아주시였다.

숙소에 영사실이 꾸려져있지 않아 창문에 담요를 치고 영화를 돌렸다. 기차를 타고오느라 필립이 이틀씩이나 묵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이를 누구도 만류해드릴수 없었다. 밤에는 지방당일군들을 만나 담화하시였다.

평양에서도 매일이다싶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외사업일군들, 기록영화촬영가들, 가극창작가들...

깊은 밤에는 장군님의 방에서 새로 창조하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 넣을 노래들이 울리었다. 그이께서 무려 800여곡이나 되는 노래들을 지도해주시었던것이다.

매일같이 그이의 방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어느날 양형만은 그 불빛이 꺼지기를 기다리다 못해 다른 사람들은 시나 노래를 지을지 몰라도 의료일군인 자기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자 마침내 결단을 내려 무작정 그이의 방으로 찾아들어갔다.

헌데 책상우에는 문건과 로작들만 가득 쌓여있을뿐 그이의 모습은 뵈올수 없었다.

그가 어리둥절해있는데 《방에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웃으며 하시는 장군님의 음성이 울리고 몇개의 문건이 떨어내리워졌다. 그제서야 그이의 모습을 뵈게 된 의사는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하겠습니다.》

《넘려해주어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의자를 권하며 말씀하시었다.

《양선생, 밤도 깊었는데 우리 노래를 한곡 들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그이께서 록음기를 켜시었다.

광막한 백두의 밀림의 밤에
유난히도 밝은 달을 바라보니
조국산천이 그림구나

...

열려진 창문으로 서늘러운 밀림의 바람이 흘러들었다. 장군님께서 어제 수령님께서 평안북도의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다가 량강도에 서리피해가 없는지 걱정되시여 깊은 밤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어떻게 잠들수 있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나직이 뇌이시였다.

양형만은 후날 어버이수령님의 주치의사로 사업한적도 있는 판록 있는 의료일군이였다. 그의 책임성과 요구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양선생한테만은 늘 한결음 양보한다고 말씀하곤 하시였다. 그런 일군도 장군님의 방에서 밤깊도록 흘러나오는 불빛을 잠재울수 없었다.

그 불빛이 미래의 우리 당을 비쳐주고있었다.

다음날 새벽산보를 나왔던 양형만은 깊은 사색에 잠겨 삼지연 못가를 거니시는 장군님을 뵈옵게 되였다. 흰 반소매옷을 입고 가슴에 두팔을 엮어올리신 그이께서는 소리없이 감도는 안개속에서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고계시였다.

못가에는 물안개가 떠돌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양형만에게 이번에 함께 온 일군들이 무포의 경치가 좋다고 자꾸 가보자고 하기에 대답은 했지만 아직 못 가보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르시였다.

아침식사후에 일행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두만강상류로 떠났다. 무포숙영지에서부터 600m가량 떨어진 곳에 낚시터가 있었다. 무포낚시터의 본래이름은 7호물동인데 주체52(1963)년 8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후부터 유명해졌다.

그이께서는 크기가 다른 3대의 낚시대중 중형을 끌라잡으시고 물동의 아래쪽에 있는 바위에 내려가 자리를 잡으시였다.

두만강의 산천어잡이가 시작되였다. 여기저기서 연방 고기가 물려나왔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자리를 잡으신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수면에는 물이랑이 뒤번저지고 드살찬 산골물고기가 미끼를 나뉘채는데도 그이께서는 끝없는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된것은 아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 당원들, 인민들에게 진리의 횡불이 되고 삶

파 투쟁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세계의 개조와 변화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의 방법론이란 무엇이겠는가. …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부름소리를 듣지 못하시였다. 양형만이 거듭 인기척을 내서야 뒤를 돌아보시였다.

《아, 양선생입니까. 여기 와 앉으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양형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것도 잊으시고 담배를 권하시려다가 그만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어 방금전까지 해오시던 사색을 이으시듯 기쁨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오늘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고 항일혁명선열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두만강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드리우고 사색을 더듬으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데서 막혔던 생각이 확 트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만강상류쪽을 가리키시였다.

《돌아켜보면 얼마나 준엄한 력사가 이 강줄기와 저 밀림속에 깃들어있습니까.

…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간간세월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혁명을 령도해오신분은 없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그 어느 고전에도 비기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인류가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해야 할 불멸의 영웅서사시입니다.》

양형만은 력사가가 아니였다. 그러나 아직은 무엇이라고 딱히 짚어말하기 힘든 력사적사변이 무포에서 벌어지고있다는 생각에 그날밤 일기장을 펼쳐놓고 장군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졌다.

…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아직도 이 위대한 사상의 세계사적지위를 똑똑히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이제는 환갑도 다되시였는데, 주체사상이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령님의 혁명사

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지 못하였다. 김일성주의!...

그이께서는 거듭 《김일성주의!》라고 외우시면서 두만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의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미래의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뿌리게 될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시대에서도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도.

김일성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을 확신하시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은 숭엄하게 빛나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나서 양형만이 쓴 회상실기 《무포의 낚시터에서》가 세상에 나왔다. 나도 그 글을 몇번이나 읽어보았다. 그리고 양형만에게 전화를 걸어 잘 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진정으로 되는 인사를 하였다.

왜그런지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회상실기가 비록 김일성주의선포라는 거대한 사변속에 갇혀있는 하나의 세부에 불과하지만 우리 혁명과 후대들앞에 그 력사의 목격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 안겨와서였다. 허나 그도 자기 글에 미쳐 다 쓸수 없었던 력사의 진실이 있었다.

조선혁명과 력사는 왜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사업하시던 주체61(1972)년 10월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시였으며 다음해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였다.

그 이듬해인 주체63(1974)년 2월은 우리 당 력사에서 가장 중대한 두가지 의의를 안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추대한 2월 13일의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의 결정과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이다.

시간적순차성을 따르다면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신 후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되였다.

그 시간적공간은 6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가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지니게 되시였기때문에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하고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 총화와 김일성주의의 정식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와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 《푸에블로》호사건, 만수대대기념비건립과 혁명전통의 교수...

이 모든것이 수령의 후계자라는 지위에서 이룩하신 업적이라면 그리 놀랍지 않을수도 있다.

허나 력사가 보여주다싶이 그 모든것은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도원으로, 부부장으로 사업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업적이다. 그이께서는 자신이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되시였기때문에 《유일》이라는 낱을 우리 당에 심어주신것도 아니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령님께서 창건하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을 위하여, 그 위대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으며 준엄한 때일수록 더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무포남시터에서 김일성주의선포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주체87(1998)년 2월 22일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한 조선화 《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을 보아주시면서 《내가 백두산의 해돋이를 처음 본것이 1971년이였습니다. 그때 새벽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1시간정도 기다리니 아침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는데 하늘과 땅, 천지가 온통 붉게 물들면서 장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장관이였습니다.》라고 회고하시였다.

나도 그때 수행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그이의 정열적인 음성과 진지하고 섬세한 표현력에서 당시의 충동이 얼마나 격렬했겠는가를 느낄수 있었다.

그것은 주체60(1971)년 9월 6일의 일이었다.

한주일전인 8월 30일에도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었는데 그때 수행했던 일군들이 회상한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모두 바람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서있을 때 그이께서만은 바람을 맞받아 먼 동북땅을 향하여 서계시였다고 한다.

《저기 보이는 산이 흥두산이고 저쪽 구름이 깎쪽에 안도가 있습니다.》

그이의 음성은 젖어들었다.

《이제 몇달 지나면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우리가 걸머지고나가야 합니다.》

주체60(1971)년 여름의 짧은 《휴식》은 긴장한 련차행군과 지방당사업지도, 철야집필, 무포납시터에서의 이야기를 남기고 지나갔다.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다녀오신지 한달이 지나 그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한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얼마전 시내의 한 옷공장 당비서로부터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공장초급일군들뿐아니라 종업원들도 모실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청원이 장군님께 제기되었다.

그이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800여명의 종업원모두에게 초상휘장을 수여할수 있도록 친히 조직사업을 해주시였다. 그런데 며칠후 평양시당에 불리위간 옷공장 당비서는 제멋대로 당중앙에 찾아다녔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개성으로 내려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장군님께서 《그게 사실이요?》라고 하시며 억이 막혀 말씀을 못하시였다.

이 모든 시련과 암암리의 도전을 오로지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신념으로 물리치시며 장군님께서 며칠후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라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담화에서 장군님께서 당사상사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면 그것이 수령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로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

였다.

그것은 평범한 담화가 아니었다.

주체혁명위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하고 강렬한 지향이 태양이 솟아오를 때처럼 시대앞에 뚜렷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라는 성스러운 글발을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벌써 자신의 삶에 깊이 쏙아박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추호의 동요도 주저도 멈춤도 없이 김일성주의에로의 성스러운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었다.

개성에 내려갔던 옷공장 당비서가 장군님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 자기 초소로 돌아온것은 이듬해 주체61(1972)년이였다.

그해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을 찾으시였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고 백두산에 오르시던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속에 너무도 잘 알려져있다. 허나 그이께서 안고계시던 마음속고뇌와 걱정애 대하여 어찌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백두산으로 오르시는 그이의 걸음에는 응축된것이, 폭발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었다.

주체61(1972)년 5월 31일 당시 사회안전상이였던 리진수, 민족보위성 국장 심창완, 부총참모장 박중국,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원식 등과 함께 그이께서는 례년에 없는 폭설과 눈보라에 길이 막혀버린 백두산을 향하여 떠나시였다.

무두봉아래에서 대오는 종내 몇어섰다.

눈판우에 다리를 쭉 퍼더버리고 앉은 박중국은 숨을 헉헉 들이쉬며 《길이 험하다험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맥을 뽑을줄은 몰랐는데요. 여기서 휴식하고 그만 내려가는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구하듯 일행을 둘러보았다.

《눈보라가 세게 일어날 때에는 빨리 산등성으로 올라가야지 오던길로 되돌아가다가는 눈속에 묻힐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대오를 일으켜세우시였다.

《눈보라가 치는것을 보니 백두산이 호락호락 문을 열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담을 시험하여보고서야 문을 열어줄 심산인가 봅니다.》

백두교부근에서부터는 눈이 더 깊어져서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생눈길을 헤쳐야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가죽이 찢찢하게
얼어붙어 쇠판대기처럼 변한 신발을 벗어놓고 다른 신을 바꾸어신
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중국, 심창완을 비롯한 군인들에게 《바람이 세
찬데 모자를 단단히 잡소.》라고 하시며 앞장에서 눈보라를 헤치시
였다. 눈보라가 얼마나 세찼던지 여럿이 팔을 끼고도 비칠거리는 정
도였다.

백두산정에만은 올라가지 말자는 의견들이 또다시 흘러나오자
그이께서는 격한 음성으로 《동무들은 왜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
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눈보라사나운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것은 백
두밀림에 차넘치던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
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입
니다.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
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
쳐왔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을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
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
명의 먼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혁명의 먼길을 변함없이 건
자면 지난날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서빨리 백두산정으
로 오릅시다.》

백두산정에 오르자 광란하던 눈보라가 곱어들고 차일봉과 향도봉
을 비롯한 봉우리들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언제인가 화산을
뿔어올렸던 이 나라 조종의 산에서 삼천리 조국땅을 숙연히 바라보시
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언하시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려고 합니다. **김일성주의**
기치아래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많은 난관과 시련
이 앞을 가로막을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남먼저 혁명의 종착점에 가닿

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에서 눈보라와 싸우던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내려가자고 하시었다.

일행은 서둘러 옷매무시를 바로하였다. 턱끈을 내리워 썼던 군모도 바로잡고 눈투성이가 된 옷들도 털어입었다.

사진문헌은 력사에 남았다. 허나 세월의 흐름은 멈출수 없어 백두의 눈보라길에 장군님을 따라나섰던 일군들 거의가 우리결을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서 김일성주의의 선포를 앞두고 체험하였던 가슴뜨거운 추억들을 이 책에 담아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쉬움이 가슴을 허빌 때가 많다.

주체61(1972)년 4월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였다. 만수대언덕우에는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건립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주체35(1946)년 6월 1일 수령님을 초대교장으로 모시고 창립된 중앙당학교에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본 정치위원회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그이께서 중앙당학교의 창립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신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배려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을 모셔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한다.》

맑스-레닌주의학원도 김일성고급당학교 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의 공식기관명칭으로서 《맑스-레닌주의》라는 표현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정정한 마지막실례가

되었을 것이다.

수령님의 탄생일을 며칠 앞두고 장군님께서서는 허담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 국제기구대표들과 인민들이 보내 여온 축기와 축하편지, 선물들을 진렬한 진렬실을 돌아보시었다. 선물들중에는 원추대우에 우주를 상징하는 반원형구를 고정하고 그안에서 지구의가 돌아가게 만든 조각품도 있었다. 주체의 태양을 따라 세계가 움직인다는 뜻이 담겨진 선물이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지구의를 돌리시었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을 내놓은 사람들의 령혼이 잠들어있는 땅과 그것을 과학적사회주의사상으로 발전시킨 맑스와 엥겔스의 조국이 흘러갔다. 그들의 리론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국가와 정치제도를 일떠세운 레닌의 업적이 빛나고있는 광대한 나라 소련의 령토가 흘러갔다.

조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이께서는 지구의를 꼭 눌러 멈춰세우시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코페르닉스의 학설이 하나의 진리로서 공인되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주체의 태양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야 한다는 진리는 짧은 역사적기간에 벌써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았습니다.》

사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김일성주의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실린 론설을 편집하여 당보에 낼 계획이시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반대하시었다.

그해 3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와 관련하여 심중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사상이고 완성된 혁명리론이며 완벽한 령도방법이다. 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김일성주의로 명명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렇지만 수령님께서 반대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저마다 무슨 《주의》를 내

놓고있다, 모택동주의도 있고 찌포주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원래 《주의》라는것이다 좋은것이 아니다, 요즘 미국놈들은 닉슨주의라는 말까지 쓰고있다,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건설도상에 있고 조국도 통일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대로 혁명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이번에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당보에 큰 론설을 내보내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령도방법이라고만 하였다. 나는 지금 로동계급의 당의 강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하고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가 인류의 리상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당의 최고강령을 당의 본래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그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의 견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다시말해서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장군님의 이 교시를 통해서도 김일성주의의 선포가 얼마나 어렵고도 책임적인 백년대계의 사업이였는가를 깨달을수 있다.

주체62(1973)년에 미술가 최하택, 정영만 등이 창작한 조선회화 《삼지연의 새벽길》이 세상에 나왔다. 못가에 서렸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백두산기슭에 노을이 불타는데 푸르른 이깔나무숲을 지나 삼지연 못가를 걸어가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작품은 백두산에로의 눈보라강행군을 단행하신지 이틀후인 주체61(1972)년 6월 2일 보천보전투승리 35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시기 위해 량강도를 찾으신 수령님을 삼지연에 모시였던 력사적사실을 담고있다.

내각제2부수상 박성철, 민족보위상 최현, 총참모장 오진우,

부총참모장 김철만, 호위총국장 전문섭 등 항일혁명투사들이 동행하였다.

혜산으로 가시던 길에 삼지연군에 잠시 려장을 푸신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장군님과 함께 못가를 거니시다가 이갈나무숲속에 들어가시여 곰취를 한줌 뜯어가지고 나오시였다.

《취나물이 잘 돋았구만. 벌써 무릎을 치게 자랐소. 이제 달포쯤 지나면 꽃이 피지.》

수령님께서서는 심장모양의 둥근잎을 존안가까이 가져가시며 심호흡을 하시였다.

《향기도 참 각별하오. 빨찌산시절이 생각나는구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뜯어다가 데쳐낸 취잎을 찬물에 헹구어 조밥을 싸먹던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 맛을 잊으면 혁명을 못하오. 그전에 8월전원회의때 말이요. 내가 연락을 광 하고 내려치면서 〈곰취맛도 모르는것들이!〉 하고 웨쳤더니 종파쟁이들이 모두 사색이 됐더랬지. 취맛도 모르면서 혁명을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는가? 있소. 그런데 추위와 굶주림이 뭔지, 간고하다는게 뭐고 죽는다는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혁명을 리해할수 있겠소. 리해 못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손수 뜯으신 취잎을 그이의 손에 들려주시고 몇 걸음 앞서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뒤따르던 김철만부총참모장에게 오늘처럼 의의 깊은 날도 드물것이라고,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못가를 거닐게 되니 투사동지들이 생각되는바가 많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글쎄올시다.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을 났게 되니 먼저 간 사람들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아마 수령님께서도 그러시겠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청춘을 바쳤습니까.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다가 최후를 마친 항일투사들은 모두 참다운 혁명가들이며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김일성주의자요?!…》

김철만부총참모장은 놀랍게 되받아외웠다. 처음으로 접하는 표현이 투사를 흥분시켰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나 취맛을 잊고 혁명을 배반한 변절자들은 얼마나 가련한자들인가고 하시면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는 리종락이 그랬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림수산과 지갑룡이,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김창봉, 허봉학이 변절하여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갔다고, 우리 혁명의 길은 의연히 간고하지만 어떤 모진 시련이 닥쳐와도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수행했던 김정숙의 회상에 의하면 그날 김철만부총참모장은 숙소에 돌아오자 옛 빨찌산전우들이 모인 앞에서 《내 방금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들었소.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자!... 어떻습니까, 동지들?》하고 웨쳤다고 한다.

《그게 어디서 난 희한한 말ियो?》

오진우총참모장이 흥분해서 물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소. 수령님을 따라온 우리 빨찌산들은 다 김일성주의자라오.》

《그렇다면 조선의 진짜 김일성주의자는 우리보다 그분이 먼저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겠소.》 하고 오진우총참모장이 말했다.

《웁소. 김일성주의자로 말하면 그야 김일성주의를 내놓은분이 먼저지. 이 최현이 레닌주의자라면 좀 어색해도 김일성주의자라면 그보다 영광이 없겠소. 어쨌든 이다음 김일성주의자가 누가 먼저냐 하는 논의가 있거든 난 김정일동지라고 웨칠테요.》

그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마음만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정식화와 그 선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것은 위대한 사상만이 아닌 위대한 계승자의 모습이였다.

김일성주의의 선포는 장군님께서 어떻게 되어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시였는가를 알게 해주는 해답이기도 하였다.

그이 아닌 누가 우리 당에 그렇듯 빛나는 최고의 강령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 당에 영원히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영광을 주실 수 있겠는가. 때문에 력사와 혁명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가장 충직한 김정일동지께 조선의 운명을 맡기는 중대한 선택을 하였다. 이런것을 두고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김일성주의선포의 날이 가까와오고있을 때 우리 혁명이 자기의 영명한 후계자를 맞이할 력사적시각도 다가오고있었다.

김일성주의선포는 주체63(1974)년 2월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 벌써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고 실제적조치들이 속속 취해지고있었다.

그 전해 9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초급당총회를 지도하시면서도 장군님께서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북중시켜나갈수 있게 혁명적직능을 만들고 그대로 사업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용지를 하루이틀사이에 파악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략적인 사업을 로작과 신문부수나 늘이고 선전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해주면 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실무적으로 대하고있었다.

주체62(1973)년 11월 8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지도원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사상일군들의 대강습회를 조직하는것이 좋겠다고 친히 발기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63(1974)년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대회에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 도(직할시)당 위원회 사상비서들과 선전선동부 부부장, 책임지도원들을 비롯하여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 천수백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교양사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르고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주신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13건의 강습이 진행되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바로 그 대회기간에 진행되었다. 우연으로 볼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나는 주체63(1974)년 2월의 두 선포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당 력사에 작용한 실례라고 설명하고싶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대건설방침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신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안건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문제, 셋째 안건으로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수령님께서 조직문제를 보겠다고 말씀하시자 오진우총참모장이 정중히 일어서서 《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구현하여 당조직사업, 사상사업전반을 맡아보시는 김정일비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자는 의견을 제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수령님께서 가부를 물으시었다.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동지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장내에서는 환호가 터져올랐다.

전원회의소식은 사상일군대회참가자들에게도 알려졌다.

모두가 흥분으로 하여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였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사람사태에 싸여 대회결속준비도 제대로 할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논의하고 논의하던 끝에 2월 18일 밤 신인하, 박민수부부장들이 대회참가자들의 일치한 소망을 안고 그이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들은 폐회를 앞두고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는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드렸다.

《정 그렇다면 래일 본청사회의실에서 봅시다.》

그날 밤, 력사에 길이 새겨질 김일성주의선포의 전야에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것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이였다. 사상과 총대는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뻔해야 뻔수 없는것이였다.

《나는 오늘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때에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어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는 래일 회의참가자들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이 아무리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놓아도 무장대오가 당의 위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어떤 로선과 정책도 제대로 관철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조기천을 회상하시였다.

해방후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쓴 조기천은 항일투사도 아니였고 수령님의 가까이에서 성장한 일군도 아니였지만 자기의 시에서 수령님을 백두산호랑이로, 나의 량심,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희망인 김대장이라고 높이 칭송했다. 자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그러한 감정을 터칠수 없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한 참된 시인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내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하기 전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세계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칠 때는 왔습니다.

우리모두 오늘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당의 위업,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에 끝까지 충실합시다.》

이런 열정에 넘치는 호소로써 담화를 마치신 장군님께서서는 밤을 꼬박 밝히시면서 다음날 대회참가자들앞에서 발표하실 문헌을 정리하시였다.

위대한 밤이 흘러갔다. 그밤은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밤과도 같았다.

2월 19일 김정일 동지께서 회의실에 나오시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그날의 록음테프가 조선혁명박물관에 오늘도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사상사업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철두철미 복종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시종일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중심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이것은 현 단계에서 당이 내세운 전투적구호입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의화,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새로운 방침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었는데 왜 오늘에 와서야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강령으로 내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시고 당이 걸어온 근 30년력사를 돌이켜보시였다.

《우리는 당이 창건 첫날부터 김일성주의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백지상태에서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자는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이 전투적구호를 든것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김일성주의화가 그 어떤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주의화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된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되었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되었으며 수령님께서 우리의 새 사회건설을 령도하신 그

때로부터 우리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기하고있는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는 그 어떤 새로운 방침이 아니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여오신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여오신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렇듯 수령님의 력사속에 자신의 끊임없는 창조와 사색과 투쟁의 력사를 고스란히 묻으시였다. 돌이켜보면 력사에 이름을 남긴 명인들은 나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창제와 창시, 창건으로 유명해졌다. 지금도 건국시조, 민족시조 등 개척인들의 이름이 력사에 길이 남아 찬양을 받고있다.

그러나 수령이 이룩한 위업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후계자의 위업이다. 그들의 천재성과 비범성들은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령이 개척한 위업과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깡그리 바쳐져야 한다. 그이의 삶도 다름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가를 새로 일떠세웠거나 새로운 당을 내오고 령도하시지는 않았다. 존재하던 당에 들어오시였고 존재하던 국가를 령도하시였으며 군대를 통솔하시였다. 허나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김일성민족의 후손만대가 길이 우리를 높이에서 찬연히 빛나고있다. 복잡다단했던 지난 세기와 현세기의 분수령에 서시여 아버지수령님의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완전무결하게 책임지신 그이이시다. 우리 당 사상의 일색화와 령도의 유일화를 실현하시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혼연일체의 대화원을 마련하신것은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 40돛에 즈음하여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는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갈 길을

찾고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상, 자주주의 혁명학설은 지구상의 그 어느곳에서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녀으로, 투쟁의 기발로 나뭇기고있습니다.

온 세계가 우러르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 태어난 조국에서 수십성상 그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 그 숭엄한 부름앞에서 나는 첫 김일성주의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부르겠다고 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의 심장속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말이 그때 벌써 울리고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일성주의, 이 위대한 기치가 있었기에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일심단결의 위력을 펼치며 궁지높이 새 세기에 들어섰고 오늘은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면 지난 세기 90년대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벌어진 사회주의붕괴의 비극적인 사태를 두고 부르조아리론가들이 《맑스-레닌주의의 장례》라고 떠들어댔을 때 벌써 우리도 그네들처럼 절망의 눈물을 뿌렸을지 모를 일이다.

한 민족이 자기의 투철하고도 영원한 사상을 받아안는것이 운명발전에서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인가를 절감한 인민이기에 주체63(1974)년 2월을 돌이켜보는 마음이 이처럼 뜨거운것이다.

1. 새 출발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두번씩이나 새 출발을 하는 영광을 지닌 나는 그 긍지와 행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있다.

첫번째 새 출발은 김일성종합대학시절 장군님을 모신 학급에서 수년세월 남다른 인생체험을 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

날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학과학습과 생활속에서 소중한 가르치심으로 눈을 띄여주시고 고귀한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다심한 손길아래 우리는 조국의 한 아들로서, 조선로동당의 한 당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로서 조국과 인민, 조직과 집단, 동지를 대하는 참다운 인생관, 혁명관, 동지관을 배웠고 그것을 한생의 지침으로 온넋에 새겨안았다.

두번째 새 출발은 수령님과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장군님을 모시고 일하는 나날에 이루어졌다.

대학시절에 맞이한 첫번째 새 출발이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한 인간으로서의 새 출발이라면 그로부터 10년후에 이루어진 두번째 새 출발은 위대한 령도자의 정력적인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당일군이 갖추어야 할 징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한 일군으로 성장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새 출발이라고 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다음 10년동안 교단에 서있던 내가 당중앙위원회로 소환된것은 주체63(1974)년 8월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여섯달 지난 때였다.

다시말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수위에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당

파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의 새 출발을 금방 뎌 직 후였다.

지금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조세웅, 문성술, 신인하, 리성복, 진철종, 리제강 등 당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 쇠소리 쟁쟁 나는 40대 초반의 당중앙위원회 과장들이 금방 새 출발을 한 그 대오의 전위에 서있었다. 신입병사와도 같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자기 옆자리에 스스럼없이 앉혀주던 평범한 지도원들도 새 출발진지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좌지를 정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은 로병들이었다.

후날 《우리 당 기초축성시기 일군들》로 당건설력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이들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힘찬 구령에 맞춰 새 출발을 하였고 그 발걸음에 자기들을 따라세울줄 아는 각급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당이 새 출발을 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온 나라가 새 출발을 하였다.

나의 두번째 새 출발은 바로 이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10년전에 이미 새 출발을 한 당중앙위원회 오랜 일군들의 엄격한 지도와 꾸준한 방조속에 시작되었다.

오랜 일군들을 통하여 우리 신입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10년동안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이께서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앞에 제시하신 전략적투쟁과업과 우리 일군들에게 제기하신 전투목표가 무엇이며 바라시는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가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거창한 혁명투쟁력사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가지는 년대인가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았으며 이 년대너머 다가오는 창조와 건설의 80년대, 고난과 시련의 90년대, 강성국가건설의 2000년대를 주추돌처럼 변함없이 떠받들게 될 《우리 당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심장속에 무엇이 끓고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신심드높이 새 출발진지를 떠나 멀리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전위대오에 들어선 신입일군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 1970년대는 어떤 년대이며 김정일동지께서 불멸의 이 년대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의 핵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1970년대는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혁명적대고조의 시대이며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새롭게 축성하는데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전환의 년대였다.

이 년대에 우리 당은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실현으로 조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금성철벽으로 만들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그 어떤 세계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튼튼한 자립경제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예술을 문예부흥의 발원지들에서까지 찬탄을 아끼지 않는 최상의 경지로 끌어올리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었으며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세인을 경탄시킨 이 모든 사변과 기적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혁명의 수위에서 수령님의 위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인간적인 로고와 헌신의 결정체였다.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불순이색분자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한층 강화한 기초우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진군길에 오른 우리 당앞에는 여전히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한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야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과업을 수행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당을 패기에 넘치고 조직력과 드센 장악력을 가진 불패의 전위대로 더욱 강화해야 하였다.

바로 이처럼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당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연성을 남먼저 통찰하신분도, 당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으신분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5년밖에 안되던 주체58(1969)년 8월 15일에 벌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어떻게 쌓는가 하는데 따라 당의 존망과 혁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주체66(1977)년 3월 어느날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당의 기초축성을 두고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자면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당이 기초가 튼튼하여야 어떤 풍파속에서도 드물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해나갈수 있으며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적들의 온갖 침해를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습니다.

당의 기초는 만세나 부르고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닦아지는것이 아닙니다. 당의 기초는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튼튼히 다져질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기에 놓였던 당시뿐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명철하게 내다보고 하신 참으로 귀중한 교시이다.

이 교시를 통하여 우리는 장군님께서 기초축성을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로,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보시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최종목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핵은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이였다. 그리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 사업은 곧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였다.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건설하는 당

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조락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지 않고 말공부질만 하는 당들은 아무리 간판이 좋고 강령이 현란해도 꺾절을 면치 못하며 종당에는 단명으로 붕괴되고만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의 축성!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이께서 이 사업에 바치신 불면불휴의 노력과 불태우신 열정과 지새우신 밤들을 수십, 수백권의 책에 담는다 한들 어떻게 다 전할수 있겠는가.

장군님의 그 노력, 그 열정, 그 의지가 당중앙위원회 모든 부서의 방들에 봄날의 해빛처럼 흘러들어 기초축성사업으로 전체 당중앙위원회가 뛰고 그에 발맞추어 전당이 불도가니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바로 이런 때여서 배치후 우리가 받은 총적인상은 당중앙위원회의 모든 부서와 과들이 새봄을 맞이한 대수림처럼 열정과 환희와 활력에 넘쳐있었다는 사실이였다. 부서의 《구대원》들은 누구나 장군님으로부터 전투임무를 받으면 희색이 만면해서 돌아오곤 하였다. 우리는 모두 전초선을 지키는 병사의 심정으로 분분초초를 보냈다.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를 한몸에 지닌 젊은 령도자를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한 일군들의 감격과 긍지는 한량없었고 그 감격, 그 긍지가 뿔어올리는 열정의 힘은 실로 폭발적이였다.

일군들은 새로운 방침을 받을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앉아 집행대책을 토의하고는 배낭을 메고 즉시에 생산현장으로 내려가곤 하였다.

당시 장군님의 집무실에서는 밤이 지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그래서 《당중앙의 불빛》이라는 노래도 나왔을것이다. 퇴근길에 그 불빛을 바라볼 때면 송구스러운 생각에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따로없는 장군님의 긴장한 일과는 단 한

시간의 휴식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일생을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던 주체71(1982)년 8월 16일에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는 비상한 각오를 품으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장군님의 사색속에는 오로지 수령님의 위업이라는 그 한가지 사색밖에 없었다.

그이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강령을 선포하신것은 우리 당 기초축성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이 강령은 우리 당 발전과 건설방향을 그어준 위대한 지침이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 사업도 이 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전개되였다.

당의 최고강령선포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모시키며 당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 관철해나가시려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퇴성이였다. 그것은 또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수령님의 리상이 실현된 한없이 부강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락원으로 건설하시려는 불타는 열망과 열정의 폭발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수령님의 요구와 의도대로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당대오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축출한 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1970년대초에도 우리 당사업에서는 그들이 부식시켜놓은 낡은 사상잔재와 재래식사업방법들이 의연히 남아 당건설과 당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었다. 조직건설을 담당한 부서는 사업에서 주선을 놓치고 잡다한 회의와 문서놀음에 매달리고있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는 똑똑한 사업체계를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병집을 제때에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수 없었고 우리 당을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 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날의 당사업을 백지화하고 새 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백지화, 새 출발이란 용어들이 일군들의 머리속에 쑥쑥 들어와 박히였다.

백지화와 새 출발, 이것이 바로 당기초축성의 전제였다. 지난날의 당사업을 백지화해야 새로운 토대우에서 당건설을 할수 있었고 그래야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부장으로 갓 임명된 문성술에게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당조직사업을 백지화한다는것은 지난날의것을 다 없앤다는것이 아니다. 지난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들어앉아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조직건설사상대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리론》과 《경험》들을 절충하여 자기식의 당조직사업체계와 방법을 세워놓았다. 거기에서 판료주의, 행정대행, 형식주의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자라나 우리 당사업발전에 커다란 저해를 주었다. 지난날의 당조직사업을 백지화한다는것은 바로 이 낡은 틀을 없앤다는것이며 새 출발이란 수령님의 당건설사상대로 김일성주의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을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

당사업을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사상대로!

이것이 바로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새 출발의 의미였다. 전당이 그이의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안았다. 그때부터 우리의 당건설과 당활동은 김일성주의의 요구에 저촉되는 모든것을 력사의 지경밖으로 가차없이 쓸어버리며 새로운 궤도우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업을 하나씩 구상하고 전개하실 때마다 번개가 치고 불바람이 일었다. 요점을 틀어쥐고 무섭게 내미시는 그이의

불같은 정열과 전개력앞에서 보수나 재래식 같은것은 발불일 자리가 없었다. 당안에 생기가 돌고 박동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었다.

전당에 수립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제와 장악보고체제, 하부지도체제,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도, 시, 군당에 이르기까지 전격적으로 단행된 기구개편, 새로운 직능의 작성과 집행,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의 확립...

이 모든것은 그 하나하나가 한차례의 혁명과도 맞먹는 거창한 새 출발이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특기해야 할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신것이다. 사상의 일색화란 곧 유일사상화를 말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수령님의 사상이다. 우리 당안에는 수령님의 사상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님의 사상은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지향과 사상감정을 가장 완벽하게 대변하고있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그러므로 장군님께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근본문제를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것이라고 보신것은 천만번 정당한 일이었다. 유일사상체제확립이야말로 우리 당이 세워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였고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새 출발의 첫째가는 과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의 일색화를 위해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제를 세우는것으로부터 그 돌파구를 열어제끼시였다.

전자도 회상한것처럼 장군님께서 당의 수위에 추대되실 때까지만 해도 우리 당안에는 수령님의 교시를 정상적으로 전달침투하는 체제가 서있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시면 개별적일군들이 그 골자를 목책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추려서 전달하는것이 고작이었다. 교시전달침투사업이 정연한 체제를 타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나니 수령님께서 아무리 중요한 교시를 하시여도 아래에서는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지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조직지도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을 맡아보던 책임일군들이 만사를 수령중심론의 견지에서 보지 못하고 또 혁명발전에서 수령이 차지

하는 지위와 역할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있는데 기인된다.

주체34(1945)년 12월에 있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는 태어나 첫걸음을 뗀 우리 당건설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짙막한 요강을 써가지고 나가 3시간나만 보고를 하시였다. 창건된지 두달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당에는 아직 똑똑한 사업규범도 사업체제도 없었다. 력사에 남을만 한 중요한 회의였지만 회의록을 정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령님의 보고를 속기하는 속기원도 없었다. 룝음기 같은것은 아직 엄두도 못낼 때였다.

지금 《김일성전집》에 수록된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보고는 수령님께서 그 회의를 앞두고 미리 써두신 보고요강을 그대로 옮긴것이다.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새로 선거된 우리 당지도부에는 제2비서외에 부장만 해도 7명이나 있었다. 오기섭이 조직부장을 하고 윤상남이 선전부장을 하였는데 이 두사람만 사상이 바로 배긴 사람들이였더라도 회의록을 정리해두는 초보적인 일쯤은 얼마든지 포치하였을것이다.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불씨로 된것은 주체34(1945)년 10월 14일에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하신 수령님의 개선연설이였다. 그날 수령님의 연설을 40만명의 평양시민들이 참가하여 들었다. 그 40만명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자고 하신 수령님의 호소를 가는 곳마다에서 선전하였다.

이 호소가 인민의 심장에 활화산같은 불길을 지펴올려 민주개혁도 단숨에 해제끼는 눈부신 현실을 창조하였다.

인민은 어디서나 수령님의 음성을 듣고싶어하였고 조국의 앞길에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수령님의 사상을 알고싶어하였다.

그러나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기 위한 사업에 전

혀 낮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면서 《박금철부위원장의 지시》요, 《김창만부위원장의 지시》요 하고 아래당조직들에 자기들의 《지시》를 공식적으로 내리먹이었다.

개별적간부들의 《지시》나 발언내용이 조직선을 타고 아래에 내려가면 수령의 교시집행에서 혼란이 빚어질수 있다.

주체48(1959)년 3월 함경북도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사업정형을 총화하는 도당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경종을 울리시였었다.

《이번에 함북도에 와보니 많은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당정책과 당결정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연설을 하니까 그제야 <아, 그런가!> 하면서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정을 처음 듣는것처럼 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1960년대 중반기이후에도 그냥 지속되었다.

주체54(1965)년 5월 수령님을 모시고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다시금 확인하신 이런 실태가 장군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되었겠는가 하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것이다.

지어 박금철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담당한 부서에 교시전달침투체계는커녕 받아온 교시들을 깔아두고있기까지 하였다.

국제부장 박용국은 수령님께서 대외사업과 관련한 교시를 주시면 부서에 돌아가서는 무엄하게도 교시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착상인듯이 제멋대로 양념을 쳐서 전달하였다. 대부분의 교시는 애당초 전달도 하지 않았다.

박용국이 국제부장을 할 때 외무상은 박성철동지가 하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하고 존엄성있게 대하는데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모범이었다. 박성철동지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빠짐없이 적어두었다가 부서일군들에게 꼭꼭 전달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워놓곤 하였다.

국제부장이 교시전달을 태공하였기때문에 그밀의 일군들은 외

무상한테 찾아와 수령님의 교시원문을 베껴가곤 하였다. 외무성에 주신 교시가 곧 국제부에 주신 교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대외사업과 관련한 방향을 주실 때마다 늘 외무상과 국제부장을 같이 만나주곤 하시었던 것이다.

한번은 국제부에서 과장을 하던 최영림이 박용국의 오만한 태도를 보다 못해 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지 않는가고 직방치기로 들이댄 일이 있었다. 그러자 박용국은 비밀이니 알 필요가 없다고 둘러쳤다. 만 속심을 품은자였던 그는 최영림과 같이 대바르고 고지식한 사람들을 제일 경계하였으며 특히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일해온 일군들과는 될수록 담을 쌓았다.

최영림을 시끄러운 존재라고 단정한 박용국은 그를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으로 돌려놓을 안까지 짜놓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인물들이 이런 꼴이니 수령님의 교시가 아래사람들에게 어떻게 쭉쭉 전달되겠는가.

그렇다면 1950년대 후반기와 1960년대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이룩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비결은 수령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도하시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고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기때문이다. 수령님의 령도로 한 지점에서 모범이 창조되면 그 불씨가 전국에 번져가 모든 공장들과 기업소들, 농장들, 사회주의건설장들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만사가 잘되고 잘살수 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설교가 아니라 인민이 실체험으로 깨달은 진리였다. 우리 당의 행로에서 수령님의 교시대로 해서 안된 일은 하나도 없다. 수령님의 교시대로만 하면 백전백승한다는것을 그 누가 감히 부정할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창건후 스무해가 지나도록 당안에 수령님의 교시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고 침투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당이 근본중의 근본을 놓치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일을 되는데로 해나가는 당사업의 실태에서 혁명이 조난당할수

있는 위험성을 명철하게 포착하시고 그 해결책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를 세우도록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활동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로 된다.

주체63(1974)년 2월 16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실 발언원고를 준비하고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수령님의 교시를 당중앙위원회에서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로 무장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에 대하여 말할수조차 없습니다.》

장군님의 이 말씀에 따라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이때부터 온 나라 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유일한 자막대기로 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였으며 그들을 혁명임무수행에로 목적지향성있게 떠밀어주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과 사상과 의지, 숨결을 같이하게 되였다.

해당 부서에서는 중요회의들에서 하신 수령님의 보고와 연설, 결론 등을 정상적으로 침투하였으며 어떤 교시들은 육성 그대로 전달하였다.

한편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접견자들을 조사장악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으로부터 받은 교시들을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수령님의 위대성과 위인적풍모를 립증하는 무수한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였다.

수령님께서 현지도로정에서 만나주신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로인, 가두녀성, 학생소년들에게 하신 교시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성문화하였는데 그 량은 실로 방대하였다.

정준택부총리가 사망하였을 때 수령님께서 고인의 령전을 찾아 영웅메달을 달아주신 사연은 기록영화화화면에도 오르고 회상실기로도 널리 소개된지 오래다.

그가 떠나간지 두해째 되던 주체64(1975)년 1월 12일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예고도 없이 고인의 집을 방문하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정준택의 가족과 사진을 찍으시고 자녀들의 생활과 가정형편을 일일이 물으신 다음 해방후부터 그가 해놓은 일들

을 하나하나 손꼽아가며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다가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어떻게 잊을수 있겠소. 영화에도 남아있고 국가문헌에도 남아있고 당문헌에도 남아있는데 내가 그를 왜 잊겠는가!…》

눈물속에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던 고인의 자녀들이 그이께 청을 드리였다.

《아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두고두고 가보로 전해갈수 있게 록음을 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후날 그 사연을 알게 된 일군들이 고인의 집을 찾아와 가족들에게 록음테이프를 내놓으라고 설복하였다. 한가정의 가보로 건사하는것보다는 국보로 보존해두는것이 낫지 않는가고 루루이 설명하였으나 가족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내놓는다고 완강하게 버티였다. 가족측의 고집도, 일군들의 요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이것이 당에 보고되어 그 록음을 잘 복사해서 가족들에게 복사본을 주고 원본은 당에서 보관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평범한 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던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교시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발굴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해 우리 당은 리용할수 있는 선전선동수단들을 다 동원하였다. 여기서 출판보도부문과 리론선전부문, 문학예술부문이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숙청된 때로부터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주요신문들에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대대적으로 실리기 시작하였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빨럭불가담나라들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

수령님의 로작들은 발표될 때마다 세계를 진감시키고 인류를 격동시켰다.

글줄마다에서 장검처럼 번쩍거리는 수령님의 투철한 반제자주 정신에 세계가 경탄하고있을 때 우리 인민은 위대한 사상의 천재, 령도의 거장을 수령으로 모신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의 령마루로 높이 치달아올랐다.

사상의 일색화를 위한 장군님의 령도가운데서 또 한가지 특색 있는것은 수령님의 기념비적로작들에 대한 과학토론회였다. 과학토론회는 김일성주의연구와 선전을 심화시키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주체63(1974)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돐이 되는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농촌테제발표 10돐을 앞두고 전국적범위에서 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는 중앙뿐아니라 도, 시, 군들에서도 하였고 부문별로도 하였는데 그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테제에서 제시된 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토론회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시, 군연구토론회에서 우수한 토론문들을 선발하여 도연구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중앙에서는 사회과학원의 주최로 전국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를, 김일성고급당학교의 주최로 전국교육부문 연구토론회를, 기자동맹중앙위원회 주최로 전국출판보도부문 연구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도, 시, 군연구토론회와 부문별연구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이어 그해 2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국과학토론회가 성대히 개최되였다.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로 부문연구토론회와 중앙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우수한 론문들을 묶어 연구토론문집을 출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중요한 로작을 발표하실 때마다 연구토론회를 조직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이 로작의 진수를 정확히 깨닫고 그이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로작들은 나라의 지경을 벗어나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전세계 진보적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속에도 널리 보급되였다.

주체62(1973)년 9월 2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세운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는 **김일성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입니다.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종국적목적**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선전분야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을 선전하는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대외선전사업에서는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수도 평양에는 외국문출판인쇄기지가 일떠서고 이 기지를 통해 한두해사이 《김일성저작선집》 1권-6권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출판되어 세계 각국에 보급되였다.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대외적수요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수자와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주체57(1968)년에 8만 8 000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했던 수령님의 로작은 10년후 71만 6 000부에 이르렀다.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와 품모에 매혹된 외국인들속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이 날마다 늘어났다.

김일성주의신봉자인 에파도르의 한 출판사 사장은 수령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세드리크나무로 만든 수령님의 반신상을 선물로 마련하였다.

해발 6 000m이상이나 되는 안데스산줄기의 침보라쑈산이라는 높고 험준한 원시림에만 약간 분포되어있다는 이 나무는 라틴아메리

카나라들에서 예로부터 만년장수와 용맹, 슬기, 위대성의 상징으로 일러오고있다고 한다. 사장은 조각가들과 함께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직경이 3m나 되는 세드리크나무를 찾아냈다. 그다음 반년동안의 품을 들여 반신상을 완성하였다.

지구의 모든 대륙들에서 자주시대의 태양을 경모하며 칭송하는 김일성열풍이 세차게 불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인류의 생존과 권리, 자유를 담보하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되었다.

혁명소설과 혁명영화는 물론 미술작품들도 수령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시원을 두고 대하를 이룬 자주의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었다.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와 함께 세계적판도에서 주체사상보급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장군님의 공적이다.

사상의 일색화와 함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이라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결사적으로 관철해내는 영웅적인 투쟁기풍과 높은 창조정신이 온 사회를 지배하였다.

새 출발의 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활동과면모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다른 하나의 변화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의 청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래식당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신 후에도 일군들은 어느것이 도식이고 어느것이 교조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오래 동안 경직되어온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식별해내지 못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사회안전부(당시) 정치국이 국경출입질서를 강화할데 대한 지시문을 펴구면 그것을 모든 도들에서 일률적으로 받아물고 국경이 없는 황해남북도나 평안남도안전국 당조직들에서도 당회의를 열고 집행대책을 토의하였다. 상급에서 산불을 미리 방지할데 대한 지령이 떨어지면 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무리벌에서도 이 의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다.

산이 없는 고장들이니 결국 그런 회의는 리의 공공건물들과 농가들, 탈곡장들에서 화재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는 일반적인 호소

나 결의로 대신할수밖에 없었다.

이런 실례들은 형식주의가 우리 당사업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된다.

장군님께서 우리 부서사업을 지도해주시는 과정에 우리는 이런 형식주의적인 사업방법도 깨끗이 퇴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기구개편사업과 직능정비사업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이루어진 새 출발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된다.

주체63(1974)년 봄 장군님께서서는 조직지도부의 기구안을 새로 짚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과 대책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아래당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생활지도체계가 똑바로 서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께 사실을 보고드리고 당조직부들의 기구를 당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할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조직사업을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없다....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혁명적으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통이 크고 폭이 넓게》로 이해하고 당생활지도의 중요성 일면만을 중시한 나머지 인원을 대폭 늘린 기구안을 작성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기구개편안에 불합격을 주시면서 동무들이 아직 기구개편을 하자고 하는 나의 의도를 잘 모르는것 같다, 기구개편은 인원수나 늘어 파를 비대하게 만드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부서앞에 제기된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지난날의 낡은 기구를 대담하게 뜯어고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후 장군님께서 친히 짜주신 기구안에는 일군들이 만들어놓은 종전안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당생활지도와 관련없는 파는 아예 없애버리거나 다른 부서들에 떠넘기시였으며 이미 있던 파들을 세분화하여 여러 파로 나누고 매 파들에는 직능이 한눈에 안겨오도록 새로운 명칭들을 손수 달아주시었다. 말하자면 낡은 집을 수리하신것이 아니라 깨끗이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새 문패까지 달아주시는것이였다.

조직지도부의 기구개편이 끝나는데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반부서들의 기구개편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기구안 역시 장군님께서 완성시켜 주체64(1975)년 4월 1일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출하신 것이었다.

새 기구안에서는 행정대행을 없애고 모든 부서들이 정치적지도와 정책적지도라는 당사업의 내용에 맞게 기구들을 간소화하였다.

파격적인 기구개편안이 발표되자 회의참가자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였다.

정무원 총리였던 김일동지는 당사업에서의 이런 혁명은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대용단이며 이제는 당안에서 행정을 대행하던 고질적인 악습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며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혁명을 시작한 나라의 집권당에서 넘어온 그야말로 뿌리깊은 악습을 한순간에 깨버리셨으니 투사의 놀라움이 오죽 컸겠는가.

기구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당중앙위원회가 보여준 시범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파급되었다. 행정기관과 사회단체들은 말할것도 없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불필요한 기구들을 없애 버리거나 통합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었으며 비생산부문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에 돌리고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성파를 내기 위한 투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 이르기까지 전당적으로 행정대행을 없애고 당적지도를 원만히 할수 있는 기구적준비가 갖추어지고 젊고 쟁쟁한 당일군들이 전번의 주역들로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당사업은 새로운 맥박과 숨결을 가지고 기운 차게 질주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안에 있는 매개 부서들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직능도 바로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사업에서 첫 시작을 선전선동부가 먼저 떤도록 하시였다.

당사업을 시작하신 초기에 벌써 대부분의 부서들이 똑똑한 직능도 없이 주먹치기로 일한다는것을 간파하신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

대초에 선전부분 사업전반을 맡아보시게 되자 직능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직능이 명백치 않으면 사업체계와 질서가 설수 없고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요령주의적현상이 나타나 사업에 엄중한 후파를 미친다는것을 그이께서는 명철하게 꿰뚫어보시였던것이다.

주체62(1973)년 9월에 장군님께서서는 선전선동부 초급당총회를 소집하시고 진지한 토의끝에 매개 과들의 직능문제를 확정하시였다. 그이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힘을 많이 들이시였는가는 6일간이라는 회의날자가 말해주고있다. 그렇듯 많은 시간과 큰 심혈을 기울여 낡은 직능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완성한 직능들은 어느것이나 전당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복종되도록 작성되였다.

주체63(1974)년 6월 27일부터는 조직지도부에서도 직능토의를 위한 초급당총회가 열리였다.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의 뒤를 이어 다른 부서들도 직능정비에 들어갔다.

낡은것을 백지화하고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 이룩해놓으신 장군님의 업적가운데서 특별히 강조하고싶은것은 그이께서 세워주신 일보체계이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의 활동에서 인민의 실정을 잘 아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당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인민의 존재를 의식하고있어야 한다. 언제나 인민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자기가 할바를 찾고 그것을 정치에 구현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이다. 그래서 인민은 우리 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것이다.

당이 어머니라는 고귀하고 신성한 이름으로 불리우자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인민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인민과 숨결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하는것이 우리 당이다.

당이 반석같은 대중적지반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내밀자면 아래실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담보해주는것이 사업보고체계이다. 아무리 리상적인 기구와 직능이 있어도 사업보고체계가 부실하거나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당은 조만간에 《눈뜬 소경》으로 된다.

이전날의 당사업에서는 매일매일 중앙이 도를 장악하고 도가 군을

장악하며 군이 리를 장악하는 체계도 없었고 또 하루하루의 생활에 대하여 리가 군에 보고하고 군이 도에 보고하며 도가 중앙에 보고하는 체계도 서있지 않았다. 아래당조직들이 중앙당조직들에 사업실태를 보고하는 경우란 대체로 간부들의 주의를 끌만 한 자랑거리나 말쑥거리들이 생겼을 때와 도움이나 결론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였다.

결국 당중앙위원회는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파악할수 없었고 그에 필요한 대응책도 제때에 세울수 없었다.

우리 당에는 일이 터지면 보고하고 일이 터지지 않으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건본위의 사업체계가 아니라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일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급당에 보고하는 그런 사업체계가 필요하였다. 그런 사업보고체계만이 수령님의 정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었으며 수령님의 로고도 덜어드릴수 있었다.

현실은 전당, 전군, 전민의 목소리를 당중앙에 집중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보고체계를 요구하고있었다.

주체63(1974)년 3월 5일 장군님께서서는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도에 내려갈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당중앙의 파견원들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당중앙위원회가 지방당조직들을 모르고있다고 하시면서 도당 위원회들이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편향을 범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매일 장악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는데 이제라도 단단히 각성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시였다. 그리고 도를 철저히 장악통제함으로써 당중앙의 지시가 원만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지방을 장악통제하지 않고있기때문에 중앙이 도를 모르고 도가 군을 모르고있습니다.

...동무들은 어떻게 하면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더 잘 세우겠는가 하는 방법문제를 연구도 하고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에서 통일시킬것은 통일시키고 바로잡을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당중앙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신 사업 보고체계는 전국적판도에서 종합된 사

업실태를 당중앙에 날마다 보고하는 일보체계였다.

일보체계는 인민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유지할수 없고 인민을 모르고서는 한결음도 움직일수 없으며 인민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면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우리 당의 본성에 부합되는 리상적인 사업체계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이런 사업체계를 가지게 되기까지에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리었다.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전례없는 사업보고체계가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체험속에서 탄생하였다.

일보체계는 전당이 아래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체계, 중앙이 도를 모르고 도가 군을 모르며 군이 리를 모르면 청맹파니가 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업체계, 당수뇌부와 전당, 전군, 전민을 더가깝게 접근시켜주는 사업체계, 당의 령도자가 인민의 목소리와 숨결을 항시적으로 들을수 있게 해주는 사업체계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보체계는 우리 당이 추켜들고나가는 인민중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리념을 실현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사업체계였다.

장군님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은 인민들의 생활형편과 그들의 목소리가 담겨진 사업보고를 만들기 위한 첫 전투에 달라붙었다. 한편에서는 장거리전화를 하고 한편에서는 현지로 달려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리하여 밤을 꼬박 패면서 드디어 만든 사업보고 《제1호》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드리였다.

《모두들 격전장에 나선 사람들처럼 무섭게 일을 다그쳐댔소. 그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것은 무엇이였는가. 그건 김정일동지를 당의 수위에 모신 감격이였소. 그이의 지도밑에서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개척자의 자부심이였소.》

사업보고 《제1호》를 만들던 그날밤을 회고하며 안배옥부부장이 나에게 한 말이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머리속에서는 고생 그자체가 행복으로 되어있었다. 고생없이 이루어진 락도 락인가 하는것이 그 당시 장군님의 슬하에서 성장한 일군들의 공통적인 인생관이였다.

오늘 전당에 확립된 일보체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일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언제나 인민이었다.

주체63(1974)년은 영화예술부문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때였다. 년말에 들어서면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그해 창작과제를 끝내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 한 주역배우가 병으로 출근도 못하고 침상에 매인 몸이 되었다. 촬영은 중단되고 창조집단은 저조한 상태에 빠지었다.

그런데 일보에 반영되지 않은 이 사연을 장군님께서 아시고 일군들에게 그의 병명은 무엇이며 치료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이 여러명 있었지만 누구도 그 물음에 똑똑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보건성에 전화를 거시여 그 주역배우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부탁하신 장군님께서는 며칠후 김형원부부장에게 배우의 건강이 어떤가고 또 물으시었다.

김형원은 좀 나아진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역시 펄펄한 대답이었다. 그 대답이 그만 장군님께 노여움을 끼쳐드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격한 음성으로 창작일보는 꼭꼭 내면서 왜 그 배우의 치료일보는 내지 않는가, 영화가 중한가 사람이 중한가고 엄하게 따지시었다.

일보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람문제가 올라야 합니다.

영화촬영은 하루이를 미룰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일분일초도 미룰수 없습니다. 환자의 치료정형과 병세를 손금보듯 알고있어야 제때에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보체제의 기본주제는 《인민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부서의 일군들은 일보의 첫자리에 항상 사람문제, 인간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를 놓았다.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전당이 그렇게 하였다. 인민성과 인간성을 중시하는 우리 당의 본성과 특질이 일보작성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다.

당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당사업이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되는 것만큼 일보도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어야 하고 인간중심의 보고로 되

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시종일관하고 또 엄격한 요구였다.

일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우리는 장군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도 지니지 못한 인간사랑, 인민존중, 인민제일의 품모를 따라배울수 있었다.

주체63(1974)년 8월 2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신양군당 책임비서를 찾으시였다.

《신양군에 치약이 떨어졌다는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전날의 평안남도당일보에 올랐던 내용이였다.

책임비서는 몇개의 리상점들에서 치약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 속에서 의견이 제기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상점들이 치약을 어디서 받아오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양덕지구 도매소에서 받아온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다음날 아침 양덕지구 도매소 앞마당에 자동차 한대가 와뒀었다. 그 차의 적재함에는 여러가지 품종의 치약들을 넣은 지함들이 가득 실려있었다.

《그후로는 때없이 올리는 전화종소리에서도 장군님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울리곤 했다. 지금은 무슨 상품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곳 인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가 또 없는가고 물어오실것 같아 인민들의 생활을 자주 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였다.》

당시 신양군당 책임비서의 회상담이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신양군안의 상점들에는 치약과 비누와 같은 생활필수품들이 떨어지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책임비서의 차가 생활필수품들을 가득 싣고 군안의 리상점들에 나가곤 한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주체64(1975)년 2월 11일 증산앞바다에서 날바다 한가운데로 정처없이 떠가는 얼음장우에 몸을 싣고 표류하던 어로공처녀를 인민군비행기들이 동원되어 20여시간만에 구원한 이야기를 우리 인민치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사랑의 전설이 온갖 자연적재난이나 불행으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행복, 그들의 리익을 지키고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순간도 끊지 않으시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일보체계의 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할것이다.

이런 날에는 일보가 아니라 《시간보》, 《분보》가 되어 한 생명의 생사가 우리 장군님의 집무실에 시시각각으로 보고되어 그런 기적을 안아온것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친근하게 부르며 전당과 온 나라가 새 출발을 하던 그 나날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체계가 있어 수십여년세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수령의 사상을 알고 수령의 뜻으로 숨쉬고 살아왔다.

또한 그이께서 세워주신 정연한 사업보고체계가 있어 당은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으며 인민의 념원을 담아 정책을 세웠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갔으며 그 나날들에 수령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의 숨결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수령의 뜻이 있어 수령, 당,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돌아켜보건대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이 힘이 있어 웬간한 나라, 웬간한 인민, 웬간한 당 같으면 열백번도 더 넘어졌을 두차례 대국상의 아픔과 시련도 꺾어 이겨내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아래 온 세상이 부러워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불패의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63(1974)년 여름 조선로동당 제4차 조직일군대회가 막을 열었다. 전국의 도, 시, 군 당조직일군들이 이 대회장으로 기세충천해서 모여들었다.

— 《밝은 재래식사업방법에서 벗어나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전환할데 대하여》

— 《혁명적직능작성의 원칙과 방법》

—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

제목도 내용도 모두 새것으로 일색화된 그 한건한건의 제강에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열과 심혈을 쏟아부으셨는지 누구도 다는 몰랐다.

8월 2일 대회장소인 평양체육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폭풍같은 환호로 우리 당의 앞길에 새로운 진군로를 열어주신 장군님을 맞이하였다.

장군님께서 먼저 수령님께서 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서한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전달하시고 이어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장군님의 안광에는 탁월한 수령을 모신 공지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변혁의 시대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한 행운아들이였다. 나는 그 변혁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 체험자들중 한사람이다.

출근길에 오를 때면 어느 길목에선가 당장이라도 장군님을 뵈울것만 같아 가슴을 울렁거리며 걸음을 다그치고 퇴근길에 나설 때면 그이의 곁에서 잠시라도 멀어지는것만 같아 당중앙청사를 자꾸만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1970년대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이의 가까이 한치라도 더 바투 다가서려고 아이들처럼 싱갱이질을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이의 활동과 품모에서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한것은 언제 편히 쉬시는지 알수 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 우리를 불러 일감과 함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불같은 열정과 투신력이였다. 그런 열정과 투신력으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였다.

그처럼 불같은 열정으로 한생을 태우시고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가신 그이를 그리며 잊지 못할 1970년대를 돌이켜보는 지금 우리 당 기초축성이라는 그 한구간에만도 남들이 열백 번 생을 살아도 못 이룰 업적을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을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더욱 뜨거워진다.

2.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도회지소식은 시골에 가 들으라는 말이 있다. 민심을 두고 옛 사람들이 남긴 말이지만 나에게는 당의 사상과 의지가 조국땅 심심산골까지 해빛처럼 일시에 비쳐드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하는 말처럼 여겨진다.

내가 아직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때인 1970년대초의 일이었다.

방학이 끝나면 집에 갔다온 학생들이 펼쳐놓는 고향이야기로 온 대학이 흥성이군 하였다.

내가 말았던 학급의 함경남도 허천산골내기가 겨울방학을 마치고와서 하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기네 군에 몇 해동안 지도사업을 나와있던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이가 아직 선줄에도 들어서지 못한 그를 왜서인지 마을사람들모두가 《중앙당아바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가 나타나면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고 일터에는 활기가 넘치고 힘든 일도 흥겨웠다고 한다.

씨불임철이면 밭에 나가 소코뚜레를 잡고 밭갈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진거름이 듬뿍 담긴 짜리바구니를 들고 아낙네들과 밭이랑을 함께 타며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기도 하고 농번기에 어찌다 찾아오는 휴식날이면 마을의 초급일군들과 청년들을 휘동하여 백년나마 자란 버드나무가지에 그네도 매달고 그옆에 씨름판도 만들어놓고는 농장일군들과 함께 장기를 두면서 당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준다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점심밥곽을 일일이 열어보면서 뉘집 자식인가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군상업관리소에서

렬차로 실어오는 된장, 간장통의 뚜껑을 열고 직접 맛보기도 한다고 했다.

그 《중양당아바이》의 노력으로 허천땅에서 바로잡힌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군적인 의의를 가지는 당정책집행과 관련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매 가정의 살림살이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한번은 신혼살림을 하는 젊은 부부가 무슨 일로 해서인지 아웅다웅하다가 리혼이다, 결별이다 하고 허천꼴안이 들썩하게 소동을 피운 일이 있었는데 《중양당아바이》가 그 집에 들락날락하며 무슨 침을 놓았는지 리혼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부가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았다는것이다.

또 한번은 아이들싸움이 어른들싸움으로 번져져 처마를 맞대고 사는 두집이 앙숙으로 되어 서로 척을 지고 지낼 때 《중양당아바이》가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열흘안팎에 웃집 떡이 아래집에 내려오고 아래집 떡이 웃집에 올라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였다.

그 《중양당아바이》의 인망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가 지도사업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 바래주러 나온 사람들로 역마당이 짹뻗었다는것이였다.

군내 일군들은 물론 농장의 작업반장들, 분조장들, 농장원들이 일하던 차림그대로 역에 몰려나와 따라가며 《중양당아바이! 안녕히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하고 목메여 소리치는데 곁에서 보는 학생도 막 눈물이 났다고 한다.

나는 그때 허천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일군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는 그 일군의 인품과 작품을 두고 더이상 의미를 넓혀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으로 소환되어와서야 나는 한 산골마을 대학생의 평범한 고향자랑속에 묻어나온 《중양당아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높이에서 되새겨보게 되었다.

그 《중양당아바이》는 당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메워주신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실속으로 들어간 수많은 당일군들

중의 한사람에 불과했던것이다. 다시말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우리 당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손잡아 키우신 첫 세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나 역시 장군님의 믿음과 은정속에서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가는 신발을 신으며 성장하였다.

우리가 부서에 배치되여왔을 때 안배옥부부장이 《신입생》지도원들을 자기 방에 불러다가 시험을 쳤다. 시험문제는 《사람들과의 개별담화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였다.

교수과정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많이 해본 나는 그것을 별로 힘든 문제로 보지 않았다. 도나 군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소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나름대로 대답은 거침없이 했으나 시험판의 평가는 팽정하였다.

《영 맨발이구만. 신발부터 바로 신어야겠소.》

부부장은 책장안에서 파란 뚜껑의 수첩을 꺼내여 우리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그리고는 《받아쓰시오.》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개별담화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개별담화는 언제나 뚜렷한 방향을 세우고 목적지향성있게 해야 한다.

둘째, 개별담화는 진심이 통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담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깊게 들을줄 알아야 한다.

넷째, 사람들과 담화할 때 하품을 하거나 시계를 보며 상대방이 말을 중등무이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개별담화에서는 한쪽 말만 듣고 결론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우리는 모두 속으로 감탄했다. 너무도 명철하고 완벽한 준칙이었던것이다. 오랜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부부장은 말했다.

《잘 알아두시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요. 이제 동무들도 실생활에 구현해보느라 하면 깨닫게 되겠지만 이 준칙만 잘 지키면 담화의 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이요.》

이것은 수령님의 슬하에서 인간을 알고 인생을 배우며 성장하시어 어린시절부터 벌써 사람과의 사업을 해온 풍부한 체험을 가지고 계시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이었다.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라는 가르치심은 류다른 감흥으로 나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이전까지는 나도 군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이끌어야 할 당일군이였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실습지로 바빠 뛰어다닐 때 책임일군들이 찾아와 《뭐 애로되는것이 없소?》 하고 묻기만 해도 힘이 솟고 사기가 오르던 일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모든 당일군들이 그렇게 군중이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총복이 되라고 장군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었다.

그때로부터 40여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자애로운 스승으로,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 우리 당의 한 일군으로 사업해오는 전기 간 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또박또박 받아 써놓은 그 수첩을 내 몸에서 떼놓은적이 없었다. 지금도 심중한 문제로 개별담화를 할 일이 생겨 현지로 나갈 때나 당사자를 부르고는 그 수첩을 펼쳐보곤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력사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사람과의 사업이 당사업의 기본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내놓고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온 력사이다.

주체79(1990)년 10월 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당사업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당건설과 활동과정은 사람과의 사업을 첫 공정으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온 과정이다.》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역사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된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의 골간도 꾸리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도 마련하시였으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도 닦아놓으시였다. 총을 들고 싸움길에 나선 혁명가들은 물론 로동자, 농민,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종교인 등 조선의 모든 계급과 계층을 망라하는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총화가 바로 위대한 조국해방이라고 할수 있었다.

혁명의 성패가 사람과의 사업에 달려있다는것은 수령님께서 주장하신 시종일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고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전당을 발동시키고 이 사업을 전군중적사업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여기서 1960년대초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태여날 당시 강서군당위원장으로 사업한 문성술부부장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그자체가 수령님의 위대한 군중령도방법과 작품속에 탄생한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오.》

주체47(1958)년말에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생산력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주체48(1959)년 2월 17일 수령님께서 강선을 찾아 지펴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져 인민의 정신력도 비상히 앙양되였다. 새로운 사회경제적환경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도 그에 따라세울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 절박성을 그 누구보다 먼저 깊이 통찰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은 항상 군중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은 인민대중의 생동한 창조적생활속에 깊이 들어감으로써만 항상 승리할수 있는것이니

다.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가르칠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며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그 전원회의로부터 열흘후 수령님께서는 근 20일간 함경북도를 현지도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에게 군중속에 들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시는 그 북방길에서 수령님께서는 자욱마다 뜻깊은 사연을 남기시였다.

김책군 상평리(당시)에 들리신 수령님께서는 그곳 관리위원장이 메마른 땅이라고 100여정보나 그냥 묵이려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농민들을 모여놓도록 하시고는 땅을 버리지 않고 리용할 방도가 없겠는가, 어디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저마끔 한마디씩 내놓는 의견들을 다 들으시고는 그럼 이렇게 하자, 뽕나무가 잘된다니 먼저 60정보가량 뽕나무를 심자, 다음에는 과수원도 좀 만들자, 모래판에다는 돼지먹이로 똑감자를 한 6정보 심어보자, 그러고도 남는 땅에는 고사리와 버섯을 키우자, 소와 돼지, 염소와 토끼를 기르고 벌통도 장만하고 닭도 치면 올해에는 몰라도 다음 한해동안이면 아마 돈더미우에 올라앉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신 수령님에 의하여 당정책이 인민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발머리에서 한 평범한 군중의 목소리가 당정책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화폭이였다.

라남기계공장에 가시여서는 첼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그러니 공장을 더 크게 확장하자고 하시면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고 어느 한 아마공장에서 자체로 선반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3월 15일에는 수령님께서 라진군에서도 제일 막바지인 무창리까지 찾아가시였다. 너무 궁벽해서 출가한 딸들이 친정나들이도 힘들어한다는 무창땅, 농가도 농민들도 얼마 되지 않는 심심산골에 그이께서 어인 일로 가시여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가.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직후에 당시 《문학신문》 기자였던 시인

김철이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을에 들어섰을 때 김사한이라는 로인이 말했다.

《넙은이, 들어보오. 글썄 이 무창골이 어디요. 이 세상 한끝이나 다름없는 산골이 아니요. 내 이 골안에서 70여년을 살아오니다마는 이 첩첩산중에 수령님께서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소. 죽기 전에 평양에나 한번 올라가야 그분을 만날수 있으려니 했는데 웬걸 그분께서 여기를 찾아오셨더라 말ियो. 그분께서 골안에 척 들어서시자 온 산천이 환해집디다.

수령님은 우리 늙은이들과 말씀하셨지.

참 좋은 곳입니다, 감자를 심어 흰쌀을 바꿔오고 목축을 하여 고기와 우유를 먹고 산나물을 캐여 돈을 벌고 거기다 꿀까지 내어 먹을 수 있으니 이 산골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시황이 정말 생각을 잘못했지요, 불로초를 구하느라 애쓰지 말고 꿀과 우유를 먹었어야 했지요, 꿀을 많이 자시면 300살은 장수할수 있습니다, 나도 늙으면 이 무창에 와서 살고싶습디다 하고 말ियो. 내 살아생전에 수령님을 만나뵈 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그분께서 글썄 우리 마을에 와서 살고싶다고 까지 하셨으니 이이상 영광이 어디 있겠소. 아! 수령님은 이 심심 산골에 벼씨를 뿌리고 가시였지요.》

시인은 《문학신문》지상에 이렇게 썼다.

《…이 산골 늙은 농사꾼이 소박하게 표현한 벼씨라는 말은 곧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생활속에 뿌려주고 인내성있게 키워주시는 행복의 씨앗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곳마다에서 이 벼씨는 기름진 대지와도 같은 인민의 가슴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아지를 치고 우줄우줄 자라고있으며 열매를 맺고있다.》

나는 벼씨라는 그 형상적인 표현이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을 누비고있는 현지지도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고 생동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라는 대지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시려고, 그 씨앗이 알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평생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시였다. 이 나라 어느 별판, 어느 공장, 어느 부두에 그이의 발길

이 닿지 않은 곳이 있었더라.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인민의 심장을 발동시키고 인민의 의사는 우리 당의 시책으로 되는 끝없는 순환속에서 혁명은 전진하고 조국은 번영하였다.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빛나고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는 곳에선 음지도 양지로 되고 락오자도 혁신자로 되었으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졌다.

상평마을사람들은 수령님의 말씀대로 뽕나무밭과 뚝감자밭을 만들고 고사리밭, 버섯밭, 파수원도 만들었으며 그해말에는 젖소는 3마리로부터 65마리로, 돼지는 54마리로부터 206마리로, 염소는 45마리로부터 107마리로, 토끼는 3마리로부터 601마리로, 꿀벌은 21통으로부터 126통으로 늘이었다. 집집마다 현금분배만도 그때 돈으로 7만원이 넘게 차례졌다.

그해 12월 4일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 혁명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하고 군중에 의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다음해 1월 7일에는 평안남도당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첫째 의정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개선문제를 제기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치적방법으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일깨워주시고 2월초부터 보름동안 강서군과 청산리에 나가 그 본보기를 창조하시었다.

수수한 갈노전을 깬 리사무실에서 밭일을 하던 차림새 그대로 들어온 농장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는 수령님의 영상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함께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고있다.

청산리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군중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갈데 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는 투쟁의 앞장에는 항일빨찌산 지휘관들이었던 투사들이 섰다.

왕별달린 군복대신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최현채신상이 차에다 뻘찌며 꺾쇠, 애자를 넘치도록 싣고 랑림산줄기의 통신선로공들을 찾아갈 때 원양어장에서는 최용진수산상이 고기비늘이 달라붙은 어로공앞치마를 두르고 신포수산의 영웅선장과 함께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80만 t 물고기고지의 마지막그물을 끌어올렸고 김일 내각제1부수상은 싸리안전모에 간데라불을 들고 막장에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탄차를 밀었다.

투사들의 뒤에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따라섰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만이 아니었다. 공장의 평범한 작업반장이나 농촌의 처녀선동원까지도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간개조의 선구자가 되고 영웅으로 되어 신문에도 나고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의 원형인물로도 되었다. 10대의 나 어린 소년단원들까지도 사람과의 사업을 하였다.

수령님께서 리신자나 길확실을 특별히 사랑하고 내세우신것은 그들이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했기때문이었다.

당 제4차대회보고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자랑스럽게 총화하시였다.

대회에 참가하였던 쏘련공산당대표단 단장 표즐로브는 격동된 어조로 《당사업의 본질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참으로 독창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조선에서 천리마가 날고 평양속도가 창조되어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대회를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쏘련공산당대표단의 안내를 맡았던 김기남은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고 지금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당은 사람들이 뭉친 선봉적정치조직이며 당의 임무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의 사업대상은 사람이며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의 본질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처럼 명철하게 가르쳐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을 강철의 당으로 만드시고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으로 만드시었으며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의 대화원으로 만드시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아버이수령님께서 길림시절에 조선혁명의 좌우명으로 높이 드신 이 구호를 우리 장군님께서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었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그에 충실하시었다.

어리시었을 때는 인민의 아들이 되라는 부모님들의 깨우침에 이끌려 인민을 찾아가시었다. 중학시절부터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사명감으로 하여 인민의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시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느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었다.

고열과 유해가스속에서 힘겹게 일하는 황철의 용해공들을 보시면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구상하시었고 《견우직녀》나 《콩쥐팍쥐》 같은 재래식가극들에서는 인민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가극창조의 필연성을 절감하시었다.

대학시절 도로공사장과 실습현장에서 온몸에 감탕철, 기계기름칠을 해가며 학생들과 군인들, 노동자들과 그리도 잘 어울리시던 그이, 군사야영지에서 소박한 독방을 권해드렸을 때는 기어이 여러명을 더 들이고야 마음이 편해하시던 장군님이시었다. 우리들이 그 병실에 들어서자 이제야 사람사는 집 같다고, 이제부터 코를 맞대고 살아보자고 하시던 그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주춤주춤하는 나를 가리키며 신통히 시집에 온 새색시같다고 하시던 호방한 웃음소리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병실에서 밤이면 때로 우리들과 마주앉아 딱딱 소리를 내면서 장기를 두시다가 《이젠 그만 잡시다.》 하는 옆방의 《신소》를 받기도 하시고 우리와 한 모포속에 누워 손자병법이니, 클라우제비츠병법이니 하고 론쟁을 하기도 하시었다. 고향에서

오는 편지도 함께 읽으시였고 온종일 산밭을 타느라 땀에 절은 속옷이며 양말도 병실앞 내가에서 같이 빨기도 하시였다. 비오는 날 병실뒤에서 백포로 옷설미를 하고 연기를 들이키면서 감자구이를 하신적도 있었다. 우리와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고충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였다.

자주 수령님의 현지도길을 수행하고 돌아오시여서는 우리에게 나라형편과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알려주시였다. 주체50(1961)년 5월 2.8비날론공장 준공식에서 돌아오신 날 하시던 말씀은 그 어조와 손세까지도 생생히 돌이켜진다.

…수령님께서는 리승기박사와 손을 잡고 거창하게 일떠선 비날론공장을 바라보며 걸어가시였소.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드시더니 힘차게 내리그으며 호탕하게 말씀하셨소. 《인민의 힘은 하늘을 이기오!》라고 말이요. …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들과의 접촉은 우리 혁명을 앞장에서 떠밀어가는 훌륭한 인재들, 말없이 거목을 키우는 대지처럼 조국번영에 성실한 땀을 묻어가는 고결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동지적 뉴대를 맺는 과정이였다. 건축가 김응상, 용해공 진응원, 선동원 리신자, 인민보안일군 리진수, 영웅미장공 김명원, 작가 최로사, 축구선수 박두익 …

인민이라고 불리우는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을 느끼시였고 강렬한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돌아가시는 인민행렬차의 참 뜻을 체득하시였다.

그 모든 체험이 주체53(1964)년 1월 10일 온천군을 현지도하시는데 수령님을 모시고 해저무는 일출동부락을 지나실 때 이런 격정으로 울려나왔다.

《수령님을 모시고 현실에 나오면 보는것이 모두 지식이 되고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정이 솟구칩니다.》

아무리 훌륭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현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할 좋은 공리를 하기 어렵다. 인민의 숨결이 느껴지는 현실은 가치있는 발견과 착상을 낳는 바다이며 이를 외면하고

멀리하는 정치인은 불피코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다.

우리 당이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기적적인 승리는 다름아닌 인민의 무한대한 힘과 그것을 분출시킨 수령님의 탁월한 평도력의 산물이었다.

우리 장군님은 이런 기적의 목격자, 증견자이시였다. 어린시절부터 수령님을 따라 걸으시면서 인민의 새 나라가 어떻게 일떠서고 전화의 불구름이 어떻게 가서졌으며 폐허를 밀어제끼고 자립경제가 어떻게 일떠서는가를 목격하시였다. 안팎의 원수들이 당과 국가를 공격해나섰던 준엄한 이 땅에서 어떻게 천리마가 솟구쳐올랐는가를 체험하시였다.

그 나날 력사의 도도한 흐름우에 화불처럼 타오르는 하나의 진리-이 세상에 인민의 힘보다 더 강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힘을 총발동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체득하시였다.

그런데 당사업을 시작하신 장군님의 시야에는 너무도 상반되는 현실이 걸음걸음 비쳐들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부터 종일 전화기와 문건무지에 매달려있고 간혹 아래단위들에 나가서도 사무실에서 맴돌다가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주체53(1964)년 5월 하순 김종호부과장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실례였다.

그가 담당한 중앙병원의 한 외과의사가 왜 그런지 얼마전부터 우울해지고 치료에서 적극성이 없어져 급한 수술이 제기되였는데도 몸이 불편하다고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급히 물으시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이때까지 일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면 무슨 곡절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가 환자를 오진하여 치료에 지장을 주고 당조직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아마 그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불만으로 그런다는것이지요?》

그건 그랬다치고 이제 말한 그 자료는 동무가 직접 료해한것

입니까?》

《그런게 아니라 그 의사가 속한 당세포에서 제기한 자료와 그곳 당일군을 통해 알게 된것입니다.》

《물론 해당 당조직이나 그곳 일군들의 견해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대상기관에 나갔던바에는 직접 확인해 볼걸 그랬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백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상기관에 나가면 본인을 꼭 만나보라고 하시였다.

실책을 깨달은 김종호는 병원에 다시 나가 의사와 마주앉았다. 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수술칼을 잡지 않은것은 몸이 불편해서였고 환자를 오진한것은 서둘러 진단을 내렸기때문이다, 의사는 이런 판에 박은 대답만 반복했다.

화가 난 김종호는 상급당에서 나와 담화를 하는데 당원이면 허심하게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고 어성을 높이였다. 그리고는 돌아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뒤를 달았다.

《정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고 물으시였다.

김종호는 그곳 당위원회의 의견대로 한두번 더 불러다가 일깨워주고 그래도 개진이 보이지 않으면 비판무대에 올려세우겠다고 하였다.

곧 무척 실망하신 장군님의 음성이 울렸다.

나는 동무들이 이렇게 일할줄은 몰랐다. 만일 동무들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수월히 비판무대에 올려세울수 없을것이다. 그래 동무는 우리 당일군들의 주관적 견해와 속단으로 한 당원이 가슴에 맺힌 사연을 풀지 못한채 마음속에 그들을 안고 지낼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때까지 일을 잘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겠는가. ...

그러시고는 당일군들은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따끔히 타이르시였다.

...우리 당일군들은 사람의 진속을 알아내는데서 로속하고 인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마음의 《대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챌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가 괴로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괴로와하며 만약 그의 가슴에 맺힌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발벗고나서서 끝까지 책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목석이 아닌 이상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김종호는 얼굴이 달아올라 어쩔바를 몰랐다.

그는 다시 병원에 나갔다. 이번에는 주변사람들부터 만나 그 의사의 경력과 가정형편, 지금까지의 치료정형과 의술수준, 집단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알아보았는데 누구나 그를 량심이 곧고 의술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다시 찾아온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진지한 눈빛앞에서 의사는 드디어 고민거리를 터놓았다. 사연인즉 전쟁시기 폭격에 죽은 줄 알았던 친척이 후퇴시기 반동단체에 가담했다가 월남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것이였다. 확인하자니 두렵고 가만있자니 머리가 복잡하여 오진도 했고 수술칼을 잡을 용기는 더욱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종호는 자신을 깊이 뉘우치면서 의사에게 말했다. 사실여부는 알아보자. 그러나 소문이 맞다고 해도 본인의 현행을 중시하는것이 우리 당의 정책이다. 다른 생각말고 치료에 전념하기 바란다. ...

그리고는 많은 품을 들여 끝내 사실을 밝혀내었다. 소문은 전혀 무근거한것이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 의사는 눈물이 글썽하여 《고민거리가 풀린것도 기쁘지만 나의 고충을 제일처럼 안타까와하는 당조직이 곁에 있다는것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라고 걱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두고 당일군들이 사람의 진속을 알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고 하시면서 거듭 말하지만 당일군들은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아야 한다는 뜻깊은 명언을 새겨주시었다.

경험은 일군들이 군중이 있는 현실로 부단히 들어가야 하며 그래야만 군중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념원을 당정책에 반영할수 있고 또한 그 념원을 시책으로 펼친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할수 있음을 보여주고있었다. 생활의 진리는 이렇듯 명백한데 좀처럼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만 맴도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어디에 걸렸는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기 싫어하기때문인가. 그밖의 다른 원인은 없는가.

주체62(1973)년 9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초급당총회를 지도하시는 과정에 그 누구의 생각도 아직 가닿지 못한 이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정통을 찌르시었다.

그날 보고와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아직도 일군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것이 큰 결함이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꼭 풀어야겠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것 같소 하고 물으시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일뿐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잠시후 장군님께서 앞줄에 앉아있는 책임일군들에게 다시 물으시었다.

《그럼 많은 동무들이 아래에 내려가고싶어도 나갈 틈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은 있습니까?》

책임일군들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아래일군들한테서 밑에 내려가자고 해도 몸을 뺄수가 없다는 말을 늘 들어오면서도 무심히 넘긴 그들이였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소!》

일군들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자기들의 머리속에 들어있던 낡은 판념이 깨여지고 아래일군들의 발목을 비끄러매놓았던 낡은 사업체제가 무너져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닥쳐오고있음을 그들은 느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부서사업자체가 아래에 내려가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부서에서 문건놀음을 많이 하기때문에 과들에서는 지어 전화로 한마디하여 비준받을수 있는것까지 일일이 다 문건을 만들고 라자를 쳐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과장, 지도원동무들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통계와 실래자료만 묵자고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지방당이나 대상기관에 나가 사업할수 있겠습니까. ...

과장, 지도원동무들이 아래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밑에서 제기되어 올라오는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부서의 기구체계를 보면 지도원들이 몇개 도씩 말아보게 되어있기때문에 어느 한개 도에도 제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발목을 비끄러매놓고 내려가라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만 할것이 아니라 내려갈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충분히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종전의 낡은것들을 그대로 넘겨받지 말고 다 마사버려야 합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담당지도원들이 한달에 20일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고 10일 올라와서 재무장, 재작전하는 새로운 사업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본질이 철저히 구현된 새로운 사업지도체계는 곧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냈다. 이 사업지도체계는 그때부터 전당적인 사업체제로 확립되어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철저히 발을 붙이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에서 드물지 않는 주춧돌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 온 나라가 어쩔바를 몰라하던 주체100(2011)년의 그 겨울날 우리 일꾼들에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모든 사업은 장군님께서 세워 주신 체계대로 하면 된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일꾼들모두가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아픈 마음도 함께 나누고 야외추모장에서 장군님을 목매며 부르며 밤을 새는 인민들이 동상을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며 그들을 고무격려하여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려일으켜야 한다....

눈내리는 12월의 그 차디찬 밤들에 추모장에 달려나와 한평생 인민위한 길만을 걸으시다가 마지막결음마저 인민을 찾는 길에 다 바치신 아버지의 태양상결을 떠나지 못하는 인민들의 발밑에 뜨겁게 달군 불돌도 놓아주고 더운물도 떠주며 열흘낮, 열흘밤을 함께 보낸 일꾼들,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들여 키우신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의 충직한 모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당일꾼들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어느때 어디를 가나 거기에서 군당사상일군들을 만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현지도를 하시다가 포전에서 <동무 누구요?> 하고 물으시면 <예, 저는 군당사상비서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무엇하러 나왔소?>라고 물으시면 <당정책을 해설하러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리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2월 20일에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있게 군당위원회기구도 개편하도록 하시였고 2월 28일과 3월 5일에는 도담당 책임지도원들과 마주앉아 아래에 내려가 일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해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주일간이나 함경남북도를 현지도하시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으로부터 온성군, 선봉군(당시), 경성군, 청진시, 함흥시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찾아수천리를 달리시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에 가시였을 때였다.

해가 저물도록 건설사업을 지도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변의 살림집들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여

기저기 널려있는 모양새도 크기도 각각인 낡은 집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집들을 한곳에 모아짓자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왕재산기슭에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건설하자고 하시였다.

며칠후에 끝결한 건설력량이 설비, 자재들을 한가득 싣고 마을에 들이닥쳤고 한해도 못되어 문화회관과 상점, 병원과 학교, 탁아소와 유치원까지 일식으로 갖춘 번듯한 마을이 일떠섰다. 집집마다 널직한 살림방들과 목욕실까지 꾸려진 희한한 새 마을, 화면에서만 보아오던 청산리가 북변땅에 통채로 옮겨왔다.

이렇게 걸음마다 심혈을 쏟아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그무렵 수령님으로부터 신창군(당시)인민들이 자기네 군당책임비서를 해임시키지 말아달라는 신소청원을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리길송을 불러 그 사연을 알아보시였다.

그는 자기의 무책임성을 반성하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평소에 신창군당 책임비서를 좋지 않게 보던 도당지도원이 자료를 망탕 수집하고 과장하여 제기했는데 도당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당중앙위원회에 올려보냈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더욱 엄중하게 보신것은 사건을 담당한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처사였다. 현지료해를 내려갔다는 사람이 현지에 내려가 나타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료해하지 않고 도당청사에 앉아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비서국회의에 제기했던것이다.

이 사실에 분격하신 그이께서는 평양에 올라오시는길로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신창군당 책임비서를 철직시킨데 대하여 그곳 인민들이 의견을 제기하는데 조직지도부에서 다시 료해하라고 하시였다. 철직된 군당책임비서에게 사상적과오가 없고 그의 부인이 남에게서 물건을 줌 얻어가진것이 문제로 되었다면 군당책임비서를 철직시킬 조건이 되지 않으니 그를 복직시키라고 하시였다....

사건에 관계했던 문성술부부장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는 부부장으로 임명받을 때 장군님으로부터 동무는 수령님께서 친히 키우

신 일군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받아안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발로시킨것이였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과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부식의 길, 귀족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귀족화란 관료배가 되는 직행길이다. 인간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무심히 대하거나 진상을 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하는것보다 더한 관료주의는 없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신인하제1부부장과 안배옥부부장에게 함경남도에 가서 다시 료해하라고 과업을 주시면서 도당에 들리지 말고 곧바로 신창군에 가서 인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라, 만일 그에게 사상적파오가 없다면 복직시키고 당중앙위원회에서 도당위원회가 잘못 제기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처리한데 대해 사죄하며 수령님께서 몸소 알아보시고 다시 자기 위치에서 사업하도록 신임을 베푸시었다는것을 알려주라고 하시였다.

장군님의 마음은 이미 군당책임비서에게로 기울어지고있었다. 그것은 청원한 인민들에 대한 믿음이였다. 인민의 눈은 정확하고 인민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기는 법이라고, 인민보다 더 공정한 재판관은 없다고 그이께서는 늘 외우시였다.

인민들의 신소는 옳았다. 신창군당 책임비서는 인민들의 신망을 받을만 한 일군이였다. 그는 어느 집 아들이 군대에 나가고 어느 집 새며느리가 해산을 했으며 어느 학교 교장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것까지 손금보듯 꿰들고있었다. 늘 군안의 공장과 농장들을 메주끓듯 하면서 큼직한 일감을 생각해내어 맡겨주고는 끝장을 볼 때까지 드세게 내밀었다. 그렇게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키면 일터가 끓고 생산이 올라가고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곤 했다.

현상유지나 하면서 꺾렁꺾렁 지내는 사람들, 권력앞에 아양을 떨며 발라맞추는 아첨군들을 경멸하였으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요술을 피우는 건달군들은 아예 배겨내지 못하게 혼쌀을 냈다. 도당일군에게 《자료》를 제공한것은 바로 그런 《봉변》을 당해본 사람들이였다.

해임되였던 군당책임비서는 현지에서 복직되였다.

이 사건을 총화하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문제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단단히 각성시키시었다.

그날 문성술은 통절히 자신을 반성했다. 10여년전 청산리에 오시였던 수령님을 생각하면서 온밤 죄책감에 모태졌다.

천금같은 시간을 짜내어 여러날동안 청산리에 계시면서 집집의 복잡한 가정사도 들어주시고 회의보고문을 쓰는 방법도 배워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의 눈앞을 메웠다. 2월의 강추위가 옷설에 스며드는 포전길에서 입김을 날리며 조합의 전망을 의논해주시던 수령님의 모습도 우렷이 되새겨졌다. 문성술부부장은 이때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장군님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식배당을 진 당일군들의 대오를 앞장에서 이끄시며 인민행을 하시는 벅찬 나날속에 주체63(1974)년이 저물고 주체64(1975)년이 왔다.

그해 2월 16일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최영립서기에게 이제 곧 새로 꾸린 3대혁명전시관에 나가보겠으니 조직비서에게 같이 나가자고 연락하라고 이르시었다.

수령님의 말씀을 전하러 장군님의 집무실에 찾아갔던 최영립은 그이께서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방금전에야 댁에 들어가셨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서는 《그렇게 일하면 쇠로 만든 사람인들 견디여낼수 있는가. 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틀려먹었소.》라고 심려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래, 할수 없지. 우리끼리 나가보자. 오늘 모처럼 같이 가고싶었는데...》 하시며 퍼그나 아쉬워하시었다.

그날 전시관을 돌아보시는 수령님의 안팎에서는 시종 미소가 흘렀다. 특히 사상혁명관에서 안주군(당시)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때 메고다니던 배낭을 보시고는 이제야 당사업이 제 궤도에 들어섰다고, 이제 바로 자신께서 생각하시던 당사업방법이라고 기뻐하시면서 돌아오는길로 장군님께 전화를 거시었다.

《오늘 정말 좋은것을 보았소. 조직비서의 생일을 축하해주려던 노릇이 오히려 내가 한턱 잘 받은셈이요.》

3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 나가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보아주신 그 배낭을 손수 헤쳐보시었다. 각종 정치서적과 문예서적들, 하모니카, 붓, 색감... 화선식정치사업에 필요한 수단이 가득차있는것을 보시고 안주군당일군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치하하시었다.

그때 안주군당일군들을 힘껏 떠밀어준 일군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진철중부부장이다. 해방전 망국의 슬픔을 뼈저리게 체험한 그는 남먼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적화점을 까부시다가 부상을 당한 영예군인이며 주체53(1964)년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해오는 오랜 당일군이였다. 년한이 많아지면서 차츰 열정과 패기가 식어가고있던 그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게 된것은 주체62(1973)년 8월 17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다음부터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도들에 내려갔던 선전선동부 일군들에게서 그때 까지도 도, 시, 군당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 아래일군들을 불러들이거나 종일 전화기에 매달려 들볶아대고있다는 실태를 들으시고 이렇게 깨우쳐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중대에 내려가 생활하시였고 오늘도 쉬임없이 공장과 농촌들을 찾아가시는데 동무들은 아직도 옛날 본새 그대로이다. 모두가 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야 한다....

진철중은 남먼저 안주탄광으로 나가 제일 뒤떨어진 갱막장으로 들어갔다. 맥을 놓고있는 탄부들에게 주체57(1968)년 11월 첫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일던 날 밤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였던 일을 들려주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 어떻게들 지내는지 걱정되어왔다고 하시면서 방바닥도 짚어보고 무연탄불이 잘 피는지 가마도 들어보라고 하시던 수령님께서 《그러니 탄만 많으면 되겠구만. 내가 이제 탄부들을 찾아가보겠소.》라고 하셨다는 그의 이야기에 탄부들도 군당일군들도 모두 눈길을 떨구었다.

안주군당일군들은 선전화나 구호를 붙이고 우에서 내려보낸 제강

이나 읽어주는것으로 만족하던 지난날을 활활 털어버리고 당중앙의 의도대로 선전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렸다. 군중과 일도 같이하고 설 참이면 하모니카도 불고 시도 읊으면서 사람들의 귀에 쪽쪽 들어오게 화선선동을 들이대었다.

진철종은 70일전투때에는 성진제강소에, 1980년대 중엽에는 검덕에 지도소조로 파견되어 장군님의 뜻을 훌륭히 실천하였다. 검덕의 광부들과 함께 광석도 나르고 노래도 부르면서 막장을 들었다놓았고 제대군인들이 집이 없어 새살림을 펴지 못한다는것을 알고는 주택건설장에서 밤을 새웠다. 출근길환영과 혁신자가족모임으로 광부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아버지된 심정으로 처녀총각의 혼사도 성사시켜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직접 추천하신 첫 사람인 그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사람이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일단 책에 달라붙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놓지 않는 학구적인 성격이 대학졸업생이상의 지식을 갖춘 당일군으로 그를 떠올렸던것이다.

그가 영예군인이며 간경변진단을 받은 중환자라는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못했다. 마이크를 잡고 전시가요들을 한바탕 부르고는 동통을 참느라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도록 신고한다는것도 몰랐다. 가족기동예술선동대와 로병선동대의 화선선동련습을 지도하던 그가 방송차안에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이 락천적이고 정열적인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모습에서 장군님의 뜻을 헤아렸고 당의 의도를 깨달았다.

검덕에서 돌아온 진철종은 병이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마지막날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불같이 살다가 떠나간 그의 한생을 두고 장군님께서서는 절통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정말 아까운 혁명동지를 잃었습니다.

…진철종동무는 혁명가답게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사무실에서 충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진철종동무는 내가 중앙당에 와서 당사업을 지도하면서 처음으로

선전부 부부장으로 제발한 사람인데 그가 오늘까지 나와 같이 사업하면서 일편단심 당을 따라 충실하게 일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전국의 당조직들이 안주군당일군들을 본받기 위한 방식상학과 지상토론, 경험발표회 등으로 법석 끓었다. 선전일군들만이 아니라 당일군이면 누구나 배낭을 메고 아래로 내려갔다.

대하가 사품치면 거품이 떠오르는 법이다.

어느날 문성술부부장은 지방당조직들에서 올라온 반영자료를 보고 놀랐다. 아래에 내려가려고 해도 회의가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한달에 평균 20회이상, 한 회의안건이 보통 5~6건, 어떤 날은 대여섯곳에서 동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어느 회의에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는 자료였다.

문성술의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허거프게 웃으시었다.

그야말로 회의꾸러기들이군. 어느 한 외국시인은 회의하기를 좋아하는 형식주의자들을 비판하여 《회의꾸러기》라는 시를 쓴적이 있었는데 우리 일군들속에서도 그런 회의꾸러기들이 나타난것 같습니다.

그 시를 쓴 로씨야의 마야콥스끼는 시에서 회의가 너무 많아 몸뚱이를 두토막으로 잘라서 옷부분은 이 회의에 보내고 아래부분은 저 회의에 보냈다는 풍자적형상으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되고 모든 당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가는 1970년대에 회의꾸러기와 같은 시대의 락오자들이 아직 있다는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시었다.

《알아보시오. 그래야 회의가 왜 많은지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문성술은 사업포치, 당정책집행총화 등 모두 중요한 문제들인데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이 저마끔 같은 내용의 회의를 조직하다나니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대뜸 부서간 배합과 협동작전을 짜고들어 반복회의를 없애고 꼭 필요한 회의는 준비를 잘했다가 짧게 하며 사업포치 같은것은 전화로 하면 되지 않는가고 그 방도를 일깨워주시었다.

아래로 내려가는데서 또 하나의 방해군은 책상주의자들이었다. 하루종일 전화기와 문건무지에 매달려있는 사무실형의 일군들을 가리켜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주의자라고 부르시었다. 책상주의자들을 없애지 못하는 원인은 상급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건들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것은 어느 시당에서 당원증보관정형을 장악한다고 하면서 몸에 지니고있는가, 집이나 사무실에 간수하고있는가, 이렇게 황당한 조항들을 내놓아 비판을 받던 일이다. 이제는 아득한 옛말이지만 이런 축대밭을 다 갈아엎어야 했으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겠는가.

주체64(1975)년 7월 1일, 당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전당, 전국, 전민의 투쟁이 결정적단계에 들어서던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와 검덕광산의 책임일군들은 문화회관에 광산지질도와 개발도면을 준비해놓고 그이를 맞이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도면들을 다 보시고 이제는 갯에 들어가서 로동자들을 만나보자고 하시었다. 그러자 당중앙위원회 현무광비서와 리길송도당책임비서, 광산일군들이 완강히 막아나섰다.

하지만 쏜살같이 차를 달려 4.5갯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짜리안 전모를 쓰시고 갯입구에 서있는 인차에 오르시었다. 어쩔바를 몰라하는 수행원들에게 손을 휘 저으며 다들 빨리 타라고,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다 때놓고 우리끼리 가겠다고 이르시었다.

인차가 캄캄한 갯안에서 20여리가량 달려 막장까지 들어가는데 근 한시간이 걸렸다. 석수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인차에 매단 간데라불이 울퉁불퉁한 굴벽을 어슴푸레 비치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인차에 조명장치를 해서 로동자들이 갯안에 드나드는 시간에도 신문 같은것을 보게 해주자고 하시었다.

그때 갑자기 굴안이 흰해지기 시작했다. 교대를 마치고 나가다가 충격적인 그 소식에 접한 광부들이 도중도중에 간데라불을 쳐들고 갯을 밝히며 서있었고 갯밖까지 나갔던 광부들은 인차를 따라 다시 들어오기까지 하였던것이다.

인차에서 내려 막장지휘부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돌가루 묻은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면서 첫마디에 《공기가 나쁘구만.》라고 하시였다.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누군가가 갱안에서 오래동안 나가지 않고 일하는 광부들이 많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공기가 나쁜 곳에서 재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도록 하라고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그리고 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캐낸 광석을 어떻게 실어내는가. 전차 한대가 10t짜리 광차를 한 번에 몇대씩 달고 운반하며 교대당 몇회전씩 하는가. 전투막장간 통신은 어떻게 보장하며 갱안에 작업장은 몇개나 되는가. 그 술한 인원과 작업장을 유선전화기 한대를 가지고 어떻게 지휘하는가. 소대장은 계속 교대를 하는데 갱장은 작업장을 교대하는 방법이 없는가....

장군님께서는 광부들의 생활형편도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검덕지구의 인구며 후방기지형편, 주택관리문제와 광부들의 하루 고기와 기름공급량, 랭동설비상태...

료해로 그치지 않고 손수 계산을 해가시며 일은 험하게, 생산은 더 늘일 방도를 찾아주시였고 광부들의 생활상애로도 일일이 대책 해주시였다.

이날 오랜 한 광부가 장군님앞으로 다가서며 《그 귀하신 몸으로 여기가 어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자 그의 손을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전당, 전국이 검덕을 지원하는데 나도 오고싶어서 왔습니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순간 《만세!》의 함성이 막장에 메아리쳤다.

인간은 짓밟고 천시하면 있는 힘도 스러지지만 진정어린 믿음과 존대앞에는 한계이상의 힘을 낸다. 그런 힘이 합쳐지고 합쳐져 검덕은 기적을 낳았다. 아름답게 여기던 그해 계획을 10월 10일까지 103%, 연말까지는 138.9%로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검덕광산현지지도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도

불을 지폈다.

그해 8월 12일 보건부장 박명빈이 검덕에 갔다왔다는것을 보고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이번에 내려가서 어떤 일들을 했소?》

《평양의학대학병원과 함흥의학대학병원의 유능한 의료일군들로 조직한 의료지원대와 보건부종합위생선전대를 데리고가서 광부들의 건강검진도 하고 막장선동도 하면서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폐갱에 보약직장을 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약을 생산하여 광부들에게 공급하였으며 광산병원도 새로 꾸려주었습니다.》

《수고했소.》

수술을 잘하여 보배손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재사가 열정적인 일군으로 성장한것이 무척 기쁘시였던지 장군님께서는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였다.

《보건부장이 직접 기술집단을 데리고 검덕광산에 내려가서 로동계급과 같이 일하면서 건강검진도 하고 치료예방사업을 한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검덕광산의 광부들은 수령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인것만큼 그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 시기 아침마다 《젊은 당일군 별로 간다》는 녀류시인 리금녀의 시가 방송에서 울렸다.

초생달 밝은 빛이
이층집 함석지붕에 흐르고
뜨락의 백양나무잎 밤새 설레이는
군당위원회, 밤을 모르는 현판으로
젊은 당일군 두사람 걸어나온다.

하나의 명령아래
초소로 떠나는
그날의 유격대원들처럼,

그날의 공작원들처럼

아, 어깨엔 저마다 듬직한 배낭,

...

항일유격대의 정치일군들처럼 혁명의 량식이 되고 불씨가 될 배낭을 메고 농장별로 달려가는 당일군들을 형상한 그 시는 1970년대 우리 당의 숨결이고 맥박이었다.

1980년대 중엽에 장군님께서는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로 그 숨결과 맥박에 다시 한번 거센 충격을 가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우리 당을 인민이라는 정치지반에 든든히 뿌리내린 불패의 당으로 만들었고 조선혁명을 무한한 힘으로 떠밀어준 이 흐름은 1980년대에 이어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계속되었다.

평범한 나날에나 준엄한 나날에나 인민을 찾아 끝없이 흐르고 또 흐른 그 도도한 흐름의 선두에는 언제나 항일빨찌산 로투사들이 섰다.

주체85(1996)년 6월 27일 밤, 안변청년발전소공사장에서 온 장령의 보고를 받던 최광인민무력부장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발전소의 심장부인 발전기축중심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데다 습도가 높아 6월 30일로 결정지은 시운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것이였다. 그밤으로 현장에 나간 80고령의 투사는 난감한 얼굴로 서있는 지휘관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걸려야 하오?》

《한주일은 걸려야... 최소한 7월 2일까지는...》

《무슨 소릴 하오?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발전소 1단계건설을 6월 30일까지 끝내라고 하셨지 7월 2일까지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소. 그리고 6월 30일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 맹세한 날자요.

그들이, 전사들이 못하겠다고 물러섰는가?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전군 폭풍!》

그날부터 런 사흘동안 투사는 군인들, 노동자들, 기술자들로 무어진 당원돌격대의 대장이 되어 기름묻은 스프링바람에 불뿔치를 들고 발전기축중심을 맞추고 발전기실습도를 낮추기 위한 전투를 지휘하여 6월 30일 22시 발전기시운전을 보장하였다.

당원돌격대의 한 성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일군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보시오, 혁명적군인정신은 날자와 함께 시간, 초까지 지켰소라고 만족해하시면서 최광동지는 자신께서 잘 안다고, 그를 며칠동안 폭 휴식시켜야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하지만 그 순간 80고령의 투사를 태운 야전승용차는 철령을 넘고 있었다. 투사는 장군님께서 찾으실 철령너머 최전연부대로 가는 길이었다.

주체103(2014)년 8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군대 지휘성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하며 한몸이 그대로 불씨가 되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거대한 진폭으로 메아리치는 이 한구절에 담겨진 뜻을 다 펴놓으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한생이 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억세게 틀어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로정이 되며 백전백승만을 기록해온 조선혁명의 력사가 된다.

그리고 무궁토록 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가 된다.

3. 우리 당은 간부당, 귀족당이 아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당은 지난 시기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부식시켜놓은 재래식사업방법과 작풍을 청산하고 보다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나날이 변모되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재래식사업방법에 대하여 군중우에 올라앉아 호통치고 대중을 강박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이며 뒤를 캐고 자료를 묶어가지고 내리치는 암행어사식사업방법이며 실속없이 일하고 허풍만 치며 격식화된 틀에 얽매어놓는 형식주의적사업방법이라는 정식화를 내리시었다.

내가 안배옥부부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도 몇마디안팎에 《재래식》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당에서 경계하고있는 재래식사업방법이 어떤것인지 생동한 실례까지 들어가며 이야기해주었다. 모든것이 교훈적이었지만 특히 내가 임명되기 몇달전에 있는 전국공업대회 기념사진을 찍던 때의 일이 제일 잊혀지지 않았다.

주체63(1974)년 2월 평양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전국공업대회가 성황리에 열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추대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한 후 열리는 첫 대회인것으로 하여 회의분위기는 류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때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부부장들을 모두 대회에 파견하시여 수령님을 모신 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대회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할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그런데 그 기념사진을 찍을 때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처신을 잘하지 못하여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기념사진은 3개 조로 나누어 찍었는데 부부장들은 모두 1조의 맨 앞줄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행사를 주관하는 일군들이 사전에 짜두었던 자리표대로 1렬에 서는것을 레사롭게 받아들였고 뒤줄의 대표들은 중앙의 간부들을 앞줄에 세우는것은 응당한 도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사업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언제든지 두분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기회가 많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1970년대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당중앙위원회의 많은 일군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보지 못하였다. 한생 당이 맡겨준 직무에서 성실히 일해오면서도 훈장이나 메달이 제일 적은 사람들이 당일군들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늘 당일군이라는 그 말자체가 큰 표창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어렵고 힘든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줄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때 대회에 파견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그것도 제일 가까이에서 기념사진을 찍게 된 기쁨에 겨워 잠시나마 그이의 당부를 잊고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 장군님께서서는 대회에 파견되였던 부부장들을 부르시고 긴급협의회를 여시였다. 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일군들은 저으기 흥분되어있었다.

《우린 모두 흥분해서 의자에도 앉지 않고 주련이 서있었소. 그러자 그이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시는것이였소. 우린 그때 수령님을 모신 중요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했으니 어떤 평가의 말씀이 계실것이라고만 생각했소.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오늘 기념사진을 찍

을 때 부부장동무들이 처신을 잘못하여 공업대회기념사진이 아니라 중앙당과 정부원책임일군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처럼 되고말았다고 지적하시는게 아니겠소. 그때야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소. 앓을 자리, 설자리를 가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소.》

안배옥부부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에 어찌다 올라온 로력혁신자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무엇때문에 간부들이 밀려가서 앞자리를 차지했는가고 하시면서 동무들의 행동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귀족화되어가고있으며 당권을 가지고 행세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당, 혁명하는 당이 되어야지 간부당, 귀족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이번에 수령님의 의도와 어긋나게 행동하였습니다. 당일군들이 멋을 따기 좋아하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것은 결국 귀족당, 간부당냄새를 피우는것이며 당제일주의의 표현입니다.》

귀족당, 간부당, 당제일주의...

마디마디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경고였다.

우리 당은 간부당이 아니라 인민의 당이며 당제일주의가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은 전당 김일성주의화의 위업실현과 더불어 변모되게 될 조선로동당의 모습이 어떤것인가를 일군들앞에 그려보이신 속사와도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로부터 몇달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 조직일군대회에서도 그날의 기념사진촬영때의 교훈을 시사하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당중앙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문헌이 바로 주체63(1974)년 8월 2일 장군님께서 하신 력사적결론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였다. 나는 그때 이 문헌을 백번이상 읽어볼 계획을 세우고 사무실에서도 읽고 집에 가면서도 외워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되새

겨보곤 하였다.

《간부들의 관료화는 집권당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간부는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총복입니다. 틀을 차리고 행세를 하고 세도를 쓰며 아래일군들과 대중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호령하고 내리누르며 특혜나 받기 좋아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착취사회의 관료배들의 사고방식이며 행동입니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됩니다.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전사들과 한가마의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였으며 공로와 혜택은 전사들에게 돌리고 전투를 비롯한 어려운 일에서는 앞장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가꾸어오신 이러한 고상한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의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간부들이 어떻게 틀이나 차리고 세도나 쓰고 특혜나 받는 그러한 수치스러운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당조직들은 당정책의 관철을 방해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관료화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대학졸업을 한달가량 앞두고 한창 배치담화를 진행하고있던 때 2호기숙사 225호실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겠는지, 또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겠는지 걱정하는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새 세대 일군으로서 소유하여야 할 중요한 징표에 대하여 첫째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다음으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신 문제가 앞으로 어디에 가든 사업과 생활에서 정직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며 특전과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라는 절절한 당부였다.

그때로부터 꼭 10년이 지나 당일군대렬에 들어선 나로서는 세도와 관료주의라는 말이 먼 다른 세계의 일처럼 들려오기도 했다. 나 혼자만이 아니였다.

당시로 말하면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서 세대교체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연형묵, 김시학, 김병률, 리동춘, 리길송, 림수만 등 혁명가유자녀들이 당사업을 시작한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장군님께서 간부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지난날의 늙은 틀에 매여 일자리를 내지 못하고 앉아뭉개는 사람들대신 정규교육을 받은 젊고 패기있는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꾸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만이 아니라 도, 시, 군당 책임일군들이 젊은 일군들로 많이 꾸러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당일군으로서의 첫 신발을 신겨주시고 앉을 자리, 설자리를 가르쳐주시느라 자식많은 어머니처럼 늘 마음써오신분은 장군님이시였다.

한창나이에 열정이 넘치고 각오도 남달랐던 새 세대 일군들이어서 한동안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반향도 좋았다. 그러나 얼마쯤 시일이 지나자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당이 맡겨준 직무를 무슨 큰 벼슬자리처럼 여기면서 행세를 하는가 하면 집타발, 승용차타발, 대우타발을 하면서 독단과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체64(1975)년 5월경이였다.

하루는 문성술부부장이 사업에서 독단과 관료주의를 부려 말밥에 오르고있는 지방당일군들에 대한 자료를 묶어가지고 장군님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문제의 일군들은 모두 30대, 40대의 젊은 일군들이였다. 문성술은 그들의 작풍상결함을 놓고 여러번 비판무대에까지 내세웠지만 같은 파오를 계속 반복하기때문에 간부사업에 이르기까지 엄한 처벌을 적용할것을 문건에 반영하였다.

파오를 따져보면 그럴만도 했다.

어느 한 군당조직비서는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일군들의 당생활총화를 지도하면서 나이많은 위원장에게 호주구실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는가 하면 주택관리를 잘못한다고 하여 도시경영사업을 맡아보는 부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일군자격이 없다고 《결론》함으로써 우리 군에 《변학도》가 나타났다는 여론까지 나돌게 하

였다.

군당지도원을 할 때에는 인사성도 밝고 겸손하여 사람들이 우리 지도원, 우리 지도원 하면서 친근하게 따르던 사람이 조직비서가 되자 놀랍게도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고문건에는 그보다 더 엄중한 자료들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성술이 올린 두툼한 보고자료를 다 보아주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보시었다.

《그러니까 이 동무들에게 모두 처벌을 주자는 겁니까?》

문성술부부장은 주저없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당조직일군의 재목이 못된다는 거겠지. ...》

장군님께서서는 어제는 이 사람들이 좋다고 등용하자는 자료를 제기하고 오늘은 나쁘다고 해임하자는 자료를 제기하면 그들이 불안하여 어떻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결심보다 교양할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문성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몇 사람은 아무리 봐야 당조직일군구실을 제대로 할 것 같지 못하는데 현재 직무에서 다른 자리로 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재삼 간청을 드렸다.

그렇게도 마음씨 무뎠던 일군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를 곱씹어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의아한 눈빛으로 문성술을 바라보시었다. 그가 내놓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장군님께서 당사업전반을 맡아보시는 때에 일부 준비되지 못한 일군들이 망탕짓을 하여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런 때를 쓴 것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섭섭하시어 자신께서는 당사업경험이 많은 동무들을 믿고 당일군대렬을 젊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대담하게 교체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처음 등용할 때 일부 일군들은 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제발한다고 우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있는데 겁날것이 있는가, 나는 동무들을 믿고 간부혁명을 하였으니 물러서지 말고 당사업방법을 잘 배워주자고 말하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주면 결함이 있는 일군들도 앞으로 우리 당의 조직적골간으로 한몫 단단히 할것입니다.》

문성술은 그날부터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가며 결함이 나타난 일군들에 대한 간부사업대책안이 아니라 교양대책안을 세우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조직일군대회 1뭇을 계기로 열리는 대강습에 문제시되었던 일군들도 모두 참가시켜 당의 의도를 직접 체득하게 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당조직건설의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신심있게 벌려가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하여 그해 8월에 열린 조직일군대강습에 문제시되었던 일군들이 다 참가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생 끝에 락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한 5~6년만 고생하며 젊은 일군들을 잘 키우면 꼭 락을 보게 될 날이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대 일군들을 위한 강습과 경험토론회 등을 자주 조직해주시였다. 주체64(1975)년 7월에는 동해안지구시, 군당위원회 조직부장들의 사업을 친히 료해하시고 지금은 비록 그들의 사업수준이 어리지만 앞으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한몫 단단히 할것이라는 격려의 말씀도 하여주시였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성장한 일군들가운데는 한때 함경북도과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사업한 리동춘도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으로서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을 거쳐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6살밖에 되지 않았다.

젊은 도당책임비서는 장군님께서 첫 신발을 신겨주신대로 일을 잘해나갔다.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요즘 철도에서 인민들에게 렬차봉사를 잘하는것 같지 않다고 심려하신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동춘은 자신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열차에 올라 함경북도를 통과하는 려객들에게 껍밥봉사를 하였다. 손님들은 《봉사》라는 글이 새겨진 밀차에 껍밥이며 사과단물이 든 큰 냄주전자를 싣고 싱글벙글하며 오가는 젊은 《봉사원》이 도당책임비서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옷깃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며 이제부터는 남자들이 열차봉사를 하게 되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

그가 끌고다니던 밀차에 새겨져있던 《봉사》라는 말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와 한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몇해가 지나 리동춘이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할 때 8월8일광산사건이 터졌다. 8월8일광산을 일명 동방광산이라고도 하였는데 동아시아에 그만한 흑연광산이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

주체71(1982)년이 저물어가던 12월초였다.

평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불의에 소집되었다. 상정된 안은 자강도의 외진 산골에 자리잡고있는 8월8일광산의 로동보호조건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 광산에 흑연정광건조장이 있는데 흑연먼지가 얼마나 많이 떠돌고있는지 로동자들의 얼굴이 온통 새까매져서 가족들마저 제집사람을 가려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8월8일광산실태를 장군님께 보고드린 사람은 당시 수령님의 책임서기로 사업한 최영림이었다.

장군님께서 8월8일광산실태를 보고받으신것은 12월 8일이였다. 다음날은 수령님의 지도밑에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소집된 날이였다. 결국 그 회의가 8월8일광산실태와 관련한 회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2월 9일 하루에만도 8월8일광산실태와 관련하여 최영림책임서기에게 두차례나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지금도 그날의 말씀을 되새겨볼 때마다 마디마디 인민사랑, 인민존중으로 차넘치는 아버지의 뜨거운 음성이 들려오는것 같아 가슴

이 올령이군 한다.

《수령님께서는 8월8일광산실태에 대하여 책임서기한데서 보고 받았다고 하시면서 광산형편을 정무원일군들도 보고 도당위원회 일군들도 보았겠는데 다 못 본척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많은 지도일군들이 8월8일광산에 내려가보았지만 흑연정광건조장에는 들어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8일광산 흑연정광건조장에는 얼마나 흑연가루가 많고 새까만지 로동자들의 얼굴이 모두 새까매져서 아버지에게 주려고 밥곽을 가지고온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당책임비서들과 도당조직비서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을 정무원 위원회, 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다 8월8일광산에 보내어 흑연정광건조장에 들어가보고 오게 하려고 합니다.

...

8월8일광산에 간부들이 내려간다고 미리 준비시키지 말고 불의에 조직하여 보내자고 합니다. 그들이 8월8일광산에 가서 보고 온 다음에 문제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나 장군님께서서는 최영림책임서기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거시였다. 산골광산의 로천 한구석에 자리잡은 흑연정광건조장에서 평생 흑연가루를 온몸에 묻히며 살아가는 로동자들을 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으면 다른 일손을 잡지 못하시고 거듭 전화를 걸어오시였겠는가.

《이번에 8월8일광산문제를 놓고 좀 사건화하자고 합니다. 수령님께서도 8월8일광산문제를 가지고 사건화하라고 하시였습니다.

...

8월8일광산 같은것은 문평제련소에도 있고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도 있을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도 교시하시였지만 정무원에서 탄광로동자들에게 소공구를 7~8년전부터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해결해주지 않기때문에 지금 로동자들은 일군들이 우리앞에서 외교나 하지 실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것이 무엇이 있는가고 하면서 믿지 않는

다고 합니다.

...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 간부들부터 다 각성시켜놓자고 합니다.》

이렇게 소집된 비상확대회의에서는 8월8일광산 흑연정광건조장의 실패가 통보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도당책임비서들이 리동춘을 집중비판하였다. 회의는 자정이 지나서야 끝났다.

비판을 받은 리동춘은 말할것도 없고 비판을 준 사람들도 가슴이 저려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쉬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리동춘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양복안쪽에 깊숙이 한손을 찔러넣으신채 집무실을 오가시는 그이의 안색에는 괴로움이 비껴있었다. 전사의 실책으로 생겨난 인민의 고통이 그이의 아픔으로 번져졌던것이다. 어디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그 아픔의 파장이 가닿는 종착점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의 심장이다.

리동춘은 죄를 지은 자기보다 더 괴로와하시는 장군님께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저는 용서해달라는 말씀조차 드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니요!》

그이의 격하신 음성이 방안을 울리였다.

《동무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나에게 용서를 빌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앞에서 사죄하여야 합니다.

도당책임비서는 물론 총리도 나도 다 그런 작업조건에서 일하게 한데 대하여 노동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합니다.》

도당책임비서는 물론 총리도 자신께서도 노동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는 말씀에 리동춘은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죄는 제가 지었으니 사죄를 해도 제가 하고 매를 맞아도 제가 다 맞겠습니다. 제가 노동자들앞에서 빌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다른 도당책임비서들과 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들과 같이 8월8일광산에 가서 노동자들을 모여놓고 동무가 일군들을 대표하여 잘못을 빌어야 하

겠습니다. 일군들의 잘못에 대한 판결권은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잘못을 너그럽게 리해하여준다면 용서를 받을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다음날 8월8일광산 문화회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의 연장으로 사죄모임이 마련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각 도당책임일군들과 8월8일광산 노동자들이 사죄모임에 참가하였다.

리동춘은 가슴을 치며 노동자들에게 통절한 사죄를 하였다.

그의 발언이 다 끝나도록 회의장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툭이 터진듯 참가자들모두가 자리에서 뿔쳐 일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웨치였다.

장내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리동춘도 울고 노동자들도 울고 도당책임비서들도,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 일군들도 다 울었다. 인민의 심장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이렇게 터져나왔다. 당일군이 인민앞에 사죄를 하고 로동계급이 당일군을 판결하는 이런 모임은 오직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당인 조선로동당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었다.

사죄모임이 있는 후 장군님께서서는 리동춘을 또다시 부르시여 흑연정광전조장을 개조하기 위한 대책을 의논해주시였다. 8월8일광산이 미치는 경우 전국생산에 영향을 주고 나라의 강재생산량이 떨어져 국가경제사업전반에 파동을 줄수 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로동계급앞에서 한 사죄는 빈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생산이 얼마동안 중단되여도 일없습니다. 흑연이 나오지 못하면 강재생산에도 지장을 줄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자들을 계속 그런 작업장에서 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앞에서 사죄한 것이 빈말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흑연때문에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어 법적으로 문제가 선다 하더라도 동무와 내가 법앞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가 법앞에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법이 아니라 칼날우에라도 나서야 합니다.》

로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칼날우에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숨쉬는 조선로동당의 성격이었다.

그후에는 나라에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공장인 남포전극공장마저 요란한 폭음과 함께 해방후 성진제강소의 원철폐처럼 하늘로 날아났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계산법이라는 위대한 명언이 울려 퍼지던 시대에 생겨난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8월8일광산사건이 있는지 한달가량 지나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나왔다.

당의 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로부터 당일군의 사업작풍과 가정혁명화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담고있는 내용은 참으로 풍부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수령님께서서는 이 영화를 세번이나 보아주시였다고, 영화는 당일군들이 어떤 풍모를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전해에 우리 부서에서는 당사업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당적인 세포비서강습을 조직하려고 장군님께 제의서를 올렸었다. 그런데 그 문건은 다음날로 부결되어 내려왔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 대한 실효투쟁을 잘 조직하는것이 교양자료를 몇만부 찍어내고 강습을 조직하는것보다 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실효투쟁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

또한 김일성고급당학교에는 《당일군》과목을 새로 내오고 파정안에 수십시간을 할당해주어 영화감상과 토론을 벌릴데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주체72(1983)년 1월에 있는 일이었다.

다음해부터 나는 몇해동안 당일군양성기관에서 일하였는데 그 무렵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영화

문학을 소책자로 찍어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그 시기 당일군양성기관을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영화의 명대사들을 거의 뜯금으로 외우다 싶이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대 일군들을 당의 핵심골간으로 키울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주체74(1985)년 5월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는 우리 당사업이 자기 궤도에 올라섰다고, 새 세대 당일군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구실을 단단히 하고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당 기초축성사업은 모든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로 키우기 위한 투쟁속에 진행되어 왔다고도 할수 있다. 인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일군이 어떻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을 위해 혁명을 하는 수령께 충실할수 있겠는가.

당의 기초축성사업이 본격화단계에 들어섰던 1970년대에 새 세대 일군들이 많이 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안에는 여전히 오랜 사업년한과 경험을 가진 일군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의 경력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것은 과거 일제식민지 통치시대에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그러다나니 온전한 정규교육을 받아보지 못한것이였다. 사업과 생활에서 로동계급의 냄새가 푹푹 풍기고 검박한 대신 그들에게는 당정치사업리론이라든가 대중령도예술이 부족하여 장군님의 속을 무척 태웠다.

내가 당사업을 갓 시작했을 때 당중앙위원회의 오랜 일군들이 옛말처럼 외우던 일이 있었다.

평양화력발전소(당시)를 건설할 때의 일인데 당시 건설현장에 지도소조로 파견되였던 일군은 당에서 하부지도사업을 보다 현실에 접근시키고 늘 군중과 사업할것을 요구하자 엉뚱하게도 건설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도록 높은 다락을 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우에 올라서서 고함을 지르며 건설전투를 지휘했다고 한다. 그것이 유명한 화제거리가 되어 당에 보고되였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이것이 야말로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의 생동한 직관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수양이 부족하면 낡은 사회의 로동판에서 굴러먹던 본새대로 그런

망탕짓을 하게 된다고 몹시 심려하시였다.

1970년대에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사업한 김치구의 구기자추방소동도 그러한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한때 경성군은 구기자가 많은 고장으로 유명했다. 이 군의 살림집들에서는 대부분 구기자나무로 울타리를 대신하였다. 구기자로 된 생울타리는 널판자나 수수대를 두른 울타리보다 미관상으로도 좋고 위생학적으로도 좋았다. 더구나 구기자는 약효가 대단해서 고려약을 만드는데 널리 쓰이였다. 많은 주민들이 프락이나 빈땅들에 구기자를 심어 자체로 보약을 제조하였다.

그런데 김치구는 경성군에 갔다가 살림집들의 프락과 울타리에 심은 구기자를 보고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킨다고 하면서 다 뽑으라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하여 김치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비판을 받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동무에게 판료주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하시면서 동무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까지 하였으면 사업을 더 심중하게 하여야지 판료주의적으로 사업하면 되는가고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그날 김치구는 뜬눈으로 한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해방전 소년탄부로 버럭덩이처럼 이 발길, 저 발길에 채우던 자기를 품에 안아 민청일군으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으로 키워주시고 한개 도의 당사업을 맡겨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믿음을 저버린 죄책감이 가슴을 허비였다.

그는 도에 내려가자마자 도당위원회일군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비판받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파격한 성격과 작풍을 꼭 고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것을 다짐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경북도에 가서 오리공장, 닭공장을 꾸리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수령님께서 제일 평가하시는것이 오리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사실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만 한 사람도 그리 쉽지 않다고 고무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위촉될세라 현지도길에 곁에 불러 사업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시고는 이번에 보니 김치구동무는 배짱도 있고 일도 한몫 제낀다, 나는 그가 통이 큰것이 마음에 든다, 그는 좀 하기 바쁜 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일욕심이 있다고 격려해주시었다.

호된 꾸중보다 더 아프게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 불민한 전사를 더 사려깊이 풀어주는 그 믿음을 한생 심장에 새겨넣고 김치구는 걸음걸음 그 뜻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살았다.

주체79(1990)년 9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떠나간지 여러 해가 되는 김치구를 또다시 추억하시면서 그가 사업작품에서 판료주의를 부리는것과 같은 결합은 있었지만 일욕심이 강하고 사업에 대한 요구성이 높았다, 당안에 규률을 세우자면 김치구동무와 같이 요구성이 높은 일군이 있어야 한다고 뜨거운 말씀을 해주시었다.

우리의 수많은 일군들이 이렇게 장군님의 손길에 이끌려 인민의 총복으로, 어머니당의 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세도와 판료주의는 왕왕 혁명성과 당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버젓이 나타나기때문에 그 정체를 가려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와의 투쟁이 곱절 어렵다고 하는것이다. 혁명성과 주관주의, 당성과 판료주의를 갈라볼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이 접수하지 않는 요구성은 벌써 요구성이 아니라 주관주의, 판료주의라고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활동의 모든 평가기준을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해명하신 말씀이다.

주체66(1977)년 3월에 있는 일을 잊을수 없다.

당시 나는 조직지도부에서 사업하고있었다. 3번째주 금요일인 18일에 부서에서는 어느때처럼 금요일로동이 조직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장군님께서 문성술, 조세웅을 비롯한 일군들을 부르신다는 연락이 왔다.

그들은 이튿날에도 보이지 않았다.

들려오는 말이 어느 지방당조직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져 장군님께서 몹시 노하시였으며 조세웅을 비롯한 조직지도부의 책임일군들로 료해조가 조직되어 즉시 현지로 떠났다는것이였다.

우리는 며칠후에야 사건전말을 알게 되었다.

금요일 아침 예견치 않았던 긴급모임을 조직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집무실에 모인 일군들앞에서 조세옹부부장이 어느 한 군의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당시) 녀성위원장이 올린 청원편지를 읽게 하시었다.

일어뜯폐지나 되는 장문의 편지는 그 녀성일군이 아무런 파오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임처분을 받는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그 원인을 해명해줄것을 청원하는 내용이었다.

18살부터 인민정권기관에서 복무해온 그는 늘 일에만 파묻혀 한창나이를 흘러보내다나니 가정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군을 살기좋은 리상촌으로 꾸리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느라고 수십년세월 아글타글 애써왔다.

그런데 하루는 군당조직비서가 그를 불러다놓고 밀도끝도 없이 동무는 해임되었으니 사업을 인계하라고 지시하였다. 녀성일군이 영문을 몰라 해임리유를 묻자 조직비서는 《그건 내가 아니라 자기량심에 물어보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량심에 물어보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수령님과 당앞에 거리낄것이 없다는것이였다. 있다면 군당조직비서의 관료주의적행위에 대하여 몇번 정면에서 비판을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파오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 당중앙위원회에서 료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량독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군님께서서는 녀성일군의 애타하는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 편지를 책상우에 펼쳐놓으시고 그 주위를 몇바퀴나 도시였다.

그때가 오전 10시경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신듯 여러 부부장들의 이름을 찍어주시면서 지금 당장 출발준비를 갖추고 늦어도 11시에는 현지로 떠나라고, 현지에 내려가서는 녀성위원장의 해임원인을 똑바로 해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료해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다.

첫째로 군당위원회의 간부사업정형을 료해하고 조직비서의 사업을 검토하며, 둘째로 군행정위원장의 사업정형 특히 군당조직비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군중의 의견을 들어볼것, 셋째로는 도당위원

회가 군행정위원장의 해임 문제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바래워주시면서 아래에 내려가면 군려관에서 소박하게 숙식을 하면서 빨리 료해하여가지고 돌아오라고 이르시었다.

료해결과 문제는 녀성일군이 아니라 군당조직비서에게 있었다. 그는 군당책임비서가 당대표단 성원으로 외국에 가있는 동안 군당위원회사업을 맡아보면서 별의별 세도를 다 부렸다.

우선 자기 집을 새로 짓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아래일군들에게 내리먹여 닭공장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빼낸 다음 제멋대로 농경지를 뚝 떼어 부지를 잡고 생산로력을 동원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군당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직비서가 담당한 구명탄공장건설장과 닭공장건설장에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그는 늘 자기 집주위에서 맴돌면서 시공을 감독하였다. 집짓기가 끝나자 울타리공사로 넘어갔고 그다음에는 돼지우리와 닭우리를 짓게 하였다. 이렇게 고래등같은 독집이 일떠서자 그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불러다놓고 앞으로 살림집건설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방식상학》이라는것까지 벌려놓았다.

녀성위원장은 보다 못해 군당조직비서를 찾아가 당일군이 국가자재를 떼내어 제 집을 지으면 되는가, 그것도 살점같은 농경지를 쏙 베내어 여봐라 하고 울타리를 둘렀으니 군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제라도 새 집을 탁아소로 쓰게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충고를 주었다.

그러나 군당조직비서는 녀성위원장에게 《까다로운 녀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뒤조사를 한 다음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다 묶어가지고 해임시켜줄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상급당조직에 제출하였다. 도당에서는 료해도 해보지 않고 그 해임안에 동의해버렸다.

료해를 마치고 돌아온 일군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 그 자리에서 동무들은 다시 현지에 내려가야겠다고 하시었다.

금시 돌아와 사업보고를 올리자 다시 현지에 내려가라고 하시는 의도를 알수 없어 모두가 머뭇거리고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도안의 당책임일군들과 간부사업담당 일군들을 현지에 불러다놓고 비서처회의를 소집하라고 하시였다.

토의문제는 명백하고 단호했다. 녀성위원장에 대한 해임결정을 취소하고 반대로 군당조직비서를 해임철회시키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당중앙위원회의 중요부서 책임일군들이 여러날이나 료해사업을 진행하고 평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끈도 풀새없이 다시 현지로 내려가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비서처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위임에 의하여 …군행정위원장의 해임을 취소하고 본래의 직무에서 일하도록 하며 …군당조직비서를 해임한다는것을 선포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다 모여놓고 조직비서의 당세도, 관료주의, 행정대행자료를 폭로하여야 하겠습니까.》

당일군이 세도를 쓰며 국가재산에 손을 댄것도 엄중하지만 그것이 탄로될가봐 두려워 행정일군의 목을 떼려고 한것이 더 엄중합니다. 이런 비당적인 행위는 용서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 지니신 좌우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당의 원칙에 있어서 용서할수 없는 잘못은 바로 이런것이였다. 당의 방침관철을 위해 애쓰다가 범하는 잘못은 언제든 용서할수 있지만 제 욕심을 차리면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를 모르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사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가운데는 사업상결함으로 하여 비판과 처벌을 받아보지 않은 일군이 거의나 없다. 하지만 그들이 범한 과오속에는 자기를 위한것이 조금도 없었다.

잘못을 저질러도 제살궁리를 하다가 저지른것이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다가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1970년대 일군들이였다.

로동자들의 집에 담요가 한장 있으면 공장당비서의 집에도 한장 있고 농민들의 집에 밥가마가 두개 걸려있으면 리당비서의 집에도

두개가 걸려있는것이 보통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이웃집의 터밭이 당일군의 집뜨락과 의종게 어울려있어 아무개일군의 집이 어딘가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집이라고 꼭 짚어 가리켜주기가 어려웠다. 토피집이면 토피집, 수수바자면 수수바자, 어느 집들과 구별되는것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이런 일군들이 범하는 과오를 헤쳐보면 무엇인가 소중히 지켜주고싶은것이 있었다. 그것은 당이 준 혁명임무에 대한 충실성과 인간으로서의 깨끗하고 순결한 면모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70일전투기간에 평안북도 룡천군에서는 새로 건설하던 군당위원회청사를 폭파해버릴번 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룡천군당 책임비서를 리당석이라는 사람이 하였는데 그는 군당위원회청사가 너무 작아 불품이 없다고 하면서 70일전투기간에 새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외 공사를 벌려놓았다.

주체63(1974)년 11월 4일 밤 11시 30분에 그의 사무실에서 전화종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별생각없이 송수화기를 들었던 그는 《김정일입니다.》라는 귀에 익은 음성에 깜짝 놀라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룡천군당 책임비서동무가 옳은가고 확인하신 다음 룡천군에서 계획외 공사로 군당청사를 짓고있다는데 도대체 제정신들을 가지고 일하는가고 엄하게 따지시였다.

원래 사무청사를 요란하게 지어놓고 위세를 뽐내는것은 수령님께서도 제일 경계하신 문제였다.

주체48(1959)년 3월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던 나날에 룡제가 금목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 목장 사무실은 내각청사만 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룡왕의 둘째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것 같다고, 전쟁때 같으면 이 집에 공화국기만 달아놓으면 미국놈들이 내각청사인줄 알고 폭격을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집이나 크게 짓고 거기에 틀고앉아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되게 비판하시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 다른 건물도 아닌 군당위원회청사를 그 무슨 위신을 세운다고 하면서 술한 로동자들까지 동원하여 요란하

게 건설하고있었으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군당책임비서에게 건물이 다 올라갔는가고 물으시였다.

떠들거리며 그가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군당청사건물이 다 올라갔으면 그 건물을 탁아소나 유치원에 넘겨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그 건물을 폭파시켜야 하겠습니까.》라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룡천군당 책임비서 리당석은 다음날 당중앙위원회에 올라와 심각한 자체검토를 하고 군에 내려가 수습대책을 세웠다. 새로 건설한 건물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들였다.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새집들이가 끝나자 리당석은 스스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룡천기계공장 로동자로 내려갔다.

주체64(1975)년 2월 장군님께서서는 가족들과 함께 룡천기계공장 로동자로 일하고있는 리당석의 생활정형을 친히 알아보시고 그가 파오를 씻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는데 군당책임비서로 다시 사업하도록 하자고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그해 7월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삭주군과 창성군일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의 책임일군들에게 룡천군당 책임비서가 일을 잘하고있는가 물어도 보시며 그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보살펴주시였다.

하지만 문제의 군당조직비서에게서 나타난 세도행위는 질이 다른 것이였다. 당일군자리를 무슨 큰 벼슬자리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의 운명에 함부로 칼날을 들이대고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관계없이 농경지와 파수원을 밀어내고 제 집을 짓는 그런 행위는 장군님께서 쌓아가시던 당의 기초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버리는 역적행위와 같았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 당은 무너진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과 함께 풍모를 일신하는 문제를 당의 존망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근로하는 로동계급의 당이라는 뜻깊은 이름 그대로인 조선로동당을 건설하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였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

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세도와 관료주의가 조장되면 인민대중을 당과 국가로부터 리탈시키게 되며 그것을 사회주의의 원수들이 리용하게 된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의 사태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 어느 나라에서나 인민이 요구한것은 세도와 관료주의가 없는 사회주의였지 결코 자본주의는 아니였다. 그런데 일부 나라들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로 하여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가 약화된것을 기회로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라는 러무니없는 비방과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마련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민심을 오도하면서 사람들을 사회주의집권당과 사회주의정권을 반대하는데로 부추기는 배신행위가 감행되였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결과 인민에게 차례진것은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착취와 압박, 사회적불평등이 지배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이다.》

1980년대 중엽에 우리 당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 일군들이 여러 지방도시들을 참관하다가 어느 한 지방당 간부들과 짙막한 담화를 나눈적이 있다. 담화과정에 관료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소련당일군들은 《집권당에서의 관료주의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발언하여 우리 대표단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몇해가 지나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의 뇌리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집권당에서의 관료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허용이었다. 첫 사회주의국가의 창건자인 레닌은 《관료주의를 내놓고는 이 세상에 쏘베트정권을 무너뜨릴 힘은 없다.》고 언명한바 있다. 소련당은 20세기 전반기에 당의 두리에 뭉친 인민의 힘은 천만대적도 꺾을수 없다는 혁명의 진리를 창조하였지만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와서는 사회주의집권당이 관료화되면 천만대군을 가지고있어도 그 제도를 지켜낼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을 남겨놓았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집권당에서 귀족화, 관료화를 반대하는 투쟁

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며 우리 당만이 경계해온 문제도 아니었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비쳐보려면 거울앞에 서야 하는것처럼 당도 자기의 풍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우러러따를수 있는 귀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령도자의 모습이다.

나는 지금도 깊은 밤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를 들을 때마다 그 절절한 선률에 가슴이 뜨거워지곤 한다.

벌써 수십년세월이 흘러갔다.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던 1980년대 중엽 나라의 전력사정이 몹시 긴장하여 장군님께서 직접 전기절약사업과 관련한 전화지시를 주신적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전기절약사업에서도 당중앙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퇴근후 당중앙위원회의 모든 사무실들에 보내는 전기를 다 끄며 구내길의 가로등도 한쪽방향만 켜되 그것도 몇개씩 건너 켜야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주시였다.

우리는 그때 다른것은 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하면서도 본청사앞에 있는 가로등만은 끄지 못하였다. 그러지않아도 다른 사무실들과 가로등들을 다 끄는데 장군님께서 사업하시는 본청사현관앞의 가로등마저 끄면 구내가 너무 어두워지지 않겠는가싶어 그곳에만은 그냥 켜두기로 했던것이다.

며칠후 장군님께서서는 전기절약문제로 전화지시를 주신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여 왜 본청사앞에 있는 가로등은 끄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는 한참만에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전기절약예비는 우리가 더 찾겠습니다. 본청사주변에만은 그냥 불을 켜게 해주십시오. 인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허나 그이께서는 나는 동무들이 김정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 특전을 베풀어주는것이 제일 질색이라고 하시면서 오늘밤부터는

본청사주변에도 가로등을 무조건 다 끄라고 말씀하시였다.

가요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가 창작되어나온것이 바로 그 시기였다. 아마 우리 인민들은 고요한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저기 저 불밝은 당중앙창가에 긴긴밤이 지낸다고 전해달라는 노래가 울리던 그 시대에 장군님께서 사업하시던 청사주변의 불마저 한동안 켜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는것은 알지 못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에게 출장비를 주던 제도를 없앤것도 그무렵부터였을것이다.

주체73(1984)년 1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다음해는 절약의 해이며 공짜를 없애는 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런데 새해에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일군들이 출장기간에 제정된 규정에 관계없이 식사를 하고는 재정경리부서들에 식비를 청산해줄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렬차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는 식비를 청산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였다.

이런 경우에 흔히 그러하듯 우리 부서에서는 당장 전화통들을 붙잡고 규정을 위반한 일군이 누구인가, 그것이 언제, 어느 단위의 누구한테서 제기된 의견인가를 알아보느라고 부산을 피웠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자 전혀 다른것을 알아보고계시였다. 렬차식당책임자의 한달생활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였다. 우리가 비판대상부터 찾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인민의 마음속으로, 생활속으로 들어가고계시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열린것이 그해 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일군들이 생활비도 남보다 많이 받으면서 부러운것없이 생활하다보니 귀족화되어 당성, 인민성도 점점 사라져가고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렬차식당책임자가 한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받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니 7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한달에 생활비를 70원 받는데 렬차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렬차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비를 내지 않으면 그것을 치르느라고 생활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문

제와 관련하여 신소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가슴아프게 말씀하시었다.

그때 회의에 참가한 많은 일군들이 렬차봉사자들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은 생활비나 출장비를 받으면서 지하활동을 하고 연락임무수행을 위해 천리길을 오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부터가 특전을 바라지 말고 생활비외에 출장비를 받는 제도를 없앨것을 제의하시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당시와 같은 환경에서 과연 어느 일군이 《렬차식당책임자의 생활비가 얼마요?》 하고 물을수 있겠는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대하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 당을 건설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식사업방법과 작풍인것이다.

회의에서는 법규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토의되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법우에 당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우에 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황해북도 토산군의 일군들속에서 나타난 권력람용, 치외법권적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시었다.

그해 2월초 토산군 북포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흙깎이작업을 하느라고 흙더미를 파들어가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연재해였다.

그런데 토산군에서는 사고에 대한 현대적책임을 지운다고 하면서 무작정 농장관리위원장을 체포하여 안전부(당시)에 가두어넣었다. 이렇게 되자 사고로 잘못된 사람들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농장원들이 토산군안전부로 밀려가 우리 관리위원장을 왜 가두었는가, 우리 관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항의를 하는 등 상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사회안전부(당시)를 통하여 사건이 보고되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북포협동농장에서 인명피해가 난것과 관련하여 관리위원장을 구류한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더구나 현대적책임을 지운다면 마땅히 리당비서도 가두어넣어야 할텐데

왜 관리위원장만 가두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들로서는 천만뜻밖의 물으심이였다.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법집행이 잘못된것은 물론이고 관리위원장만 가두어놓고 리당비서는 그냥 놔둔것은 결국 흑심한 당세도이고 당판료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당이란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입니다. 그런데 토산군에서는 어떻게 되어 인민들이 다 좋다고 하는 관리위원장을 가두어넣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인민들의 원성이 높게 만드는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북포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놓고 말하면 그는 당원이고 얼마전에는 전국농업대회에까지 참가한 사람입니다. 토산군책임일군들이 아무런 고려도 없이 그를 체포하여 가두어넣은것을 보면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 당의 간판을 가지고 사람의 정치적생명을 희롱하고 인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되게 일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간판을 가지고 사람의 정치적생명을 희롱하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격분하시였던지 장군님께서서는 구류된 관리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며 그대신 그를 체포하여 가두어넣는데 관계한 일군들이 정신을 차릴수 있도록 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 바라시는 당과 법과의 관계, 당과 인민과의 관계, 당일군과 행정일군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크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였다.

두해가 지난 주체76(1987)년 여름 전국각지의 큰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을 총화하는 모임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중요제품생산에 써야 할 자재를 공장의 당면생산에 돌려쓴 지방의 한 공장지배인을 해임철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모두 돌아갔으나 그 공장의 녀성당비서만은 내려가지 않고 끼니까지 번지면

서 자기네 지배인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찾아가 만났다.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것이었다.

책임일군은 동정할 것이 따로 있지 그런 문제를 들고다닌다고 엄하게 추궁하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한번만 더 심의해달라고 밤늦게까지 그냥 사정하였다. 다음날에도 그 녀성당비서가 당중앙위원회로 찾아왔다. 때식을 몇끼씩 건느고 뜬눈으로 밤을 보낸 그의 얼굴 빛은 말이 아니었다.

당중앙위원회의 일군이 고생을 사서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타 이르자 그는 《지배인과 나란히 회의에 올라왔다가 나 혼자 돌아가면 공장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당비서가 나서서 말을 하면 끝이든지 않고 뒤에서 다들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 살려줄 수 없으면 나도 같이 해임시켜주십시오. 나야 당비서가 아닙니까.》라고 자식을 때놓은 어머니처럼 눈물을 찼찼 흘리었다.

자기네 지배인은 해방전부터 소년로동을 하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하였고 해방후 수령님의 품속에서 작업반장, 직장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성장한 공로자라는 것, 공장의 생산과제를 수행하는데만 신경을 쓰다나니 처음으로 그런 파오를 범하였는데 잘못을 묻고 처벌을 주더라도 제자리에서 일하면서 죄를 씻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장군님께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녀성당비서가 제 자식을 찾으러 온 어머니처럼 울더라는 말이지, 대견하오, 정말 대견하오라고 몇번이나 곱씹어 외우신 장군님께서 사실 지배인이 저지른 잘못을 보면 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주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고마운 당비서를 보아서라도 처벌을 낮추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친히 제의하시었다.

며칠동안의 출장기간에 해임철직과 복직을 다 체험하고 당비서의 손에 이끌려 공장에 돌아온 지배인을 맞이하면서 공장로동계급들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우리 당을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당을 왜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지, 왜 우리곁에 당일군들이 서있는지 새삼스럽게 돌이켜보았을 것이다.

언제인가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주체70(1981)년 겨울, 며칠째 내리던 눈이 멎은 다음날 그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평안북도쪽으로 자동차행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평안북도땅에 들어서기 바쁘게 벗어섰다. 도로주변에서 공사를 벌리면서 임시차단초소를 만들어놓았던것이였다.

차단봉을 지켜서있는 단속원에게로 달려간 그는 빨리 차들을 통과시킬것을 요구했지만 젊은 단속원은 배포유하게 《우리한테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한 절차를 밟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려주시시오.》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장군님을 모신 차라고 말해줄수도 없고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일행중에서 또 다른 일군이 달려왔다. 성격이 급한 그는 증명서부터 펼쳐보이면서 당장 차단봉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마침내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가 차단봉을 넘어서게 되었다. 현지에 도착하자 수행일군들을 모두 모이게 하라는 장군님의 지시가 전달되었다.

모임장소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방금 도로차단초소에서 단속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차단봉을 올리게 한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단속원이 요구하지도 않은 증명서를 꺼내들고 큰소리까지 치면서 차단봉을 올리게 하였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어쨌다는겁니까.》

그이의 음성은 방안을 울리였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심부를 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의 의사에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우에 있으니 그 어데나 무사통과할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들이 가지 못한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기다리라면 그 어느때까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간부라는 말자체를 없앨가 하고 생각하는중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 말을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부라는 개념이 인

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뜻으로 달라졌다는것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여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따라 전당적으로 당일군들의 직제가 바뀌여지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이께서는 늘 우리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절대로 《붉은 관료》, 《붉은 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관료화, 귀족화되지 않으려면 붉은 당기앞에서 당원증을 받아안던 신입당원의 자세로 혁명앞에, 인민앞에 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혁명대오에 첫발을 들여놓던 전사의 자세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혁명의 원칙을 고수하는데서 항일혁명투사들을 따를 사람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주체65(197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자연개조5대방침중의 하나인 30만정보 간석지개간전투임무를 맡은 지휘관은 항일투사 오백룡대장이였다.

수령님께서 서해의 날바다를 길들여야 하는 그 어려운 공사를 해내자면 든든한 일군이 틀고앉아 지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그를 전권대표로 현지에 파견하신것이였다.

황해남도 해안연선에 펼쳐진 몇백리 잘되는 간석지건설장을 메주 밭듯 하던 어느날 《간석지건설사령관》이 탄 차가 더는 전진할수 없는 저지선앞에 멈춰섰다. 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룡매도전투장으로 향한 걸음이 청단에 이르러 맨발로도 들어서기 어려운 감탕판에 맞다들린것이였다.

《흔들레판이야 아니겠지?》

막아서는 지휘관들을 무섭게 쏘아보며 투사는 명령했다.

《뜨락또르를 가져다 대오. 적재함을 단채로!》

오백룡대장은 이리 들추고 저리 기우는 련결차우에 버짚을 깔고앉아 룡매도로 향하였다. 투사는 넘어질세라 서로 팔을 짹 붙잡고 둘러앉은 돌격대지휘관들에게 빨찌산시절에 주력부대의 겨울나이식량을 마련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달되었던 간석지건설은 이렇게 바로잡혔지만 그때문에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될줄은 투사도 몰랐다. 투사들의 건강을 넘려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해마다 꼭꼭 가게 되어있는 휴양도 마다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투사를 당중앙위원회로 부르시였다. 휴양재촉에는 끄떡 반응하지 않던 그가 이번에는 나래라도 돋친듯이 평양으로 달렸다.

보고를 드리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할 문제도 많고 빨찌산로병의 이름으로 《떼질》을 해서라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도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동안 뵈지 못한 그이를 뵈고싶은 마음이 걸음을 더욱 재촉케 했다.

하지만 반갑게 그를 맞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공사형편에 대해서는 말도 내지 못하게 하시였다.

《오백룡동지는 왜 아직도 휴양을 떠나지 않고있습니까?》

《예?! 전 올해엔 휴양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집행하는중인데 어떻게 쉬고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가족들을 데리고 휴양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휴양을 가라는것은 당에서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두 전 못가겠습니다.》

《나는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유명한 회상기를 오백룡동지가 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회상기를 쓴분이 당에서 주는 명령을 거역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휴양을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한동안 쉬면서 몸을 추세워야 일을 더 잘할수 있습니다. ...》

얼마전에 군대에 나간 막내아들도 지금쯤은 한창 오고있을것입니다. 내가 부대에 그를 평양으로 올려보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원래 부대생활하는 병사를 그러서는 안되지만 오백룡동지가 일에만 파묻혀 살다보니 막내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에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기에 이번 기회에 만나보라고 내가 그를 올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도착하면 지체말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도록 하십시오.》

혁명가로서 투사의 인간됨이 그대로 비낀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 하여 귀족칭호도 주고 식읍지도 주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였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고 새 나라를 세우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바쳐진 투사들의 공적으로 말하면 공신중에도 특등공신으로 내세워야 할것이다. 그러나 투사들은 수령님의 전사, 인민의 아들로 살면서 평생 관료리와 귀족냄새를 내지 않았다. 령장없던 유격대군복대신 금빛장령별이 번쩍이는 정규군복을 입고 고급직무차를 탔어도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았고 귀족냄새를 몰랐다. 생을 마치는 마지막순간까지 사령관동지의 명령앞에 선 빨찌산대원이였고 전사들과 어울려 사는 빨찌산지휘관모습 그대로였다. 오백룡동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곤 하였다.

《한평생 인민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사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 생각하며 살거라. 그러면 귀족티를 낼 염두조차 내지 못할게다.》

예술영화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군당책임비서는 동네사람들이 책임비서의 안사람이 공부를 하지 못해 파지수매나 받으러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푸념하는 안해에게 당신은 나한테 시집올 때 간부댁홍내나 피우면서 호강할 생각을 했는가, 수령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라의 200분의 하나인 한개 군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맡겨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절절하게 말한다.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의 한부분을 늘 가슴속에 안고사는 일군들의 마음속에 어찌 관료주의가 싹터자라고 귀족풍이 자리잡을 틈이 있겠는가.

자신은 물론 안해와 딸들을 도로관리원으로, 구두수리공으로 내세운 이 나라의 수많은 당일군들의 심장속에도 그 목소리는 소리없이 울리고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 2월 2일 옥류관을 찾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평양랭면을 맛보시였다. 그이께서 떠나가신지 얼마 안되어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옥류관으로 달려왔다. 그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거기에는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맛보신 국수값이 들어있었다. 그 돈을 받아든 옥류관 일군은 너무 아연하여 이것만은 절대로 받을수 없다고 하였다. 두 일군사이에는 한참이나 밀고 당기는 신경이질이 벌어졌다. 나중에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거의 사정하대십이 장군님께서 친히 과업을 주시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도로 가져가겠는가,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다 내는 국수값을 당총비서도 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고 설복을 해서야 그 돈을 옥류관에 넘겨주게 되였다.

저녁에 종업원들이 모였다.

일군으로부터 사연을 전해들은 장내는 삼시에 울음바다가 되였다. 그 울음은 장군님과 영결하던 12월의 그날 함박눈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던 연도우에서 가슴을 허비며 더욱 애절하게 울려퍼졌다.

우리 당은 무엇으로 굳건한가.

나는 그 비결이 조직사상적측면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당은 자기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품모를 어머니모습처럼 닮고 우러르며 성장하였기에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속에 이 세상 그 어느 집권당도 이루지 못한 일심단결의 튼튼한 기반위에 굳건히 서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즐겨 찾는 옥류관의 금고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평양랭면을 맛보시고 그 값으로 보내오신 돈이 소중히 보관되어있다. 물론 많지 않은 액수이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이 이 글에서 말하려고 했던 모든것을 충분히 대변해주리라 고 생각한다.

1. 70일전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행군길에 들어섰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이전에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진군로를 막아서는 장애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산더미같은 과제들을 오히려 흥겹게 맡아나섰다. 점령해야 할 고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정점에서 바라보이는 조국의 미래가 더 찬란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6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받아안은 전국의 근로자들은 첫 전투에서부터 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기세충천해서 전진하였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전로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은 언제나 가장 힘있는 존재였다. 문제는 인민의 비등된 열의와 전투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심장에 어떻게 불을 다는가 하는데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승리의 열쇠를 인민의 무진장한 힘에서 찾고 6개년계획의 기한전완수를 위해 거창한 작전들을 련이어 펼치시였다.

주체63(1974)년 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는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 내용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전

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1년이상 앞당겨 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자는것이였다.

10대전망목표에는 점령해야 할 강철고지, 유색금속고지, 석탄고지, 전력고지, 세멘트고지, 기계가공품고지, 수산물고지, 화학비료고지, 간석지개간고지, 알곡고지가 수자로 제시되어있었다. 그목표를 점령하면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품생산에서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잡거나 앞설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지표들은 그 무슨 기계설비의 공칭능력을 두고 계산된 산수적합이 아니라 혁명의 요구였다.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관련한 지표들을 설정하실 때마다 항상 사상적으로 앙양된 인민이 반드시 해내야 하고 또 해낼수 있는 필요한도를 선정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한시바빠 물려주시려는 수령님의 의지와 신념은 참으로 강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전선들로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부르는 당과 수령의 호소는 온 나라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가 끝난 후 전국공업대회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부문별대회들과 협의회들을 소집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와 6개년계획의 기한전완수를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창조와 건설을 위한 열정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까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서 주체63(1974)년은 판전적인 의의를 가지는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계획의 기한전완수를 위하여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 하도록 하신것이 바로 그때이다.

음악예술부문의 창작가들은 그 방침이 하달되자마자 속도전으로 선동하는 노래를 지었다. 《수령님 부름따라 당의 부름따라 속도전 속도전 기치드높이 총동원 앞으로》라는 노래의 구절들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이 구호 역시 장군님께서 그무렵에 내놓으신것이다.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의 성패를 좌우하는 명처방이라고도 할수 있는 의미심장한 구호이다. 항일빨찌산들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면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도 점령할수 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도 얼마든지 돌파할수 있다는것이 장군님의 신념이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15만명이상의 청장년들이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자원진출함으로써 긴장한 로력사정이 풀리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 경제는 급속한 장성으로 공업화의 첫걸음을 내짚을 때보다 그 규모가 20배로 늘어났으며 부문내부구조도 보다 세분화, 다양화되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공업에 원료와 연료, 자재를 보장해주는 기초공업부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 엄청나게 많아진 원료와 자재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면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도 없었고 6개년계획의 령마루를 점령할수도 없었다.

현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금속, 석탄, 광업, 전력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수송전선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킬수 있는 결정적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주체63(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중심의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검증하는 한차례의 시험과정과 같은것으로서 어버이수령님의 권위와 공화국의 존엄과도 직결되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처럼 엄숙한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의 절박한 요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70일전투를 몸소 받기하시였다.

당시 수령님의 서기로 사업해온 최영림은 70일전투발단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하고있다.

《그해 가을 어느날 장군님께서 아침 일찍 수령님의 집무실을 찾아오시였다.

그날 수령님의 집무실에 달려있는 응접실에서는 두분간의 오랜 대화가 진행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경제계획이 년말을 가까이하면서 심히 미달되고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시였다.

〈농촌테제발표 10돛이 되는 올해 농업전선에서는 또 한번 통장훈을 부를 판이지만 공업이 그렇게 뒤져서야 어떻게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말할수 있겠소.〉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석같은 배짱과 담력이 느껴지는 장군님의 말씀이였다.

〈그래 무슨 방도가 있소?〉

〈금년말까지 90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에 당조직을 발동하여 일대 총공세를 벌리자고 합니다.〉

〈당에서 말아한다? 당에서 경제를 맡겠단 말이지?〉

수령님께서서는 어째서인지 오래도록 답변을 주지 못하시였다.

〈당〉이라는 말은 곧 그해초에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되신 장군님을 뜻하는 말이였기때문이다. 조국의 존엄을 위해, 수령님의 권위를 지켜드리시기 위해 술선 나서시는 장군님께 선뜻 동의를 주지 못하실만큼 경제문제는 이처럼 어려운것이였다.

한참만에야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생각해둔게 있으면 말해보오.〉

〈사상전을 벌리자고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 길밖에 없소. 우린 맨주먹으로 혁명을 시작했지만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했소. 나라의 경제형편이 복잡하고 어려운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담당자인 생산자대중이 떨쳐나서면 문제될것이

없을거요.

며칠후에 열리는 정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토의합시다.>

두분의 토의는 이것으로 끝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을 나서신 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래도록 응접실에 앉아계시었다.

<경제문제야말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는 조직비서가 한 몸을 내뒀구만. 왜 그런지 오늘 8월종파들이 날치던 그때 강선을 찾아가던 일이 생각나누만.>

그 말씀에 접하는 순간 내 눈앞에는 당중앙은 동무들밖에 믿을데가 없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하시면서 강재 1만t의 증산을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어러왔다.》

며칠후인 10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그 전해에 비해 134%로 늘어난 주체63(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년중으로 수행해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년초부터 9월말까지 아홉달동안 해낸 량과 맞먹는 아름답한 과제를 남은 석달동안에 해제까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각한 사태앞에서 부주석들도 부총리들도 모두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만 아니시였더라면 회의는 공회전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회의참가자들중에는 경제부문에 조성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본 일군이 없었다. 어떤 일군들은 회의에서 혹시 계획이 조절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을 가지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과 나누신 언약대로 만장앞에서 심중의 결심을 거침없이 표명하시었다.

《당중앙이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경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뢰소리처럼 장내를 뒤흔드는 순간 일군들은 모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다음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됐다! 김정일동지께서 경제문제를 풀겠다고 결심하시었으니 승산은 확고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비서들,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들뿐아니라 방청으로 참가한 정무원 위원회, 부 책

임일군들은 누구나 단 몇해사이에 조선로동당을 수령님의 당으로 일신시키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가시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이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탁월한 조직적수완, 비범한 전개력이 어떤 기적과 변혁을 가져왔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전국의 당조직들이 모두 발동되면 그 어떤 령마루도 다 넘을수 있을것이다. 장군님의 배짱은 분명 이런 신념에 뿌리를 두고있었다고 본다.

회의가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연형묵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기중에 있던 나(리재일)와 조세웅부부장까지 불러 70일전투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하시던 비장한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이제 년말까지는 80일남짓한 시간이 있다. 열흘간 준비를 하였다가 70일전투를 벌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 파제는 방대하며 아름답다. 경제일군들이 힘들어하는데 당조직을 발동하여 6개년인민경제계획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는것이 나의 결심이다. 나에게는 차고있는 예비보따리가 따로 없다. 동무들에 대한 믿음과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믿음이 내 재산의 전부이다....

이어 장군님께서서는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형묵을 총책임자로 하고 조세웅을 참모장으로 하는 70일전투중앙지휘부를 조직하시였다. 나는 중앙지휘부 선전분과 책임자로 임명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이르기까지 70일전투지휘부를 내오고 중앙지휘부가 전투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작전하며 지도하는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연한 지휘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또한 70일전투지도소조를 무어 각 도와 인민경제 중요부문과 단위들에 파견하시였을뿐만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군들이 직접 생산현장에 내려가 전투를 지휘하도록 하시였다.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70일전투지휘부가 조직되고 수

많은 능력있는 일꾼들이 지도소조에 망라되어 전투단위들에 파견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0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 책임일꾼들, 도당책임비서협의회를 소집하시고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대책적문제를 토의하시였다.

《…이번에 나가는 지도소조는 주체사상과 조직적수완밖에 가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날 장군님께서 회의를 결속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체사상》, 《조직적수완》- 여기에 바로 70일전투의 승리를 담보하는 비결이 있었고 방법론이 있었다. 그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가 겪고있던 경제적문제는 다른 나라의 유명한 경제학자나 기술고문들의 조언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였고 외자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타개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였다.

승리의 열쇠는 주체사상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있었다. 다시말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인 인간의 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자면 사상의 위력으로 인민의 심장에 불을 지펴야 했으며 애국으로 불타는 인민의 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 바칠수 있도록 높은 수완을 가지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해야 하였다.

부르조아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발전과 침체현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활동에서의 인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정하고있었다.

1973년 10월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은 아랍나라들로 하여금 원유를 무기로 하여 제국주의세력과 공동으로 맞서지 않을수 없게 하였고 결국 원유가격은 두달사이에 무려 4배로 꺾충 뛰어올랐다. 세계는 어디서나 원유난으로 아우성이였다.

1974년 상반기에 미국의 강철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해 31.4%나 감퇴되였고 승용차생산은 25% 줄어들었으며 공업생산은 14.4%나 떨어졌다. 이탈리아의 공업생산도 22.1%나 감소되였다. 프랑스에서는 8 000여개의 기업이, 서부도이췌란드(당시)에서는 6 100여개

의 기업이 파산을 선포하였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평평거리던 재벌들의 얼굴에서는 조락의 운명을 예감한듯 락심천만의 빛이 어른거리고있었다. 석유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은 어차피 우리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풍처럼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이 파동을 사상의 위력으로 이겨내고 경제발전에서 또 한차례의 대비약을 일으키려고 결심하신것은 그 누구도 내릴수 없는 대용단이였다.

그이께서 받기하시고 승리적으로 강행하신 70일전투는 경제활동에서 인간의 주도적인 역할의 장엄한 실천이였고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긍지높은 찬가였다.

담대한 심장과 신념이 없이는 이런 대전역을 구상하지도 못하며 또 실천하지도 못한다.

10월 21일은 70일전투의 시작을 선포한 날이였다.

전당에 돌격구령이 내리였다.

전투구령이 떨어지자 도당책임비서들이 선참으로 최전방에 달려나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좌지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현장이였다.

평양시당 책임비서 강현수는 삼신탄광으로, 강원도당 책임비서 홍시학은 천내탄광으로, 자강도당 책임비서 리봉길은 강계화물역으로, 량강도당 책임비서 림수만은 혜산청년광산으로, 함경북도당 책임비서 김치구는 김철확장공사장으로,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리길송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로 달려나갔다.

도당책임비서들의 뒤를 따라 시, 군당책임비서들도 자기 관하의 약한 고리들을 차지하고 로동자들과 고락을 같이하였다. 그들은 행정일군들을 가로타고앉아 경제사업을 좌지우지하던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고 생산자대중의 애국충정에 불을 지피는 사상전의 방법으로 힘차게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그 과정에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란 어떤것인가를 생동한 현실로 체험하였다.

나자신도 레위가 아니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창조해가시는 시범을 통하여 70일전투기간에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란 어떤것인가

를 똑똑히 깨달았다.

그 시절 나의 사업일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10월 22일, 화요일, 때때로 비.

오전 10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긴급지시.

각 도와 주요전투장들에 파견된 지도소조책임자들에게 랭동공장건설정형을 오늘중으로 료해하여 보고하도록 할것.》

10월 22일이면 70일전투가 시작된 다음날이다. 이런 날에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랭동공장건설정형을 료해하고 보고하라는 긴급지시가 내린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지시를 받아든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전투벽두에 랭동공장건설이라니, 장군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늠하려고 머리를 짜보았으나 도무지 신통한 짐작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전분과의 일부 일군들은 장군님의 긴급지시를 물고기수출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채굴, 수송, 수출이 7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졌으니 그런 판단을 할만도 하였다.

지방에 파견된 지도소조들은 그날중으로 중앙지휘부에 랭동공장건설정형을 보고하였다.

우리는 그 보고를 받아보고 랭동공장건설이 전반적으로 부진상태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랭동공장들은 설비와 자재, 부속품의 부족으로 건설을 중단한 상태였고 이미 건설해놓은 랭동공장들은 성어기 한철에만 사용하고 내버려두다나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70일전투중앙지휘부에는 각 도들에 랭동공장보수정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즉시에 보장해주며 필요한 기술자들과 로력을 비상동원하여 랭동공장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한 장군님의 지시가 인차 하달되었다.

이 조치에 의하여 서호, 경포, 양화, 원산을 비롯한 수산기지에서 8개의 대규모랭동공장들이 짧은 기간에 정비보수되었다.

70일전투기간 탄광, 광산의 영양제식당들과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립산마을 벌목공들의 식탁에 오를 물고기들이 이 랭동공장들에 편이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70일전투를 탄광, 광산의 노동자들과 림산마을주민들에 대한 후방사업개선으로부터 시작하신 장군님의 활동은 우리 당일군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해 해주었다. 장군님의 시범은 일군들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다시한번 돌이켜볼것을 가르치고있었던것이다.

수자와 사실을 따지기 전에 생산자대중의 식생활조건부터 헤아려 보시고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선행시키신 여기에 바로 생산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보시고 막힌 고리들을 풀기 위한 해결방도를 찾으시는 장군님식사업방법의 특징이 있었으며 경제문제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최대한으로 구현해나가시려는 장군님의 지향이 있었다.

며칠후인 10월 29일 70일전투중앙지휘부 종합분파에는 가정을 떠나 사회주의대건설장들로 달려나간 지원자들의 수를 종합할데 대한 과업이 또 떨어졌다.

통계를 내면서도 그런 통계가 어떤데 소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아래에서 올라온 수자들을 종합하던 종합분파 일군들은 총인원 15만 명이라는 지원자들의 수자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대략적인 추산에 의하더라도 한개 군에서 평균 700여명의 청장년들이 가정을 떠나 사회주의대건설장들로 자원해나갔다는것을 의미한다.

15만명이라는 수자가 보고되기 바쁘게 중앙지휘부는 각 도에 파견된 지도소조들에 대건설장들에서 일하는 지원자들의 겨울나이준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한 지령을 내려보냈다.

이번에도 역시 건설자들의 생활문제와 관련한 과제였다. 일군들은 온 나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시는 태양의 열도와도 같은 장군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며 채굴, 수송, 수출이 7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이라면 그 선행공정은 근로자들의 생활조건, 생산조건을 해결하는데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당시 김책제철소확장공사와 4월13일제철소확장공사, 남흥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공사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는 70일전투이전부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수만명의 건설자들이 모여와 일하고 있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새로운 돌격전을 벌리었다.

그런데 그들의 침식조건이나 겨울나이준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일군은 얼마 없었다. 당일군, 행정일군모두가 건설실적에만 눈을 밝히였지 건설자들의 생활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낯을 돌리지 않았다. 우리 인민이 타발을 모르는 인민이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민이다보니 일군들은 그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는데 습관 되었고 또 인민이 겪는 고생과 불편을 심상하게 대하였다. 적지 않은 일군들은 자체로 생산자들의 생활조건을 풀어줄 궁리는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고있었다.

중앙지휘부의 지령이 떨어지자 대건설전투장들과 거기에 로력을 파견한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위원회를 열고 지원자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건설장들에서는 당결정으로 다른 지방에서 온 지원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어 겨울나이준비를 해오게 하였으며 건설장들에 로력을 파견한 단위들에서는 당조직이 주동이 되어 그들에게 솜옷과 솜신발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내밀었다.

11월 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70일전투중앙지휘부 책임일군을 찾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며칠전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지도소조책임자로부터 새로 파견된 1 000명 로동자들의 침식조건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이 기초만 파놓고 나머지공정은 70일전투가 끝난 다음 해치우려고 살림집건설을 중지시켰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다른것은 다 중지하더라도 로동자들의 합숙과 살림집부터 먼저 지어주자고, 그것도 70일전투과제라고 짚어 말씀하시였다.

다음날 2 000t의 세멘트를 실은 수송차들이 덕천땅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 하루밤사이에 친히 수송조직을 해주신 그 세멘트는 국방건설의 일환으로 인민군대가 맡고있던 도로포장공사장에서 실어온것이였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 대한 장군님의 관점이 얼마나 고결하고 엄숙했는가를 알수 있다. 이 관점이야말로 70일전투를 승리로 이끈 비결중의 비결이였다.

70일전투기간에 자기가 살 집을 짓는것을 전투과제로 받아안았던 덕천의 로동계급이 어떻게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자동차 1만대생산과제를 미달할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1만대의 자동차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도 1 000명 수용능력의 현대적인 합숙과 수백세대의 로동자주택건설을 완공하는것으로 70일전투를 결속하였다.

력사의 갈피에는 아직 후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70일전투와 관련한 사적들이 적지 않게 묻혀있다. 그 대부분은 장군님의 특출한 령도력과 인덕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70일전투가 승리한 전투로 력사에 남을수 있는것은 바로 그이의 령도력과 인덕의 결합이 위대한 힘을 폭발시켰기때문이었다.

덕천으로 세멘트자동차들이 달려가던 11월 5일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위원장 강희원을 전화로 찾아 물으시였다.

《난방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비파거리의 아파트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킨 사실을 알고있었습니까?》

그는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

얼마전 비파거리에 새로 건설한 아파트들에 2 000세대의 가정들이 입사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당이 1970년대에 들어와 수도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커다란 경사가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2 000세대중 1 000여세대에는 난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건설부문 일군들은 주택공사가 완공된것만큼 먼저 주민들을 입사시켜놓고 난방공사를 하려고 타산했었는데 70일전투가 시작되자 기능공들이 화학기지건설장으로 떠나가는 바람에 공사를 내밀수 없는 정황이 조성되였던것이다. 자칫하다가 수천명 주민들이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며 고생스럽게 겨울을 날수 있었다.

주민들은 새 집을 받은 기쁨때문에 난방이 없는것쯤은 꿈만하게 여기고있었지만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을 비상사고로 보시였다.

《요즘 바쁜 일이 너무 많다보니 미처…》

미처 대답을 잊지 못하는 강희원에게 장군님께서서는 격한 어조로 바쁜 일치고 인민들이 겪고있는 생활상고통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을 한지나 다름없는 난방에 들도록 하고 속수무

책으로 있다는것이 말이 되는가고 하시며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혁명임무가 중한줄을 아는 사람이 그 임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들이 귀중한줄은 왜 모르는가.》

강희원은 그날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을 한평생 뼈에 새기고 살았다.

전쟁이나 경제건설이나 국가의 총력이 발동되어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운명, 생활상고충 같은것이 국가의 판건적문제 뒤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드문하다.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응당한것으로 받아들이는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인 상식으로 되고있다. 그도 그런 상식에 인이 박혀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허심하게 잘못을 사죄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화학공장건설에 동원된 300~400명의 기능공들을 수일내에 몽땅 소환하여 난방공사를 끝낸 다음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신 다음 전화를 놓으시였다.

우리는 그때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외면하면 모든 짐이 령도자의 어깨에 실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일군들은 그밤으로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물샷틈없는 조직사업을 하였으며 얼마후에는 장군님께 난방공사를 끝냈다는 보고를 올리였다.

천내탄광 갱안에서 탄부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70일전투를 지휘하던 강원도당 책임비서 홍시학은 10월 28일 밤 장군님께서 전화로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갱안에서 나와 탄광초급당위원회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원산항과 6월4일차량공장, 문평체련소, 천내탄광을 비롯한 도내 중요생산단위들의 전투과제수행정형이 적힌 사업일지를 펼쳐들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군님께서는 전투과제와는 상관없는 일본에서 귀국하여 원산시에 배치된 동포들의 살림집배정정형을 물으시였다.

홍시학은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주택배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도 못했던것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생산실적밖에 없는 데다 원래부터 살림집문제 같은것은 정권기관에 전적으로 일임하고있

었다. 게다가 귀국선을 타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십명이나 원산시에 배치되어왔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70일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갱막장으로 일터를 옮기다나니 그들이 쓰고살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알아보지도 못하였던것이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장군님께서서는 나직이 이르시였다.

《원산시적으로 집을 해결하여주지 못한 귀국동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고 빨리 해결하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지만 홍시학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에게는 여직껏 경제건설전투라고만 여겨왔던 70일전투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오기 시작했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가 어렵듯이나마 깨달아지는것 같았다. 당일군이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한다고 하여 당사업방법이 완결되는것은 아니였다.

판교와 법동의 림업지들에 나가 도내 탄광들에 필요한 동발목을 채벌하던 원산시 도시경영사업소 주택보수반의 노동자들이 도당책임비서의 지령에 따라 다음날 원산으로 돌아와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 가정들의 살림집보수에 달라붙었다. 비가 새거나 불이 잘 들지 않아 애를 먹던 살림집 53세대가 새 집처럼 보수되였다. 집이 없던 38세대가 새 주택을 배정받았다.

당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우리 당의 리념이 항구도시의 곳곳에서 진행된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의 새집들이풍경으로 펼쳐졌다.

천하를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혜안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한사람의 아픔까지도 다 꿰들고있었으며 그이의 은혜로움이 미치는 인덕의 대지는 일망무제하였다.

70일전투를 치르고나서 많은 당일군들이 대학을 하나 졸업한것 같다고 말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70일전투는 우리 일군들에게 웅근 하나의 대학과정안과 맞먹는 교육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은 70일전투라는 거창한 경제건설의 대격전을 통하여 생산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으며 당사업이란 사람을 위한 사업이며 사람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활동과

정이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를 심장에 새겨안게 되었다.

그해 11월초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출근거리가 멀어서 힘들게 다니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들은 왕복 40리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통근하고있었다. 하루 3시간가량의 시간을 로상에서 보내는셈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료해하시고 몹시 걱정하시면서도 자신께서 친히 해결해주실수 있는 문제였으나 공장의 책임일꾼들에게 당에 보고하라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것은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켜 장군님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령도체계를 하루빨리 세우시려는 수령님의 의도였다.

먼거리통근자들을 위해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버스들이 강제지구에 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가 끝나기도 전에 명문고개를 넘어 공장에 도착하였다. 이 소식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의 애로가 풀렸다고 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70일전투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마음을 많이 쓰신것이 인민들의 생활조건, 생산조건과 관련한 문제들이였다.

그 당시 철도역들과 탄광의 저탄장들에는 주민용석탄이 많이 쌓여있었다. 그런데 철도역에서는 전해에 비해 몇배나 늘어난 수송과제를 수행하느라고 주민용석탄의 운반에 대해서는 애당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받지 않고있었다. 철도에 과부하가 걸린것만큼 주민들은 불편한대로 참고 견디라는 소리나 같았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어떤 곤난이든지 다 참고 견디는 강의하고 훌륭한 인민이라는것을 악용하면서 인민의 아픔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목석같은 인간들의 전횡이 아닐수 없었다. 이런 현상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대들보에 쏠이 쓸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홍성남을 부르시였다.

철도가 긴장하다고 하여 주민용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것을 제껴놓고 무엇을 싣겠는가. 우리가 전투를 하는 목

적도 결국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하는것이 아닌가. 철도가 아무리 긴장해도 주민용석탄부터 먼저 실어나르도록 하시오. ...

이런 말씀앞에서야 무슨 조건타발이 더 필요하겠는가.

70일전투기간 철도는 매일같이 만부하를 곁었다.

11월에 접어들자 철도는 장군님의 교시에 따라 남새수송까지 하였다. 그해 평양시에는 남새풍작이 들었다. 주민 세대당 1t에 가까운 남새를 공급하고도 남아 일군들은 처리곤란으로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가격을 대폭 낮추어보았으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남아돌아가는 남새를 함경북도의 공업지구들에 공급하도록 비상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날마다 화물열차들이 김장용 배추와 무우를 싣고 평양에서부터 함경북도까지 장거리수송을 하느라고 숨가쁘게 달리었다.

어느날 당시 평양방직공장 작업장의 온도가 높아 직포공들이 땀을 줄줄 흘리며 일한다는 지도소조의 보고가 들어왔다. 작업장이 무더우면 방직공들이 땀투성이가 되고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시 장군님의 지시로 생산현장에는 얼음파자와 사이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가정부인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해 떡과 국수, 만두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 방직공장주변의 13개 상점, 식당들이 이 공장 종업원들만 리용하는 전용상점, 전용식당들로 전환되었다. 방직공들의 일손에서는 번개불이 일었다.

장군님께서 부여주시는 정은 70일전투가 벌어지는 모든 전투장들에 해빛처럼 비쳐들었다.

그이의 사랑은 조국의 북단 웅기군(당시) 앞바다의 알섬에도 미치였다. 등대섬이라고도 부르는 작은 섬에 4세대의 주민이 살고있었다.

70일전투가 벌어지기 전 장군님께서서는 섬주민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할데 대한 파업을 주어 당중앙위원회 김창호부부장을 파견하시였다.

얼마후 섬에서 돌아온 그는 장군님께 알섬사람들이 등대를 알뜰하게 관리하고있으며 생활에서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있는데 대해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래도 섬인데 룡지와 같겠는가, 우리가 뭘 좀 도와줄게 없겠는지 말해보라고 하시었다.

그는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음료수탱크가 불비하다는 것과 등대원들이 룡지에서 배가 와야 물으로 드나드는데 그게 좀 불편해보이더라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등대섬사람들의 물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겠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었다. 그는 물저장탱크를 잘 만들수 있게 아연도철판과 세멘트를 좀 대주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이어 장군님께서서는 등대원자녀들이 물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방학이 되어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면 섬사람들이 모두 계선장에 나가 《류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떠들썩하게 맞이한다는것을 룡해하시고도 물음을 그치지 않으시었다. 섬에 텔레비존수상기가 있던가, 악기들은 없지 않던가, 그 사람들이 늘 작업복만 입고 사는데 습관된것 같지 않던가....

그러시고는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섬에서 고독하게 생활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동서해의 모든 등대섬들에 텔레비존수상기와 손풍금, 기타를 비롯한 악기들과 아이들과 어른들모두에게 외투와 옷들을 보내주며 그들에게 평양견학도 시켜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알섬을 비롯한 동서해의 모든 섬들에서 일하는 등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은정어린 선물을 아름이 별게 받아안았으며 온 나라가 70일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때에 평양견학을 떠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11월 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70일전투정형을 현지에서 룡해하시려고 황해남도를 찾으시었다. 연형목비서와 안배옥부부장이 그날의 현지도도를 수행하였다.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접경을 이루는 삼지강다리를 넘어 재령광산으로 들어가는 소도로에 이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세우시었다.

《지금 탄광과 광산들에서 굴진을 한 다음 박토처리는 하지 않고 석탄과 광석만 캐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먼곳에는 가볼 시

간이 없기때문에 오늘 재령광산과 태탄광산을 돌아보고 그 실태를 료해하여보자고 합니다.》

그이의 말씀에 따르는 일정을 보면 어림짐작으로 천리가 넘었다. 현지도의 첫 로정은 재령광산이었다.

승리광구의 험한 막장에까지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현장에서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어디서나 철강재를 요구하는데 쇠돌이 걸렸다. 황철의 로동계급은 쇠돌을 쌓아놓고 마음껏 일해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한다. 175%로 장성한 70일전투과제를 수행하기는 험치 않지만 나는 동무들을 믿고 이 문제를 풀자고 왔다. …

장군님께서서는 광부들의 사상을 발동할데 대한 문제, 굴진과 박토를 선행시키지 않는 편향을 극복하고 생산을 높이며 광산을 나라의 믿음직한 쇠돌생산기지로 꾸릴데 대한 문제, 대형자동차운전사들의 대우를 땅크병들처럼 해줄데 대한 문제, 현지에 나와있는 황해남도예술선전대 경제선동대의 역할을 더욱 높여 온 광산을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할데 대한 문제 등을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다음의 로정은 벽산협동농장에 이어 태탄광산이었다.

개발된지 1년밖에 안되는 태탄광산은 쇠돌의 품위가 낮은데다가 수송거리가 멀고 조건이 불리하다보니 추서기 힘든 광산이라고 하면서 주인들조차 신심을 잃고있는 기업소였다. 서부지구에서는 제일 락후한 광산들중의 하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광산을 추켜세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사상에 달려있다. 사상전을 벌려 보수주의, 소극성, 패배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강력한 경제선동대를 보내주겠으니 대사상전의 불을 달아야 한다. 쇠돌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 로동자들의 살림집과 합숙건설부터 먼저 끝내고 그다음 생산전투를 벌려야 하겠다. …

해주향을 찾으시여서는 상하선작업에서 기중기능력이 걸렸다는것을 파악하시고 기중기생산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하시였으며 벨트콘베

아와 관수송을 받아들이고 항을 무역항답게 확장하고 현대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날의 마지막일정으로 황해남도당 책임비서를 만나 도적인 70일전투정형을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도당책임비서에게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내부예비를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에 력점을 찍어 말씀하시고 농업도인것만큼 벼단운반과 탈곡을 빨리 다그치라는 과업도 주시었다.

이처럼 장군님께서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사상전의 방법에 의한 정신력의 발동을 호소하시었다. 이것이 그이의 현지도도를 관통하고있는 시종일관한 주제였다. 그이께서는 70일전투를 선포하시면서도 사상전을 강조하시었고 70일전투과정에도 일관하게 사상전을 강조하시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장군님께서서는 70일전투기간 12개의 중앙예술단과 48개의 지방예술단체 예술인들을 1 252개의 주요전투장들에 파견하시었다. 그들은 생산현장에서 1만 8 700여회의 예술활동을 벌려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전당이 선전원이 되고 선동원이 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기관과 근로단체조직들,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정무원들이 생산현장에 달려나가 선동활동을 벌리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단위들에 예술선전대, 방송분견대, 출판보도선전조, 기동예술선동대들이 조직되고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모든 선전선동방법과 형식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경제선동을 벌리였다.

공장의 출근길과 농장의 포전머리들은 말할것도 없고 천길지하막장과 제철소굴뚝에서도 경제선동대의 나팔소리, 북소리가 울리고 이름난 인민배우로부터 나어난 중학생들까지 모두가 고무의 노래를 불렀으며 절절한 선동연설로 위훈을 호소하였다.

출근길환영이라는 이채로운 선동형식도 70일전투기간에 대대적으로 도입된것이였다. 선전대원들이 갱입구나 공장정문앞에서 나팔도 불고 북도 두드리고 구호도 웨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환영분위기를 돋군 다음 출근하는 전투원들에게 꽃보라도 뿌리고 꽃목걸이도 걸어

주면서 그들을 위훈으로 고무해주는 선동형식이였다. 이 선동형식은 오늘도 일터마다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자들을 기적과 혁신의 길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날의 광경을 체험한 사람들중에는 경제선동의 위력으로 70일전투의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절대로 무리한 분석이 아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11월 23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70일전투기간에 당조직들이 발동되고 간부들이 펼쳐나서 적극 투쟁하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철도부문에서는 지난날 하루에 화물을 18만~23만t밖에 수송하지 못하였으나 요즘에는 하루에 27만t씩 수송하고있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는 70일전투의 발기자, 조직자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신 장군님의 업적에 대한 평가였으며 경제사업에 사상전을 능숙하게 구현한 당중앙의 새로운 령도방법과 그 정당성에 대한 확인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모든 사실은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투쟁하면 예비가 나오고 사업이 빨리 발전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람이 모든것을 창조하고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면 모든 사업이 다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입니다.》

나는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면서 《…이번에 나가는 지도소조는 주체사상과 조직적수완밖에 가지고있는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다시한번 상기하였다. 70일전투의 실적에 대한 수령님의 중간평가는 결국 각급 당조직들과 전투장에 파견된 지도소조들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에 화력을 집중한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보여주는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새형의 당사업은 모든 경제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낳았으며 근로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나는 여기서 70일전투의 최대전구였던 김철의 로동계급과 제철소 확장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제철소를 확장하자면련속식소결로와 강철직장도 건설하고 열간압연직장과 대형용광로, 대형해탄로도 건설해야 하였다. 이것은 사실 10여년을 두고 공사를 벌려도 다 건설하지 못할 방대한 규모였다. 투자액만 해도 7개년계획을 수행할 때 국가의 연간산업건설액과 맞먹는것이였으니 얼마나 거창한 공사였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일군들은 엄청나게 미진된 공사량을 년말까지 해제킨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철소확장공사에 동원된 전투원들은 이 불가능이라는 암벽에 통쾌한 파렬구를 냈다.

장군님께서는 김책제철소에 100여개의 경제선동대를 파견하시여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실정과 시공공정에 따라 예술선동, 방송선동, 직판선동을 힘차게 들이대도록 하시였다. 그렇게 전격전, 섬멸전, 집중공세의 방법으로 생산자대중을 고무추동하니 걸린 고리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게 되였다.

김책제철소확장공사장은 문자그대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였다. 누가 경제선동대원이고 전투원인지 구별이 없었고 누가 제철소의 주인이고 누가 지원자인지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끓어번졌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달리고 또 달리였다.

대형용광로로체건설에서는 지상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종전의 12배에 달하는 건설속도를 창조하였고 원료장입경사탑설치에서는 지상에서 백여개 공정을 하나로 묶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30배의 능률을 냈으며 열풍로조립에서는 1년공정을 50일에 끝내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70일전투가 고조기에 들어서던 12월 7일 김책제철소 2호용광로의 웃부분 장입구에서 고장이 나 원료장입이 중단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온 제철소가 가슴을 조이며 2호용광로를 지켜보았다. 즉석에서

로보수결사대가 조직되었다. 결사대의 강철전사들은 로를 세우지 않고 보수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철생산에서는 정지가 있을수 없다는 불같은 신념을 안고 직장장 김원준, 로정주유공 손동석, 연공 리종운이 고열과 유해가스가 세차게 솟구치는 아찔한 로체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고장부위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용광로는 중단없이 쇠물을 뽑아냈지만 불속에 뛰어들어 로를 구원한 세 결사대원은 희생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3명의 열사들을 위해 곧 장례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조전이 전달되고 당과 정부의 명의로 된 화환이 고인들의 령구앞에 놓이였다. 장의는 엄숙한 애도의 분위기속에서 조용히 거행되였지만 온 나라 인민들에게 안겨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세 열사의 희생은 전국의 전투원들을 분발시켜 70일전투의 승리를 다그치게 하였다.

고인들에게는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가 안겨지고 유가족들은 열사증과 은정어린 배려를 받아안았다. 열사의 자녀들은 혁명학원으로 떠나갔다.

장군님께서서는 장례날과 마찬가지로 3일장이 되는 날에도 당중앙위원회 일군을 청진시에 파견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하시였다.

70일전투가 마지막고비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봉천탄광의 갱막장에서 또 하나의 위훈이 창조되였다.

이제 한발파만 하면 70일전투과제를 끝내게 되는 운명적인 시각 갱막장에 무시무시한 큰 짐이 실리면서 탄부들과 탄발을 위협하였다. 위험이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각 탄부들을 막장에서 밀어내며 《비키라!》고 고함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채탄중대의 소대장 리영현이였다.

《빨리 막장에서 나가시오. 발파심지의 불은 내가 달겠소. 동무들, 70일전투과제를 부탁하오.》

잠시후 그가 버티고섰던 막장에서는 지심을 뒤흔드는 발파소리가 울리였다. 동지들도 구원되고 70일전투의 마감을 장식하게 될 탄발도 넉넉히 마련하였지만 마지막발파심지에 불을 단 그 탄부는 대오로 돌

아오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리영현의 최후에 대해 몇번이나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 며칠만 지나면 70일전투도 끝나고 당당히 승리자의 대오에 서야 할 사람이 참으로 아깝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봉천탄광 소대장 리영현동무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시오.

…정무원에서 간부들이 나가 수여식을 금년내로 잘하시오.

눈으로 보면서도 찾지 못하던 술한 예비들이 70일전투기간 지도소조성원들과 전투원들에 의해 모조리 탐구되고 생산과 건설에 동원되였다.

함흥철도국에 파견된 당지도소조는 철도국구내의 넓은 면적에 박혀있는 쇠울타리의 환강을 회수하여 화차수리에 돌리였다. 한개 기관의 울타리를 해체해서 나온 환강이 함흥철도국산하의 철도공장과 기관구들에서 2년동안 쓸수 있는 막대한 량이였다고 한다. 쇠울타리가 서있던 자리에는 나무판자로 된 울타리가 생기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당사업은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지혜, 무비의 희생정신을 무서운 힘으로 폭발시켰다.

결혼식과 60돛생일을 전투적으로 하자는 전보, 전화들로 체신소들이 들북이고 퇴원수속도 하지 않고 전투장으로 《탈주》해간 환자들때문에 병원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속을 썩이고있을 때 휴양생들과 정양생들의 기한전퇴소로 정휴양소의 종업원들도 배낭을 둘러메고 공장과 광산,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전해 초겨울에 물을 떠났다가 주체63(1974)년 10월에야 조국으로 돌아온 청진수산사업소의 먼바다 어로공들은 몇달동안의 오랜 바다생활끝에 차례지는 휴가도 료양도 다 뒤로 미루고 다음날로 겨울철어로전투에 진입하였다.

나라의 곳곳에서는 당원돌격대, 정무원돌격대, 사로청돌격대, 가두녀성지원대, 현장의료대들이 무어져 활동을 했고 로동자, 사무원, 상업, 편의봉사일꾼들과 부양가족들, 칠순에 나는 로인들과 소년단원들까지 전투장에 나와 전투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70일전투는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당중앙의 돌격구령에 따라 온 나라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펼쳐나선 력사에 전례없는 대경제전이었다.

그 나날에 수많은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장군님의 손길아래서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하였으며 정신도덕적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수양하였다. 수백만의 당원들과 일군들이 70일전투라는 결전장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의 복무자들로 자라났다.

11월 마지막날까지도 성진내화물공장은 11월수출전투과제를 끝내지 못하고있었다. 소성로안에 들어있는 100여t의 내화벽돌때문에 생산이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100여t의 내화벽돌을 로에서 꺼내자면 사흘이라는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모두가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기고있을 때 전투현장에 나와있던 김책시당책임일군은 수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은 수령님의 대외적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면서 신발바닥에 널판자를 대고 로속에 뛰어들었다. 그의 행동에 고무된 온 공장이 요출돌격전에 몸을 내뒀다. 교대를 해가며 식지 않은 로속에서 내화벽돌을 끌어내는 전투는 12시간만에 끝났다. 3일씩 걸리던 요출시간이 6분의 1로 단축된것이다.

11월수출전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책임비서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께서 70일전투를 통하여 육성해낸 당일군들의 인간상이다. 이런 당일군들의 노력으로 1970년대를 빛내인 강자들이 자라났다.

70일전투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넘겨다본것도 없으며 남들한테 원료와 연료를 달라고 손을 내민 일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실제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였다. 수천여건의 새 기술과 발명으로 얻어진 수억원의 리윤, 4만 5 000t의 강재와 41만t의 파고철, 4 000t의 파동을 비롯하여 원료와 연료의 막대한 예비, 수천대의

설비, 이 모든것이 그들의 사상과 심장에서 쏟아져나왔다.

70일전투의 결과로 300명에 가까운 영웅들이 배출되었고 15만 명의 노동자, 기술자,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국가수훈을 받는 영예를 지녔다. 실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은 세계 그 어느 나라 경제발전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설적인것이다.

12월 31일 중앙지휘부는 마지막전투일보를 받았다.

김책제철소에 새로 건설한 대형용광로에서 주체64(1975)년 새해를 맞으며 첫 출강을 한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우리는 모두 환성을 올리였다.

평양방직공장과 봉천탄광을 비롯한 1 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그해의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 대규모의 야금, 화학, 기계, 전자기지들이 새로 일떠서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였다.

우리의 공업은 2 500hp의 중속기관과 3 000hp고속기관, 2 500hp내연기관차, 1만 4 000t급대형집배, 20m대형선반, 12만m³대형고압송풍기, 20만kW대형변압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투전에 비해 전투기간 공업생산이 1.7배, 수출액은 2배 장성하였다. 이 기간 석탄생산량은 1.7배, 철광석은 1.6배, 연, 아연은 1.5배, 동은 2.6배로 뛰어올랐다.

농업부문에서는 대풍이 들었던 전해에 비해 대폭적인 상승을 이룩하였다.

사실 돌격구령으로 해결할수 없는것이 경제전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무수한 고리들로 이어지고 호상 제약하고 추동하며 련쇄반응을 일으키는 경제의 발전과 침체에는 주관적욕망과는 관계없는 객관적법칙이 엄연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 70일동안의 돌격전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던 경제전선의 모든 고지들을 일거에 다 점령하였다.

세계가 《기적이다!》라는 한마디 말로 찬탄을 표시한 우리의 경제장성통계수자들은 《유엔년감》극동란에도 실리였다.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전투를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진리성이 더욱더 뚜렷이 확증되었으며 우리 당의 령도력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널리 과시되었다.

또한 당이 정치적향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며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과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70일전투를 하려고 하신 장군님의 용단과 결심이 천만번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참으로 70일전투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단행한 첫 격전이며 이 전투에서 거둔 승리는 력사에 대서특필할 위대한 업적이다.

그 나날에 당과 인민은 혼연일체가 되고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풍파나 폭탄도 깨뜨릴수 없는 철통같은것으로 되었다.

이 전투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민의 흠모와 신뢰는 하늘에 닿았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들을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2월 28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하여》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특별상금을 받아안고 기쁨과 감격에 설레이던 그 시각 격량을 일으키며 도도히 흘러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던 나는 송년의 인사를 드리려고 장군님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얼마후 집무실앞에 이르렀을 때 연형묵과 조세웅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고 나를 막아나섰다. 장군님께서 방금 쪽잠에 드셨다는 것이였다. 이마에 흰 손수건을 포개어 얹으시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다. 그 모습을 뵈는 순간 눈곱이 쿡 쭈시였다.

우리 셋은 집무실앞에서 보초병이 되어 얼마동안 장군님의 쪽잠을 지켜드리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화종소리가 그이의 쪽잠을 방해하였다. 송수화기를 드시고 중앙통계국 일군과 짝막한 통화를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인사불성이 되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집무탁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시었다.

그때 연형묵이 장군님께 물음을 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어째서 쪽잠에 드셨을 때 젖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우고계셨습니까?》

《그건 내 비방이여서 함부로 말할수 없는것인데…》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그건 보통수건이 아니라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낸것이라고, 자신께서는 눈이 몹시 충혈지면 그때마다 따끈하게 덤힌 연한 소금물에 수건을 적서 눈우에 놓곤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정 심해서 풀리지 않으면 그때에는 검은 안경을 끼곤 했는데 이제는 아주 굳어진 습관이 되었다고 나직이 뇌이시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었다.

연형묵도 눈물을 삼키며 남들의 1년을 우리의 하루로, 남들의 100년을 우리의 10년으로 만들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70일전투의 승리는 지도자동지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승리요.》

장군님께서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70일전투를 빛나게 총화하시었다.

자신께서 이룩하신 승리를 조선로동당의 승리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의 영광우에 당의 존엄과 권위를 높으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품모 앞에서 우리는 걱정과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70일전투와 같은 대규모의 경제전이 천만번 계속된다고 하여도 이 나라의 당원들과 근로대중은 력사에 오직 승리만을 아로새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뿔어넘치는 경모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신념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2.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주체67(1978)년 2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인려관개건을 앞두고 벌어진 비정상적인 사태와 관련한 한건의 자료를 받으시였다.

당시 문화예술부장으로 사업하던 리창선이 예술인려관을 개건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엄동설한에 500여명이나 되는 합숙생들을 려관에서 내보냈다는것이였다.

사실 예술인려관개건은 계획을 단계별로 잘 짜고들면 합숙생들을 내보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척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완력가형의 일군이였던 리창선은 푹푹한 로력조직과 자재보장대책도 없이 아무달, 아무날까지 합숙생전원을 려관에서 내보내며 2월초부터는 일체 손님을 받지 말고 1월 26일까지는 각 도예술선전대창립 5돐 행사에 참가하려고 와있던 손님들까지 다 내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산하기관 책임일군들에게 자체로 합숙생들을 처리하라고 하였다. 합숙생들의 대부분은 피바다가극단과 모란봉예술단(당시)의 배우들, 평양영화대학(당시) 교직원, 학생들이였다. 피바다가극단에서는 100여명의 합숙생들이 개별적인 예술인들의 가정에 두명, 세명씩 집을 싸들고 분숙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평양영화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지금의 문화성청사역에 자리잡고있던 자기네 대학실습극장에 누비듯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였다.

대다수 예술인들은 려관을 대대적으로 개건한다는데 불편해도 참고 견디여내야지 하면서 순순히 려관을 떠났다. 그러나 모든 합숙생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였다. 어떤 사람들은 봄에 나가서 려관을 내도 되겠는데 하필 칼바람에 귀뿌리가 얼어터지는 혹한에 제가끔 집을 얻어 나가라고 하면 어쩐단 말인가라고 하소연하였고 우리 문화에

술부장은 내밀성이 있는 대신 인간성은 좀 희박한것 같다는 뒤소리도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몹시 노하실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군중의 감각과 판단은 역시 예민하고 정확하였다.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탄생일을 하루 앞둔 2월 15일 몇 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엄동설한에 한지에 내보낸 처사를 두고 그들에게 과연 초보적인 인간성이라도 있는가고 하시면서 《추운 겨울에 예술인합숙생들을 려관에서 내보낸것은 전횡이고 해독행위입니다.》라고 심각하게 추궁하시였다.

이 일은 곧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일군들이 지니고있어야 할 중요한 품성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요구와 정치방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비상사건으로 되였다.

닷새후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올린 리창선에 대한 책벌안에 동의를 표시하시면서 문건의 첫 페이지에 《장춘섭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도 역시 …처벌을 줄것이다.》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장춘섭은 문화예술부 정치국장이였다.

우리 일군들이 아무리 엄중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친필을 남기신 폐는 있었어도 다른 일군에게까지 그이께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신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것이다.

그때 리창선과 장춘섭에게 책벌을 주는 사상투쟁회의를 김형원이 지도하였다. 회의의 여운이 얼마나 격렬하고 충격적이었던지 리창선은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서 쓴 자서전에서까지 예술인려관사건을 다시 회고하였다.

당건설과 인간성…

얼핏 생각하면 그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인것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그러나 나(조연준)는 이 글을 쓰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당과 그 당을 이끄는 령도자들이 지닌 품성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세상에는 각이한 목적과 이름을 가진 수천수만의 정치조직들이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으로부터 어머니라는 부름으로 친근하게 불리우는 정치조직은 오직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인간성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남듯이 그리고 옷물이 흘러서 아래물이 되듯이 당을 령도하는 지도자의 품성이 그 정치조직의 성격과 풍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예술인려관사건이 있는지 몇달이 지나서 나는 당사업과 인간성에 대하여 또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당중앙위원회에 온지 3년만에 파장사업을 맡게 된 내가 힘겹게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던 어느날 조세웅부부장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언제부터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바쁜 일거리들이 자꾸 제기되어 틈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파장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는가고 물었다.

나는 힘이 든다고, 어떤 때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숨김없이 대답했다.

조세웅부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당사업을 잘하려면 말이요. 인간성부터 배우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당은 자기 사업과 풍모에서 김정일동지를 닮아가고있다, 때문에 우리가 맡은 사업을 잘해나가자면 우선 그이를 알아야 한다, 그이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경멸하시는가,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을 주는것이였다.

그가 평안북도에 일떠선 대규모화학공장건설현장에 당중앙위원회 대표로 파견되어갔을 때의 일이였다.

주체67(1978)년 여름 압록강의 제1지류로 손꼽히는 삼교천중류의 이름없던 농촌마을로는 수많은 건설자들과 체대군인들이 달려와 동쪽주변에 가설막을 쳐놓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건설자들은 모든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였다. 그런데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것이 문제였다. 밤이면 예로부터 삼교천일대의 《명물》들로 소문난 왕모기와 깔따구들이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었던것이다. 그래서 한낮이면 일손을 놀리다가도 때없이 작업장에 주저앉아 말뚝 잠을 자곤 하였다.

공사지휘부성원들이 정치사업도 벌리고 사상투쟁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술한 당원들과 청년들이 기발을 추켜들고 모여와서는 모기성화에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조세웅이 사상투쟁회의를 주관하면서 건설자들에게 한 말이다. 며칠후 로동안전원이 공사장에서 말뚝잠을 자다가 단속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사지휘부에 제출하였다. 조세웅은 그 명단을 보고 새로운 사상투쟁회의를 또 준비하였다.

이런 때 장군님께서 전화로 조세웅을 찾으시였다.

《요즘 왜 그곳 공사장에서 로동규율이 문란하고 작업능률이 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오오?》

《여기 모기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밤새 그놈들 성화에 잠을 설치고는 낮에 작업장에 나와서 모두 졸고있습니다.》라고 조세웅은 변명비슷이 말씀드리였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사상투쟁의 도수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을 쿵 치시며 건설자들이 모기성화에 잠을 자지 못해서 졸고있는데 사상투쟁은 무슨 사상투쟁인가, 나는 동무를 믿고 귀중한 건설자들을 말렸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어디 말해보라, 로동자들이 생활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건설지휘부의 사무실과 숙소는 어떤 건물인가고 엄하게 따져물으시였다.

조세웅부부장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로동자들은 강기슭에 처놓은 가설막에서 숙식을 하고있으며 공사지휘부성원들은 새로 건설한 건물을 사무실과 숙소로 리용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로동자들의 숙소에 모기장이 있소?》

《없습니다.》

《동무들의 숙소에도 모기장이 없소?》

《있습니다.》

그 한마디 대답을 드리기가 죽기보다 더 피로웠다고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동무가 가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기들은 좋은 건물에 모기장까지 치고 살면서 밤잠을 못 잔 로동자들이 존다고 하여 비판무대에까지 내세웠다니 그들이 동무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동무에게 한조각의 인간성이라도 있는가고 호되게 꾸중하시었다.

얼마후 건설장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이 모두 펼쳐나 사무실과 식당, 숙소를 내고 회칠까지 하여 로동자들을 들이였다. 며칠후에는 장군님께서 친히 마련하여 보내주신 모기장들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경적소리를 울리며 공사장에 도착하였다.

《내 당일군으로서 그때처럼 자신의 인간됨과 군중관점, 인민에 대한 립장을 심각하게 반성해본적은 없었소. 이 조세웅은 인간미도 없고 인간성도 없는 막대기같은 인간이었소.》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해 조세웅이 후날에도 자주 외우던 말이다.

조세웅은 그후 판사람으로 변모되었다.

후날 그가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사업할 때 도안의 인민들은 그를 인민성이 높은 일군이라고 평가하였다. 인민들이 아파하고 피로워하는 문제를 제때에 잘 풀어주었기때문이었다.

청진시의 어느 한 구역에 10년째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통을 겪는 동네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을 데리고나가 군중을 동원하는 한편 물이 나오는것을 보고야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에 틀고앉아 공사지휘를 함으로써 며칠만에 수도물을 끌어오는데 성공하였다.

10년가까이 물고생을 하던 사람들은 너무 기뻐 《책임비서 만세!》까지 불렀다. 그런데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자기 도당책임비서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조세웅의 《공명주의》와 《인

기주의》로 묘사하면서 그의 결합보따리를 묶어 올려보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책임비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로동당 만세!》를 부른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의 사업성파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0(1971)년 2월 인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것은 참된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입니다. 원칙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일을 잘할수 없습니다. 지도일군들은 원칙성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을 가져야 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인정미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존경하지 않을것이며 결국 웃사람과 아래사람들사이에 단합이 이룩될수 없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인간과 인민과 인류를 열렬히 사랑한 정치가는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간애로써 천하를 얻으시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떤 관직의 힘으로가 아니라 《김일성입니다.》, 《김정일입니다.》라는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만민을 격동시키고 그들을 시대의 영웅,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드시었다. 주체시대는 그분들의 존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존함은 곧 인간성의 대명사이며 그 상징이다. 이 땅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대화원과 천만가지 변혁은 그분들께서 지니고계신 인간성의 힘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다.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혁명적의리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수령님께서서 것처럼 숭고한 덕성과 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전사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기에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과 뜻있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 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랐으며 끝없이 흠모하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보아서 알겠지만 초

기혁명활동시기에 차광수, 김혁을 비롯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보다 나이가 훨씬 우였으나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인간에는 학창시절부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무수한 일화들을 낳았다.

주위에서 늘 사람들이 젊고 학우들이 각별하게 따르고 사랑한 것은 수령님의 자제분이라는 특수한 위치가 아니라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매력때문이었다.

주체70(1981)년 8월 3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60년대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사업해온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지금 내가 맡고있는 당조직비서의 직위는 어디까지나 당직이고 김정일은 인간이다, 때문에 인간 김정일을 따라야지 관직을 따르면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지금 이 자리에는 15년, 20년전부터 나와 함께 일해온 동무들이 많은데 그들은 내가 오늘과 같은 위치에서 사업하게 되리라는것을 미리 예견하고 나와 결합되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인간적으로 친숙해지고 뜻을 같이한것뿐이라고 뜻깊게 추억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그이를 모시고 한학급에서 공부한 동창생 최영화를 생각했다.

대학권투선수이며 전국대학생운동경연 입선자이기도 했던 그를 장군님께서서는 무척 아끼고 내세워주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최영화의 재능보다도 성격이 남자답고 배짱이 세서 그이와 마음이 잘 통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서울에 부모형제를 남겨두고 공화국의 품을 찾아온 의용군출신의 동창생에게 기울으신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었다.

졸업후 나는 최영화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그러던 나에게 최영화의 소식을 알려주신분은 다름아닌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주체68(1979)년 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해 3월 제막을 앞둔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책임일군들을 데리고 대기념비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길옆에서 불쑥 뛰쳐나온 40대의 사나이가 《김정일동지!》 하고 부르며 막무가내로 달려왔다.

그가 바로 최영화였다.

알지 못할 인물이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막 달려오자 일군들은 당황해졌다. 그야말로 눈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때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방금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소?》

그이를 수행하고있던 림수만 량강도당 책임비서는 어리둥절해서 설마하니 누가 감히 이런 장소에서 장군님의 존함을 소리쳐 부르라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웨침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김정일동지! 접니다, 최영화입니다!》

마침내 장군님께서서는 최영화의 모습을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몇걸음 그쪽으로 막 다가가시며 《그를 놓아주시오. 그는 내가 잘 아는 동무요.》 하고 다급히 웨치시었다.

《김정일동지!》

최영화는 와락 달려와 안기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그는 몇해전부터 《간첩사건혐의자》로 몰리워 고통을 겪고있었다. 최영화가 믿을것은 당조직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일군은 그를 보증해주기는커녕 딱지를 붙여 부서에서 내보내려고 하였다. 성미급한 최영화는 어느날 밤길을 지켜서있다가 그 일군에게 분풀이를 해대고 지방으로 이주되게 되었다.

옛 동창생의 운명에 드리운 그들을 만사람의 앞에서 벗겨주시려는듯 장군님께서서는 최영화를 품에 꼭 껴안으시고 오래도록 눈굽을 적시시었다.

림수만도당책임비서는 그때를 회상하여 《나는 정말 눈앞이 새까매졌댔다. 생각해보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간첩사건련루자〉와 딱 포옹을 하시는데 도당책임비서인 나의 눈앞이 아찔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평양에 돌아오시는길로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최영화의 사람됨은 내가 잘 안다고, 나는 그를 인간적으로 보증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시고는 최영화와 함께 공부한 우리들에게 앞으로 량강도에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으면 최영화네 집에 꼭 들려보라고, 이번에 삼지연에 갔다가 그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내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사람을 만나니 정말 반가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어떤 직위나 존칭수식사가 아니라 존함만으로 불리우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아무런 직무도 맡으시기 전의 인간 김정일동지로 자신을 기억하고있는 옛 친우를 만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하시는 말씀이였다.

후날 최영화가 사업상용무로 평양에 올라왔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술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엄하게도 장군님의 존함을 소리쳐 부르게 되였는가고 물어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그이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뵈옵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부름이 막 튀어나가 더구만.》

나는 최영화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는 우리 당의 령도자, 당중앙위원회 비서동지의 앞이 아니라 인간 김정일동지의 품을 찾아서 달려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나 역시 최영화와 마찬가지로 그이의 슬하에서 혁명과 인생을 깨우친 행운아들중의 한사람으로서 그이께서 지니시였던 인간애에 대하여 하고싶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군사복무를 마친 나는 고원읍에서 10리정도 떨어진 고향마을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당시 나의 모교인 고원고급중학교에서는 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군대에 나갔던 사람들을 위한 야간강습소가 운영되고있었다. 그 강습소를 6개월동안 다니면 대학추천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고중 2학년때 군대에 나갔던 나도 야간강습소에서 반년동안 파외수업을 받고 대학추천문건을 쓰게 되었는데 김일성종합대학에 어떤 학부들이 있는지, 정치경제학파가 무엇을 전공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그 학파를 지

망했다.

내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정치경제학과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군사복무를 할 때였다. 우리 부대의 한 지휘관에게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동생이 있었다. 그 동생은 형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곁봉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라는 주소를 큼직하게 밝히곤 했다. 옳지, 종합대학에 저런 학부, 저런 학과도 있구나 하고 새겨두었다가 대학추천을 받을 때 입학원서의 지망란에 써넣었던것이다.

입학시험을 치른 후에는 매일같이 읍에 있는 체신소에 다니면서 통지서를 기다렸다. 그런데 기다리는 입학통지서는 오지 않고 수령님의 자제분이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소문만 우연히 얻어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체신소출입을 그만두었다. 수령님의 자제분이 공부하러 오신다는 학과에 나 같은 촌바우가 어떻게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뜻밖에 입학통지서를 받아안고 개학전날에야 부랴부랴 대학으로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내가 바로 장군님과 한학급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개학후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그이의 곁에는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변두리를 슬슬 예돌기만 하였다. 중학교시절부터 장군님을 모시고 공부한 박봉면이 나의 소심성과 《신비주의》를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그러고있었을지 모른다.

《이제 동무도 지내보면 알게 되겠지만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분인지 모르오.》

평양제4인민학교시절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 추억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 여름날 최근철이라는 학생이 몸이 아파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 학급반장인 리영일과 함께 그의 집으로 병문안을 가시었는데 앓는 아들의 입맛을 돋구어주느라 어머니가 쌀독에 묻어두었던 병배도 꺼내오고 송어국도 받아왔지만 최근철이 고열때문인지 입이 쓰다면서 자꾸 시원한것만 먹고싶다고 하는것을 보게 되

시였다. 지금과 달리 전후에는 얼음과자나 팽차를 파는 매대들이 흔치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댁으로 돌아오시던길에 오늘의 창전거리근방에서 얼음과자와 빙수를 파는 매대와 맞다들리시였다. 얼음과자를 보시는 순간 고열에 시달리던 최근철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머니의 뽀스로금까지 다 털어서 얼음과자 4개를 사들고 총총히 걸음을 되돌리시였다. 야속하게도 4개의 얼음과자는 환자의 집에 이르기에도 전에 로상에서 다 녹아버리였다.

리영일은 얼음과자가 다 녹는다고 걱정하시는 그이께 얼음과자만 녹는가, 나도 녹아서 땀이 뚝뚝 떨어진다고 불부은 소리를 하면서 이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졸랐다.

다음날 학급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열에 시달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던 최근철이 싱글벙글하며 학교에 나타나 어제 동무들이 사다준 얼음과자덕에 병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것이였다.

제일 놀란것은 리영일이였다.

누가 얼음과자를 갖다주었는가고 슬그머니 물었으나 최근철은 씨물씨물 웃기만 하면서 대주지 않았다. 아마 그 주인공이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은 모양이였다. 그 미담의 내막은 세월이 켜 흘러 장군님께서 남산고중을 다니실 때에야 알려지게 되였다. 어떻게 된셈인지 장군님의 소학교시절의 동창도 아닌 박봉면이 그 진상을 알고 동무들에게 말해주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리영일과 헤어지신 장군님께서는 댁에 돌아가 얼음과자가 녹지 않게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최근철의 집에 다녀오시였다.

박봉면은 최근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얼음료법으로 열을 뺐지만 난 고중때 감기로 신고하다가 김정일동무의 운동료법으로 도리어 굉장한 땀을 벌었던 말이요. 내 그때 정말 학질을 뺐소.》라고 말하였다.

고급중학교 졸업반때 박봉면은 시험공부 《어혈》에 독감까지

접치는 바람에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며칠동안 병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하루는 장군님께서 탁구채와 탁구공을 들고 그의 집에 찾아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침상앞에 다가서시여 박봉면이 머리꼭대기까지 뒤집어췌던 이불을 잡아채끼시며 《일어나오. 동무의 병은 내가 떼주겠소.》 하고 다짜고짜 팔을 잡아끄시었다.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던 박봉면은 탁구채와 탁구공을 보자 모 든것을 짐작한듯 두팔을 뻗어 내저으며 《아, 이러지 마오. 나 같은 중환자가 탁구라니 어림도 없소. 난 지금 다리맥도 없고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게 금시 쓰러질것 같단 말이요.》 하고 아부채기를 쳤다.

하지만 끝내 장군님의 완강한 요구앞에 두손을 들고 탁구판앞으로 끌려나왔다. 그이께서는 공길을 부단히 변화시켜 박봉면이 잠시도 한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열심히 공을 받아넘기게 하시었다.

잠간사이에 그는 땀주머니가 되었다.

탁구경기가 끝난 후 장군님께서는 나무꼭지가 달린 쟁개비에 잉어탕을 푸짐히 끓여다가 박봉면의 앞에 놓아주시며 이제부터는 혼자서 공부를 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밤을 새우자고, 그러면 《시험앞이》를 하더라도 절반씩 나누어 앓을게 아닌가고 우스개삼아 말씀하시었다.

박봉면은 눈물이 앞서 선뜻 손가락을 들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으로 웅심깊고 뜨거운분이시구나, 김정숙어머님처럼 남을 위해 태어나 한평생 남을 위하여 헌신하실 위인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근로자사 기자로 배치받은 박봉면은 얼마후 별치않은 문제를 건덕지로 삼아 자기의 약혼녀에게 파혼을 선포한다 만다 하는 불미스러운 과오를 범하였다.

이 사건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였던지 장군님께서는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시었다.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대하여 너무도 소중하게 간직하시었던

그이의 심장이 박봉면의 행동으로 하여 받아안은 상처가 말할수 없이 컸기때문이었다. 박봉면이 그러한 망동을 부리게 된 출발점은 무엇이었던가.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그것은 인간애의 부족, 인간성의 고갈로부터 생긴 결과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수 없었다.

지난날의 학우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쓴입을 다시였다.

약혼도 인생대사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깨버리다니, 김정일동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온, 다른 사람도 아닌 박봉면이 어쩌면 그렇게도 매정하게 처신할수 있는가.

박봉면은 동무들앞에 감히 얼굴도 내밀지 못하였다. 뒤늦게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도 하였지만 깨진 사발을 도로 가져다 붙일수는 없었다. 그는 고민끝에 집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고말았다.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도 빚어내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박봉면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서 영영 지워버리기라도 하신것처럼 더이상 그를 찾지 않으시였다. 대학시절에 같이 공부한 일군들을 만나시는 경우에도 그의 안부에 대해서는 한번도 묻지 않으시였다.

일군들도 장군님앞에서 박봉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였다. 여러해가 지나서 박봉면이 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장군님께 사죄의 편지를 올리였지만 그이께서는 무언으로 그 편지를 대하시였다.

한번은 평양에 출장을 왔던 박봉면이 나를 찾아와 눈물이 글썽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조동무, 난 그이의 용서를 못 받겠지?》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친애하는 그이에 대해서는 동무도 잘 알고있지 않소. 동무가 쉽게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믿고 정을 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으실거요. 락심하지 말고 일을 잘하오. 언제인가는 장군님께서 동무를 꼭 찾으실거요.》

박봉면은 그후 10년가까이 집을 떠나 혁명사적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 정리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씻는 심

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업에 몸을 깡그리 바치였다. 그러다가 출장지에서 머리말에 원고지를 쌓아놓은채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다는 뜻밖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오래고 무거웠던 10여년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시었다.

나중에는 그를 살려내야 한다니는 당부가 《그를 꼭 살려주소!》라는 간청으로 변하였다.

그것은 오래동안 마음속에 잠재우고계신 우정의 폭발이었다. 화염같은 노여움밑에 깔아두고계시였던 변치 않은 사랑의 폭발이었다. 침묵속에 가까스로 자제하고 자제하던 사랑이어서 박봉면을 잃은 그이의 슬픔은 한결 더 컸다.

꿈속에서도 그러보던 장군님의 손길이 꺼져가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다가온것도 모르고,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점적대를 타고 한방울, 두방울 혈관속에 스며드는것도 모르고 박봉면은 종시 무의식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뜻을 멀리에 두고 그를 보살피시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이 그 뜻에 가닿지 못한것이였다.

우리는 그때 위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슬픔이 위대한 사랑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았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남기고 간 자식들을 혁명학원에 보내어 우리 당이 아버지를 대신하게 해주시였으며 그의 안해를 평양에 불러올려 추억깊은 모교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사서로 일하도록 직업까지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박봉면이 걷고있는 인생길에서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였으며 그가 충분히 자기를 돌이켜보고 개조할 시간을 주면서 때를 기다려오시였다.

옛 친우의 불미스러운 과거보다 깨끗했던 우정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자식들을 기꺼이 맡아안으신 장군님의 한없는 인정의 세계는 열두자식이 안겨도 어머니의 품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을 초월하여 이 땅의 천만자식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위대한 아버지품이였다.

오늘도 끝없는 그리움속에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친근하게

불러보는 김정일동지!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달리 부를수 없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계시었다.

그 어느 직함으로 부르나 그이의 친근한 존함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라는 혈연의 부름처럼 들려오기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흔적이 가셔지지 않았던 어느해 봄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각 도당 책임비서들이 인민군대초모사업에 어떻게 관심하고있는가를 료해보고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얼마후 종합된 자료들이 장군님의 집무탁우에 놓이였다. 자료들은 다 어슷비슷했다. 해당 지역 군사동원부에 무엇을 보내주었다거나 초모생결의모임은 어떻게 조직했고 연도환송에는 얼마만한 군중이 동원됐다는 식의 자료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중 한 문건에 각 도당위원회들에 배포할데 대한 친필을 써서 우리 부서에 내려보내주시었다.

연형목 자강도당 책임비서에 대한 자료였다. 다른 도당책임비서들과 달리 연형목은 10여명에 달하는 강계시의 부모없는 초모생들을 불러 그들과 동석식사를 하면서 《너희 부모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당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다. 너희들은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자강도의 아들딸들이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부모들의 피가 스며있고 동생들이 뛰어노는 이 땅을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그들이 초소로 떠나는 날에는 역에까지 따라나가 사진을 찍고 수첩과 거울, 목달개와 모표닭개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바래워주었다.

결의모임이나 연도행사는 어느 일군이나 다 조직할수 있다. 그러나 도당책임비서라는 바쁜 직무를 맡아보는 일군이 부모없는 초모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역에까지 나가 그들을 고무해주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물자나 연도환송에 동원된 군중집계보
다도 이런 인간성을 더 중시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왜 그토록
연형목책임비서를 잊지 못해하시며 그를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
한 일군으로 불러주시였는지 그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해주는 이야
기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인간적매력과 인간성에 끌려
그이를 따르고 경모하였으며 그 과정에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된
그이의 전사, 제자들이다. 하기에 대학졸업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장군님과 헤어지는것이 너무 아쉬워 그이께서 가시는 곳 어디라도 따
라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어떤 동무들은 섭섭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김정일동지께서
파견되여가는 곳에선 정말 좋겠지?》라고 부러움을 쏟아놓기도 하
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장군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고싶은 심
정에서 벗어날수 없게 한것은 만사람을 한품에 끌어안는 그이의 인덕
이고 인력이였다.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되시였다
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제 우리 당이 더 강해지게 되겠구나, 당
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동지의 은덕을 노래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벅차도록 밀려와 흥분을 가라앉
힐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첫 새해
를 맞으시던 주체54(1965)년 1월 8일에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당
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라는 담화를 하시
였다.

당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천명하신 그날의 담화는 사실상 우
리 당력사에 특기할 새로운 시정방침과 맞먹는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인 담화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간부들에 의해 군중
속에 전달침투되고 조직집행되는것만큼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
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
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면 그들을 믿어주고 아량있게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채서는 안됩니다. 마음의 대문은 본인이 스스로 열어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괴로와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괴로와하고 그들의 가슴에 맺힌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끝까지 풀어주기 위하여 발벗고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감동시켜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할수 있습니다....

당일군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실무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무주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의리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랭담합니다. 랭담한 사람은 사람과의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당일군들은 높은 혁명성과 함께 뜨거운 동지애와 인간성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끝까지 옳은 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군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될수 있습니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거기에서 기본은 인간성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음미해볼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뜨거운 인간애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것이며 그것이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였는가를 깨달을수 있다.

나는 이따금 공장들이 숨을 죽이고 탄광, 광산들이 물에 잠기고 해일에 간석지제방들이 터져나가고 사람들이 기아에 쓰러지고 제국주의자들이 사면팔방에서 우리를 포위하며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엄혹한 고난의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천만군민의 운명을 다 맡아안으시고 무슨 힘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겠는가를 생각해보군 한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감만으로는 것처럼 엄청난 중하를 감당해낼수 없다. 고난속에서 군대와 인민을 일으켜세우고 그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령도의 비결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초인간적인 헌신에 있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인간성의 힘으로 가장 인간적인 이 체도를 사수하시였고 가장 인민적인 시책들을 수호하시였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품어안아 지

켜주고 빛내여주시었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어머니당이라는 말은 우리 당중앙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당총비서로서의 긍지를 느낀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어느해인가 우리 부서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미술작품을 선물로 올리였다.

서늘한 바람이 열려진 집무실창문으로 흘러들어와 문발을 날려주는데 가슴에 두팔을 엮어올리신 김정일동지께서 깊은 사색에 잠겨 창문가에 서계시는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였다. 비전문가인 내 눈에도 대뜸 명화라는것이 알리였다.

부서동무들에게 누가 그린 그림인가고 물으니 만수대창작사의 정영만이 창작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우리 부서의 일군들이 들려준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린 그림이라는것이였다.

그림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9살 꽃나이에 장렬한 최후로 항일혁명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아동단원 김금순의 동생 김량남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과장으로 사업하다가 사망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슬픔을 묵새기실수 없어 온 밤 집무실창가를 떠나지 못하시였다.

이 사실이 정영만을 감동시켰고 그 그림을 낳은 소재로 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정영만의 그림을 보아주시고 《저 그림은 내가 건사하겠소.》라고 하시였다.

그것은 꼭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다가 자신의 품에 안겨 반생을 보내고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간 김량남에 대한 사랑이였다.

김금순이 주체23(1934)년 가을 적들의 총구앞에서 《조선혁명만세!》를 부르며 최후를 마쳤을 때 김량남의 나이는 2살이였다. 그해 봄 연길현 왕우구유격구에서 살던 어머니마저 적들의 춘기《토벌》때 총을 들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한해사이에 어머니와 누이를 잃은 김량남이 그 누구의 보호도 바랄수 없는 신세가 되어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나온것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주체43(1954)년이였다.

그는 주체54(1965)년 6월 10일부 《로동신문》지면에서 《참된 아동단원 김금순》이라는 회상기를 본 다음부터 그 금순이가 자기 누이인것 같아 그것을 고증해줄만 한 연고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당시 사회안전상을 하던 석산이였다. 석산은 《민생단》의 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타났는가고 하면서 큰 반동이라도 잡아낸것처럼 서슬이 퍼래서 김량남이 속해있던 문화성당조직에 그는 여사여사한 사람의 자식이니 수도에서 살 자격이 없는놈이라고 통보했다.

누이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민생단》의 자식이라는 감투를 뒤집어쓴 김량남은 문화성에서 기록영화촬영소 편성원으로 조동되어 작업에만 동원되였다.

주체56(1967)년 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김량남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파견하여 그의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시였다.

로해결과는 가슴을 섬쩍하게 하였다.

김량남이 김금순렬사의 동생인것만은 틀림없으나 그의 아버지는 《민생단》으로 처형되였다는것과 목격자들이 쓴 글에 그의 아버지가 《민생단》으로 처형된 대목이 있다는것이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량남만이 아니라 소녀렬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김금순에게도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게 된다.

장군님께서서는 김금순과 같은 렬사의 아버지가 절대로 《민생단》으로 될수 없다고 보시였다.

수령님께서 언명하신바와 같이 동만에서 《민생단》이라는 죄명을 쓰고 처형된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일제의 간계에 속아넘어간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날조와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였다. 극좌적인 양상으로 미친듯이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의 수레바퀴에 깔려 여러해동안 유격구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며 영웅적으로 싸워온 사람들이 한을 품은채 무참하게 쓰러졌다. 김량남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일수 있었다.

이 판단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것은 그들의 집안력과 투쟁경력을 잘 아는 투사들만이 갈라낼수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림춘추, 전창철, 김옥순, 박영순 등 투사들로 김량남의 혁명렬사유자녀자격을 심의보증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하시였다.

투사들은 한결같이 김량남의 아버지는 혁명에 충실한 반일애국렬사라는것을 보증하고 그를 《민생단》이라고 서술한 회상실기와 신문문건들은 사실대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임이 끝나자 림춘추동지는 《내가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유자녀들을 찾아 온 중국땅을 해매일 때는 뭘하고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전후에 조국에 나왔으면 내가 쓴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보았겠는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는 회상기학습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김량남을 부둥켜안았다고 한다.

그후 김량남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으로 새 생명을 받아안고 랑만과 희열에 넘쳐 혁명사업에 투신하였다. 부모의 얼굴은 물론 조선말조차 모르고 살아온 어제날의 목동소년이 당중앙위원회의 일군으로 되어 장군님을 모시고 사업한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장군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은 끝이 없었다.

한번은 장군님께서 전화로 김량남을 찾아 오늘밤엔 나와 함께 움직일데가 있으니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자정이 되여울무렵 그이께서 손수 차를 몰고 김량남을 태우러 오시였다. 차는 시변두리의 동쪽교외로 달리였다. 차가 멎은 곳은 김정숙어머님의 묘소가 자리잡고있던 대성산기슭의 나지막한 등성이였다. 아직은 주작봉마루에 혁명렬사릉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였다. 12월 하순이여서 날씨는 차고 등성이에 눈이 덮여있었다.

《여기에 우리 어머님이 계시오.》

그이께서는 비둘앞에 술잔을 놓으시였다.

래일이 우리 어머님의 생신날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혼자 조

용히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문득 동무의 얼굴이 떠오르더구만. 나는 그래도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찾아볼 묘소라도 있지만 동무야 울고 싶어도 울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살면서 보니 사람에게는 이 따금 마음놓고 울곳이 있어야 하겠더구만. 우리 어머니도 연길출신이였으니 아마 내가 왕우구당서기의 아들과 함께 왔다는걸 아시면 기뻐하실거요.

장군님께서는 그날 김량남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결에서 12월의 긴긴밤을 새우시였다.

당시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한 사람들의 회고에 의하면 장군님께서 쏘아부으시는 인정에 울고 부모들에 대한 그리움에 울던 김량남은 그이께서 준비해가지고 가시였던 소주 몇병을 혼자서 다 마셔버렸다고 한다.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장군님께서는 취해서 잠들어버린 김량남을 업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였다. 때아닌 손기척소리에 새벽문을 열었던 김량남의 안해는 장군님의 등에 업혀 잠을 자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쩔줄 몰라하는 안해에게 그이께서는 《가만 놔두십시오. 어려서는 주인이 무서워서 소잔등에도 한번 올라보지 못했다는 사람인데 저 잠이 얼마나 달겠습니까.》라고 젖은 음성으로 만류하시였다.

뒤늦게야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장군님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는것을 알게 된 김량남은 눈물을 찻찻 흘리면서 나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자란 기억마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오늘에야 어머니가 오시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김량남은 남들처럼 오래 살지는 못하였지만 인생의 자옥을 깊이 남긴 사람이였다.

그는 만수대에술단을 조직할 때에도 주역으로 참가하였고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할 때도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어느해인가 해당 부서에서는 김량남을 문화예술부(당시)의 책임일군으로 추천하는 간부내신문건을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한달이 가고 두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주지 않으시였다. 그러다가 끝내 문건을 되돌려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수고한 동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는것을 어찌겠는가. 그는 나를 어머니처럼 따르고있다. 너무 고생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건강치도 못하다. 거기다 일욕심도 많고 정열적인 사람이니 문화예술부에 내보내면 밤낮없이 뛰어다닐텐데 누가 그의 건강을 돌봐주겠는가. 김량남은 내결에 있어야 한다. 내가 옆에 끼고 있어야 철따라 옷도 해주고 제시간에 잠도 재우고 약도 먹여줄수 있다. 그래서 보류하였다. …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전사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나를 위안한다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나는 참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며 의료일군들에게 그의 병상태를 문의하시였다.

병은 체내에 수백수천개에 달하는 물질형태의 암종들이 퍼져나가면서 신체조직과 물질대사를 파괴하고 사망을 초래하는 불치의 병이었다. 세계적으로 놓고볼 때 8차례의 수술을 하여 1년정도 생명을 연장시킨 실례가 있을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60여명의 의료집단이 김량남을 위한 치료전투에 동원되였다. 그는 1년사이에 무려 10차에 달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11번째 수술을 앞두었을 때에는 누구도 수술을 다시 하자는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그는 이미 세계의학계의 수술기록을 넘어섰고 그의 몸에는 더이상 칼을 댈 자리조차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량남이가 정말 불쌍해. 그 연약한 몸에 열번이나 칼을 댔는데 또 수술을 하자니 가슴아파 못 견디겠소.

그렇지만 수술은 해야 하오.》라고 하시였다.

김량남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2년을 더 살았다.

그는 림종의 시각이 다가오자 침상결에서 눈물을 흘리고있는 안혜에게 《금순누이를 생각해보오. 누이는 9살을 넘기지 못했지만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그 네 곱을 살았소.》라고 하

면서 그이께서 보내주신 록음기를 켜달라고 하였다. 록음기에서는 조용히 노래가 흘러나왔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웃을 때
따사로운 그 사랑이 그림습니다
...

김량남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그날밤 장군님께서서는 자정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도록 집무실창가를 떠나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전사와 눈물로 영결하시였다.

우리는 그 눈물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 당의 붉은 기폭을 물들인것은 머나먼 혁명의 길에 흘린 피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그 뜨거운 인간애의 눈물이였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붉은기는 우리 당만이 가지고있는것이 아니였다. 한때는 그 기발이 위대한 리념의 상징으로 지구의 절반을 뒤덮은적도 있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혁명에 떨쳐나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과 더불어 그 기폭을 피로 적신 나라는 많았다.

그러나 투쟁의 피와 함께 인간애의 눈물로 물든 기발은 없었다. 령도자가 인민의 운명을 두고 흘린 눈물로 젖어보지 못한 기발들은 력사에 모진 광풍이 몰아쳐왔을 때 인간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지 못하였다.

우리의 당기폭에는 뜨거운 체온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인간애의 열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뜨거운 인간애를 영원히 식지 않을 체온처럼 간직한 우리 당의 붉은 기발은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그대는 우리 뭉친 힘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라고 인민이 목메여 부르는 노래와 더불어 찬란히 그리고 무궁토록 나뭇길것이다.

3. 인민이 낳은 전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쌓아올리신 업적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 쓰고싶은 글이 얼마나 많은가. 그이의 위대한 한생을 전폭적으로, 집약적으로 담아야 할 이 글에 《인민이 낳은 전설》이라는 제목을 굳이 선택하면서 나(리재일)는 생각이 많았다.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져야 할 이 글에 《전설》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하겠는가.

망설임도 없지 않았지만 나는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퍼졌던 전설들에 대하여 꼭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다면 그 당시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사실들이 어떻게 되어 실화로그 아니라 전설이라는 형식으로밖에 전해질수 없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자신에 대한 소개선전을 일체 엄금하셨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인민의 령도자로 내세우고 크게 소개선전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반대하시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칭송해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드팀없는 립장이고 자세였다.

당이 자기 수중에 강력한 선전선동수단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령도자의 위대성을 소개선전하지 못하는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이룩해가시는 위대한 업적과 그이의 혁명활동을 반영한 귀중한 력사자료들이 그냥 묻혀있을수는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실력과 덕망을 보여주는 무수한 일화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급속히 번져갔다.

그이를 경모하여 부르는 공식적인 존칭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며 그의 탄생일이 주체31(1942)년 2월 16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사람들까지도 다 알고있었다.

주체66(1977)년에 나온 가요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에는 《오늘도 좋지만 끝없이 번영할 래일은 더 좋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 대에 모시고 더 좋은 래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높은 긍지와 환희에 대한 표현이었다.

공식석상에 나서신적도 없고 신문, 방송에 소개되신적도 없는 장군님을 우리 인민이 그토록 우러러 따르고 신뢰하게 된것은 그의 천재적인 령도력과 인품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진것과 관련된다.

《췌기밥》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의례히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고난의 행군시기를 회고하는데 사실 《췌기밥》에 대한 전설이 사람들속에서 처음으로 돌아간것은 1970년대에 그이께서 전천땅을 찾으시였을 때부터였다.

그때 전천려관의 종업원들은 자기네 려관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준비를 서둘렀다. 려관안팎을 털어내고 도배도 다시 했으며 주변도 깨끗이 정리하였다. 군내 급양기관의 료리사들을 초청해다가 특산료리도 준비하였다.

장군님께서 전천땅을 찾으신것은 주체62(1973)년 8월 27일이였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렬차에서 내리시는길로 군내에 있는 공장들부터 현지지도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현지지도를 마치시자 전천군일군들은 그이를 전천려관에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였다.

《우리 군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며칠전부터 오늘을 기다려왔는데…》

도와 군의 주인들이 소원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였으나 《점심식사는 떠나올 때 가지고온 음식이 있으니 렬차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가볍게 밀막으시며 그이께서는 역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지않아도 처음 그이를 뵈온터에 어려움과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주인들은 더이상 청을 드리지 못하고 움츠러들고말았다.

당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서 전천군에 3대혁명소조책임자로 나와있던 김학봉이 주인들의 편역을 들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군내 인민들이 섭섭해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난처하신듯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수행일군들에게 《정 섭섭해한다니 동무들이 나대신 가서 식사를 하고 나의 인사도 겸해서 전해주시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등을 려관으로 떠미시었다.

그이를 몸가까이에서 뵈옵고 자기들의 소박한 정성을 드리자던 소원을 종시 이루지 못한 전천려관 종업원들은 서운한 마음으로 려관에 찾아온 수행일군들에게 말했다.

《우리 같은 산골려관에 그이를 모시고싶어한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였다지만 아무럼 그분께서 우리들이 만든 음식 같은것을 드시겠다고…》

그들은 장군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면 특별하게 준비한 식사를 지참하시는줄로 넘겨짚고말았던것이다. 일군들은 하는수없이 그 《특별한 식사》란것이 췌기밥에 오이랭국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설마하니 그분께서 그런 음식을…》

저녁녘에 일군들이 렬차에서 가져온 췌기밥을 보고나서야 그들은 입을 봉하였다.

장군님의 평민성에 대한 이 실화는 이상하게도 전해지는 과정에 《신비한 췌기밥》, 《특수한 췌기밥》에 대한 이야기로 와전되었다. 아무러면 어느 췌기밥과 같겠는가 하는 반신반의의 심리가 작용하였을것이다.

평범한 이야기도 입과 입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 보태지기 마련이고 보태지다나면 희한한 이야기로 번져지게 된다. 하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흠모하여마지 않는 그분께서 현지도의 길에 까나리와 절인 오이를 넣은 췌기밥을 지참하신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변한것은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전설에는 반드시 신비적인 색채가 섞이기마련이며 그래서 전파력도 빠르다. 그대신 쉽사리 잊혀지기도 한다. 전천에서 태어난 췌기밥에 대한 전설도 자강도지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찾아들었다.

주체58(1969)년 여름에 나는 동해선을 타고 청진쪽으로 출장을 간적이 있었다.

열차가 속후역을 가까이하고있을 때 승객들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분께서 말이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수령님의 자제분께서 우물에 들러 물맛을 보고 가신 다음부터 우물물이 약수로 변했다는게 아니요.》

한 로인의 말에 다른 청년이 끼여들었다.

《그건 잘 모르는 소립니다. 물이 약수로 변한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내주신 드레박에 비결이 있답니다. 그 드레박으로 물을 길어야만 우물물이 약효를 낸대요.》

알고보니 그들은 속후역의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우리 나라 동해연선에 있는 속후역은 자그마하지만 유명한 휴양지역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한두해전부터 역사앞에 있는 우물에 신비한 전설이 생겨나는 바람에 속후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물론 그 역을 통과하는 길손들에게도 대인기를 끌고있었다. 열차가 잠깐 머무르는 사이에도 승객들이 저마다 물을 뜨러 역사앞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것이였다.

후날 알고보니 그 전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6(1967)년 7월 동해안지구에 대한 현지도도를 하시면서 그 역사에 들러 우물의 물맛도 보아주시고 만든지 너무 오래되여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드레박을 새것으로 바꾸도록 해주셨을뿐아니라 비물이 스며들지 않게 지붕을 꼭 씌우도록 이르신데서 생겨난것이였다. 그 우물이 전국각지의 휴양생들과 승객들로 흥성이는 역사앞에 있는 까닭에 소문은 더 빨리, 더 멀리 퍼졌다.

어쨌든 그 전설도 자기들의 생활속에 소리없이 찾아오고계시는

젊으신 지도자의 체취를 더 빨리, 더 깊이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에 의해 생겨났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들은 날이 가면서 점점 더 많아졌다. 지방들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한다는것을 알고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해 물었다.

그분은 어떤분이신가. 물론 수령님을 꼭 닮으셨다고 하지만 정말 수령님처럼 웃으실 때는 주변이 막 환해지는가. 노하실 때는 백두산호랑이처럼 무섭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분에 대하여 소개선전을 하지 않는가. 인민들이 그분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문으로 만족해야 하는가.》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장군님에 대한 전설이 처음 생겨난 곳은 영화예술부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영화예술부문에 대한 그이의 천재적인 령도로 하여 60년대 중엽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대풍이 들었다. 《성장의 길에서》, 《유격대의 오형제》, 《최학신의 일가》와 같은 명작, 대작들이 나오고 《처녀리발사》, 《꽃피는 마을》, 《우리 렬차판매원》과 같은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생활을 담은 아담한 영화들이 한해에도 몇십편씩 쏟아져나오자 사람들은 흥에 겨워 들썩들썩하였다.

화면을 통해 낯을 익힌 영화배우들을 만날 때면 사람들이 그들의 팔소매를 붙들고 끈질긴 질문을 퍼부었다.

《〈최학신의 일가〉는 창고에 들어갔던것이 다시 나온게 맞는가? 그 좋은 영화가 왜 곡절을 겪었는가?》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40일만에 창작되었다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꽃파는 처녀〉는 영화로 만드는데가 가극으로 만드는데가. 어느 말이 사실인가?》

영화인들은 어떤 질문에나 신바람이 나서 대답하였다. 그들의 말에서는 《웃분》, 《친애하는 그이》라는 존칭이 자주 튀어나왔다. 어느 영화치고 그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영화가 없었고 어느 배우치고 그이의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지 않은 배우가 없었다.

《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영화예술을 지도하여주신 결과입니다.》

《영명하신 지도자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가극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형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지금 만수대예술단과 백두산창작단이 동시에 창조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친애하는 그이》, 《영명하신 지도자동지》...

새로운 존칭사였지만 스스로없이 들려왔고 자연스럽게 입에 올랐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친애하는 그이》에 대하여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어느 출판물에서도 그이의 영상을 찾아볼수 없었으며 《친애하는 그이》란 표현을 발견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밤교대로동자들을 위해 심야방송을 내보내도록 해주셨다는것을 알고 감격했지만 일터의 로동계급과 한밤을 같이 새우는 그 심야방송도 《친애하는 그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 가면 그이의 모습을 뵈을수 있는가.

아버이수령님과 용모도 음성도 걸음걸이까지도 그대로 닮으셨다는 소문만으로는 만족할수 없는 사람들이였다. 인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이를 뵈고싶어했다.

《왜 그분의 모습을 화면이나 출판물에 모시지 못하는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의혹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소개선전하고싶어하면서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 속을 썩이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7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후에도, 그해 9월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실 때에도 자신에 대해 출판보도물이나 강연에서 소개선전하는것을 엄하게 단속하시였다. 다음해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아버지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되신 후에도 그러한 만류는 계속되였다.

오죽했으면 이듬해 2월 15일에는 그이의 존칭사를 쓸데 대한 문제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정식 토의결정되기까지 하였겠는가.

그때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참석하지 않은 회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존칭사를 쓰는것을 완강하게 반대하시였다.

이런 실정이었으니 소개선전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주체64(1975)년 어느날 나는 당중앙위원회청사 구내에서 어깨를 떨구고 지나가는 김창호부부장과 마주친 일이 있었다. 황해제철소 자동화 때문에 오래동안 현지에 나가있던 그를 보고 반가와 손을 내미는데 그는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금방 육을 먹고 나오는 길ियो. 황철자동화가 완성된데 대한 보고를 수령님께 드리면서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관심해주신 결과입니다.〉라고 했다가 단단히 꾸중을 들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한번 그런 언행이 눈에 나타날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노여워하시는데 나는 정말 땀을 흘렸소.》

조세웅부부장은 어버이수령님께 70일전투정형을 보고드릴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는 말을 했다가 줄경을 치렀다.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노하시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한번 반복될 때에는 자신의 곁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최후통첩을 내리시였다. 문성술과 김중린도 그와 비슷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인민들의 마음속 부름만은 막으실수 없었고 신문, 방송보다도 더 큰 전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퍼지는 흙모와 칭송의 전설만은 어찌하는수가 없으셨다.

주체64(1975)년 6월 15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가 완공되였다.

6월 26일 이곳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날바다 한가운데로 쪽 뻗어간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인 대형장

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만족한 안색으로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초당 25m의 속도로 시간당 2 500 t 씩 하루에 5만 t 의 버력을 바다 한가운데로 실어날라 광산의 골치거리였던 버력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동시에 능금도의 안쪽바다에 한개 군의 경지면적과 맞먹는 새 땅을 얻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그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시종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가 바다로 3km정도 나갔는데 밀물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니 아주 굉장합니다.

지난날에는 무엇때문에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건설하여 버력을 실어나를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수령님께서 문득 서해바다가는 여름철에 해무가 자주 끼는것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참 날을 잘 잡았다고,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고 하시었다.

그제서야 수행한 일군들은 물론 그 고장 사람들도 사위를 새삼스레 둘러보았다. 능금도와 웅도, 청양도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게 참으로 쾌청한 바다날씨였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그곳 사람들이 이상한 천지조화를 두고 이야기했다.

《아닌게아니라 참 조화로군. 요즈음은 동남풍이 불 때라 영낙없이 해무가 끼군 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안개가 가뭇없이 사라졌는지. ...》

《그러게 말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언제 한번 해무가 걷힌 날이 없지 않았소.》

《아마 수령님께서 오신줄 서해통왕도 알았던게지.》

《아니,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소. 조직비서동지께서 날을 잘 잡았다고...》

《옳거니, 그분께서 잡아주신 날이거늘...》

사람들이 그이상은 알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좋은 날에 모시려고 기상수문국에 과업을

주시여 해무가 끼지 않는 날을 잡으시였고 수령님을 모시기 며칠전에는 몸소 현지에 오시여 나이많은 늙은이들까지 만나 바다날씨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는것을.

이날의 사연도 결국은 장군님께서 천기를 내다보신다는 신기한 전설로 변하였다.

그무렵에는 어딜 가나 온통 그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뿐이었다.

황해남도 은천군 초교리의 구석물이라는, 이름에서조차 그 옛날 가난과 은둔의 흔적이 력력한 외진 산골마을의 10여명밖에 안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사랑의 다리》가 세워진 이야기를 어찌 사람들이 전설로 옮기지 않을수 있으며 통학렬차, 통학빠스, 통학배라는 말들과 함께 이 나라의 철도성에 《통학렬차파》라는 류다른 이름을 가진 전문부서가 생겨난데 대하여 떠들지 않을수 있었으랴.

고기잡이나간 아버지를 기다려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만에야 돌로 굳어지고말았다는 자매의 눈물겨운 전설로 유명했던 남포앞바다의 자매도는 3명의 학생을 위해 학교가 생긴 때부터 더 유명한 섬으로 되었다. 자매의 옛 전설은 로동당시대의 사랑의 전설에 묻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렸다.

북계수역은 백암-무산사이 좁은철길우에 있는 자그마한 간이역이다. 하루에 서너번 《빠-엑》 하고 인클라인이 기적을 울리는 이 역에는 종업원이 4명밖에 없었다.

해발고가 너무 높아 먹을 물조차 다른 역에서 길어다 먹는다는 심심산중의 이런 외진 역에 주체60(1971)년 9월 사람사태가 났다.

철도성예술극장 배우들이 악기들을 둘러메고 북계수땅에 나타났다던것이다. 북계수역이 생겨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하면서 역종업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처음에는 립산사업소에 경제선동을 나오는 예술인들로 짐작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바로 자기들, 북계수역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하러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4명의 종업원을 위해 수십명의 예술인이 오다니...

극장도 회관도 없고 가설무대를 만들 시간도 없었으며 그들모두를 들여놓을 방조차 없는, 사방 100리에 태고의 수림만이 설레이던 이곳 역사 앞마당에 소개자가 나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을 이어 이 한적한 외진 철길초소를 누가 보든말든 말없이 충실히 지키고있는 북계수역의 종업원들과 가족 여러분! 어버이수령님과 당에서는 비가 와도 그렇고 날씨가 좀 추워져도 그렇고 동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그 소개자도 공개석상인지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이라고 할수가 없었다.

《우리 철도성예술극장 예술인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철도성 예술극장 예술인들은 도시에서만 공연하지 말고 인적드문 외진 수송초소들도 찾아다니며 공연하여야 한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철도성 예술극장 예술인들이 중앙예술단과 〈승벽내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소개자가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뉘어넘치던 그이의 존칭사를 꺼냈다.

《…그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성예술극장에서는 공연을 도시에서만 하지 말고 소편대를 무어가지고 철도일군들이 있는 산간지대에 가서도 하여야 합니다. …철도성예술극장 배우들이 백무선의 역들을 비롯하여 산간지대에 가서 공연도 하고 평양소식도 알려주면 그곳 사람들이 좋아할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철도성의 예술인들은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소편대를 많이 무어가지고 북계수역과 같은 외진 철도역을 찾아다니며 노래와 춤, 재담, 촌극 같은 소품들을 많이 공연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우리 철도성예술극장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에서 수지타산을 앞세우던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이렇게 조국땅 북변 외진 산간초소를 찾아왔습니다.》

북계수역의 철도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북계수역이 생겨 처음 보는 이 희한한 광경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것이라는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예술인들이 떠날 때 북계수역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예술인동무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올려주십시오. 이 산간초소는 영원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숨결로 뿜어내는 조국의 동맥이 될 것입니다.》라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리에서는 군관을 하는 여성관리위원장의 남편을 제대시켜 안해의 곁으로 가게 해주신 장군님의 조치를 두고 늙은이들이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기마련》이라는 말도 낡은것이 되어버렸다며 자식들이 살게 될 희한한 래일을 제나름대로 상상해 보고있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호소에 따라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6개년계획완수의 마지막돌격전을 벌리던 주체64(1975)년은 《사랑의 비행기》전설이 많이도 생겨난 해였다.

2월 11일에는 증산앞바다에서 표류하는 룡덕수산협동조합의 한 어로공처녀를 위하여 인민군대의 직승기들이 근 20시간이나 광란하는 밤바다우를 날으며 구출전투를 벌렸고 8월에는 온성군에 있는 상화청년탄광의 화상당한 3명의 탄부를 위해 비바람 사나운 날 평양에서부터 조국땅 북변의 한끝으로 비행기가 날았으며 그로부터 한달도 못된 9월 1일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청천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교각우에 갇힌 35명의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장-팔원사이 철다리공사장으로 사랑의 직승기가 날았다.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새벽공기처럼 청신하게, 만조의 물결처럼 그들먹하게, 봄날의 햇빛처럼 따스하게 그이의 인자하신 영상이 아직 한번도 뵈지 못한 인민의 마음속을 짝 채웠다.

197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동해바다가에 물고기풍년이 들었다. 김책과 신포, 통천을 비롯한 동해의 포구마다 명태무지가 산더미를 이루었다. 평양시는 말할것도 없고 별방과 산골마을 주민세대들에 까지 신선한 명태가 아름이 별게 차려졌다. 어찌다 마른명태나 절인 명태가 생겨도 귀물로 고이 간수했다가 제상에 올려놓던 내륙지

방 집집의 처마마다 명태젼미가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
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산골사람들과 별방사람들이 난생처음 제 손으로 명란젼과 창난
젼을 담가보았다.

바다가사람들이 그때 선생이 되어 그들에게 창난젼을 만드는 방
법도 배워주었다.

서해별방사람들의 밥상우에 명태대가리와 꼬리, 내장을 함께
넣고 끓인 맛갈스런 명태국이 오르고 립산마을사람들이 집에 찾
아온 손님에게 《집에서 담근건데 맛보시우.》 하며 창난젼을 흔
연히 올려놓게 되었을 때 이 전변을 두고도 사람들은 걱정에 겨
워 말했다.

《그분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오.
명태국을 끓일 때는 이렇게 대가리, 꼬리, 내장이 함께 들어가야 제
맛이 나니 산골, 별방에도 꼭 신선한걸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체60(1971)년 3월 15일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회소식을 두고 말하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지도하에 수산부문 일군들을 방청으로 참가시
킨 그 회의에서는 동해어장들에서 새로 창안했다는 명태랭동법이
문제시되였다.

회의가 열리기 3일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해의 어로공들
이 잡아들인 명태를 미처 처리할수 없게 되자 대가리와 꼬리, 내장을
따버리고 고기토막만 랭동하여 고기보관실적을 몇배로 올렸다는 새로
운 《예비안》에 대해 보고받으시였던것이다.

《그것이 무슨 예비입니까. 인민들은 명태국을 아무렇게나 끓여먹
어도 상관없고 자기들은 랭동실적만 올리면 된다는것인데 틀렸습니
다. 그것은 예비가 아니라 인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수산부문 일군들이 방청
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안타까이 말씀하시였다.

《물고기를 하루 한사람당 100g씩 공급하면 한가정을 다섯식구
로 보아 500g이나 됩니다. 명태 500g이면 2마리정도 되므로 하루에

한끼는 명태국을 끓여 먹을수 있습니다.

...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원인은 일군들이 인민생활과 나라살림살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데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물고기생산지와 소비지들에 다같이 뺑동설비를 시급히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리하여 그해 8.15를 맞으며 김책, 청진, 신포, 양화, 문천, 통천, 원산을 비롯한 수산기지들과 노동자구들이 집중되어있는 내륙도시들에 일제히 뺑장고들이 건설되었으며 주요수산기지들에는 철도인입선들이 놓여지게 되었다. 자강도와 황해남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도들에서는 동해안의 수산기지들에 가서 자기 도에 할당되는 명태를 보관할 뺑장고들을 건설할데 대한 지시와 함께 철도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를 운반하는데 쓰일 나무통과 싸리광주리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다.

처음에 그 일을 수산부문 지원이라고 단정했던 내륙지방 주민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보낸 나무통, 싸리광주리에 금방 바다에서 건져낸듯 한 신선한 명태가 담겨져 다시 돌아온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영문을 몰라했다.

그러나 인츰 전설이 뒤따라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친애하는 그분께서 발기하고 조직하신거라오.》

이 땅에서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던 나날 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신인하제1부부장의 집에서도 그런 전설이 태어났다.

어느날 동이 터올무렵 신인하제1부부장을 아빠트 현관앞까지 태워다주신 그이께서 차머리를 돌리려 할 때였다.

《간밤 꼬박 밝히다나니 저는 지금 막 쓰러질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들러 잠깐만이라도 쉬고 가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얼핏 손목시계를 보시고 《하긴 이제 집에 들어가야 잠도 오지 않겠는데 잠간 들렀다 갈가?》 하시며 차에서 내리시

였다.

장군님을 또다시 집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된 그의 안해는 식탁우에 무엇을 내놓을지 몰라 찢찢맸다.

그날 급하게 준비하여 내놓은 닭알볶음과 오이김치를 집주인들이 송구스러워할세라 맛있게 드신 그이께서는 문득 안주인에게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다 저쪽방에서 자고있습니다.》

《자식이 몇이라고 했던가요?》

《아들이 4형제이고 딸이 2명...》

신인하제1부부장의 안해는 어려움이 앞서 말끝도 변변히 맺지 못하였다.

이윽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께서 아이들 잠자고있다는 방문을 빠끔히 열어보시고 《곤하게들 자누만.》 하시며 별다른 말씀이 없이 출입문가로 향하시였다. 그러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집주인들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혹시 딸중에 앓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은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사실 딸이 3살 되던 때 3층베란다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뇌타박을 받고 심하게 앓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한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이웃들속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더구나 그 딸은 당시 먼 지방의 외가에 가있었다. 딸이 2명이라는 말밖에 들으신것 없는 장군님께서 어떻게 앓는 딸이 있다는것을 알아차리셨단 말인가. 신인하는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아들들의 자랑이야기가 끝난 후 딸들에 대해 말하는 그의 안해의 얼굴에 잠시 비졌던 어두운 색조를 간파하시고 장군님께서 대번에 알아맞히신줄을 그가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신인하제1부부장은 예술인들앞에서 《그분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기지 못하오. 그이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계시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이 사연은 곧 전설로 되어 온 나라 예술인들속에 흘러들었다. 사실은 전설을 낳고 전설은 또 새로운 전설을 낳았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열기는 우리 인민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해쓷는 바다처럼 설레이었다. 이 흠모의 열풍속에서 그이를 칭송하는 송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초에 예술인들의 선창으로 부른 가요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조직적인 보급이 없었으나 누구나 즐겨부르는 전인민적인 송가로 되었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아침에도,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웃을 때도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그렸고 그이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주체61(1972)년은 우리 나라가 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해였다. 제20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서부도이쉴란드주둔 미군사령부가 있는, 서유럽에서도 반공의 아성이라 불리우던 뮌헨에서 열리였다.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그곳으로 선수들을 찾아 모스크바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인 조명오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동무들!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이렇게 왔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으로 추대하였다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소식이요.》

그가 안고온 소식은 출전을 앞둔 우리 선수들을 격동시키였다.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부르고 또 불렀다.

올림픽무대에 처음 출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호준선수가 600점 만점의 사격경기에서 599점이라는 기적적인 점수를 받고 뮌헨의 상공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린것도 이때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아버지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받들 어모셔야 한다는 력사의 요구와 시대적환경은 이렇게 당의 결정이나 선전수단으로가 아니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먼저 성숙되어가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해주실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편지가 당중앙위원회와 항일혁명투사들앞으로 하루에도 수천통씩 날아들었다.

그것은 더이상 막을수도 미룰수도 없는 우리 인민의 절박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신 후에도 그이에 대한 전설은 끊임없이 태어났다.

주체63(1974)년에 평양에서는 룡양광산 7호굴착기영웅소대 소대원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수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전해에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들모두를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휴식을 하도록 해주시었을뿐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되어오자 어버이수령님의 명의로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이날의 선물전달식장에서는 그들모두의 앞가슴에 영웅메달을 달아주던 날보다 더 사람들을 울린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소대원들은 물론 그의 안해들과 자식들까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선물증서와 선물을 받아안았다. 그런데도 선물전달자인 당시 직총중앙위원회 김정숙부위원장의 손에는 아직도 두장의 선물증서가 그냥 남아있었다.

《김필환동지와 신영건동지.》

김필환과 신영건은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서 또다시 주석단으로 걸어나갔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그들은 당중앙이라는 말이 곧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의미하는 호칭임을 모르지 않았다.

《…이번에 영웅소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줄 선물명세를 놓고 혹시 빠진것이 없겠는가 하나하나 료해하시다가 인차 태어나게 될 아이들도 있지 않겠는가 알아보도록 하시였습니다.

소대장 김필환동무와 신영건동무의 아주머니들이 인차 해산을 앞두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당중앙에서는 태어날 새 생명들의 뒤통까지 선물을 안겨주도록 세상에 없는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이 선물증서에는 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떠나간지 오래여 기억에도 삭막해진 전사들의 위훈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그 자식들의 앞가슴에 금별의 메달을 달아주시더니 오늘은 또다시 태어나지도 않은 새 생명들에게 따사로운 태양의 축복을 안겨주시니 《그이의 품에 호적도 올리기 전에 받아안은 사랑이 이럴진대 이제 그 품에 안겨 한생을 살며 받아안을 사랑은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라는 걱정이 어찌 인민의 심장속에 메아리치지 않을수 있었으랴.

선물증서에 김영수와 신광옥이라는 이름이 올려진것은 그로부터 몇달후였다. 복받은 아기들이 태어났던것이다.

주체66(1977)년 4월 15일을 맞으며 온 나라의 전체 학생소년들에게 새 교복과 학용품이 일시에 전달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 60평생에 기쁜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요!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이요!》 하시며 오랜 시간을 바쳐 새 교복을 입은 연풍고등중학교(당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신 그해 4월 선물전달식장마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나어린 학생들의 감사의 인사와 인민의 진정에 넘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그해 년초 어버이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온 나라의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일시에 새 교복, 새옷을 입힐수 없겠는가 하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자금도 자금이라니와 시일이 촉박하였다. 불과 100여일밖에 남지 않아 자재확보와 제작은 말할것도 없고 수백만에 달하는 학생소년들에게 일시에 꼭 맞는 옷을 해입히자면 몸치수부터 재야 하기때문에 그것만 해도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는지 짐작할수 없었다.

바로 그때 이 사업을 당에서 맡아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사실 4.15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은 방직, 피복을 비롯한 경공업분야뿐만아니라 무역, 전기, 석탄, 수송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모두 망라되어야 하는 대련합작전이였다.

그이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우선 아이들의 몸치수를 재는 사업을 빠른 시간에 끝낼데 대해 지시하시였다.

하여 열명도 안되는 외진 섬마을아이들의 몸을 재기 위해 특별사업조가 배를 타고 떠나가고 별방지대 아이들보다 발등이 넓게 생긴 산간지대 아이들을 위한 특수형의 신골이 새롭게 제작되였다.

부모들을 따라 외국대표부들에 나가있는 아이들의 옷호수와 신발문수를 요구하고 그에 답변을 주는 국제전보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오가게 되였고 귀국선이 닻을 내린 항구들에서는 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자녀들에게 재단사들이 달려가 몸부터 재는 희한한 광경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마련된 선물전달식장들에서 연단으로 달려올라간 토론자들이 심장의 분출을 견잡지 못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을 토로하였다.

선물전달식이 진행된 뒤 당중앙위원회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를 드리는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올라왔다. 그 편지들속에서 황해남도 웅진군에 사는 한 할머니가 써보냈던 편지의 글줄이 잊혀지지 않는다.

《저의 남편은 나라에 죄를 짓고 남으로 나갔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저와 자식들에게 한번도 죄를 묻지 않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저의 자식들을 대학공부까지 시켜 기술자로 키워주시였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여느 애들과 똑같이 탁아소, 유치원에서 안아키워주시고 인민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아무런 차별도 없이 사랑의 선물옷을 안겨주시고 사진사들이 집에 찾아와서 기념사진까지 찍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정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은 나라에 죄를 짓고 탄식속에 모대기던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따듯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품입니다.》

그 편지봉투안에는 한장의 사진도 함께 들어있었다. 할머니의 손

자, 손녀 5형제가 선물옷을 받아입고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장면을 찍은것이였다.

사진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4월 1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를 조직하시고 선물수여정형에 대하여 총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 30여년동안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왔지만 오늘과 같이 큰 승리를 이룩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이 터뜨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소리는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찬가였으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시련도 고난도 주저없이 뚫고나가리라는 충정의 맹세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전설은 이 나라의 지경을 벗어나 대륙과 대양너머에도 울려 퍼졌다.

주체63(1974)년 12월 우리 나라 무역선 《혁신》호의 두 선원을 위해 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생명구출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인디아양을 넘어 온 세상에 퍼져갔다.

주체67(1978)년 9월에 세계는 우리 장군님의 인간애와 뜨거운 인정미를 전하는 또 하나의 전설적이야기를 접하게 되였다.

그해 9월 4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나라 동해수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보가지잡이를 하던 일본어선 《고후꾸마루》호가 단속되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국제법상견지에서 보면 주권국가의 령해를 불법침입한 그 배는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있었고 경중에 따라 감금, 벌금, 배와 재산몰수를 당하게 되어있었다.

죄를 지은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 세계의 통신, 언론들도 《적대국으로 되어있는 일본어선의 령해침범이 조선의 판대처분을 바라기에는 그 희망이 너무도 희박》한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어선의 어민들은 처벌은커녕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자기 나라에서도 몇년동안 고치지 못하고있던 속탈도 고치고 이발까지 해넣었다. 9월에는 초청을 받고 우리 나라 공화국창건경축행사에까지 참가하였다.

우리측의 인도주의적조치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어민들은 부두에 나서자 꿈같은 현실에 접하였다. 배가 새것처럼 미끈하게 수리되고 선창에는 보가지가 가득 실려있었던것이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꼭 고기를 한배 싣고가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에서 누려온 그 황홀했던 나날들이 바로 조선인민모두가 《친애하는 지도자》로 칭송하여마지 않는 김정일지도자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른것임을 알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들은 우리 조국땅 해안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갑판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를 합창하였다.

처음 일본어선이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일본돈 5천만푼을 주기로 하고 고기배를 샀으나 돈이 모자라 아직 4천만푼밖에 물어주지 못한 형편이라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령세어민들이구만.》

그이께서는 물론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물고기잡이를 한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진실로 사죄하였으면 그들을 따듯이 대해주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세상에서 항상 맘을 조이며 살아왔을 그들인데 다른 문제가 없으면 9.9절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것만큼 구경도 하고 가도록 하면 좋아할것이라고, 그동안에 그들의 배도 새것처럼 수리해주고 돌아갈 때는 꼭 보가지를 한배 채워보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었던것이다.

그해 9월 일본은 물론 세계의 이름있는 통신, 방송들은 온통 그 이야기들을 대서특필로 보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서술한 도서 《인민의 지도자》(1)의 원고가 탈고된것은 1970년대 말엽이었다.

그때 나는 원고가 탈고되자마자 서둘러 책을 인쇄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하였으며 도서가 발행되면 즉시에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여 출판할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책이 한창 인쇄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나를 방에 부르신 그이께서는 왜 이런 책을 찍었는가, 누가 책을 만들라 하였는가고 질책하시면서 《**찍어놓은 책들을 모두 소각하시오.**》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그이의 노여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얼마후 나는 다시 도서를 출판하겠다는 문건을 올리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제의서가 올라가자마자 《**…인쇄 일체 하지 말것.**》이라는 친필로 그 제의서를 부결하시었다.

(언제까지나 그이께서는 자신에 대한 소개선전을 금할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있겠는가. 날에날마다 새라새로운 그이의 전설을 만들어내는 인민들에게 우리 출판선전일군들은 언제까지나 《**밥먹고 뭘하는 사람들인가.**》라는 비난을 받고있어야 하는가. 설사 비판과 책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도서의 출판배포를 강행하리라.)

이런 결심을 굳히고있던 바로 그날 오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를 부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더러 어디 다녀올데가 있으니 차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아가시었다. 어째서인지 꼭 꾸중을 들을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 예감을 틀리지 않았다. 차가 얼마쯤 달리었을 때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타이르시었다.

나에 대한 글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해놓은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도와 우리 인민이 한것이지 나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니 글을 쓰려면

수령님에 대한 글을 써야 하고 우리 인민에 대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동무도 알겠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인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이상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서 《인민의 지도자》를 인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책을 찍을 종이가 있으면 그것으로 학생들의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찍어 그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몰래 인쇄한다면 그때에는 조직의 의사를 거역한것으로 보고 문제를 크게 세우겠습니다.

그이의 결심은 너무도 확고하고 완강하였다.

이렇게 되어 도서 《인민의 지도자》는 원고가 완성된지 몇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나올수 있었다.

10여년세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화면에서 뵈옵기를 그리도 고대하던 우리 인민은 전설의 70년대를 넘어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열린 그날에야 텔레비죤화면에서 드디어 그이를 뵈올수 있었다.

그때 우리 인민은 전설을 통하여 너무도 깊이 심장속에 새겨진 그 모습, 너무도 낮익게 안겨오는 친근한 모습을 첫눈에 알아보고 《저분이시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라고 마음속으로 한사람같이 부르짖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보도기사가 처음으로 신문에 실린것은 70년대를 넘어 8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주체70(1981)년 6월 4일 《로동신문》은 1면 상단 오른쪽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가 묘향산지구를 실무시찰하시였다》라는 제목을 달고 그이께서 묘향산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다는 기사를 실었다.

불과 몇줄밖에 안되는 그 짧은 기사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설로 그리움을 달래던 인민에게 준 대답이었다.

1. 초행길을 함께 걸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의 마지막날인 주체63(1974)년 2월 13일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몹시 흥분하신 표정으로 집무실로 돌아오시였다.

나(최영림)는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수령님께서 서기부터 찾아 그 사이 제기된것이 없는가를 문의하실것으로 생각하고 보고자료들을 준비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문의도 하지 않으시였을뿐아니라 《오늘 전원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토의됐소. 이자 김일동무랑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우리 혁명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해놓았소.》라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20대 홍안의 시절부터 친위중대원, 부관으로서 최고사령부와 한가마밥을 먹으며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고 10여년세월 수령님을 모시고 책임서기로 사업하였지만 나는 그날처럼 기뻐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온적이 없다고 생각된다.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의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뇌부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력사적인 회의로만 새겨져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 수령님께서서는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의 첫날 보고를 매우 비장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당내 형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그때 당중앙위원회의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와 같은 당중앙위원회를 가지고서는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승리할수 없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를 우리와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같은 숨을 쉬며 죽어도 같이 죽고 싸워도 같이 싸워 승

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

전에는 우리가 단결을 목적으로 각당, 각파를 다 그러안고 불가피한 외교도 하였지만 당이 창건된지 30년이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는 더이상 외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목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우리 당에서 나가야 한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라는 혁명가요의 구절까지 인용하시였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와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겪으면서 우리 혁명이 다시금 절감한 교훈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를 맞이한 우리 당앞에는 100여년에 걸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주체적당건설의 초행길이 놓여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길을 김정일동지께서 헤칠것을 요구한것이 그날의 전원회의였다고 후날 수령님께서 감회깊이 회고하신적도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적전환기를 펼쳐나가야 할 사명을 무겁게 받아안으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동안 당중앙위원회에서 뜻을 같이해온 동지들부터 찾으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축하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지가 없이는, 충실한 전우들이 없이는 그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큰 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기에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동지들을 가장 아끼시고 그들의 도움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계신다. 나는 동무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영원히 충정다하리라 믿는다....

《김일성전집》 제48권에 수록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하신 연설 《혁명적단결은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는 원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신 연설이다.

수령님께서는 그 연설에서 자신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는 열다섯살까지 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동지들속에서 살아왔다, 지하투쟁을 할 때나 무장투쟁을 할 때나 해방후 새 조국을 건설할 때나 언제나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으며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오늘 예수살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나는 나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단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요인 이라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물론 부모의 사랑도 귀중하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주로 자식들을 육체적으로 키우는데 돌려지는 사랑이다, 동지들의 사랑은 사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 고무하고 격려하며 호상 투쟁하여 혁명적단결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혁명투쟁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40여년동안의 혁명투쟁과정에 도덕과 의리에 기초하여 이룩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단결을 끝까지 고수하여나갈것을 여러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연설과 동지가 없이는, 충실한 전우들이 없이는 그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큰 위업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그 뜻과 신조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진리에 기초하고있었다.

혁명=동지이고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진리였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실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심장깊이 새기신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동지를 얻을수 있다는 진리가 조선혁명의 전미천이었다. 제국주의가 온갖 물리적힘을 다하여 인민의 존엄을 짓밟을 땅크와 대포를 만들어내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동지들을 낳았다.

첫 세대가 항일혁명투사들이였다. 그들은 그 어떤 학술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실체힘을 통하여 당과 혁명은 곧 김일성동지라는것을 새겨안은 사람들이였다.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때 당과 국가의 요직에 틀고앉아 당내 민주주의요 뭐요 하면서 수령님께 도전해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항일혁명투사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너희들이 입만 벌리면 당, 당 하는데 우리가 산에서 어떻게 싸운줄 아는가. 우리는 김일성동지만을 믿고 싸워왔다. 이 믿음이 바로 당이고 혁명이다.》

우리 혁명은 발달하는 생산관계속에서의 모순과 그를 해명한 철

학들이 가져다준 힘만으로도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매혹에 기초한 동지애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왔다.

하기에 당대의 철학저서를 읽고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이 투쟁을 중도반단한 례는 있어도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모래판에 《혁명》이라는 첫 글을 쓰며 성장한 사람들이 투쟁을 포기한 례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사상의 일색화, 령도의 유일화가 실현되던 나날에 당중앙을 중심으로 받들고 보좌해온 동지들의 삶을 값높이 추억하여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라고 불러주시였다. 그 부름속에는 주체적당건설의 초행길을 함께 걸은 동지들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그러나 주체63(1974)년 2월 13일 밤 장군님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가야 할 혁명의 먼길을 두고 가슴을 울렁이던 일군들은 그때 자기들의 삶과 이름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라는 값높은 부름속에 빛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을것이다.

이제는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곁에 1970년대를 회억할만 한 일군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신인하, 리창선, 리찬선, 김형원, 진철종, 박승수, 리성복, 문성술, 리경선, 리명제, 조세웅, 리제강, 김치구, 권민준, 박민수, 최철웅 등 많은 일군들이 우리곁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우리 당력사와 혁명발전에서 가장 책임적인 시대를 영광스럽게 걸어온 그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르곤 한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당시 나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때 선전선동부에서 장군님의 사업을 많이 보좌한 사람은 신인하부부장이었다.

나는 1960년대부터 그와 한아파트에서 살았다.

신인하는 해방후 구성농업학교가 중학교로 개편되자 거기서 학생민청위원장을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영향하에 있던 교장의 눈을 피해 주체36(1947)년 1월에 비밀리에 입당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이 선포되던 해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해방

전 여덟자식 낳아 네 자식을 굶겨죽여야 했던 가문에서 대학생이 나왔다고 울고불며 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 얻어온 짹짹이 고무신을 신고 평양에 올라왔다는 사람이 신인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전선에 탄원하였다. 당시 평양시 북구에 자리잡고있던 제1군관학교에서 단기군사강습을 마친 그가 기관총소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우연이기는 하지만 후날 당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사업한 김형원도 같은 시기 이 학교에서 군사강습을 받고 박격포소대장이 된 일군이였다.

물론 그때에는 서로 인연이 없었다.

전후 대학에 와 졸업한 다음 주체44(1955)년 27살의 나이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이 된 신인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벌써 부부장의 직무에 있었다. 그가 1960년대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상급이였던 김창만, 김도만때문이였다.

말하자면 김도만의 입김이 더 가까이 와닿던 때였다. 그런 때 자칫 정신을 흐트리면 김도만에게 통락되기가 십상이였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헛눈을 팔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때 김도만이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자료적으로 보고드린 사람이 신인하였다. 그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보름 앞두고 당총회가 열리였다.

당총회를 준비할 때 보고서를 한상규부부장이 썼는데 그는 당내에 나타난 반당수정주의적책동들을 비판하면서 《일부 일군들》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그리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장군님께 보고서초안을 보여드리며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간청올렸다.

그이께서는 보고서초안을 심중히 대하시였다.

《이 〈일부 일군들〉이란 누구들입니까?》

한상규부부장은 쉬이 대답을 못 드렸다. 당내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어서 차마 지명을 못하고 에두른 표현이였던것이다.

《알만 합니다.》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보고서우에 주먹을 박으시였다.

《박금철, 김도만이라고 찍어야 합니다.》

찍어야 한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김도만은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은 서양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응접실도 없고 코구멍같은 단칸방이다, 거기서 먹고 자고 아이들이 변까지 보는데 어떻게 그런 비위생적인 장소에 초상화를 모시겠는가고 하면서 가정들에 모신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두 내리우라고 하였다. 문제가 제기되자 김도만은 내가 언제 그랬는가고 하면서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김도만이라는 인물이 원래 그렇게 표리부동했다.

내가 국제부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 김도만의 외국방문과 관련하여 문건들을 만들어간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보고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이걸 동무가 썼소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자 어디서 뭘하다가 왔는가고 물었다.

내가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왔고 친위중대출신이라고 대답하자 김도만은 대변에 낯색이 달라져서 《그쪽사람이였군.》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도만은 외국방문을 가셔도 여러차례나 발언문을 무시하고 마음내키는대로 일장연설을 벌려놓아 물의를 일으키고도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던가고 아닌보살을 하였다.

장군님께서 김도만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명이나 만나 보시였지만 들은것 같기도 하다, 듣긴 들었다,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다. 지금세대들에게는 놀랍게 들릴지도 모르나 그때로서는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의 신분을 지니신 그이의 물으심에 솔직한 대답을 드리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부부장, 부장으로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가며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 당 기초축성의 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셨던지 장군님께서 1970년대 중엽 이때를 회고하여 나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때 일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반당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당의 통일을 수호할수 있는것은 오직 수령님의 덕분입니다. 원래 당조직이 먼저 그것을 간파하고 수령님을 도와드려야 할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청맹파니노릇을 하

다나니 당은 그때 수령님을 크게 도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수령님께서 당을 구원하시고 일군들을 건져주시었습니다. 전쟁시기에도 수령님께서서는 당조직의 덕을 크게 보지 못하시고 혼자서 전쟁을 령도하시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제일 가슴아프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수령이 창건한 당이 수령의 위업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짐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것을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속에 깊이 남은 상처 자욱처럼 한생토록 잊지 않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날의 교훈을 상기시키시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196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매 걸음걸음마다 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고심을 겪으셔야 했고 소박한 편수책상우에 놓여진 탁상등이 달아올라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밤을 밝혀가며 일하시었다.

장군님과 김도만의 발언과 관련한 담화를 나누지 3일만에 눈이 툭툭 부어오른 신인하가 사업수첩을 들고 나타났다.

거기에는 김도만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것이 적혀있었다. 몇줄 안되는 그 자료를 찾아내느라고 술한 책들을 뒤지며 께박 이틀밤을 새운 신인하부부장이 나타나자 그이께서는 그의 손부터 짹 틀어잡으시였다고 한다.

그 자료보다도 진실한 인간을 찾은것이 더 기쁘시였던것이다. 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사업일지를 쓰기 시작한것이 아마 당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는 후부터였을것이다. 그러나 신인하부부장은 그전에도 회의에 참가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자기 수첩에 써넣곤 하였다.

그 일까지 겪고나서 내가 신인하에게 부부장동무는 누구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밝은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는 웃으면서 《마음고생을 벗어놓으니 눈이 밝아진것 같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였다.

주체55(1966)년 12월에 영화예술부문에서는 리효순의 《지시》에 따라 《어둠을 뚫고》라는 계급성이 모호한 예술영화를 만들어 시사회에 제출한 일이 있었다.

뜻밖에도 그 시사회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영화가 끝나자 심중한 안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신 수령님께서는 《세상에 별난 영화를 다 보는군...》라고 하시며 출입문쪽으로 나가시다가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결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영화창작을 직접 발기하고 《지도》한 리호순도 있었다.

잠시후 휴게실에 창작가, 일군들이 모여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방금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은 한순간도 결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 정신이란 오직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정신입니다.》

여러해가 지난 후에도 신인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를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기억하고있었다. 심장에 적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을것이다. 그는 장군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순간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이라는것이 돌연 사라지는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이 똑똑치 않은 신념에서부터 생겨난 번민이었다는것을 깨닫고 눈을 똑바로 뜨니 온갖 허상이 사라지고 이것저것 눈치볼 일도 없어지더라는 것이였다.

신념문제, 바로 그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2(1973)년 2월 16일 일군들에게 사상적추진에서 나와 동무들은 우리 당 청사에 나뉘기는 붉은기처럼 하나로 일색화되여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당 청사에 나뉘기는 붉은기처럼!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이 혁명적단결이야말로 참다운 동지애를 이루는 핵이였고 우리 당 기초축성의 출발점이었다.

이 나날에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여기에 우리 당 력사에서 찾아볼수 있는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

으며 1970년대 일군들의 남모르는 고충도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철저히 불허하시였던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있는 후 일군들속에서는 그이를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불러오던 존칭을 정식으로 사용하며 공식문건과 출판물들에도 그렇게 표기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때문에 그런단 말이요. 그저 **김정일**비서, 조직비서라고 부르면 되오.》라고 밀막으시였다.

주체64(1975)년 2월초 그이께서 문성술부부장의 사무실에 찾아 오시였다. 문성술은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존칭사문제를 다시 말씀드렸다.

여러번 부결하셨던 문제인지라 이번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라는 전제까지 달아서 말씀드렸다.

《지도자라, 친애하는 지도자라…》

《예. 이제는 더이상 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인민들도 모두 그렇게 부르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 믿음과 기대는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다는 말은 친근하고 사랑한다는 뜻인데 우리 인민이 나를 친근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로 부르면 그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시였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뜨겁게 젖어있었던지 문성술은 더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을 때 한 일군이 자기의 토론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존칭사를 썼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이에 대한 존칭사를 토론문에 올린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것이다. 장내에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앞길에 영광을 주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폭적인 존경과 흠모의 분출이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대적분위기에 맞추어 그이를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로 공식 부르고 표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를 전달하는 지시문을 내려보내려고 하였다.

이 지시문작성을 장군님께서 멈춰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나를 친근하게 부르면 됐지 무엇때문에 지시문같은것을 내려보내려고 하는가, 당내 문건들과 강연제강 같은데서도 지도자라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단단히 못박으시였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머리를 숙인 일군들은 비판이 아니라 그 집행때문에 괴로와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상심한 그들을 달래시느라 그저 조직비서 또는 김정일동지라고 부르면 되오, 그렇게 부르는것이 오히려 정답고 좋소, 그저 김정일동지라고 부른다고 하여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소라고 량해까지 구하시였다.

《내 말을 명심하고 절대로 편향을 범하지 마시오.》

그러나 《편향》은 계속 나타났다.

언제인가 리창선, 김형원, 장춘섭을 비롯한 일군들이 장군님께서 모르시게 촬영을 시도했다가 혼썰난적이 있었다. 그들은 장군님께서 예술영화촬영소 당원협의회를 지도하러 나오시는 기회에 그이의 영상을 화면에 모시기로 하고 촬영가들까지 선발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모험이나 같았다.

장군님께서 아시는 날엔 어떻게 될지 몰랐던것이다.

그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구식사진기조차 구하기가 어려워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을 얼마 남기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눈앞에 뻔히 촬영기까지 세워놓고서도 그이의 혁명활동력사를 후세에 전하지 못한다면 무슨 체면이 있겠는가, 객석에 숨어서라도 그이의 영상을 화면에 모셔야겠다고 토론하고 촬영가들을 몰래 회의장에 들이밀었다. 그런데 10분도 안되어 촬영가들이 모두 밖으로 밀려나왔다.

《벌써 다 찍었소?》 하고 리창선이 물었다.

《찍는게 다 됩니까. 그이께서 얼마나 엄한 표정을 짓고 바라보시

는지 손이 굳어지고 다리가 다 떨리던데요.》

《한심들 하오. 그럼 그이께서 어서들 찍으시오 하고 웃어주실 줄 알았소? 휴식시간에 다시 들어가요. 표가 나게 따로 몰려있지 말고 객석에 끼여있다가 기회를 택해보시오.》

이번에는 회의장에 놓은 마이크를 통해 《동무들이 또 무슨짓을 하려는겁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라는 장군님의 엄한 음성이 울려왔다.

회의휴식시간에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왜 필요없는 일을 계속 조직하는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고 호되게 추궁하시였다.

그날 제일 혼난 사람은 아마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장이었던 리창선일것이다.

당시 문학예술부문에서 장군님을 우러러 부른 소박한 첫 존칭이 바로 《웃분》이였다. 평범하면서도 정이 흐르는 그 부름이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전인민적인 존칭사로 되기까지 근 10년 세월이 걸렸다.

주체80(1991)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에게 내가 처음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할 때 리창선동무가 나를 적극 옹호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나를 처음에는 〈웃분〉이라고 부르다가 다음은 경모하는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라고 회고하시였다.

함경남도 요덕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리창선은 13살에 어머니를 잃고 운곡탄광에서 탄도 캐보고 흥남의 공장에서 카바이드도 구우면서 모질게 살아남아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의 경력에서 특이한것은 전쟁시기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중앙경위련대 정치부 책임지도원, 부련대장으로 복무한것이다. 그는 최고사령부를 따라서 고산진까지의 후퇴도 겪었고 건지리에서의 대폭격과 반당반혁명간첩도당들, 사대주의자들, 비겁분자들의 죄행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였다. 가장 준엄한 시기에 당과 혁명의 역사를 최고사령부가 가까이에서 체험할수 있는것은 그의 한생에 큰 밑천으로 되였다.

언제인가 전쟁시기 체험중에서 제일 강렬하게 남은것이 무엇인가 고 묻는 자식들에게 그는 《김책부수상을 잃고 비분에 눈물을 흘리시던 수령님을 뵈옵던 때였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나 역시 그때의 일이 눈에 선하다.

발인에 앞서 김책부수상의 령구앞에 앉아 《술을 가져오라!》고 웨치시던 수령님의 존안에 흘러내리던 눈물을 어떻게 잊을수 있겠는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 전조등도 켜지 못하고 김책동지의 령구를 호송하였다. 친위중대원들이 백포를 쓰고 앞에서 걸으면 자동차운 전사들이 그것을 보고 어림짐작으로 차를 운전하며 따라왔다. 눈보라가 어찌나 세찼던지 눈물이 흘러내리다가 두볼에 얼어붙는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날 쌓아올린것이 빈 봉분뿐이었다는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썩 후날 김책동지의 령구가 공개된 장지가 아니라 덕천고갱속에 안장되어있었다는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은 참으로 컸다.

리창선은 자주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때 참다운 혁명, 진짜동지애를 배웠다. 우리 수령님께서 준엄한 나날에 새겨가시는 동지애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혁명전사로서의 삶을 행복한 날보다 준엄한 날에 놓고 사는것이 영광이며 한생을 그렇게 살리라고 마음다졌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주체51(1962)년경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총화사업때 나는 리창선과 같은 조에 속하여 함경남도에 나갔었다. 책임자는 김창만이였고 부책임자가 당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였던 리창선이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김창만은 농사를 짓는데 무슨 정신이요, 방법이 따로 있는가고 잡소리를 치면서 도에 틀고앉아 밤낮 송아지국만 퍼마셨다.

위낙 성격이 불같았던 리창선이 그 꼴을 보다 못해 어느날 김창만과 벼락같이 싸웠다. 김창만은 웬간한 부부장, 파장들을 보고는 이놈, 저놈 하면서 기갈을 부리기가 일쑤였는데 그때만은 얼마

나 혼곶했던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와 《부책임자와 의가 맞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영을 제기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정확한 반영이었다고 본다.

어떻게 《의》가 맞을수 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을 배우고 신념을 키운 사람들속에는 날마다 《쁘라우다》를 들춰보며 거기서 조선인민이 나갈 길을 《모색》하느라 애쓰던 사람들도 없었고 남의 나라 혁명근거지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지낸 과거사를 내세우면서 찍하면 당에 《잔소리》를 하고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지금은 큰 대학을 두세개씩 나온 사람들도 많지만 당시 일군들의 리력서를 펼쳐보면 소학교졸업, 중학교중퇴, 당학교 몇개월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혁명을 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언제나 최대마력을 내어 일하였다.

그때는 과장들도 차 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도원들은 물론 걸어다니며 사업했고 부부장들도 두사람이 한차를 리용했다. 그래도 언제 한번 힘들다거나 사업조건이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장군님께 쏘리는 엄청난 사업부담을 더 걱정하였다.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과단위까지 문건을 올리다니니 장군님의 사업부담이 대단했다.

한번은 선전선동부에서 과장을 하던 조경환이 문건을 산더미처럼 안고 다니는것을 보신 장군님께서 힘들겠는데 자전거라도 타고다니라고 하시며 자전거를 보내주시었다. 그들은 한동안 그 자전거를 타고다니면서 일을 보았다.

그러나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녔던 가장 중요한 특질은 그저 낮과 밤이 따로없이 열심히 일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는 오직 수령님과 장군님밖에는 누구도 몰랐다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4(2005)년 1월 9일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우리 일군들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에서 이렇게 회고하시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당의 방침을 제때에 끝까지 관철하는 불같은 열정과 높은 사업의욕, 견결한 당적원칙성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녔던 기본특질이였습니다. 나의 곁에 이런 믿음직하고 충직한 일군들이 있었기에 1970년대에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이룩되었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아직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가 인민들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던 1970년대초에 벌써 그이의 혁명력사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검덕의 광부들을 찾아가 친애하는 그이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출연하는 녀성일군도 있었다.

강연회날 회관문짝이 다 떨어져나갔다고 한다.

친애하는 그이에 대하여 한가지라도 더 알고싶어하는것은 산골사람들이나 도시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지방인민들은 평양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뭐나 다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무렵에 신인하부부장의 발기로 평양교예단 배우 강정숙이 쓴 첫 덕성실기가 나왔다. 그것을 가지고 리창선, 장춘섭을 비롯한 일군들이 문학예술부문에서 먼저 조심스럽게 록음강연을 조직했는데 그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선전선동부가 성화를 받게 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에서까지 록음강연을 해달라고 제기하여왔다. 해당 부서에서는 선전선동부에서 보관하고있던 록음강연테프를 가져다가 당내에서 강연을 조직하였다. 강연은 더없이 잘되었지만 그것을 조직한 일군들은 련이어 위대한 장군님앞에 불리위가 된 추궁을 받았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중의 한사람인 조경환의 회상에 의하면 신인하부부장이 비판을 받은것은 물론 직접 부서에 찾아와 록음강연테프를 가져간 일군은 장군님의 집무실에 불리위가 엄한 추궁과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온몸이 땀주머니가 되어 그이의 집무실을 나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말씀이 계셨는가고 묻자 그는 단마디로 《난 출당이요.》라고 대답하였다.

록음강연사건으로 얼마나 노하셨던지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에게 동무는 당원자격이 없소, 출당까지도 각오하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결에서 위로하려 들자 그 일군은 말하였다.

《그래도 난 행복하오. 영광스럽소.》

이것은 비단 어느 한두 일군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진정이 아니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로 건립하는 사적비에 장군님의 존함을 모시고 준공식까지 준비하고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장군님께서서는 당장 사적비 건립을 중지시키라 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을 파견하시였다. 그것도 승용차가 아니라 기중기차에 태워서 불도젤까지 따라보내시였다.

강선은 그야말로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당의 결정지시를 한번도 어겨본적 없는 강선사람들이건만 《로농적위대 폭풍!》구령을 울리고 당책임일군을 위시로 한 로동자부대가 완력으로 불도젤을 막아나섰다.

결국 사적비건립을 중지시키라는 장군님의 파업을 받고 내려온 일군이 물러서는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였다. 강선사람들은 그후에도 오래동안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가림천을 씌운 사적지주변에서 경비를 섰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번져졌던지 수령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나에게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다지 모질게들 그러는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좋기는 수첩장에다가 비문내용을 그대로 베껴오라고 이르시였다.

내가 돌아와서 비문내용을 읽어드렸더니 수령님께서서는 《비문이 좋소. 조직비서가 나와 함께 여러번 강선에 다녀온것도 사실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적비에 사실을 적은것이 원칙과 어긋날거야 없지.》라고 하시였다.

그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큰 숨이 나갔다.

원래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당의 평도를 충실히 받드는것은 좋

지만 과도한 창발성으로 소리를 내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데 대해서는 경계하시였다. 인민의 지도자가 인민의 마음속에 들어서는것은 회의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자신이 지니고있는 사상적, 인간적, 령도적자질에 의한 필연으로 진행된다고 보시였다.

《설사 누가 그를 내세워주지 않아도 그는 제 실력으로 동무들이 바라는 그런 위치에서 그에 어울리는 임무를 능히 감당할수 있을것ियो. 나는 이것을 믿소.》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체62(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하신 말씀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주체84(1995)년 10월 11일 당창건 50돐을 성대히 경축한 다음날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는 웅심깊은 의도를 지니시고 나를 키우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내가 재발로 올라가는데 왜 옆에서 부채질하는가고 하시면서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게 가만놔두라고 하시였습니다.》라고 회고하신바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체65(1976)년 12월 17일부터 금수산의사당에서 집무를 보시였다.

나와 일군들이 아침 7시경에 출근을 하면 정원에서 산보를 하시던 수령님께서 우리의 인사를 받고 그냥 걸으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거나 지시를 주곤 하시였다.

한번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그전에 조직비서를 너무 내세운다고 사람들을 비판한 일이 있소. 비판은 했지만 그들이 괜찮소. 내가 20대소리를 듣던 때가 생각나오. 우리 조직비서도 나처럼 사람복이 있는것 같소. 말이야 바른대로 그런 동지들이 있으니 일을 하지 독불장군이라고 혼자서야 무슨 용빼는 재간이 있겠소.》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을 자신의 초기혁명활동시기 동지들과 비교하여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다.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구호는 1980년대에 나왔지만 그 정신은 이미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가슴속에 든든히 자리잡고있었다.

주체64(1975)년 3월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몇몇 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여 오늘 협의회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들이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나의 의도를 비서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 작성하신 강경한 지시문이 채택되도록 비서들을 납득시키는 데서 목소리를 합쳐달라는 말씀이시였다.

그 시기 우리 인민들은 누가 지시한적은 없지만 스스로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가정에 모시기 시작하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사무실에 초상화를 모시고 사업하는 일군들이 계속 늘어났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에 대해 몇번이나 주의를 환기시키시였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비판이 좀처럼 먹어들지 않았다.

온성군을 현지도하실 때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조국땅 한끝에서까지 자신의 초상화를 모신것을 보고 몹시 놀라시였다.

당시 함경북도당 책임비서가 김치구였다.

그를 불러다가 《이번에 온성에 가보니 초상화를 다 붙여놓았던데 왜 그렇게 했소?》라고 따지고드시자 그는 오히려 제편에서 초상화를 모신것이 무슨 잘못인가고 억울해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문제는 조직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비서인 나도 모르게 망탕 그렇게 하면 되는가고 더욱 엄하게 다 불러대시였다. 그러자 김치구는 울면서 정 그러시면 초상화를 내려모시겠는데 이다음에 그 책임을 장군님께서 지셔야 한다고 억지다짐을 하였다.

《좋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문제인것만큼 후에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소. 그러니 걱정말고 당장 내리우시오.》

《그러면 사무실의 초상화를 집에다가 모시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초상화문제를 놓고 이제는 말하다 말하다 기력이 없어 말을 더 못하겠다고까지 하시였다.

아무리 비판과 설복을 하시여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지시문을 작성하시였는데 앞서 있는 협의회에서 그만 전원반대로 부결되었던것이다.

처음있는 일이어서 그이께서는 몹시 놀라시였다.

그래서 초안을 내놓고 가부나 물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두번째 협의회를 조직하시기에 앞서 가까운 일군들의 《힘》을 빌려려고 부르신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담화시작부터 오늘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지시문을 내려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고 못박으시였다.

담화가 끝나자 협의회가 열렸다.

먼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서국지시문초안을 읽으시였다.

그러자 한 일군이 일어나 《나타난 편향들은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상화를 모시는 문제에서만은 정말 김정일동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저기서 일군들이 일어나 《저도 반대의견입니다.》, 《인민들의 의사입니다.》, 《막을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련속 일어서는 일군들을 앉으라고 밀막으셔야 하는 형편이였다. 나중에는 그들을 달래듯 지시문을 내려보냅시다, 내려보낸다고 동무들이 말하는것처럼 인민의 의사야 달라지겠습니까라고 하시였지만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지어 김중린비서는 두번째 협의회가 포치되자 무슨 문제가 토의되겠구나 하는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협의회에는 잡아끌어도 못가겠다고 참가하지조차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정 지시문을 내려보내는것을 반대하면 도당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들을 불러서 직접 포치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업포치형식으로라도 지시문배포를 무조건 강행하시겠다는 말씀이였다.

주체64(1975)년 4월 1일에 그이께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각 도당에 내려보내시였다.

말이 《더욱 강화》이지 사실상 내용은 통제였다.

지시문은 첫째로 조직적승인이 없이 여러가지 형태의 초상화와 사진, 미술작품을 모시는 현상을 없앨데 대한 문제, 둘째로 자신에 대한 존칭사를 쓰지 말데 대한 문제, 셋째로는 여러가지 문건들과 교

재, 제강, 직관선전물들에 자신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데 대한 내용이였다.

문건전달을 위해 도마다 일군들을 파견하시었는데 평안남도에는 안배옥부부장이, 황해북도에는 김형원부부장이 나갔던것으로 기억된다.

앞서도 얼핏 소개되었지만 김형원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박격포소대장으로 싸웠다. 어느 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체대된 그는 고향 녕원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 조선전재고아학원 교원으로 파견되었다. 조국을 위해 전선에서 피를 흘린 체대군관이 전재고아들과 함께 보낸 이국에서의 생활은 그로 하여금 많은것을 체험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1956년 7월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달이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시는 도중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시고 우리들이 생활하고있던 조선전재고아학원을 찾아주시였던 것이다.》

주체45(1956)년 7월이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를 앞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던 때이다. 결국 김형원은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소식을 수령님을 만나뵈온 감격이 생생히 살아있는 심장으로 아프게 받아들여야 했다.

《내 총이 있었으면! 총만 있었으면!...》

조국으로 소환되어오는 열차칸에서도 김형원은 줄곧 이렇게 웨쳤다고 한다.

당에서는 그에게 교예극장 당위원장 겸 교예학원 원장의 직무를 맡겨주었다. 록음강연을 해서 비판을 받았을 때 첫 덕성실기를 쓴 강정숙도 그의 제자였다. 한때 평양시적인 씨름경기에 출전하여 순위권에 입선한적도 있는 그는 체격에 어울리게 일거일동이 무게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대상기관들에 나가 말을 몇마디씩 툭툭 하

면서도 본때있게 규률을 세운다고 하시면서 그를 가리켜 《군단포》라고까지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와 생사운명을 같이할 맹세를 다지시던 이야기는 참으로 뜻깊다.

주체57(1968)년 11월 장군님께서서는 당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사업하고있던 김형원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고 추억깊은 건지리를 찾으시었다.

지금도 건지리 하면 나의 머리속에는 최고사령부라는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군 한다. 전쟁참가자인 김형원도 같은 심정이었을것이다. 진흙물을 바른 몇채의 농촌집들이 옛 모습 그대로 서있는 발머리에서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저기가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계시던 곳ियो.》

하얗게 서리가 내린 골짜기 멀리에 집이 한채 있었다. 처마밑에 비둘기장이 걸려있고 창문을 열면 뒤뜰에 주련이 놓여있는 크고작은 오지독들이 눈에 뜨이는 그 작은 방에서 전쟁의 시련을 겪던 그이의 한 시절이 흘러갔다.

장군님의 생애에 있어서 건지리는 특별한 곳이였다.

10대에 수령님으로부터 권총을 수여받으신 곳이여서만이 아니라 가장 준엄한 시기에 청소한 조국을 책임지고 인민을 령도하시는 수령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우리 혁명이 무엇으로 전진하고 승리해나갔는가를 직접 목격하신 곳이기때문이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형원에게 최고사령부에서 보낸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일요일이나 저녁에 이따금 이곳에 와보군 한다고, 여기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적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를 생각해보군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김형원의 손을 굳게 잡으시었다.

우리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것을 약속합시다. 한때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 가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할줄 모르는 믿음으로 서로 도우며 수령님의 위업을 이어갑시

다. 내가 바라는것은 이것뿐입니다.

《김정일동지!》 김형원은 목이 짝 메였다.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혁명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고 불같은 글줄을 김혁의 수첩에 적어주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다시 뵈옵는듯 전사의 심장은 그이를 우리러 세차게 고동쳤다.

김형원이 주체64(1975)년에 쓴 일기의 한 대목이 있다.

《오늘 그이로부터 모진 비판을 받았다. 초상화요, 노래요 하면서 자신을 너무 내세운다는것이였다. 이 비판만은 정말이지 접수할수가 없다. 그것은 강물이 왜 바다로 가는가고, 꽃더러 왜 해빛을 따르는가고 탓하는것과 같기때문이다. 의도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떠난 길이라면 비판을 받고 움츠러들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자신도 우리를 멈춰세울수 없는것을 어찌하랴. 사실 우리가 그토록 충실할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분은 바로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당신이 아니시던가!》

우리가 그토록 충실할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분, 이것이 바로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그이를 우리러 터친 솔직한 목소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우리 당대오를 철통같이 묶어세우시는 나날에 누구도 같은 지도원, 같은 부부장이라고 생각할수 없을 특출한 령도실력을 보여주시였다.

그이를 모시여 우리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만 숨쉬게 되였다. 자기 창건자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최고강령을 가진 당은 혁명을 오로지 수령의 뜻대로만 향도하였다.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사상의 기치들, 레컨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와 같은 구호아래 우리 혁명이 전진했다. 장군님께서 영화부문을 지도하시면 영화혁명이 일어나고 무대부문을 지도하시면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일어났다.

인간적인 정은 또 얼마나 뜨거우셨던가.

김형원이 유고로 남긴 도서 《지도자의 품》에는 주체61(1972)년 가을 피바다가극단 일부 성원들이 뜻밖의 비행기사고로 희생되었을

때 체험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우리는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달려 올라갔다. 그런데 집무실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소파에 몸을 폭 잡그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손으로는 이마를 짚으시고 다른 손으로는 손수건을 눈언저리에 대고계셨던것이다. 한사람한사람 일별하신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왔소? 가슴터질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전까지도 웃고 떠들던 동무들이 우리결을 떠났습니다.>라고 절통한 음성으로 뇌이시는것이였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희생된 동지들의 념원대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빠른 시일안에 혁명가극 《피바다》를 복구하여 무대에 올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슬픔은 쉽게 가셔지지 않았다. 대역을 맡은 배우들은 무대에 나와서까지 계속 눈물만 흘리였다.

그러던 어느날, 자정이 지난 깊은 밤에 장군님께서 대극장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객석으로 가시여 조용히 자리를 잡으시였다. 무대련습을 하던 배우들이 그이를 알아보고 목이 메여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바람에 련습이 중단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무대를 향해 안타깝게 웨치시였다.

《왜들 이럽니까. 어느때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겠습니까.

혁명전우들이 이루어놓은 혁명가극을 우리가 기어이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이 희생되였는데 가극마저 소생시키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말입니다. 어서 눈물을 거두시오.》

장내에는 비장한 노래소리가 울리였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울으시면 울고싶어요
품안에 안기여서 울음을 운다

...

출연자들은 점차 자기 역세계에 잠겨들었다. 일꾼들도 안도감에 젖어 그이를 우러렸다. 그런데 방금전까지 배우들에게 울지 말

라고, 울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던 그이께서 어둠이 드리운 객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계시었다.

아무리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해도 그들의 얼굴이 더 어른거립니다. 금시 무대에 뛰어오를것만 같습니다. 대역이 본역으로 바뀌어보이기도 합니다. 막 삭갈려서 의견을 줄래야 줄수가 없습니다. 오동무는 방금이라도 나에게 달려와서 무엇을 제기할것만 같습니다. 무엇을 자주 제기하는가고 하면 그는 더 검질기게 달라붙군 하였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그 동무가 다시 살아와 나에게 무엇인가 또 제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이라도 옮겨달라면 옮겨주겠습니다.

일박에 모르던 욕심꾸러기! 씨가 든 사람! 오순환동무!... 이번에 갔다오면 차를 하나 주자고 하였는데 그것도 라보지 못하고 갔으니 더 가슴이 저립니다.

뜨거운 눈물이 객석을 적시며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김정일동지의 슬픔, 위대한 그이의 한생에는 슬픔까지도 위대하였다. 값높은 희생에 영광을 주고 혁명에는 용기를 주는 눈물이 그이의 슬픔에서 흘러나왔다.

오늘날 세대들과 우리의 먼 후대들은 불밝은 대극장에 들어설 때 거기에도 그이의 심장을 에이던 이런 아픔과 눈물이 깃들어있는줄 알아야 할것이다.

11월초에 장군님을 모시고 다시 형상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그이께서는 공연을 보아주시고 우리는 동지들의 숭고한 념원을 헛되지하지 않았다고, 동무들은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훌륭히 지켰다고 격조높이 말씀하시었다.

참가자들은 울며 웃으며 만세를 불렀다.

김형원은 그때의 감정을 자기의 책에 이렇게 썼다.

《이 벅찬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크나큰 슬픔을 힘으로 전환시켜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앞에 정녕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바로 그러한 품에 안겨 자기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기의 한생을 바칠수만 있다면 그것은 살아도 영광이고

죽음 또한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이께서는 깊은 밤 퇴근길에 일군들의 집에 들리시여 《아주머니, 나도 전쟁때 대두박으로 끼니를 에우며 자란 사람입니다. 닭알부침이면 과남하고 시원한 김치국에 강냉이국수나 말아주시오.》라고 허물없이 청하시던 한식술같은분이시였고 《찬선동무의 고향인 성천군에 여든살이 넘은 아버지가 살고있으면 동무는 가보지 못하더라도 봄과 가을에 한번정도씩 가족들이 승용차를 리용하여 갔다오게 하는것이 좋겠소.》라고 자식된 도리를 채근해주시던 친근한 벗이시였다.

어느 민속명절날엔가는 조선바지저고리를 차려입은 동지들과 함께 김이 문문 나는 차조밥을 떡판우에 다져놓고 떡메질도 하시던 랑만가이시였고 가정생활이 안착되여야 일도 더 잘할수 있다고 하시며 상처한 일군들에게 배필감을 찾아주시느라 마음쓰던 어버이이시였다.

안배옥이 한창나이에 안해를 잃고 홀몸이 되자 장군님께서 품을 놓고 수소문을 하시여 안과의사로 일하는 녀성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얼마후 그 녀성은 한장의 사진으로 그이앞에 나타났다.

《자, 보시오. 얼굴에 복김이 있습니다. 눈은 좀 사무러워보이지만 마음은 고울것 같습니다. 부부장동무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소별은 단김에 뼉했다고 당장 결혼식을 해줍시다.》

결혼식날자는 당창전기념일로 정했고 준비는 리재일부부장에게 맡기시였다.

장군님께서 당창전기념일날 24시가 다되여서야 겨우 시간을 내시였다. 그나마 안배옥의 집에는 10분정도밖에 머물러있지 못하시였다.

이튿날 그들부부를 초청하신 그이께서는 어제는 정말 시간이 바빠서 제대로 축하를 해주지 못했는데 두집이 모여 국수라도 한그릇 같이 나누자고 하시며 안배옥의 안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야 원래 보건일군이니까 인간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겠지. 사실 계모로서 어머니구실을 잘한다는게 헐치 않소. 내가 인차 계

모에 대한 영화를 한편 만들어내놓으려고 하는데 동무도 보시오. 가정을 잘 돌보시오. 믿겠소.》

그 영화가 아마 《내 아들》일것이다.

전사에게는 새 생활이 차례졌지만 장군님께서는 걱정거리가 또 한 가지 늘었다. 자기 자식과 안배옥의 자식 넷을 거느리고 후어머니 구실을 하게 된 녀성이 무리없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수 있겠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그래서 새 가정을 꾸려주신지 몇달이 지나 불의에 가정방문을 하시였다.

잘사는가 보러 왔다고 하시며 집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곧장 부엌으로 가시여 팽장고문부터 열어보시였다.

《보건일군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가 보오.》

그러시고는 함께 온 일군들이 듣지 못하게 팽장고문을 비스듬히 열어잡으시고 《하나 낳아야 돼.》라고 속삭이시였다.

둘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남편은 물론 다른 자식들과도 보다 혈연적으로 련결될수 있다시는 뜻이였다.

때가 되자 그들부부는 딸을 보았다. 중년 새 살림을 시작한 가정에서 어성버성했던 형제들사이에 그 딸이 어떤 구실을 했겠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달후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가정방문을 하시였다.

코밑이 거뭇거뭇한 아들들이 후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주는지, 그가 혹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있지나 않는지 늘 근심을 놓지 못하시여서였다. 일군들에게는 안배옥부부장의 안해가 마음고생을 하지 않게 잘 돌봐주라는 당부도 자주 하시였다.

어느해 김장철에 리성복이 안배옥의 안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방에 출장을 가있는 세대주에게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날이 차졌으니 덧옷이라도 꾸겨주면 가져다주겠다는것이였다. 안배옥의 안해가 약속한 시간에 현관밑에 내려가보니 차안에는 리명제와 다른 한 부부장이 앉아있었다.

《성복부부장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먼데 있는것도 아니고 승용차로 고작 반시간길인데 우리랑 같이 제껴 다녀오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 차림새가...》

《차안에서야 뭐랍니까. 인차 돌아서지요.》

고작 반시간이라던 길우에 해넘이가 시작되자 녀인은 사색이 되었다. 아들들이 대학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던것이다. 날이 까맣게 저물어서야 어느 이름모를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건물앞에 차가 멈춰섰다.

남편은 없었다. 두 부부장은 전화를 걸어 불러오겠으니 우선 식사부터 하라고 하였다. 주방칸에서는 마음씨 무던한 재정경리부 부부장 로명근아바이가 싱글벙글하며 나타났다.

장군님께서 늘 령감님, 령감님 하고 불러주시며 해방후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목수로부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되었다고, 내가 어렸을 때 나무칼을 깎아주던분이라고 존경하여마지 않으시던 고정환 아바이까지 그들을 협조하고있었다.

안배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그들은 전화를 건다, 차를 보낸다 야단법석을 하였지만 궁극에는 하는 말이 안배옥이 바쁘다면서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사람이 달라졌다느니, 좋게만 대해줘서 그런다느니 하면서 그들은 남편에게 계모노릇이 힘들고 대식구 뒤바라지를 하기에 진이 빠져서 집을 나간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한장 쓰라고 하였다.

녀인은 펄쩍 뛰었다. 그들은 일없다고, 그저 한번 혼내우자고 하는 일이니 후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보증해주겠노라고 하면서 그냥 쓰라고 《강요》했다.

한편 평양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안배옥은 출장지에서 안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즉시로 달려올라갔다. 그가 동사무소로, 안전부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리명제와 리성복이 나타났다. 사색이 된 집식구들에게 아무런먼 어머니가 어데 간다는 글썽지 한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는가 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이미 써가지고온 편지를 슬쩍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자식들을 호되게 답새겼다. 너희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으면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겠느냐 하는것이였다. 자식들은 울면서 우리가 속을 태운적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모진 마음을 먹을 정도로 섭섭하게 한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 그들은 회색이 되었다.

그리고는 그달음으로 장군님께 달려가 《이제는 더이상 그들이 가정일로 마음을 쓰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안배옥의 안해에게 로명근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다. 녀인은 그때 자기들의 가정일로 마음을 써주던 옛일이 떠올라 아바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로명근은 《인사는 내가 아니라 장군님께서 받으셔야지요. 아무렴 무슨 궁리가 터서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끼리 할수 있었겠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자기들이 꾸민 일의 도수가 지나쳐 장군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주체94(2005)년에 안배옥의 안해는 아들딸 여섯을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쌍쌍이 찍은 사진을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사진들을 전선길에서 보아주시였다.

그때 장군님의 마음속에 미여질듯 차오르던 흘러간 시절에 대한 추억은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을것인가.

과오를 범하고 슬하를 떠나 수백리 먼곳에 내려가서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고 송수화기를 눈물로 적시며 노래를 부르던 동지, 생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몸이지만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고 팔을 걷고 노래를 부르던 동지의 모습...

그는 리찬선이다.

철도로동계급출신으로서 주체61(1972)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였고 말년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사업한 리찬선은 한창나이에 뇌혈전으로 오랜 기간 병치료를 받은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년나마 리찬선을 옆에 끼고 다니시면서 주치의사처럼 건강을 돌보아주시였다.

그때 당중앙위원회 구내에 계단운동대가 여러개 설치되어있었는데 그이께서는 리찬선에게 치료체육으로 계단운동을 많이 시키시였다.

혼자 하라고 맡겨두면 잘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운동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시던 일을 미루어놓고 술선 계단운동대에 나가 그를 기다리곤 하시었다.

한번은 아침부터 자리를 뜨셔야 할 일이 생기자 장군님께서서는 리찬선부부장을 전화로 찾으시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동무 혼자서 운동을 해야겠소. 내가 없다고 건너뛴 생각은 마시오. 하루 번지면 백날이 무효요.》

《제 걱정은 마십시오. 꼭 나가겠습니다.》

리찬선은 장군님과 한 약속대로 계단운동대로 나갔다.

운동을 막 시작하려는데 《정말 나왔구만!》 하는 반가움이 어린 음성이 들려왔다. 차에서 내려서시는 걸음으로 집무실에도 들리지 못하시고 문건가방을 옆에 끼쳐로 달려오신 그이를 뵈옵자 리찬선은 목이 짹 메여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때문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저같은게 뭐라고 이러십니까. 한냥짜리 몸을 돌보시다가 억만금을 놓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눈물이 두볼로 막 흘러내렸다.

《진정하오, 찬선동무. 옛말에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는데 효자는 없더라도 동지는 있소. 내가 앓으면 그때는 동무가 이만큼도 안해주겠소? 자, 어서 이 손을 잡고 일어서시오.》

그는 이렇게 병을 털고 일어섰다.

후날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사는 살림집주변에 묵은 공지가 있다는것을 아시고 《제손으로 직접 씨를 뿌려서 기운 남새맛을 보는 재미가 여간하겠소.》라고 하시며 다문 몇평씩이라도 나누어 남새농사를 해보라고 이르시었다.

리찬선은 그 땅에 찰강냉이를 심었다. 일요일이면 세간난 자식들까지 교외에 나가 부식토를 긁어오곤 했는데 그것을 본 이웃들은 리찬선1부부장네 집에서는 밭이 아니라 화분을 가꾸는것 같다고 말하였다.

마침내 풋강냉이철이 오자 그는 잘 익은 강냉이들을 골라 삶아가지고 장군님께로 찾아갔다.

그이께서는 불쑥 나타난 리찬선을 보고 놀라시였다.

《손에 든건 뭐요?》

리찬선은 싱그레 웃으며 집무탁우에 보자기를 펴놓았다.

순간 장군님께서는 《아, 풋강냉이!》 하고 무척 반기시였다.

《터밭에서 딴 첫물강냉이인데 맛이라도 좀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금시 찢은것이여서 냄새까지 막 달큰합니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그러지않아도 출출하던참인데 같이 맛보기요.》 하시며 그이께서는 강냉이이삭을 툇 꺾어 한쪽은 리찬선에게 들려주고 자신께서도 맛나게 드시였다.

진수성찬을 차려왔다면 그처럼 기뻐하셨으랴.

터밭에서 가꾼 풋강냉이를 놓고도 자신부터 생각하는 동지가 있다는것이 기쁘시여, 당의 지도자의 책상우에 허물없이 강냉이보자기를 펼쳐놓고 맛을 좀 보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사들속에 사시는것이 너무도 행복하여 지으신 미소였다.

내가 리찬선을 마지막으로 본것이 주체81(1992)년 봄이였다.

불치의 병으로 입원치료중에 있던 리찬선은 병문안을 온 동지들에게 나는 4.15를 넘기지 못하고 죽으면 경사스러운 명절에 바쁘신 지도자동지께서 마음쓰실것 같아 안타까왔는데 4.15는 무사히 넘겼다, 이제는 4.25를 넘기는것이다, 그다음은 죽어도 마음이 편할것 같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동지의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없고 어떤 기적이 나를 소생시킬것만 같은 희망에 자꾸 목이 메인다고 하였다.

그해 2월 16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친히 송시를 지어 보내주신 뜻깊은 날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날 리찬선을 병원에서 데려내오도록 하시였다. 그가 중병을 앓는 몸으로도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서자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박수를 쳤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장군님께서 일어서시여 《찬선동무, 나와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부릅시다.》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찬선의 팔을 꼭 부여잡으시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이께서도 우시고 리찬선도 울었다.

돌아갈 때 리찬선은 장군님의 승용차를 타고갔다. 시종 웃는 얼굴로 장군님의 배려움을 받으며 차에 올라서야 그는 운전사에게 《이젠 됐소. 겨우 참았소.》라고 하였다.

리찬선은 생의 마지막날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그 한구절을 여기에 옮긴다.

《저는 저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가르치심을 받으며 자라난 친위전사들이 저의 뒤통까지 합하여 순결한 동지적의리와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날에나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진심으로 믿고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1992년 5월 2일 리찬선올립니다.》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날에나...

나는 이것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녔던 삶의 일관한 지주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면서도 가장 준엄한 날에 생을 세워볼줄 안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장군님을 받들어 떠나온 혁명의 길이 언제인가는 대통령으로 넓어져 신들메를 풀어놓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며 한생 변함없이 초행길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왔다.

1980년대초 《조선의 별》노래가 발굴되었을 때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자신께 만일 앞으로 1956년에 머리를 쳐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같은자들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안에서 종파분자가 나오는것도 문제이지만 당이 시련을 겪을 때 종파분자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해나설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되어있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당안에서 종파가 생겨나 당이 시련을 겪을 때 투쟁의 앞장에 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혁명동지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동지관계에 대한 일생의 총화이다, 우리 당이 통일단결되고 나라의 전반적형편이 좋아졌다고 하여 절대로 안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자신께서 걸어오신 장구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찾으신 역사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결론이며 우리가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 교시입니다.》

종파가 나오는것도 문제이지만 종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설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있는가, 진짜로 《불굴》이라는 말을 붙여줄수 있는 동지들이 얼마나 준비되어있는가, 이것이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총화하시면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동지들, 후대들 앞에 남기신 만대의 물음이었다.

초행길을 걷는다는것은 단지 시간적개념만이 아니다.

혁명전사로서의 삶을 언제나 준엄한 날에 세워놓고 매 순간순간을 진짜로 《불굴》이라고 말할수 있는 신념으로 살며 투쟁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어느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새 사업수첩을 기념으로 주시면서 《우리 함께 초행길을 걸어봅시다.》라는 친필도 남기시였다. 당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억척같이 다져진 때로부터도 수년세월이 흐른 뒤다.

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함께 헤쳐온 동지들에게 쉬임없이, 변함없이 초행길을 함께 가자고 호소하신것이다.

오늘 만수대언덕에 솟아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장군님과 전우관, 신미리에국렬사릉을 비롯하여 수령의 혁명전사로서 오를수 있는 가장 빛나는 영생의 언덕마다에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언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들을 지켜가고있다.

이 감개무량한 계승력사를 지켜보는 신미리의 렬사들이 후대들에게 당부하는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불굴의 동지가 되라!

2. 돌우에 피여나는 꽃은...

인생말년에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우리 결을 떠나간 박용석은 항일혁명투사 김일제1부주석의 아들이다. 김일의 아들이 김용석으로 되지 않고 박용석으로 된것은 박덕산이라는 아버지의 본래 성씨를 따서 박씨가문의 피줄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는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은 당부가 있었기때문이었다.

박용석도 부모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집을 떠나간 주체20(1931)년부터 나(최영림)처럼 중국동북지방을 헤매이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조국으로 나왔다.

해방된 이듬해 나는 16살이었지만 그는 벌써 20살이었다.

학령기준을 훨씬 초과한 그는 만경대혁명학원으로가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예비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체36(1947)년에 개원식을 가진 만경대혁명학원 입학생으로서는 내가 16살로 가장 많은 나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박용석사이에 맺어진 인연처럼 각별한 인연도 흔치 않을것이다. 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전우들중 한사람인 김일을 혈육이상으로 따르고 존대하시였다. 장군님에 대한 김일의 애정과 경모심도 각별한것이였다.

그런데다 박용석의 안해 정금순은 장군님께서 도산유치원시절부터 잘 아시는 교양원이였다.

장군님께서 박용석이란 이름을 처음 알게 되신것도 김일제1부주석이 아니라 정금순을 통해서였다.

주체48(1959)년 소련을 방문하시는 수령님을 모시고 모스크바에 가셨던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그곳에 있는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문화사업을 맡아보고있는 정금순을 만나게 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그가 김일제1부주석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며 남편인

박용석이 모스크바철도대학에서 연구원생으로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박용석이란 이름은 이렇게 장군님의 기억에 새겨지게 되였다.

장군님께서 박용석을 깊이 상대하기 시작하신것은 그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공군사령부 정치위원으로 사업하던 1960년대 중엽부터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만나실적마다 《우리 선생님은 잘 있습니까?》라고 정금순의 안부부터 묻곤 하시였다.

군복을 입고 혁명가의 아들답게 반당군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잘한 박용석은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이후 당중앙위원회에 들어와 부장으로 사업하였는데 그무렵에 뜻밖에도 신경불조화증이라는 중병을 만났다.

그의 침상을 몸소 찾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신경을 다룬데 팔면서 병과 투쟁하라고 오락기구도 보내주시고 그후에는 병치료를 하라고 외국에도 보내주시였다. 그는 40대에 중병을 만났지만 장군님의 다심한 보살핌속에서 80살을 넘기였으며 고령의 몸에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와 백마-철산물길공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을 책임지고 당과 혁명을 위해 충실하게 투쟁해올수 있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장군님과 전우관에는 그가 장군님께 올린 짝막한 한장의 편지가 전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미루벌물길공사때문에 죄송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부디 몸건강하십시오. 박용석 올립니다.》

기력이 모자라 더이상 길게 쓸수 없었던 이 편지로 자기 한생을 총화짓고 떠난 박용석, 그는 숨이 꺼져가는 마지막순간에도 미루벌물길공사를 미완성으로 남겨놓은데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다.

이렇게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동지, 전우로 한생을 살아온 그의 리력문건에 책벌란이 모자라 별지가 붙어있다는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놀랄것이다. 그 문건에는 경한 책벌로부터 엄한 책벌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책벌이 다 기입되어있었다.

박용석은 장군님으로부터 특전이나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류달리 처벌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일군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언제인가는 그가 당조직으로부터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은적도 있었다.

별지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갖가지 형식의 처벌이 기입되어있는 그의 리력문건을 보노라면 그가 한생 책벌속에 살아온것처럼 느껴질것이다. 실지로 그는 책벌을 벗어본 날이 별로 없었다.

그가 책벌을 집중적으로 받은것은 당시 철도부장으로 사업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였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는 하루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어렵고 힘든 부문이다. 그런 부문에서 일하는 지휘성원일수록 처벌을 더 많이 받는 법이다. 철도에서 사고가 나도 처벌, 수송과제를 미달해도 처벌, 정시운행을 못해도 처벌이었다.

박용석에 대한 처벌안이 제기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박용석보다 항일의 로투사 김일제1부주석과 함께 정금순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그가 오늘밤 책벌을 받은 남편의 곁에서 한숨을 쉬며 함께 밤을 지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박용석의 책벌안에 쉬이 수표를 할수 없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파오를 범한 일군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차별없이 처벌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고 아끼는 전사일수록, 믿음이 큰 전사일수록 더욱 엄해지는것이 장군님께서 주시는 처벌의 특징이었다. 박용석은 장군님과의 남달리 절친한 인연을 가진것으로 하여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책벌을 받았다.

나는 그가 리력문건을 새로 쓸 때마다 자서전보다도 더 긴 책벌받은 정형들을 하나하나 옮겨써나가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는지를 음미해보게 된다.

처벌은 그것이 가벼운것이든 무거운것이든 결코 자랑으로 될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장군님께 기쁨보다도 심려를 더 끼쳐드린 자신에 대

한 질책과 함께 인생의 총평을 최우등으로 마감하라고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을 책벌란속에서 새겨보았을 것이다.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일군들치고 나를 포함하여 과연 어느 누가 그이의 준절한 비판과 엄한 처벌을 받아보지 않았던가.

그 나날 우리는 그이의 슬하에서 비판과 처벌이 사랑의 한 형태임을 깨달았다.

주체75(1986)년 11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을 하고있는 계형순을 몸소 집무실에 부르시여 그를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당시) 위원장으로 임명하시였다.

계형순은 해방후 전병호, 최태복 등과 함께 스웨르드롭스크에 있는 우탈공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나라의 기계공업을 발전 시키는데서 두각을 나타낸 첫 세대의 류학생이였다.

전쟁의 폭음이 요란스럽게 울리던 주체41(1952)년에 조국에 돌아와 희천기계공장 야금부장으로 인생의 새 장을 펼치기 시작한 그는 28살에 벌써 룡성기계공장 기사장으로 임명되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8m타닝반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후 기계공업성에 소환되어 국장, 부상, 상을 비롯한 여러 직무를 력임하였다.

상으로부터 공작기계공장 지배인으로 내려갔다가 기계공업성이 기계공업부로 개칭될 때는 다시 기계공업부장으로 사업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해임되어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 주물공으로 생활해온 그의 한생에는 언제나 파오가 여러가지 형태로 따라다니곤 하였다.

그가 당시 정무원제1부총리로 사업하고있던 연형묵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서자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을 알려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제의와 상무위원들의 일치한 찬성에 의하여 그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직에서 해임하고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계형순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연형묵이 곁에서 눈짓을 해서야 그는 신임에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말씀을

릴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책상위에 놓여있는 문건더미속에서 하나를 집어드시며 《내 동무의 리력문건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실 때 계형순의 얼굴은 수수땀이 되었다.

리력문건이 얼마나 어지러운가 하는것은 그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허풍을 쳤다가 받은 책벌도 있었고 구체적인 수치타산도 없이 주관적욕망만 가지고 덮어놓고 일을 벌려놓았다가 수습도 못하고 혼란만 빚어놓은 결함도 올라있었다. 희천 공작기계공장에서 일할 때는 기술고문으로 와있던 쏘련고문이 자기 안해에게 집적거린다고 다짜고짜 손찌검을 하는 바람에 《반쏘분자》로 몰려 철직된적도 있었다.

《처벌란이 새까맣더구만.》

장군님께서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계형순은 웃을수가 없었다. 그런것을 다 아시면서도 과연 자기같은 사람을 금속과 기계공업이라는 국가경제의 중추인 중요부문의 책임적인 자리에 등용하신단 말인가.

사실 그를 제발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들이 있었다는것을 그는 알수 없었다. 금속공업부와 기계공업부를 합치여 위원회를 내오면서 그 위원장감으로 그의 이름이 상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해방전 남포마그네시움공장에서 소년로동자로 일하던 그는 항일혁명투사 김경석동지의 추천으로 류학을 가게 되었다. 우랄공대 출신 주물기사로서 사상체계가 섰으며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고 악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하고있지만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파오가 그의 전체적인 인상을 흐리게 하고있었던것이다.

집무탁에 놓여진 계형순의 문건은 연형묵이 가져다드린것이였다.

그는 문건을 올리면서 《적임자이긴 한데 파오가 너무 자주 반복되고 그것이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고있기때문에 일꾼들은 그가 온통 결함투성이로 빛어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있습니

다.》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문건 한페이지한페이지를 주의깊게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은 그가 처벌을 많이 받은것을 가지고 우려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점을 중시한다, 이런 사람이 일꾼이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처벌도 받게 된다, 일을 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자는 사람은 파오도 범할수 없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 직접 천거하시었던것이다.

그런 내막을 알수 없었던 계형순이 머리를 더욱 깊이 수그릴 때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의 …처벌란에는 처벌을 받았다는것이 많이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령님께서 동무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 앉아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일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파오도 저지르고 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계형순은 자기의 인생행로에 어지럽게 찍혀있던 감탕자국들이 깨끗하게 세척되는것과 같은 환희를 느끼였다.

처벌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견해는 이런것이였기에 그이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우고 인생을 깨우쳐온 일꾼들은 언제 한번 처벌이 두려워 몸을 사린적 없었고 처벌을 받았다고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나를 키우는데서 매우 엄격하시였다, 어머니의 치마자락이 자식들을 감싸준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절대로 눈먼 사랑을 하지 않으시였다, 지금도 나는 어린시절 나를 엄하게 교양하신 어머니의 웅심깊은 사랑을 고맙게 여기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결국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의 처벌을 결심하실적마다 눈먼 사랑이 아니라 엄격한 교양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그 심정을 체험하신것이다.

자식을 향해 든 때는 부모의 마음에 먼저 떨어지는 법이다.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것처럼 모진 때를 드실적마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가해졌겠는가 하는것은 그이를 몸가까

이에서 모셔온 우리들도 다는 헤아릴수 없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문건들도 하루밤사이에 다 보아주시는 왕성한 사업의욕을 지니신 그이이시였건만 며칠씩 때로는 몇달씩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집무탁우에서 묵던 문건들이 바로 일군들의 책벌안들이였다.

우리 장군님은 누구보다도 인정이 무른분이시였다. 전사들이 해놓은 성과앞에서는 온 천하를 상으로 주고싶어하시는분이 바로 장군님이시였고 진단을 받으라고 떠밀어보낸 전사의 병명이 혹시 불치병이나 아닐가 하는 두려움으로 선뜻 병원에 전화를 걸지 못하시는 그렇게 정에 무른분이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력사와 혁명은 그이께 은총보다도 그 반대의 아픈 매를 더 자주 들것을 요구하였다.

속담에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원칙과 인정사이에서 남모르는 마음속고생을 많이 한분이시였다.

1970년대 초엽 내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고있을 때 박재범이라는 일군이 당간부양성기관들을 맡아보고 있었다. 후날 그는 력포구역당 책임비서를 오래동안 하였다.

그가 력포구역당 책임비서로 사업할 때 장군님께서 그에게 구역소재지를 대현리로부터 오늘의 장진동으로 옮길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인민군대까지 동원시켜 훌륭히 꾸려주심으로써 력포구역이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박재범은 완강하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이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할 때나 구역당에서 사업할 때나 그는 손탁이 센 당일군으로서의 수완과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주체63(1974)년에는 70일전투지도소조에 망라되어 평양역홈에 지붕을 씌우는 사업을 맡아가지고 본때있게 해제끼였고 그 다음해에는 해주린비료공장건설을 현지에서 당적으로 책임지고 하였다. 그가 건설현장에서 한창 실적을 올리던 주체64(1975)년 1월 부서에서는 갑자기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이었다.

박재범은 부서에 돌아오자마자 사상투쟁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간부양성기관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로되었기때문이었다. 특히 대상선발에서 나타난 결함은 엄중하였다.

비판과정에 그의 무책임한 일본새에 대한 일군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사업작품이 거칠다, 일상생활에서도 너그럽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당중앙위원회의 한개 파를 책임지고있는 일군으로서 당간부양성원칙을 어기고 작품상으로는 거칠며 동지들사이의 관계에서는 교만하다는 비판까지 들은 박재범의 차후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그는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집에 들어가 대기상태에 있게 되었다.

처벌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심리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것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짐작할수 없다.

살이 내리고 뼈를 깎는 하루하루가 더디게도 흘러갔다. 하지만 그의 괴로움은 단순히 제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데서 오는것이 아니었다.

그의 고민과 고통은 조만간에 장군님의 결을 떠나게 되리라는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은 아픔과 애석함이였다. 장군님의 슬하를 떠나기만 하면 자기가 누리는 삶 전체가 줄지에 빛을 잃을것 같고 인생자체가 허물어질것 같은 위구와 불안이 시시각각 심장을 파고들었다.

《여보,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소? 내가 당중앙위원회에 배치받은 날 우린 밤새 울었지. 어제날 벌목공의 자식으로 화전을 뿌지며 살아오던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게 되었다고...》

안해의 기억에도 생생하였다. 그들이 가정을 이룬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였다. 안해가 시집이라고 처음 찾아가본 녕원군 온양리에 있는 박재범의 집안형편은 구차하기 이룰데 없었다. 해방전에 때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 10여년째 움직이지 못하는 늙은 시아버지가 흙매질을 한 방안에 노전을 깔고 누워있고 사방 연기가 꾸역꾸역 쏟아져나오는 부뚜막에는 양은쟁개비가 빼돌서 걸려있었다. 그 쟁개비가 이 집의 때식을 감당한 부엌살림의 전부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 박재범이었으니 처벌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날이 벌목공의 아들로 태어나 화전을 뿌려야 했던 신세로부터 당중앙위원회 과장으로까지 성장한 자신의 한생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 인생의 기회라고 할수 있었다.

박재범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도 들을수 없는 반성과 자기 타매

의 목소리가 매일매시각 울리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이 왜 것처럼 오래 시간을 끄는지 알수 없었다.

두달이 지나서야 당중앙위원회에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안해는 안타까이 그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밤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박재범이 아무 말없이 안해에게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받아보니 봉투안에는 두달분의 과장생활비 전액이 들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박재범은 마침내 울음을 터치였다.

《그이께서 글썄 나에 대한 처벌을 놓고 인츰 결심을 내릴수가 없어 시일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기간은 정상업무를 본것으로 하자고… 오히려 날더러 속을 많이 썩였겠다고 하시며 이 생활비를 주시는데…》

걱걱 갑자르는 그의 울음소리에 아이들도 다 깨여났다.

《여보! 난 어찌면 좋소?! 과오를 범해 근심을 끼쳐드린것만도 용서받을수 없는데 글썄 이런 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을 만들겠는가 하고 그이께서 두달씩이나 마음을 쓰시게 했으니…》

한 전사의 정치적생명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무려 두달동안이나 마음 써오시다가 마침내 결심을 내리신 그이께서는 처벌을 기다리는 나날 당자가 겪었을 괴로움까지 깊이 헤아려주신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사들에게 내리신 아픈 매는 천성적으로 무르신 인정과의 처절한 싸움끝에 내려지는 용단이었다.

박재범은 어느 한 농장으로 가서 로동으로 자기의 과오를 씻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로부터 몇달후에는 당창건 30돐 경축행사대표로 선출되어왔다.

박재범을 자신의 방에 부르신 장군님께서는 일이 힘들지 않던가, 무슨 일이 제일 힘들던가, 가서 무엇을 느꼈는가 등을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일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시다. 저야 해방전 부대기를 일구면서 살아온 화전민이 아닙니까. 힘든것은 일이 아니라 농장원들이 나에게 무슨 과오를 범했는가고 물을 때였습시다. 범한 과오를 돌

이켜보기란 차마… 하지만 그들에게 숨김없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서 농장원들앞에 자기의 과오를 허심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겠는데 그걸 봐도 이번 혁명화가 헛된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애정어린 처벌을 받으며 성장한 일군이 어찌 박재범 한사람 뿐이겠는가.

주체59(1970)년 11월 부과장으로 사업하고있던 김량남은 대상기관인 한 예술단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다가 사업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일군들과 예술인들을 모두 회의실에 모이게 한 다음 이미 포치된 사업을 뒤집고 조직사업을 다시 하였다. 그것은 해당 당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월권행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동단원 김금순의 하나밖에 없는 혈붙이라고 것처럼 애지중지 해오시던 김량남이었지만 매를 들것을 결심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리시는 하나하나의 처벌은 반드시 반성의 기회였고 재생의 처방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김량남에게 《사업정지》라는 벌을 내리시면서도 그것을 비밀에 붙이시였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그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자체를 모르고 지냈다.

사업정지를 당한 그가 할 일이란 하루종일 사무실에 들어앉아 책을 보는것밖에 없었다. 사연을 알리없는 부서의 동료들은 당신 요즘 일거리가 떨어진게로군, 아래단위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을 불러들이지도 않고 아주 한가하니 말이요라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주위에서 이상하게 여길만도 하였다. 이처럼 무사분주하던 김량남이 사업을 전폐하고있으니 어디에서든 고리가 튀어나가고 말썽이 일어날만 한데 사업은 예나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흐르고있었던것이다.

이 류다른 처벌기간 김량남이 하던 일을 장군님께서 대신하여 직접 맡아보고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누구도 몰랐다.

사업에는 일체 손을 대지 못하면서도 부과장대우를 그대로 받으며 정상출근을 하는 김량남에게는 이 이상한 처벌이 오히려 로동현

장에서 함마를 휘두르거나 석탄을 캐는 일보다 더 진땀이 나는 《고역》으로 느껴졌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것이야말로 혁명가들의 생활에서는 최악의 고통인것이다.

사업을 정지당한 당사자를 본 직무에 그대로 두고 종전과 다른없는 대우를 해주는 처벌도 처음이었거니와 정지된 사업을 그런 처벌을 기안한 당의 지도자가 대행하는것도, 그것을 비밀에 붙이도록 한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처벌은 그것이 가벼운것이든 엄한것이든 어쨌든 그를 통해 열, 백을 깨우치자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김량남에게 내려진 사업정지처벌은 참으로 특이한것이였다.

김량남이 처벌상태에 있다는것을 꿈에도 알수 없었던 책임일꾼들이 하루는 장군님께 《량남동무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까?》라고 물음을 올린적이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량남동무에게 사업정지처벌을 주었는데 많이 생각해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과오를 범했기때문에 처벌을 주었는데 그때문에 주위에서까지 좋지 않은 말들이 돌아가면 주눅이 들것 같아 이 처벌은 나만 알고있기로 했다, 그러니 절대로 말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시였다.

김량남에게서 처벌을 벗겨주시던 날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사이 량남동무의 사업은 내가 대신했소. 일이 험치 않더구만. 이제는 사업을 다시 인계받으시오.

김량남은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꾸짖어주십시오. 비판 한번 해주지 않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함을 깨닫고 각오도 다졌다니 됐소.

그이의 말씀은 짙막하였지만 철부지자식에게 내린 가벼운 매를 자신의 마음속에는 무겁게 새겨가며 자식보다 몇갑절 속을 썩여온 어머니의 진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왜 유독 김량남에게만은 전례에 없는 그런 류다른 처벌을 주시었는가 하는것이다. 내 나름대로 해석해본다면 그 리유는 부모의 이름조차 모르고 고아가 되어 일생을 고독하고 우울하게 살아온 혁명렬사유자녀가 처벌로 하여 주점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념려때문이였을것이다.

장군님께서 주시는 처벌은 이처럼 파오를 범한 일군의 출신과 경력으로부터 성격과 기질, 능력은 물론 가정형편과 건강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참고한데 기초하고있었다.

김량남이 사업정지책벌을 받고 사상단련을 하던 그무렵에 선전선동부 어느 한 과에서는 리화태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원도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다.

그는 탄광로동자출신의 당일군이였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되고 권한이 커지자 그에게는 대상기관 일군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나쁜 버릇이 생기였다.

한번은 그가 사사일로 아래단위 일군에게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일군이 자기 사업에서 리탈되는 바람에 사업에서 중요고리가 튀어 말썽이 빚어졌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일이 꼬였다고 볼수도 있는 일이였지만 장군님께서서는 문제를 다르게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리화태의 행동을 있을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소한 사사일에 상급의 권한을 휘둘러대면서 아래사람을 심부름군처럼 부린것을 묵인해두면 앞으로 그썩에서 어떤 《도깨비술》이 번성할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포총회에서 그를 비판하도록 하시고 회의 진행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가 결함을 인정하고 원인을 찾던가고 물으시는 그이께 세포비서는 리화태가 말로는 결함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잘 내려가지 않아하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리화태는 세포총회에서 동지들의 비판을 접수한다는 말로 꼭지를 떼놓고는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으로 흔히 주고받을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하였다는것, 그것도 몹시 조심스럽게 시간이 허락되어 들어주면 고맙고 못들어주

어도 팬찮다는것을 강조했다는것, 별치 않게 여겼던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져질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얼핏 보면 솔직한 자기비판 같았지만 본질을 해부하면 자책 절반, 변명 절반이었다. 이것은 리화태가 자기가 범한 과오의 엄중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세포총회가 있는 때로부터 며칠 안된 어느날 장군님께서서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치시었다.

《탄광로동자동무!》

장군님의 류다른 부름에 리화태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른 날 자기를 만나시면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이께서 새삼스럽게 《탄광로동자동무!》라고 하시는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그는 장군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불쑥 생각나지 않으신것으로 단정했다.

《예, 지도원 리화태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그의 얼떠름한 표정을 지켜보시던 그이께서 말씀하시었다.

《내가 동무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요. 그런데 난 그 부름이 좋구만.》

리화태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의 의미를 채 깨닫지 못했다.

《왜, 그렇게 부르는게 싫소?》

《아닙니다.》

《그 부름을 싫어해서는 안되오. 동무와 같이 탄을 캐던 탄부들이 항상 동무를 지켜본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난 이제부터 동무를 탄광로동자동무라고 부르겠소.》

불현듯 리화태는 탄광로동자동무라는 그 호칭이 지난날의 처지를 잊고 관료화되어가는 인간 리화태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비판인 동시에 그 시절처럼 검박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당부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이미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리화태를 만나시거나 공식석상에서 지명할 일이 생길 때에도 《탄부출신 지도원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라고 하시든가 《탄광로동자동무

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하시였다.

그때마다 리화태는 탄광시절이라는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쳐보곤 하였다. 막장에 짐이 쏠리는 순간이면 남먼저 동발목을 메고 달리던 탄부시절이 저도 모르게 생각났고 소대가 월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날 갓 들어온 대원을 목마에 태우고 떠들썩 갱안을 돌아치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 나날에 비추어본 지금의 자기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였다. 얼굴에 탄철을 하고도 깨끗한 마음으로 꾸밈없는 웃음을 짓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였다.

그는 얼굴은 회여졌지만 대신 마음에 때가 끼여가고있는 자신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천만마디비판과 조직적책벌도 아닌 류다른 부름이 신비한 힘으로 그를 변모시켜나갔다. 그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대할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또 다잡았다.

장군님께서 불러주시는 탄광로동자동무라는 호칭은 그의 마음에 때없이 울리는 자각의 종소리였다.

이렇게 장군님께서서는 호칭 하나로써 리화태로 하여금 로동계급출신의 본태를 유지하고 로동계급출신이 지켜야 할 본도를 잊지 않게 하는 명처방, 명약을 내려주신것이였다.

이러한 명처방, 명약은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동지애와 끊임없는 사색의 산물이였다.

문성술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던 나날 그 고장에서 군당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의 당, 경제기관들을 현지도하시던 나날 그의 집에도 들리곤 하시였다. 문성술은 그때 수령님의 지도를 받아가며 군당위원회회의에 내놓을 보고문을 썼다. 며칠밤을 패가며 고심하여 쓴 그 보고문을 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보라, 해방전에 배우지 못했다고 하여 군당위원장이 된 지금까지 글을 쓰는것을 신비하게 생각하더니 얼마나 잘됐는가고 치하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후날에도 문성술이 차림새도 단정하고 집도 깨끗이 거두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인물도 잘나고 체격도 늘씬한 그는 어느모로 보나 흠잡을데 없는 일군이였다.

내가 책임서기로 사업할 때 수령님께서 요즘 개천탄광에서 탄

이 잘 나오지 않는데 무엇이 걸려서 생산과제를 미달하는지 가서 알아오라고 파업을 주신 일이 있었다.

나는 탄광에 가서 일군들을 만나본 다음 채탄막장에까지 들어가 탄부들의 말도 들어보았다. 그때 내가 들어갔던 갱의 갱장이 뜻밖에도 나에게 문성술의 안부를 물었다. 그때 문성술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부부장으로 일하고있었다. 알고보니 갱장은 해방전에 문성술과 함께 그 탄광에서 탄부로 일했다는 것이었다.

문성술에 대한 갱장의 평가가 대단히 좋았다.

《나하구는 술한 고생을 같이 겪은 딱친구였지요. 사람이 아주 좋았수다. 여기 평안남도예 행정위원장으로 내려왔을적엔 막장에도 자주 들어왔댔고 지금도 중앙당 부부장이면 대단히 큰 인물이라 할수 있지만 그런 티가 꼬물도 없수다. 편지도 이따금 오는데 아무개는 잘 있느냐, 아무개는 뭘 하느냐 꼬박꼬박... 하여간 쉽지 않은 사람이우다.》

나 역시 그가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환경과 처지가 달라지면 옛 처지를 잊기마련이고 즐겁지 못했던 나날은 애써 잊으려 하건만 수십년전 왜놈십장의 딱따구리망치를 맞아가며 갱마구리에서 함께 고생하던 옛 친지들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안부를 물었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그의 인간됨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갱장의 말을 들으니 나에게는 그가 몇년전 편지사건을 빚어내여 장군님으로부터 류다른 처벌을 받던 일이 저절로 돌이켜졌다.

문성술이 인도네시아대사로 사업하다가 조국에 소환되어 외교부 참사로 사업하던 주체61(1972)년의 일이었다.

그는 평양에 돌아오자 자까르따를 떠나올 때 대사관일군이 하던 부탁대로 조국의 소식을 자주 편지로 전해주었다. 대사로 사업하면서 재외생활을 근 5년간이나 해온 그는 조국에서 보내온 편지가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서신거래가 잦아지게 되자 그는 점차 경각성을 잃고 편지에 쓰지 말아야 할 사연까지도 고려없이 담았다. 조국의 발전상과 인민들의 행복상을 전하는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사람문제, 간부사업문제를 편지로 알려주는것은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엄금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

데 문성술은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아무개는 중요한 어느 사업에 동원되다나니 만나보기도 힘들어졌으며 아무개는 지금 담화중에 있는데 인차 다른 직급으로 조동되어갈것 같다는 등 간부사업내막까지 편지에 적어넣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기술대표단성원에게 편지를 넘겨주는 순간 까지도 문성술은 거기에 써넣어서는 안될 비밀들이 적혀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있었다.

다행히도 편지는 국경을 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비밀루설은 사전에 방지되었다. 그러나 무경각한 그의 처사는 사건화되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서안에 제도와 질서를 세우지 못한 문제를 두고 당시 외교부장을 하던 허담을 비판하시면서 문성술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허담은 당적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파오를 씻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아니, 더 엄한 처벌을 주어야지.》

순간 허담은 긴장해졌다. 그이께서 일단 매를 드시면 그 때에 사정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술에게서 차를 회수하고 석달동안 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게 하는 처벌을 주며 걸어다니면서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허담은 아연해졌다. 《걸어다니는 처벌》, 아직은 세상에 있어 본적이 없는 처벌형식이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 허담은 처벌이 예견했던것보다 펍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걸어다니는 처벌》, 이런 처벌은 처벌란에도 오르지 않기때문이였다.

과연 그것이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처벌이였던가.

문성술은 본래의 직무에서 그대로 일하였지만 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벌만은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그는 출퇴근을 할 때에는 물론 사업상용무로 다른 기관에 갈 때에도 걸어다니였다. 10년이상 늘 차만 타고다니다가 걸어다니자니

빠르기도 했지만 그보다 안타까운것은 사업속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남들이 다 버스를 타고 금요로동을 나갈 때에도 문성술만은 도보로 작업현장까지 가야 했다.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것은 농촌지원을 나갈 때 농장포전까지 왕복 수십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왔다갔다해야 하는것이였다.

처벌을 받은 당자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더 급해했다. 농촌지원을 끝낸 정무원들이 버스를 타고 돌아오느라면 로상에 허우대가 큰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걷고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에게 손도 흔들지 못하고 함께 타고가자는 말도 건넬수 없었다.

처벌은 석달후에야 해제되였다. 숨가쁘고 고된 석달이었으나 문성술은 그 덕으로 버릇을 똑 뗐다. 그 석달사이에 그는 자신의 무경각과 방심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낳을번 했는가를 절음마다 뼈저리게 느끼였다.

그때로부터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성술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문동무, 그때 차도 못라고 걸어다니기에 힘들었지요. 단단히 혼살이 났을것입니다.》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한 전사에게 주었던 처벌아닌 처벌을 오랜 세월이 지날 때까지 잊지 않고계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성술은 자식에게 내린 때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어머니의 상처라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 그이의 어머니다운 심정앞에 눈물을 머금었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령도해오시는 전기간 처벌만능을 반대하시였으며 책벌로 인간개조를 대신하려는 현상을 경계하시였다. 어지간한 파오는 비판으로 처리하게 하시였고 처벌을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대단히 심사숙고하시였다.

주체61(1972)년 10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의 조직사상생활자료를 받아보시였다. 그 자료에는 해방전부터 수십년동안 연극예술에 종사해온 로배우 한진섭의 조직사상생활에서 발로된 결함들과 그에 대한 처벌안이 첨부되어있었다. 한진섭이 관록을 내들면서

교만해지고 귀족화되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있다는 자료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보내여 일정한 기간 로동단련을 시킨 다음 다시 예술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국립연극단 당조직의 처벌안을 앞에 놓고 그이께서는 또 하루밤을 바재이시였다.

결론을 기다리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이르시였다.

해방직후부터 활동하여온 오랜 배우인데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고 문화예술부내에서 혁명화를 시킨 다음 다시 대오에 돌아와 창조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김량남의 경우와 같이 역시 비밀에 붙여진 처벌이였다. 장군님의 사려깊은 조치로 한진섭은 명예에 한점의 티도 올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결함을 해부해볼수 있는 반성과 개준의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1970년대부터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당과 국가, 군대의 중책에서 일해온 우리 일군들의 리력문진들을 보느라면 60을 넘긴 나이에 《김일성고급당학교 학생》이라는 이채로운 경력과 맞닿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리창선, 리성복은 60살을 넘겨서, 계웅태, 김기남비서들은 70고개를 넘어 이 학교를 다니였다.

60대나 70대에 사는 아바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등교한다는것은 행운치고도 희한한 행운이다. 그러나 이 행운이 파오를 범한 일군들에게도 차례지는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장군님의 처벌방식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해보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행운과 처벌은 동의어로 쓰일수 없는것이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성장하는 우리 일군들은 파오를 범하는 바람에 행운을 지니기도 하였던것이다.

오래동안 사무실에서만 생활해온 고령의 일군들한테는 로동단련보다 학습을 통한 사상단련이 더 적합하다는것은 처벌을 구원과 개준의 수단으로 간주하고계시는 장군님께서만이 찾아내실수 있는것이였다. 실지로 고급당학교 재직반에서 공부한 일군들은 학습기간 자기를 사상적으로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수령과 령도자의 사상으로 튼튼히 재무장한 상태에서 보다 견실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대오에 돌아올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최광도, 해방전의 지식인인 리종옥도 머리가 희어져 인민경제대학 재직반에서 사상단련과 재무장을 하고 새로운 초소로 떠나갔다.

처벌에마져 다심하고 사려깊은 사랑이 스며여있는 김정일동지의 손길에서 충직하고 변심없는 충신의 대오가 자라나 동지애의 화원을 이루었다.

197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을 담당했던 당, 정권, 경제기관 일군들의 처벌안들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들을 보느라면 그이의 열화같은 동지애에 눈곱이 저절로 뜨거워진다.

《우선 불러올려다 비판시키여보시오. 비판에 대한 태도를 좀더 두고보면서 결정합시다.》

《이미 본인이 비판하였으면 그대로 뒤두시오.》

《솔직히 비판한 이상 좀더 현직에 뒤두고 봅시다.》

《의견만 듣고 해임할수 없다. … 내려가 료해검토할것.》

《…다시 검토할것. 잘 료해된것 같지 않다.》

《본인과 담화하여 확증하시오.》

…

세계정치계에는 일한것만큼 상을 주고 지은 죄만큼 벌을 주는 엄격한 상벌제도의 구현을 정치가의 첫째 본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일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주고싶어하셨고 때에는 징계보다도 애정을 담으시였으며 그 애정실린 때마져 상처를 남기지 않을가 마음 써오시였다.

오래동안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일해온 서윤석은 1970년대 중엽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일군이다. 그가 장군님의 동지애에 대하여 사무치게 느낀것은 딸아들의 결혼식날이였다.

그의 딸아들은 전쟁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다리를 잘 쓰지 못하였다. 하지만 당의 은정속에 대학도 나오고 동창생처녀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집안의 첫 대사인데다 허물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는것

이 부모의 심정인지라 평소에는 가정일에 무관심한 서윤석이었건만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차려줄수 있을가 하고 은근히 원심을 써왔다.

새 가정을 이루는 아들, 며느리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의미깊은 말도 마음속으로 곱씹어보며 결혼식날을 기다려오던 그가 공교롭게도 대사를 며칠 앞두고 사상투쟁무대에 나서게 될줄이야...

결함의 후과는 엄중했고 그를 비판하는 동지들의 말마디들도 칼날처럼 선뜻선뜻했다. 그는 아들결혼식날에도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울적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식을 하는 집안이 마치 초상난 집과도 같이 썰렁하였다. 손님들로 벅적거려야 할 집에 손님은커녕 이웃들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심각한 비판을 받고 어떤 처벌이 뒤따를지 모를 집에 과연 누가 축하의 인사를 가지고 찾아올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식은 식이어서 부모로서 아들, 며느리가 부어주는 술잔을 받자니 그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듯 한 아픔과 함께 눈물이 절로 났다.

결혼식을 마치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려는 깊은 밤에 때없이 초인종소리가 울리었다.

늦어진 친척이 왔나부다 하며 문을 열어보니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들을 비롯하여 한부서의 동지들이 복도가 비좁게 서있었다.

《부부장동무, 늦어진 우리들을 용서해주시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안계셨더라면 우리가 정말 목석인간이 될번 했습니다.》

서윤석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알고보니 그들은 깊은 밤중에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고 한다.

일군들이 서윤석의 집에 결혼식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는것을 그이께서 아신것은 밤이 꽤 깊어서였다. 며칠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서윤석에게 엄한 비판을 하시고 그러지않아도 마음이 개운치 않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마침 잘되었다, 오늘이 그의 아들 결혼식이라니 아무래도 일군들이 그의 집에 찾아가면 자연스

럽게 위로가 될것이라고 여기고계시었다는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싶어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었는데 누구도 그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것이 아닌가.

장군님께서서는 실망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심장이 작고 인정이 메마른가. 비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인륜대사까지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의 도리이고 떼절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도 자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의 대사를 모르는체 할수 있는가, 그러지않아도 파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은것때문에 마음이 괴롭겠는데 이렇게 동무들이 인륜대사마저 외면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겠는가, 그가 이밤을 뜯눈으로 새울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그를 엄하게 비판한것은 그를 아끼기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때문에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드는데 혁명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고 아끼기때문에 비판을 하고 처벌하는것이다, 동지적비판과 사랑은 혁명가들에게만 있는 고귀한 의리이다, 누구보다 도덕과 의리를 귀중히 여겨야 할 동무들이 비판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 외면하면 동지간의 의리가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찾아가서 그 동무의 대사를 축하해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깊은 밤 서운석의 집으로는 방안이 미여지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신랑, 신부는 다시 혼례복을 갈아입고 사람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상을 마주하게 되었고 금시 아버지의 구실을 못한것으로 눈물을 지었던 서운석은 어머니사랑에 목이 멘 자식이 되어 또 다시 두볼을 적시게 되었다.

이런 나날속에 성장한 일군들이 어찌 장군님과 한번 맺은 동지적 의리, 그이께 다진 충정의 맹세를 저버릴수 있었으랴.

그들은 너나없이 자주 비판과 책벌을 받았으나 결코 그이의 신임을 저울질하지 않았고 때로는 탄광과 광산, 농어촌의 어렵고 힘든 초소로 직무도 거주지도 옮겨야 했지만 혼연히 웃으며 떠나갔다.

그 기일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또 반드시 돌아오겠는지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장군님과 의리에 충실했다.

아픈 때를 안겨 사랑하는 전사들을 떠나보내신 장군님께서서는 험한 로동현장에서 지나치게 심신을 혹사시키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올적마다 모진 아픔을 느끼시였다. 그때마다 그이의 심중에서는 천품으로 지니신 그 무른 인정이 머리를 쳐들군 했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으시였다.

주체68(1979)년에 로동현장으로 내보냈던 박승수가 뜻밖에도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박승수는 백두산창작단 작가로 일하다가 장군님의 신임으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소환된 사람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있던 나에게 그를 소환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박승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해가시던 날 불타는 열정과 실력으로 그이를 받아들여온 능력있는 작가였다.

그를 처음 만나주신 자리에서 그이께서는 고종때 교과서에 실린 서정시 《위대한 심장》을 보고 박승수란 사람이 머리가 허연 사람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은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몹시도 반가와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집이 있는 중구역 대동문동의 로동자아파트로 걸음을 자주 하시였다. 그 아파트에 백인준도 있고 리종순도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나갈 원대한 계획들을 의논하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를 영화문학으로 각색할데 대한 과업을 박승수에게 맡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왜 동무에게 이 과업을 주는가. 동무는 해방전 봉산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 거지보다 못한 인생 밀바닥의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동무의 자서전을 몇번이나 읽어보았다. 《피바다》,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30년대 가장 비참한 최하층 인물들을 그려야 할 책임자가 바로 동무이다. 최하층생활을 체험해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그린다는것이 헛치 않다. 동무는 그것을 실지 체험한 사람이다. 다른 작가들은 출신상 그것을 체험할수 없었다.

박승수는 지도원을 거쳐 그 후 부과장으로 사업하면서 주체60(1971)년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 그 이듬해에는 《꽃파는 처녀》의 영화문학을 훌륭히 만들었다. 까를로비바리 국제영화축전에서 《꽃파는 처녀》가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았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영화의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기뻐하시며 그 성과를 고스란히 박승수를 비롯한 창작가들에게 돌려주시었다.

장군님의 각별한 신임과 배려속에서 그의 존재는 더욱 뚜렷해졌고 명성도 높아졌다. 박승수는 작가이면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우리 나라 영화예술계의 거목으로 자랐다.

그런데 신임이 커가고 직무가 높아지자 그는 점차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영화문학도 역시 박승수에게 차례졌다.

초고를 타고한 그는 현훈증에 걸렸다.

그는 영화혁명시기의 작품들을 자신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으로 여겼고 자기가 없었더라면 이 방대하고 심오한 창작과제를 누가 대신하여 수행할수 있었던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 사상정신상태는 곧 그의 언행에서 표현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이 바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자필로 된 그의 자서전을 보고 또 보시였다.

황해북도 봉산군 구연면 홍수골(오늘의 봉산군 구연리) 백정의 집안에서 다섯형제의 맏이로 출생, 해방후 구연면 민청일군으로, 전쟁시기에는 1211고지에서 사단선동원으로 전선신문인 《조국을 위하여》에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 전후 모스크바 웨스냐끼 레닌공청학교 류학...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아픈 매를 내릴 모진 결심을 하시였다.

박승수는 탄광으로 떠났다.

그는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서 착암기도 잡아보고 광차도 몰았으며 탄부들과 함께 동발목도 세웠고 발파심지에 불도 달아보았다.

잘 생긴 얼굴에 언제나 웃음을 띠고 힘든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 그가 밤마다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는줄 탄부들은 미처 모르고있었다.

그는 불우한 처지에 떨어진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가 아니라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신 장군님의 품이 그리워 울었다.

부모없는 집안의 맏이로서 네 동생의 부모구실을 해야 하는 자기를 헤아려 녀동생들의 결혼식까지 다 맡아 차려주신 장군님, 자기의 어린 아들과 《젊은 기관사》의 노래도 함께 부르시며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시던 장군님이 그리워 밤마다 베개잇을 적시었다.

하지만 그는 알수 없었다. 한해 또 한해 자기가 간절한 그리움에 마음을 쓰며 몸부림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도 자기 못지 않게 마음을 쓰고계시는줄을...

백인준, 리종순과 같은 작가들을 만나 새 작품을 토론하실적마다 이런 때 박승수가 곁에 있었으면 한뫼 단단히 했겠는데 하시며 그의 이름을 거둬 외우시는 장군님의 심중을 읽으면서 두 작가는 박승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했다.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가 로동현장에서 단련을 착실히 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도 펜을 놓지 않고 계속 글도 쓰고 선동사업도 한다는걸 보면 이제야 큰사람으로 되어가는것 같소.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올라옵시다.》

이 말씀을 하신지 두달도 못되어 박승수는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자리에서 뛰쳐일어나시었다.

《왜? 왜 갑자기 죽는단 말이요? 얼마전만 해도 일을 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너무 안타까와 발을 구르시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이께서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였다.

박승수! 그는 이렇게 눈물많은신 장군님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새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것이었고 오래 갚는지 사람들은 세월이 아득히 흘러서야 알수 있었다.

후날 영화부문의 한 지도일군이 영화창작지도에서 파오를 범한적이 있었다. 당선전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그가 오래동안 로동현장을 떠나 문화예술부문에서만 종사하다보니 계급적각성이 무디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로동현장에 내려보내자고 제기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래동안 그의 처벌안이 적혀진 문건을 앞에 놓고 결심을 못하시였다. 이윽해서야 그이께서는 머리를 드시며 《아니, 못 보내겠소. 박승수도 그렇게 단련시켜 다시 데려오자 했던 노릇이 결국은 어떻게 됐소. 그들의 명이 내 뜻을 따라주지 못할가봐 난 못 보내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그이의 가슴속에 박승수라는 한 인간을 잃은 아픔이 수십년동안 무겁게 얹혀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동지들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고행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이이시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정에 무르시고 눈물이 많으신분이였다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다.

전사들을 키우느라 그리도 많은 품을 바치시였고 그리도 많은 밤을 지새우신 우리의 김정일동지!

가요 《동지애의 노래》에는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라는 구절이 있다.

이 노래를 지은 작가 리종순은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육친적인 보살피심속에 머리가 희여온 유능한 작가로서 그이의 마음속에 사품치고있는 동지애의 무한대한 깊이와 뜨거운 열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그 뜨거운 체험이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로 되었고 한 생토록 동지들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 《정성》이라는 두개의 음절로 함축되어 표현되였다.

오늘에도 그리고 먼 후날에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주제가로 될 이 노래를 부르며 동지애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우리 후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에 초석으로 고여진 절세위인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아버지의 그 정성을...

3.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이 복구건설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나(김정숙)는 류학을 마치고 돌아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당시)에서 교편을 잡았다.

들끓는 조국의 현실은 나를 무척 격동시켰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기적적이고 사변적이였다. 이 땅의 곳곳에서 승리자들의 환희와 함께 더 큰 승리를 향해 용솟음치는 영웅적인민의 기상이 나래치고있었다.

나는 그 시기 어버이수령님의택에 자주 찾아가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을수 있었다. 전쟁 3년간 조국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수령님의 현지도길에 체험하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감성, 불타는 애국심과 순결한 충직성에 대하여...

당시 중학생이시였지만 어른들도 견주기 어려운 지성도와 정치적 안목이 담겨진 그이의 말씀은 여러해동안 조국을 떠나있은 나에게 참말 귀중한 강의로 되였다.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그이께 김일성종합대학 동창생인 허담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서울 청계천가 막별이군의 맏아들인 그의 경력은 눈물겨웠다. 철도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로동재해로 사망한 아버지, 장질부사와 기아로 목숨을 잃은 두 동생, 겹쳐드는 불행속에 골병이 든 어머니와 남은 동생을 먹여살려야 할 가정의 짐을 떠메고 13살 소년광부로 백년광산의 오소리굴을 기여다녀야 했던 비참한 과거...

식민지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뼈가 절게 체험해온 허담은 해방 후 새 삶을 안겨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사무쳤다. 원산철도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공장복구와 공청사업, 생산계획수행을 위해 땀흘리며 뛰어다녔고 당의 참된 아들이 될 맹세를 안고 주체35(1946)년 8월 3일 북조선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썼다.

…많은 로동자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이 살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주위에 튼튼히 뭉치자! 이 구호는 날마다 눈에 뜨이게 실현되어갔다. 조직속에서 뛰노는 새로운 젊은이들인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망치를 틀어쥐고 싸웠으며 반드시 이기군 하였다. 왜놈들이 마사놓고 달아난 기관차를 순전히 우리 손으로 완전히 수리하여 시운전에 내보내던 그날, 왜놈들에게서 무식쟁이라고 천대받던 조선로동자들의 손으로 고친 기관차가 굴러나갈 때 우리는 아이들같이 서로 열싸안고 덩굴면서 《만세! 만세!》를 불렀다.

로동속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그 희망을 억센 투지와 합류시켜 새 삶을 꾸미기 시작한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날이 자기 맡은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나를 더욱 즐겁게 하여주었다. 행복한 새 생활은 활개치며 흘러가고 이 나라 청년들은 날로 굳세게 성장하였다.

내 손으로 새것을 만드는 크나큰 기쁨우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준것은 우리 앞가슴에 채워진 당원증,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증서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빛을 주었으며 아무리 곤난한 일에 부닥쳐도 뚫고나갈 용기와 길을 가르쳐주었다. 18살의 내 가슴에 놀라운 힘과 크나큰 긍지를 한가득 채워주신 김일성장군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치고싶다. …

허담이 공장로동계급의 추천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예비과에 입학했을 때 누군가 《우리 나라 명인사진첩》이라는것을 만들어 내돌린 일이 있었다. 거기에 수령님의 영상과 함께 김두봉, 최창익과 같은 당시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사진도 붙어있는것

을 본 허담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평소의 그답지 않게 격분을 터뜨렸다.

나는 김두봉이요, 최창익이요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인인지는 잘 모른다. 우리 조선사람들한테는 그저 김일성장군님 한분이면 다다. 감히 장군님의 영상결에 누구들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는단 말인가. 내가 다니던 철도공장 노동자들이 이걸 봤다면 가만있지 않았을것이다. ...

그날 충격이 컸던 나는 대학에서 돌아오는길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어머님께서서는 허담에 대해 자상히 물으시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울것이 많은 동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원산철도공장 노동자들이 고르고골라 보낸 동무라는것이 마음에 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46년도에 입당했다지, 공장을 지키는 보위대도 조직했다니 그런 동무가 세포위원장이면 마음이 놓여요.》라고 하시였다.

해방후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저마끔 키를 돈구던 복잡한 갈래판속에서 여기저기로 머리를 기웃거리는 학생들에게 학급 세포위원장인 그는 말하곤 했다. 우리에게 김일성장군님 같은분은 없다. 우리가 잘살려면 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그분이 하라는대로만 해야 한다.

허담에 대한 나의 남다른 감정은 아마도 이런 모습에서 움텄던지 모른다. 아직은 새 나라가 자기의 첫 대학생들에게 학용품이나 교복도 보장하기 어려워하던때여서 허담도 껴진 양말을 기워신고 단벌샤쓰로 생활했지만 장학금을 쪼개여 어머니에게 보내는것을 보고 나는 여러모로 원심을 썼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농사군의 딸로 어렵게 살았으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하곤 하는데 그것은 계급적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쩔수없이 통하는 마음이라고 긍정 해주시였다.

2년간의 예비과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친 허담과 나는 주체38(1949)년 9월초에 다같이 류학생으로 선발되였다.

조국을 떠나던 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손수 지으신 계절옷 세벌과 생활용품들을 갖춰주시고 뜨락에까지 나와 배려주시었다.

《어디에 가도 장군님의 기대를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경대가문의 딸이고 또 조선녀성이라는것도 잊지 말아요.》

눈물이 솟구쳐 인사말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한 그 자리가 어머님과 마지막자리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두만강을 넘어선지 스무날만에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날아왔을 때 태를 치며 통곡하는 나의 귀전에 어머님의 마지막음성이 그냥 울렸다. 그 당부가 밤이나 낮이나 나를 채찍질하고 떠밀어 꼭두새벽부터 도서관의 문을 닫을 때까지 책과 몸부림치며 씨름하였다.

그때 우리 류학생들모두가 그러했다. 병사 한명 한명에 조국땅 한 치한치가 매달려있던 때에 오히려 전선에서 병사들을 소환하여 총 대신 펜을 쥐여주신 수령님, 금을 때주면서 류학의 길로 떠밀어보내신 그 원대한 뜻을 뼈에 새기고 문자그대로 학습전투를 벌렸다. 그 속에서 허담도 나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귀국하면서 일생을 약속하였다.

《부러울만 한 배필이구만요.》

장군님께서는 한번 만나보고싶다고 하시었다. 허담이 한생토록 끝없이 흠모했고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도 그 존함을 외우던 위대한 장군님과의 첫 상봉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주체46(1957)년 11월 저택정원에서 책을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허담을 구면지기처럼 맞으시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화제는 끝없이 뻗어갔다. 쓰팔린서거후 소련당의 정책과 동향, 쏘미사이의 군비경쟁과 소련과 서유럽사이의 관계문제, 소련의 집단경리실패와 과학문화발전수준...

그이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허담은 몹시 흥분하여 《정말 놀랍소. 무슨 문제든 내가 하나 알려드리면 열백을 내다보시니 웬만큼 알아가지고는 말하기가 정말 거북했소. 거기에다 호방한 성격과 철철 넘치는 인정미, 듣던바 그대로 정말 범상치 않구만.》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허담에게서 좋은 감정을 받으시었다.

오늘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참 깨끗하고 순결하고 소박하더구만요. 가식도 없지 위선도 모르지, 박식도 한데다가 머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나는 허담 지도원과 같은 인물들속에서 장차 나의 벗이 되고 동지가 될만 한 사람들을 찾고싶습니다.

장군님의 안목은 그때 벌써 조선혁명이 넘어야 할 무수한 산악들을 굽어보고계시였고 그 험산준령을 함께 헤쳐갈 수령님의 김혁, 차광수와 같은 동지들을 생각하고계시였다.

그날밤 수령님께서서는 장군님으로부터 허담에 대한 소감을 들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정숙이가 남자번지개처럼 덜렁덜렁해도 눈은 바로 배긴것 같다고 만족해하시며 허담을 부르시였다.

하여 허담은 난생처음 수령님앞에 나서게 되였다. 그때 그는 얼마나 긴장했든지 이마에 땀이 빠질빠질 돈았다. 곁에 서있는 나도 조마조마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시느라고 이따금 우스개소리를 섞어가며 말씀하시다가 《그래, 언제부터 서로 반했나?련애는 어떻게 했구?》라고 넌지시 물으시였다.

허담은 얼굴이 수수떡처럼 되여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닐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류학 전기간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하다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처음 한번 안아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소리를 내어 웃으시였다.

《그랬으니 둘다 최우등을 했지 련애에만 정신이 쏠렸다면 망태기를 쳤을게다. 네가 경희 어머니의 당부를 잘 지킨것 같구나.》

허담의 인간적인 장점의 하나가 솔직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상시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령도자앞에서는 티끌만 한 가식이나 꾸밈을 몰랐다.

1980년대 중엽이였다고 기억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담에게 집의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는가, 공부는 잘하는가고 여담삼아 물으신 일이 있었다.

《예, 학교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합니다.》라고 무심히 대답

올렸던 허담은 며칠후 장군님께 이런 편지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학교에 알아보니 우리 아이들이 결석은 하지 않는데 장난에 팔려 숙제를 더러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교양에 무관심하고 거짓보고를 한 무엄한 행동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솔직성은 믿음을 얻는 자격증과 같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허담의 이런 인간적바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덧쌓아 그의 한생을 영광으로 빛내주시었다.

며칠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결혼식을 마련해주시고 장래를 축복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뜨겁게 축하해주시면서 허담에게 밤색투쟁의 자그마한 수첩을 내미시었다.

《결혼식기념으로 이 수첩을 받아주십시오.》

정히 받아 수첩을 펼친 허담은 첫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굳어졌다.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1956년 9월 10일 김정일》

그것은 한해전에 쓰신 글발이었다. 그 글을 쓰시던 때의 사연을 나는 알고있었다. 안팎의 원썬들이 우리 당과 혁명을 공격하면서 사면팔방에서 달려들던 준엄한 시기였다.

한권으로는 제국주의자들, 종파분자들, 대국주의자들과 힘겨운 투쟁을 벌려야 했고 또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해서도 고뇌의 낮과 밤을 보내셔야 했던 수령님, 얼마나 힘겨우시었으면 나에게 혁명이 어렵다어렵다 해도 오늘처럼 어려울줄 몰랐다고, 너무 힘드니 떠나간 동지들과 네 형님(김정숙어머님)생각이 간절하다고 토로하시었겠는가.

수령님의 그 천만고생을 곁에서 목격하면서 장군님께서 피가 나에게 쏘아박으신 생의 좌우명이 바로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그것이였다.

그 귀한 글발을 허담에게 넘겨주시는 장군님의 눈빛은 엄숙하였고 음성은 비장하였다.

...지난해 8~9월은 우리 당과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며칠에 한두시간씩은 주무셨다는 수령님께서 지난해에는 닛새밤도 꼬박 새우시었다. 그때 나는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면서 앞으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굳게 다졌다. 죽으나사나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 이것이 나의 최고사명이다. 그 맹세를 여기에 적은것이니 수령님의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영원한 동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첩을 기념으로 드린다. ...

그이께서 15살이 되시던 중학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조국과 혁명에 대한 책임감, 수령님의 위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피를 끓이면서 동지적언약을 맺으시던 장군님은 이미 소년시절을 멀리 흘려보낸 혁명가이시었다.

근 30년이 지난 주체75(1986)년 2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속에 나는 그때 허담을 가문사람으로가 아니라 동지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허담의 눈에 물기가 핑 돌았다. 누구나 바라지 못할 최상의 영광속에 흘러온 한생이 돌이켜졌을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런 엄청난 신임을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미흡했던 그였다. 20세기 가장 복잡다단하고 첨예했던 한 나라 외교전선을 맡아안기에는 더구나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허담을 기꺼이 자신의 동지대오에 받아들이시었다. 내가 체험한데 의하면 동지를 구하는 우리 장군님의 안목은 언제나 그러하였다.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 잘못을 범해도 인간적바탕이 깨끗한 사람은 천금같은 믿음으로 품어안아 이끌어주시었다. 허담도 그 품에서 성장한 무수한 행운아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주체47(1958)년 10월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과장으로 임명된지 얼마 안되는 때에 허담이 갑자기 나에게 장군님을 만나뵈와야겠다고 하면서 그이를 찾아갔다.

장군님께서서는 허담을 보시자 과장으로 임명된것을 축하한다고 인

사부터 하시였다. 사실은 그래서 조언을 받고싶어 왔다고 용건을 터놓자 중학생에게서 무슨 조언인가고 겸양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도 꺼내는 화제들을 진지하게 대하시였고 명백한 견해를 내놓으시였다.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사상적동요와 정치적혼란이 일어나던 당시의 국제정세와 사회주의나라 당들의 실태, 그들과의 사업방향과 같은 예민하고 심중한 정치외교적문제들이 그이의 가르치심으로 하나하나 선명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장군님께서 그렇듯 당당한 일가견을 가지고계신것은 비상한 예지와 통찰력과 함께 무서운 노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어느때 가보아도 그이의 책상에는 수령님의 로작들, 국제정세자료들, 주변나라 신문들이 수북이 쌓여있었고 밑줄을 그으며 탐독하신 흔적들이 력력하였다.

어떤 문제나 명쾌한 대답을 받게 되자 허담은 성수가 났다. 담화는 어느덧 허담이 일방적으로 질문을 올리고 장군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로 넘어갔다. 허담은 나중에 인간에게서 제일 사랑하는것은 무엇이고 가장 증오하는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도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지독한 물음보라고 하시며 유쾌히 응수하시였다. 하지만 잠시후 꺼내신것은 쓰라린 사연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두해전인 주체45(1956)년에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외국방문과정을 상기하시였다.

40여일에 걸치는 동유럽방문기간에 수령님께서서는 각국의 당과 국가 수반들에게서 파괴된 경제를 빨리 복구하려면 쉼브에 가입하라는 지긋은 권고를 받으시였다. 그때마다 우리더러 쉼브에 들라는것은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같이 공부하자는것이냐 같다고 듣기 좋게 거절하면서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마감에 모스크바에서 흐루쇼브에게 이렇게 명백히 대답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기계공업이 없는 조건에서 국제분업에 참가한다면 쉼브성원국들에 원료나 대주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빈 굴박에 남는것이 없게 되고 밤낮 다른 나라에 빈 쪽박을 차고 빌러 다니게 될것이다.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안다!...

조국에 돌아오시여 장군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들에게는 죽을 때에도 버리지 말고 베고죽어야 할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으시였다.

《수령님, 저는 그것이 혁명적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도 그것을 베고죽는것이 혁명가의 인생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대답을 긍정하시였다. 간고한 혁명의 길을 뒤돌아보며 찾게 되는 혁명가의 인생철학에서 두분의 견해는 일치하였다.

심장의 박동소리가 툭－툭－들릴듯이 격동된 허담에게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였다.

《나는 나의 심장에 마음의 기둥으로 높이 세운 혁명적신념을 가장 열렬히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혁명적신념에 자그마한 금이라도 가지 않았는가 하여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가슴속의 더운 피를 끓이군 합니다.》

혁명적신념! 이 다섯글자가 허담의 가슴에도 석문처럼 쏙아박혀갔다.

그이의 말쑥은 더욱 심화되였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간은 신념이 굳세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 의지가 꺾이지 않고 굽어들지 않는 인간이다. 제일 경멸하는 인간은 신념이 없는 인간, 의지가 나약하고 험사리 꺾이는 인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혁명적신념이 강한 인간들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적신념을 버리는 인간들을 그지없이 증오한다.

혁명가는 인생의 시작문도 잘 열어야 하지만 인생의 마감문도 잘 닫아야 한다. 한생토록 혁명적신념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죽을 때 혁명적신념을 베고죽는 인생의 최우등졸업생이 되라! 이것이 내가 부탁하고싶었던 말이다....

무심히 울린 물음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허담은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쑥도 못 드렸다.

《나는 우리 외교일군들에게 가장 중요한것이 자기 수령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겠다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났다. 그것은 허담의 정신수양에서 하나의 도약대로 된 천만냥짜리 《강의》였다.

주체51(1962)년 10월 카리브해위기가 일어났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외무성 부상 허담에게 국제정세와 관련한 자료를 청하시였다.

허담은 자료를 드리면서 앞으로 쿠바사태가 어떻게 번져갈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고압적인 폭언을 두고 세계가 불안과 위구를 감추지 못하던 때였다. 청소한 쿠바인민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사회주의대국 소련은 어떤 립장을 취할것인가. ...

장군님께서서는 서슴없이 쿠바인민은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문제는 소련의 립장인데 쿠바에 있는 로케트무기와 군사기지를 철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소련의 혁명적신념문제이다, 나는 이번의 쿠바사태가 단순히 총과 총의 대결이 아니라 제국주의우두머리와 소련의 당과 정부 특히 흐루쇼브와의 사상의 대결, 신념의 대결이라고 본다고 그 본질을 밝히시였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그해 11월 10일에 흐루쇼브의 일방적인 후퇴로 결속되였다. 그것은 명백히 투항이고 패배였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패배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의 수치였다. 흐루쇼브는 전세계앞에서 수정주의왕초의 본색을 적라라하게 드러내였고 지구상의 반제투사들, 사회주의신봉자들을 실망케 하였다.

피델 까스트로는 로케트들을 철수하겠다는 소련사람들에게 힘들게 가져갈것이 있는가, 여기서 소련땅으로 날려보내주겠다고 울분을 토하였다.

류학시절에 우리는 모스크바방위자들이 자기의 수도를 어떻게 지켜냈고 레닌그라드시민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희생자, 아사자를 내고 하루 60g의 빵으로 연명하면서 어떻게 근 900일동안이나 가혹한 봉쇄를 이겨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소련인민은 파시즘을 타승한 강의한 인민이였고 소련은 제2차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공

현을 한 강대한 나라였다. 카리브해위기 당시에도 핵탄두보유량에서 소련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있었다. 그러면 흐루쇼브의 《양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에 대하여 명철하게 분석해주시었다.

이번 카리브해위기는 흐루쇼브와 같이 혁명적신념이 약한 정치지도자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한걸음 물러서게 되면 나중에는 영원히 물러서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것은 혁명선배들과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로 된다. 한 혁명가가 신념을 고수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 불명예스러운것으로 끝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지도자가 혁명적신념을 고수하지 못하면 당과 국가가 파멸되고만다.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혁명적신념이라는것이 카리브해위기가 남긴 귀중한 교훈이다....

허담은 장군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절로 눈앞에 어려왔다고,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없는 신념의 거인, 담력과 배짱의 거장이신 우리 수령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6년후인 주체57(1968)년 1월 세상사람들이 《동방의 카리브해위기》라고 떠들어댄 또 한차례의 중대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 수역에 침입했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80여명의 선원들을 고스란히 실은채 원산항으로 끌려왔을 때 온 세계가 죽가마끓듯 하였다. 카리브해위기때처럼 승부는 뻔하다고 입빠르게 외워대는 언론들도 있었다.

사태는 사실 그때보다 엄청나게 심각하였다. 카리브해위기가 국력이 어긋비슷한 대국들사이의 대결이었다면 《푸에블로》호사건은 령토나 경제, 군사력 등 여러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상대사이의 대결이었다.

더우기 미국은 1950년대에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만회해보려고 필사적으로 광기를 부렸다. 미국대통령 존슨은 우리가 공해상에

서 저들의 배를 나포했다고 흑백을 전도하면서 배와 선원들을 고스란히 돌려주지 않으면 원산시를 비롯한 북조선의 주요도시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한편으로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들로 구성된 대기동함대와 방대한 항공무력들, 예비역군인들까지 조선반도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고 《〈푸에블로〉 호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최후통첩도 하였다.

《중재자》로 나선 주변나라들도 집요하게 압력을 가해왔다. 남북전쟁이래 미국은 아직 자기의 배를 다른 나라에 빼앗겨본적이 없다, 배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것이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잊었는가, 이러루한 《조언》들을 내들고 각국 외교관들이 우리 외무성에 불이 일게 드나들었다.

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만이 아니라 미제와 반동세력들에 의해 먹칠당한 사회주의진영의 존엄까지 회복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걸머지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창건 20돐경축 연회장에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유명한 선언으로 대답하시였다.

온 세계가 더욱 뚫어번지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담에게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요즘 무슨 책을 보오?》

《일이 바쁘다나니 별로...》

《그렇다고 아무것도 읽지 않는단 말이요? 정세가 아무리 긴장해도 생활은 생활대로 해야 하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가족들과 휴식도 하고...》

허담은 레닌그라드봉쇄에 대한 자료를 보던게 있다고 어물어물 말씀드렸다.

《제가 류학을 가다나니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긴장한 때에 마음속으로라도 전쟁을 준비해야겠기에...》

《아니, 전쟁을 준비하려면 처창즈나 항일유격대생활을 잘 알아야지 동판지같이 레닌그라드는 뭐요?》

《알겠습니다. 그런 책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쏘련류학을 할 때 레닌그라드봉쇄당시 고생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체험담

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꽤 인상깊었습니다.》

《하여간 동무의 솔직성이 마음에 드누만. …허동무, 내가 한마디 더 할가요? 평양은 레닌그라드가 아닙니다. 레닌그라드는 봉쇄되었었지만 우리 평양은 절대로 봉쇄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으시오.》

다음날 허담은 외교사업과 관련한 문건을 들고 장군님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사실은 조미대결과 관련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더 듣고 싶어서였다.

그 시각 장군님께서서는 옷도안들을 보고계시였다.

《종구만, 좋아!》라고 하시면서 도안들을 번저가시다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도안대로 옷을 해입혀 모두 선녀가 되게 하라고 이르고서야 장군님께서서는 허담에게 말씀하시였다.

…얼마전 수령님께서서는 나에게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서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결심채택을 해보라고 하시였다. 나는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배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나포한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옳다, 미국이 조선을 잘못 보고 덤벼든다고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항복서를 받아내여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미국호전광들에게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 큰 나라라고 하여 작은 나라를 업수이어기는 오만한 자세를 꺾어놓아야 한다. 올 때에는 제 마음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세상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내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

그해 12월 미국의 사죄문을 받아내고 선원들을 추방하는것으로 사건이 결속되였다. 그날 허담은 밤늦게까지 거리를 거닐며 말했다.

《미국이 무엇을 몰랐는가. 조선동해는 까리브해가 아니며 평토는 작아도 이 땅에 신념과 배짱에서 세계제일의 위인들이 계신다는것을 몰랐지. 그러니 우리 조선인민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인가.》

《푸에블로》호사건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담대한 신념과 배

짱이 허담의 작은 가슴에도 억척으로 들어앉게 해준 또 한차례의 신념특강이었다.

1970년대초에 수령님께서서는 허담을 외무상으로 임명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13살의 소년광부가 한 나라의 외무상이 되였다고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30여년간 허담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대로 나라의 외교전선을 힘껏 지켜왔으며 조국통일과 해외교포운동에 몸과 마음을 짱그리 다 바쳤다.

지난날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전으로 피투성이가 되여온 조선반도는 20세기 중엽에 둘로 갈라져 지구상 가장 침예한 동서팽전의 전초기지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 분렬주의자들이 저마끔 도발을 걸어오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통략하려고 덤벼들었다. 경제봉쇄도 하고 군사적공갈도 하고 정치적압력도 가하면서 우리 인민의 얼을 빼고 자존심을 거세하려고 하였다.

한 민족의 얼을 빼고 자존심을 거세하는것보다 더 혹독한 무장해제는 없다. 작은 나라일수록 자존심을 굽히지 말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하며 그러자면 군력이 강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이였다.

오늘의 세계는 주먹이 세지 못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하는 힘의 대결장이다. 백주에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짓밟히고 참혹한 고통을 강요당해야 했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은 군사중시, 군력강화의 절박성을 피로써 깨우쳐주고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어찌보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 인민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것은 자주권과 존엄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민이 스스로 걸머진 운명이였다. 그 운명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군력을 키울것을 요구하였고 외교무대에서도 격렬한 싸움을 벌리도록 만들었다.

이런 간고한 과제를 안고있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허담은 늘 무

거운 짐을 지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힘들어할지언정 비판하거나 락심해하는 모습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허담에게 외국통신자료를 내보이면서 《우리 외무대신에 대한 평가가 괜찮소.》라고 하신적이 있다. 거기에는 조선의 외무상이 부드러우면서도 굳세고 침착하면서도 결단력과 배짱이 있으며 립기응변술이 뛰어난 책략가라는 각국 외교관들의 인상담이 적혀있었다.

허담은 얼굴을 붉히면서 《수령님의 권위가 저의 배짱이고 지혜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심어주신분은 지도자동지이십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흔히 외교의 대가들을 론하면서 비스마르크식 철의 외교와 미테랑식 설득외교, 마쓰오까식 간계외교와 처칠식 타산외교, 몰로토프식 침묵고압외교 등으로 특징짓는다.

우리 수령님의 외교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만사를 독자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자주외교, 그 어떤 위협공갈이나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배짱대로 밀고나가는 강경외교, 하나를 통해 백이나 천을 얻는 실리외교, 인종과 제도, 정견과 신앙, 과거경력에는 관계없이 우호적으로 나오는 대상들은 아량있게 포섭하는 광폭외교, 우방들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가장 공명정대한 원칙으로 풀어주는 화해외교이다.

수령님의 이 탁월한 외교사상과 전범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신분은 장군님이시였다. 수령님식외교, 장군님식외교는 그 속에 굳센 대가 있고 탁월한 전범과 예술이 있다. 혁명적원칙성과 인간중심의 사상, 만사람을 매혹시키고 품어안은 인품과 덕망으로 외교에서도 천재이시였던 위인들의 슬하에서 성장하여 공화국외교전략의 충실한 집행자가 된 사람이 허담이다.

1980년대에 있는 일이라고 짐작된다. 어버이수령님의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파업이 허담에게 떨어졌다.

두 나라 실무일군들의 접촉에서 우리 특사방문과 관련한 일정이 토의되었다. 미국측에서는 국무장관이 우리 특사를 만나겠다고 들고나왔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허담은 책상을 치며 격하여 소리쳤다.

《걸어치우라고 하오. 내가 국제비서로 가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특사로 가는데 국무장관이 만나겠다는게 뭐요. 우리는 수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외사업을 하는데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면서 대외사업을 한단 말인가. 항차 철천지원썩인 미국놈들과 맞서는데 …》

허담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래도 가는 거 아니요?》 하고 떠보듯 물으시었다.

《그럼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웁소, 가지 마시오. 역시 허담이답구만.》

당의 외교일군으로서의 허담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권위, 당의 권위는 유일무이한 최강의 보검이었던것이다.

1970년대는 공화국외교사의 전성기였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수반들이 련이어 수령님을 찾아오고 유엔무대와 뿔럭불가담운동권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중에도 특별히 두드러지는것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와 제30차회의에서 달성한 성과였다. 1973년의 유엔총회 제28차회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5년에 있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측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실 그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도 이미 상정되었었다. 그런데 표결시에 유감스럽게도 48대 48이라는 빅장을 기록하였다. 그 책임은 외무상 허담에게 있었다. 유엔총회를 앞두고 현지에서 더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벌려야 할 관건적인 시각에 각국주재 대사들을 조국에 불러들이는 엄중한 실책을 범했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허담을 비롯한 외교부문 일군들을 엄하게 비판하시었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쥐고 흔드는 미국과 맞서 싸우고있다. 그

런데 우리같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태평가를 부르면서 앉아있었으니 일이 제대로 될수 있는가.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먼저 답새길 생각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주동을 쥐고 싸웠다....

그러시고는 다음번 총회준비를 잘하자고 고무해주시었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비록 우리측 결의안이 48대 48로 통과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우리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한복판 뉴욕에 가서 그것도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인 유엔무대에서 미국을 답새기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또 있는가. 바로 이것이 큰 공적이며 우리가 거둔 승리이다. 동무들은 미국이 세계최대의 강국이라는것, 사회주의강국들도 미국에 모자를 벗고 절하고 지어 그 발목에 키스를 하고있는 형편에서 우리같은 자그마하고 분열된 나라의 대표가 뉴욕에 가서 미국을 답새기는 연설을 하였다는 긍지를 가지고 올해 유엔총회를 위한 준비를 짜고들어야 한다....

허담은 자기의 정치적인감성과 무책임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 개인이 미숙하면 그 한사람의 인격이 손상되지만 외교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리익이 침해당하고 그 권위와 존엄이 훼손당하게 된다. 허담은 무섭게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수령님의 로작들을 꾸준히 탐독하여 그 진수를 뼈와 살에 새기었고 국제정세들과 외교사들을 파고들면서 밤낮없이 고심하였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종묵은 유엔에 조선문제가 비법적으로 상정된 때로부터 20여년동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으로 흑백이 전도되어온 조선문제의 본질을 까밝히는 류창한 연설과 능란한 외교술로 우리의 지지세력을 늘이고 적대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쳤다.

전인철도 우리 나라 외교진의 핵심이었다. 정전담판때 우리측 특파기자로 비수같은 필력과 언변을 선보인 그는 당과 정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각종 성명, 비망록, 백서들과 국제회의 보고문, 연설문을 비롯한 대외부문의 문건작성에서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회담장에 우리측

단장으로 나갔을 때에는 능란한 대화술로 회담을 잘 이끌었다. 일본측이 우리의 국호를 북조선으로 밝히겠다고 했을 때 좋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밝히겠다고 하면서 오랑캐 《왜》자를 큼직하게 써보여 상대의 주장을 단번에 일축하였다.

이런 재사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수령님의 탁월한 외교지략과 전법을 훌륭히 구사한 결과에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우리측 결의안이 압도적다수로 통과되고 그해에 리마에서 열린 뿔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는 이 운동 성원국으로 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4(1975)년 1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유엔총회에서 이룩한 승리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 30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큰 승리이다, 우리가 거둔 승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0년동안 쌓아올린 국제적위신과 권위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우리의 주체사상의 위력을 시위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리마외교부장회의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는 다음 우리 당이 대외선전사업과 대외활동에서 얻은 가장 큰 승리라고 선언하시였다.

이런 치하를 받고 흥분에 떠있던 허담에게 주체65(1976)년 3월 어느날 장군님께서서는 가족을 데리고 판문점을 참관하고 오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아침일찍 판문점으로 떠날 때만도 그이의 의도를 다는 몰랐다.

현지에 도착하여 군사분계선의 차단물과 표식선들, 정전담판장을 돌아보고 표식선 남쪽에서 오락가락하는 미제침략군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다가들자 허담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돌아오는길로 장군님께 글을 올렸다.

...제가 지난해 외교활동의 성과에 도취되어 우리 당 외교활동의 기본사명을 잊을번 했는가 봅니다. 오늘 판문점을 참관하면서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심장으로 절감하였고 우리 당 외교활동의 기본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국통일문제로 늘 마음을 쓰시는데 저는 어느새 성과에 자만하여 허리띠를 풀어놓고있었습니다. 오늘의 판문점참관

은 조국통일을 위해 이 허담이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귀중한 강의였습니다....

걸음걸음 이런 깨우침들에 이끌려 허담은 공화국의 외교일군으로서 조국통일운동에 적으나마 기여를 할수 있었다.

우리가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준것을 계기로 1980년대 중엽부터 조선반도는 동포애의 열기와 통일의 기운으로 급격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북과 남사이에는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여러갈래의 대화가 동시에 벌어졌다. 세계여론은 조선반도에 《제2의 대화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평하였다.

이무렵 수령님께서서는 한편으로 북남최고위급상봉도 구상하고 계시였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의명분앞에서 그 특유의 도량을 다시금 펼치신 수령님께서서는 북남수뇌상봉교섭을 위한 특사로 허담을 내세우시였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장군님께서서는 허담에게 나는 동무가 맡은 일을 원만하게 해낼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동무의 곁에 내가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을것이라고 고무하시였다.

주체74(1985)년 9월 9일 허담은 어린시절의 추억이 가물거리는 서울에서 40년동안 쌓이고쌓인 분렬의 한을 안고 남측 당국자와 마주앉아 우리 당의 통일외지, 수령님의 통일전략을 정확히 전달하였고 최고위급회담문제를 순조롭게 토의하였다.

그후 량쪽의 특사들이 몇차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거의나 무르익어가던 최고위급상봉은 남측의 일방적인 후퇴로 하여 류산되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허담이 특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후에도 중요한 임무가 나설 때마다 허담을 내세우시였다.

1980년대 중엽 허담은 평양에 온 재미교포녀류기자를 만났다. 그가 평양소감을 말하면서 미국에는 고층건물도 많고 변화한데 평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다는것을 알게 된 허담이 일부러 시간을 내였던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고한 원주민들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피눈물우에 일떠선 나라가 아닌가. 그런 미국이 지난 전쟁시기에 이 땅에 1km당 18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 재더미우에 집을 짓고 공장을 세우느라고 어린 학생들까지 손에 피멍이 들도록 벽돌을 날랐다. 선생이 우리 나라에 여러번 왔지만 뭘 해놓은것이 있는가. 판조적인 립장에서 보면 안된다.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는 눈으로 보라. 당신도 조선사람이 아닌가. …

허담의 말은 사실 마음속에 항상 웅어리져있던 자신의 한스러움을 토로한것이였다. 그는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국에 가서 편안히 공부를 한데 대해 늘 죄스러워했다. 류학시절 조국에서 보내온 신문에서 원산철도공장시절의 친구가 공화국영웅이 된 소식을 본 그는 너무 흥분하여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

…장하다. 너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네가 한량없이 부럽다. 너는 아마 내 가슴에서 북받쳐오르는 안타까움, 내 동무들이 총창을 쏘고 판가리싸움터로 달려나갈 때 라디오에 매달려 마지막보도까지 듣기만 해야 하고 먼곳에서 주먹을 부르짖고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을 다는 모를것이다. 한달음에 조국땅으로 달려가 놈들을 요정내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우리에게 총을 달라, 총을! 하고 조국을 향해 웨쳤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번씩 탄원서를 써서 김일성장군님께 올렸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편지하시기를 《동무들의 과업은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고 선진과학을 습득하여 조국창건의 튼튼한 거석이 되는것입니다.》라고 하시였다. 우리 령도자의 이 크고도 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다. …

그 어디에 있든 조선민족의 념을 간직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으로 허담은 자신도 채찍질하였고 동포들도 깨우치면서 통일의 디딤돌들을 마련해갔다.

외무성일군들이 지금도 외우는 이야기가 있다. 허담이 외국출장을 갔다가 랑장집합에 거부기알들을 넣어 항공편으로 실어온 이

이야기이다.

언젠가 그는 장군님으로부터 건강장수에 거부기알이 특효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둔 허담은 외국출장을 갈 때마다 여러 통로로 탐문하면서 무척 애쓰던 끝에 파키스탄의 카라치해안에서 단번에 100여개의 거부기알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령물은 온습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선도와 약효를 보존할수 없었다.

허담은 팽장집합에 거부기알을 넣고 얼음주머니를 넣었다꺼냈다 하며 온습도를 조절하면서 귀국행을 하였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수령님의 건강에 항상 마음을 써온 허담이었지만 수령님께서 직접 주신 한가지 특별과업만은 끝내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1970년대 중엽에 있는 일이었다.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었던 그는 어느날 밤늦게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제발 저의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동무의 청을 들어줄것을 약속하오. 뭘지 어서 말하오.》

이렇게 시원히 대답하시었지만 건강을 돌보셔야 한다는 허담의 말을 들으시고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에게는 쉴 시간이 따로없습니다. 내가 한시간 쉬면 전국이 한시간 활동하지 못하는것으로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나의 결론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무는 다 모를것입니다.》

며칠후 허담이 다시 갔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색안경을 껴보고계시었다. 눈이 충혈져 그냥은 수령님앞에 나설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고 하시는 장군님께 허담은 또 한번 간청을 드렸지만 되려 설복당하고말았다.

주체65(1976)년 여름 위대한 장군님을 뵈은 허담은 깜짝 놀랐다. 그이께서 몰라보게 수척해지셨던것이다. 극도의 피로로 하여 아예 입맛을 잃고 끼식을 건느면서 사엽하신다고 누군가 알려주었다. 《판문점사건》으로 하여 긴장한 속에 그이께서 매일 2 000매이상의 문건을 처리하시던 때였다.

《이런 때 제일 입에 당기는게 뭘지 아오? 얼음을 뚫은 랭수란 말이요.》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물고뿌를 쥐시는것을 본 허담은 눈물을 찻터삼키며 돌아왔다. 그는 재외대표부들에도 포치하여 입맛을 돋구는데 좋다는 음식과 요리법들을 모두 알려오게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요리들도 마련하여 장군님을 모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셔야지 그러다 아예 누우시면...》

《고맙소. 동무의 정성을 잊지 않겠소.》

장군님께서서는 사의를 표시하면서 수저를 드시였다. 하지만 몇 술도 들지 못하고 도로 내려놓으시였다.

《이거 안됐소. 입안이 헐어서 넘기기가 힘들구만. 내 이다음에 봉창하지.》

허담은 눈물이 그렁하여 더 권하지 못했다. 그는 각국의 수반들과 당수들, 정치인들을 수많은 대상해오면서 정기휴가요, 명절이요 하는 조건으로 빈번히 면담날자를 조절해야 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조선혁명은 이렇게도 간고한것인가. 아니, 그래서만이 아니였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인민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온몸을 불길처럼 태워가시는 열정의 화신-김정일동지! 것처럼 위대한분을 받들어 내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치리라 허담은 맹세했다.

장군님에 대한 이런 끝없는 경모심은 1970년대 중반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급격히 고조되였다. 당중앙위원회로는 그이의 초상화를 일터와 가정들에 모시게 해달라는 청원이 매일과 같이 올라왔다. 이 일만은 장군님의 승인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인정한 일꾼들은 인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장군님의 초상화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날 허담을 부르시였다.

《동무의 방에 아직도 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있다는것이 사실이요?》

사실이라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한결 늦추어진 어조로 동무가 특별지시문을 집행하는데 앞장서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것이 아닌가고 하시였다. 그 순간 허담은 가슴이 섬쩍했다. 왜 자기를 부르시

였는지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평도자의 초상화를 모시는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인민에게 있습니다. 인민의 승인이 없이 초상화를 내려모실수 없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에 가서 당적책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모시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를 어떻게 받드는가 하는 문제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문제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을 탕 치며 일어서시었다.

허담동무, 우리는 수령님 한분만을 모셔야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기에 나도 있는것이다. 동무가 나를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지도자도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지도자다. 똑똑히 들어두라. 김정일은 수령님을 받드는 김정일이다!...

지구라도 깰것 같은 노성이었으나 허담은 끝끝내 그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때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다 그랬다. 그 지시문은 장군님을 잘 받드는 길이 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는 길이라는 신념의 기둥을 인민들의 가슴에 더 굳게 세워준 하나의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주체74(1985)년 1월 26일 집에 돌아온 허담이 별안간 붓과 먹을 찾더니 백지에 《일심단결》이라고 정성들여 쓰는것이였다.

《이게 뭔지 아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이란 말이요. 그이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소. 혁명은 단결이며 단결은 혁명이다, 혁명투쟁에서는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단결로부터 시작된것이 우리 혁명이며 단결을 무기로 하여 승리하여온것이 우리 혁명이다,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였다, 일심단결은 나의 혁명철학이다라고 말이요. 일심단결, 이 말은 한마디로 지도자동지와 사상도 뜻도 정도 모두 하나로 합친다는 그 소리요.》

그해 3월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부서별합창경연이 있었는데 허담이 속한 부서에서는 일심단결을 종자로 하는 합창시를 무대에 올렸다.

부서의 책임일꾼들이 합창대오의 앞에 나서서 앞에서도 한마음, 뒤에서도 한마음, 바로누워서도 한마음, 돌아누워서도 한마음, 꿈을 꾸어도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이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시를 읊던 일을 장군님께서서는 후날에도 여러번 외우시었다.

하지만 허담이 《일심단결》이라는 이 네 글자의 참의미를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된것은 몇해후인 주체78(1989)년 6월이었다.

아침일찍 허담은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날 외국 출장을 앞두고 결론받을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이를 한번 더 뵙고싶어서였다.

허담의 그 마음을 대번에 들여다보신 장군님께서서는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많은 말씀을 해주시었다. 출장기간 류의할 문제들, 현 국내외정세와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문제들 지어 혁명가의 품모에 대한 뜻깊은 말씀도 해주시었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허담이 온 정신을 기울여 듣고있는데 장군님께서 피곳 시계를 보시더니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다됐다고, 그렇지만 비행기출발시간을 10분만 연장시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가라고 하시었다.

허담은 눈굽이 찢릿이 젖어들었다. 말씀 한마디에도 정이 똑똑 흐르는분, 가슴속에 바다같은 정이 첩첩 넘치는 자애깊은분의 슬하를 잠시라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운함이 밀물처럼 물려들어 저도 모르게 이런 아뢰임이 튀어나왔다.

《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뵙을 때마다 쉬이 떠나지 못하는것은 지도자동지의 덕망에 완전히 반해버렸기때문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점양의 손짓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찬사를 혁명가의 품모문제,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에 대한 문제로 돌리시었다.

...혁명가는 인덕이 있어야 한다. 뜻과 인덕으로 벼을 얻고 동지를 얻는것이 혁명가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높은 뜻을 지니시고 인덕의 정치를 하

신다. 그래서 만사람이 수령님의 품으로 구름처럼 모여드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이 진실로 뭉친 일심단결의 대가정이 되려면 서로 정이 통하고 한마음한뜻이 되어 뭉쳐야 한다.

일심단결이란 허공에 있는것이 아니다. 믿어주고 따르는 우리 수령님과 인민의 마음속에 일심단결이 있다. …

허담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구호를 이렇게 장군님의 뜨거운 정을 눈물겹게 받아안으며 자기의 뼈와 살로 체득하였다.

허담을 두고 언제든지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7(1988)년 1월 3일 허담과 어깨를 꼭 껴안으시고 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사진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나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동무를 찾는다. 동무 역시 그때마다 나한테 달려오군 한다. 동무는 언제나 나를 그리워하고 나는 늘 동무가 보고싶다. 우리는 뜻도 하나이고 마음도 하나이며 몸도 하나이다. 나는 이 사진에 우리모두가 피와 정이 통하고 생각도 지향도 꿈도 같은 일심동체의 동지가 되자는 당부를 담았다. …

한해후인 주체78(1989)년 2월 7일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사업수첩을 나누어주시다가 《여기에 기념수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허담이 청드리자 서슴없이 이렇게 써주시었다.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 1989. 2. 7. 김정일.》

허담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것은 반세기전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김혁동지에게 써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친필과도 같은 글발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지금 꿈을 꾸는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담을 백번 합친다 한들 어떻게 김혁동지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친필을 받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난 동무가 그렇게 허심하고 솔직하기때문에 좋아하오. 허심하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충신이 되는 법은 없소. 나는 동무를 우리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전사로, 동지로 굳게 믿기때문에 이 글을 써준것이니 일을 더 잘하기 바라오.》

한달후 허담은 또다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중요한 과업을 주시려는것으로 짐작하면서 방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래일이 동무의 환갑날인데 나와 같이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을 맞으며 마련한 전시회를 돌아보고는 환갑상을 받아야겠다고 하시였다.

허담은 황황히 사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심혈을 바쳐가시는 조국통일위업이 이룩되기 전에는 환갑이고 뭐고 절대로 쇠지 않겠노라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단단히 못을 박았던 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상을 보내주겠으니 성의로 알고 꼭 받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지난 2월초에 허담비서동무에게 사업수첩을 주면서 거기에다 기념삼아 글을 써주었는데 그 글에는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김혁의 사업수첩에 <너는 김혁, 나는 성주>라는 글을 써주신것처럼 나는 허담동무에게 준 사업수첩에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이라고 써주었습니다.

…내가 써준 글은 허담동무에 대한 나의 믿음과 기대의 표시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이 글을 생각하면 아마 힘이 생길것입니다.

김혁, 김책동지들이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것처럼 허담동무는 90년대의 김혁, 김책이 되어 당을 높이 받들어야 하며 항상 나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같은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허담은 정신육체적기력을 깡그리 다 바치다가 두해후에 운명하였다. 언제인가 사고로 하여 어깨를 수술하면서 박아넣었던 철심도 끝내 시간을 내지 못하여 뽑지 못한채 갔다.

허담은 젊은 시절에 당뇨병을 얻어 장군님의 속을 무던히도 태웠다.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의 명약이란 명약은 다 구해주시고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 치료받도록 해주시였다. 사랑의 《명령》으로 료양소로, 휴양지로 떠밀어보내신적은 그 몇번이었던가.

그때마다 허담은 언제 한번 만족을 못 드리고 속만 태우는 《병쟁

이》가 되었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기일전에 돌아와서는 장군님께 말씀드리곤 했다.

저의 병에는 그 어떤 의학적인치료보다도 정신적안정과 고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을 해야 오래 살수 있고 지도자동지결에 있어야 몇 시간이라도 더 살수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것은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고무와 용기를 얻고있기때문입니다. 이제 저를 지도자동지의 품에서 떼어낸다면 이 허담이는 공기 빠진 고무뿔처럼 풀썩하고말것입니다. ...

병고보다 걱정을 끼치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며 그는 나에게도 하소했다.

지도자동지께서 나를 오른팔이라고 믿어주시는데 사람에게서 오른팔은 제일 힘을 쓰는 팔, 제일 자주 쓰이는 팔이다. 하지만 나는 그이께서 요긴하실 때 언제 한번 힘을 쓴적도 없고 또 그런 재목감도 못되었다. 도대체 그 오른팔의 구실을 해본적이 있는가. 한생 믿음만 받고 보답을 못하는것이 참말 고통스럽다. ...

그렇게 나와 의사들을 설복하고 병원을 뛰쳐나가 일을 계속하다가 끝내 소생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모시고 병원에 나오시였다.

나는 혼수상태에 빠져 눈도 뜨지 못하는 허담을 목터지게 불렀다. 수령님의 분부라면 지구끝에도 달려가던 그가 고향에 병문안을 오신 수령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허담이 이렇게 되다니 하시면서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그리고는 그가 잘못되어도 자신께는 알리지 말라고, 가슴아파 견디지 못한다고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도 목아프게 그를 부르시였다. 전에도 허담은 가끔 혼수상태에 빠지곤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이의 목소리만 들으면 한순간이라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곤 하였다. 그래서 허담에게는 자신을 알아보는 보조신경이 있다는 우스개말도 해주시였는데 그날은 마지막 보조신경도 기척이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 허담이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너무 무

리했다고, 휴식도 하고 치료도 제때에 받아야 하겠는데 그저 일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눈물을 펄펄 쏟으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허담동무를 제때에 휴식시키고 치료도 시키자고 모든 힘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해온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기척없는 허담을 내려다보시며 조직비서는 사람 복이 없다, 좀 키워서 일을 시킬만 하면 다 떠나가는구나 하고 아픈 말씀을 하시었다.

나는 그때 허담이 장군님께 올린 편지의 한 구절을 생각했다.

《…차라리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하시는것을 보니 정말 괴롭고 죄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면 지도자동지의 마음만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

장군님과 떨어져있으면 밥맛도 잃고 잠도 못 자는 그가, 병석에서도 《그 품 떠나 못살아》라는 노래구절을 외우며 꿈에도 장군님을 찾아가던 그가 자기를 버려달라는 편지를 쓴 그 심정을 나는 안다. 앓고있는 전사때문에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쓰고 피로와하셨는가를 너무도 많이 보아온 그였다.

후날 허담의 령구앞에서 장군님께서서는 그 편지구절을 외우시였다. 그렇게 솔직하게 쓴 편지는 처음이라고,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는가고 하시며 그 편지를 보고서도 허담이 진짜배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병원 원장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허담의 생을 최대한 연장하라, 이것은 당적분공이라고 하시었다. 그 사랑속에 기적같은 6개월이 더 흘렀다.

허담은 글 한자 쓸수 없게 눈이 보이지 않고 손발이 퉁퉁 부었을 때에 나에게 대필을 시켜 이런 편지를 장군님께 올렸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기다리시는데 먼저 떠나가는 이 불충한 전사를 용서해주시오. 차라리 이제는 제가 가는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괴롭히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담이 육체는 가더라도 넋만은 꺼지지 않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결에 영원히 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높이 웨칠것입니다.

〈김정일장군 만세! 만만세!〉》

그리고는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 손짓으로 원주필을 찾더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뽀뽀뽀뽀 써내려갔다.

허담이 끝내 사망했다는 비보가 위대한 장군님께 전해진것은 주체80(1991)년 5월 11일 23시경이었다.

그달음으로 병원에 나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잠든듯 기척없이 누워있는 허담을 소리쳐 부르시면서 눈을 뜨라, 내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왜 대답이 없는가고 오열을 터치시였다.

하면서도 행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지 손수건을 쥐신채 허담의 주변을 그냥 돌고도시였다.

아무리 부르고불러도 여전히 대답없는 허담을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다 떠나가면 나 혼자 혁명을 하라는가.》라고 목놓아 웨치시였다.

나는 그이께 다가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허담동무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원이 없이 받다가 갔습니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라고 목이 메여 말쑤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허담동무는 자신께 무한히 충실한 진짜배기 충신이었다고,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충실성도 높고 정열도 높고 재능도 있는 자신의 혁명동지였다고 곱씹어 뇌이시였다.

그러시면서 허담동무의 생애는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혁명전사의 참된 삶이었다고 값높은 치하를 해주시였다.

《허담동무는 우리 수령님을 잘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생을 값있게 보내자고 맹세하였으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

허담동무가 생전에 다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맡아합니다. 우리는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고 허담동무의 뒤편까지 맡아하는 심정으로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

주체100(2011)년 3월 8일 나를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허담이 떠나간지 꼭 스무해가 된다고 외우시면서 또다시 그를 추억하시였다.

《허담동무는 오직 당밖에 모르는 진짜배기 충신이였습니다. 허담동무는 한평생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였습니다. 허담동무는 나의 오른팔이나 같았습니다. …허담동무는 아는것이 많았고 연설도 잘하였으며 정열가였을뿐아니라 다정다감한 일군이였습니다. 그와는 말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고지식하였으며 인상도 좋았고 작품도 좋았습니다. 허담동무는 나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세월은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일하던 많은 동지들이 이제는 우리곁에 없다. 김일, 림춘추, 최현, 오진우, 최광, 연형묵, 김중린, 김용순, 조명록…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한 구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과 뜻과 정을 같이하면서 온몸이 육탄이 되어 돌진하던 주역들, 그들의 고귀한 녀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뭉친 충신들의 모습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는 그 녀이 있어 조선혁명앞에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만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주체71(1982)년은 우리 공화국의 공지가 하늘에 닿은 해였다.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게 되고 인민이 신뢰하는 당의 령도자의 탄생 40돐을 맞이하는 해, 또한 무적 필승의 혁명무력이 50번째 년륜을 새겨넣게 되는 경사에 경사가 겹친 해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과 군대!

이 무한한 공지로 인민의 가슴이 뚫고 민족의 대경사를 성대하게 맞이할 열망으로 온 나라가 끓었다. 대동강반에서는 주체사상탑이 하늘을 찌를듯 치솟았고 해방의 감격이 파도치던 옛 공설운동장앞에는 개선문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았다. 인민대학습당과 빙상관, 만경대유회장...

온 나라 도처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공장과 협동벌들은 우렁찬 창조의 동음으로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있었다. 하루가 지나면 어느 공장이 새로 조업했다는 소식, 또 하루 지나면 그림같은 새 거리와 문화주택들이 생겨났다는 소식...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런 보고들에 이제는 정말 혁명을 해온 락을 본다고 만족스러워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71(1982)년 2월초 나에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지금까지 조직비서의 생일상을 한번도 차려준적이 없는데 이번 40돐때는 꼭 마주앉아 축하해줄 생각이다. ...

여러해째 수령님을 모셔오지만 그런 말씀을 받기는 처음이였다. 심중깊이 물어오신 뜨거운 정이 뭉클 가슴에 젖어왔다. 그 순간 한해 전 여름 수령님을 모시고 삼지연에 갔을 때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던 일이 떠올랐다.

동무가 정말 부럽소. 나는 벌써 한달이나 수령님을 뵈지 못했는데 동무는 매일 뵈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소. ...

수령님께서 오실 때면 뵈기 전부터 눈가에 반가움이 가득 실리시던 그이께서 이제 뜻깊은 생신축하를 받으실 생각을 하니 벌써 가

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서둘러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필쩍 놀라시면서 수령님께 잘 말씀드리라고, 자신은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단마디로 거절하시였다.

쉬이 수락하지 않으실줄 짐작은 했지만 너무도 단호한 태도에 당황해진 나는 수령님께 사실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조직비서가 그러더라 말이지. …》

수령님께서서는 뒤집을 지고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걸음마다 추억이 물어오시는듯 걸다가는 멈추고, 그러다가 다시 걸으시고… 한참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여태 조직비서의 생일을 제대로 쇠여준적이 없다. 그가 어렸을 때는 전쟁을 하고 복구건설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누구나 허리띠를 조여매던 때여서 생일이란 말을 꺼낼수도 없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당에 들어온 후로는 밤낮없이 뛰여다녔으니 생일이라고 마주아아볼새도 없었고, 이만큼 세월이 흐르니 그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데 이번까지 그냥 보낼수는 없을것 같다. …

나는 그때 30년전, 장군님의 탄생 10돐을 맞던 일을 더듬었다. 주체41(1952)년 2월 중순경의 어느날 아침 겹쌓인 피로를 날려보내시듯 손끝이 쨍해오는 찬물로 세면을 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강덕수부판장에게 이제 며칠 있으면 자제분의 생일이 되는데 어떻게 들 지내는지 알아봐달라고 이르시였다.

갓 부판으로 임명된 현주영이 사과와 밤, 아동용자전거를 가지고 떠났다. 며칠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리신 장군님께서 처음 보는 부판이라고 서먹서먹해하시더니 곧 아버지께서 건강하신가고 눈물이 글썽해서 물으시더라고 하였다.

그렇게 수령님의 축하를 받으신 날이 어찌면 우리 장군님의 추억 속에 가장 성대한 생신날로 새겨져있을런지도 모른다. 년년이 찾아오는 탄생일들을 화려한 성찬이 아니라 혁명에 대한 헌신분투로 맞이해오신 장군님께서 40돐이라고 어이 다르시랴만 수령님의 한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용기를 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내리신 결심인데 제힘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겠소? 전사가 무슨 생일을 천단 말이요?...》

그이의 마음을 어찌 모르랴. 몇해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자고 전당과 전민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수령님께서 품어오신 소망을 한가지한가지씩 실천해오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럼 이런 뎨 어떻게 하면 좋은가....

《책임서기동문 수령님께서 탄생 40돐을 맞으시던 때의 일을 알고 있소?》

그이의 물으심에 나는 다시 추억의 물결에 휘말려들었다.

주체41(1952)년 4월 15일을 나는 의주에 있는 류학생강습소에서 맞았다. 전후복구건설의 위대한 구상속에 친위중대원들도 배움의 길로 서슴없이 떠밀어보내신 수령님의 곁에서 제일 마지막사람으로 내가 떠났다.

뜻깊은 그날도 때없이 쿵-쿵- 울리는 폭음과 적기들의 아츠러운 공습에 조여드는 가슴을 불안고 우리는 평양의 하늘가를 향해 《최고사령관동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하고 목청껏 웨쳤다. 그리고는 어깨성을 쌓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수령님만 계신다면, 천지가 불에 타고 강토가 재로 변해도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수령님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고 모든 가정과 매 개인들의 운명이시라는 신념이 가슴속에 철기둥으로 자리잡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떼지어 밀려드는 제국주의강적앞에서도 두려움을 몰랐고 승리의 기발을 고지마다 휘날려온것이였다.

이런 심정이 4월 12일 백송리를 찾아가신 수령님께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드린 축하의 인사에서도 뜨겁게 맥박쳤다. 후날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1부위원장으로 사업한 어문학부 학생 최영화는 그때 자작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에서 김일성장군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리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최고사령부에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탄생 40돐을 열렬히 축하하며 성대히 경축할것을 열망한다는 인민

군전사들과 인민들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이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생신날과 관련해서는 다른 내색을 못하도록 엄하게 막으시였다. 안팎의 정세가 참으로 준엄하던 때였다. 전쟁의 종결과 전후복구의 구상을 놓고 수령님께서 심신을 다 바쳐가시던 때였다. 전선은 고착되고 판문점에서는 정전담판이 시작되었지만 그 막뒤에서는 《영예로운 정전》을 꾀하는 미제의 흉악한 음모가 꾸며지고있었다. 당내에서는 수십만명의 당원을 출당시킨 허가이의 행위를 바로잡고 당대렬을 강화하며 판료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었다. 어디서나 수령님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가르치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때였다.

4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애가 사업보고를 드리러 최고사령부에 찾아왔다. 그는 가르치심을 받고 집무실을 나서려다가 다음날이 수령님의 탄생일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맨손으로 온 자신을 질책하면서 오늘 저녁 이곳에서 묵고 래일 가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수령님께서서는 혼연히 수락하시고 김종항서기와 부관들을 부르시였다.

《박동무가 오늘 저녁 여기서 식사하고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가?》

《장군님, 걱정마십시오.》

그러지않아도 기회만 노리던 그들은 사기가 나서 대뜸 팔소매를 걷어붙이였다.

《그럼 우리끼리만 앓겠는가. 다른 동무들도 오라고 하자. 소련대사도 데려오고…》

수령님께서 이렇게 이르시자 그들은 자못 엄숙해지기까지 하였다. 전체 인민들의 소망을 담아 외국손님까지 참가하는 축하연을 준비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차려진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재간이 있다 해도 그때의 조건에서 무엇을 준비할수 있었겠는가. 숨이 차게 뛰어다니며 밤늦게야 최고사령부의 아래웃간을 터쳐놓고 소박한 상을 차려놓은 그들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우리는 정녕 이렇게밖에는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경축할수 없

단 말인가.

그런데도 수령님께서는 수고를 끼쳤다고 도리어 미안해하시였다.

이때 소련대사관성원들이 자기네 관례대로 대형폴트를 네명의 목도에 태우고 나타났다. 얼마 안 있어 소련대사관 서기관이 나타나 라즈바예브대사에게 문건 하나를 내밀었다. 라즈바예브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수령님께 쓰팔린동지가 보내온 전보문을 읽겠다고 정중히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 앞 평 양

나는 조선인민에게 량곡이 요구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씨비리에 장만해둔 5만t의 밀가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밀가루를 조선인민에게 선물로 보내줄수 있습니다. 당신의 동의여부를 전보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즉시 밀가루를 보내겠습니다. 인사를 보내면서

이. 쓰팔린
1952년 4월 14일

전보문을 받아드신 수령님께서는 몇장의 축하장보다 이렇게 밀가루를 선물로 보내주는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감동되어 말씀하시였다.

후날 수령님을 만난 자리에서 쓰팔린은 《그때 김일성동지의 생신날에 축전을 보내기보다 밀가루를 보내면 더 기뻐하실것이라고 생각되어 차에 실어놓았다가 4월 15일에 조선에 도착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주체41(1952)년 4월 15일 《로동신문》에는 수령님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만경대와 보천보에 기념관을 건설하며 해산진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고급중학교를 건립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내각수상 김일성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그이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라는 내각결정 제64호가, 이보다 앞서 4월 10일부에는 《독자들에게: 오늘호와 함께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별지로 발송한다. 편집국》이라는 알림문이 실리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하여 발행한 《김일성장군의 략전》은 그렇게 처음 공개되었다.

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시였지만 우리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온 나라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이 굽이치는 속에 뜻깊게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한번 새겨보면 이 모든것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쌓으신 업적의 거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령님께서 절머지셔야 했던 엄청난 중하를 반증하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민족과 진보적인류앞에서 반제자주의 최전선을 지켜내야 할력사적, 시대적중임을 맡고계시였고 그로 하여 말로는 다 형언할수 없는 모진 로고를 겪으셔야 했다. 그래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돌이켜보는 장군님의 추억에는 언제든지 가슴저릿한 아픔이 비끼군 했던지도 모른다.

주체71(1982)년 1월 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엄하게 이르시였다.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이 나의 생일 40돐이라고 하면서 올해 2월 16일을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기념하겠다고 하는데 그해서는 안된다.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과 비서들에게도 말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날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성대히 기념하지 못한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일군들이 그전에 수령님 탄생 40돐도 성대히 기념하지 못하였는데 나의 생일 40돐까지 그냥 스쳐보낼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는데 나의 생일은 쇠지 않아도 일없다. 나도 동무들과 같이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리는 전사다. 전사는 수령님만을 알고 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러 모시는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나는 생일이 40돛이든 50돛이든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로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고있는 한 절대로 생일을 쇠지 않으려고 한다. 올해에 우리는 수령님탄생 70돛만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경축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

이처럼 고결하신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시켜드려야 할지 나는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우리 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로 뜻깊게 기념할 날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뿐이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전화를 끝내시였다.

사연을 다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토의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가 일개 가정사가 아니라 국사이며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당의 총비서로서 제기하는 동지적관계문제라는 뜻을 명백히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집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조직비서가 40돛생일을 쇠는것을 극력 반대하는데 자신의 생각은 정치위원들, 부총리들만이라도 모여서 축하해주면 어떤가 하는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으시였다.

김일동지, 오진우동지들이 수령님의 제안을 그대로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여 그대로 탁착되였다.

그 결정을 어길 권한은 장군님께도,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이젠 됐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장군님께서 전화로 나를 찾으시였다.

자신께서 계속 반대하였는데도 수령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아 끝내 결정으로 채택되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생일을 쇠겠는가, 수령님께 다시 보고드려보겠지만 2월 16일에 오찬을 차리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최대한 간단히 조직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탄생일 전날에도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신 장군님께서는 행사일정을 알아보시면서 《나는 수령님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것만 하여도 지

내 과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한생을 그렇게 보내오신 장군님이시였다. 어느 생신날엔가는 일군들이 축하를 드리러 찾아갔을 때 자신께서는 2월 16일이 오면 얼마나 웅색해지군 하는지 모른다, 올해의 2월 16일은 어서 지나갔으면 하였는데 이젠 24시가 되었으니 17일이 되었다, 드디어 굴레를 벗은것 같다고 하셨다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렇게 불같이 살아오신 그이의 40년이 우리 혁명사에 어떤 자욱을 새겨놓았는가를 주체71(1982)년 2월 16일, 력사의 그날은 전하고있다.

10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 도착하시였다.

전문섭호위사령관과 김석창부사령관 그리고 우리 서기들이 삼가 올리는 축하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그이께서는 1층 응접실에 들어서시였다.

그곳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성원들,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이 또다시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이어 김일 제1부주석이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 4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전달하고 금별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달아드리였다.

우리 당과 혁명앞에 쌓으신 거대한 업적이 그 메달과 훈장속에 빛나고있었다. 하지만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을 수령의 사상이 맥박치는 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품으로 건설해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어떻게 그 메달과 훈장에 다 담겨질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지나온 나날처럼 앞으로도 조선혁명을 역세게 떠받드는 기둥들이 되자는 무언의 당부가 나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두와 함께 3층 소연회장 응접실에 올라가시였을 때 드디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오시였다. 마음속 깊은 소원을 이루신 기쁨으로 수령님의 안광은 해빛처럼 빛났다.

두분이 축하의 인사를 나누시던 시각 만장은 환희와 감격의 물결로 설레이었다.

소연회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자그마하고 산뜻한 방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당과 국가의 일군들이 자리를 잡았다.

오진우인민무력부장이 일어서서 축배사를 시작했다. 40년전 조종의 산에서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리던 감격과 환희가 되살아온것인가, 이국의 산야에 묻히면서도 조국의 해방과 후대들의 행복을 념원하던 선렬들의 모습이 떠오른것인가, 그들의 념원대로 수령님의 나라를 억년토록 영광과 번영으로 이끌어갈 승리의 기치－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을 건설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는 그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리었다.

축배사가 끝나고 열광의 박수가 터져나올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어서시었다. 준비해두신 연설문은 없었지만 수령님의 안광에서는 만단사연이 고패치는 심중이 그대로 내비치고있었다.

숨소리마저 잦아든 연회장을 둘러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시작하시었다. 깊은 감회와 뜨거운 추억이 그이의 음성에 실려 장내를 휘감았다.

《오늘은 **김정일**조직비서가 생일 40돛을 맞는 날입니다.

김정일조직비서의 생일 40돛을 맞고보니 지금까지 나의 사업을 보좌하느라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헌신분투하고 있는 **김정일**조직비서에게 생일상을 한번도 차려주지 못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나는 이날이때까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을 비롯하여 나와 함께 혁명투쟁을 해온 동지들에게는 생일때마다 생일상을 꼭꼭 차려주었지만 **김정일**조직비서에게는 생일상을 한번도 차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김정일**조직비서는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억지로라도 **김정일**조직비서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성원들과 토론하여보니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생일축하연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고 나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동지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김정일**조직비서에 게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하면 그의 생일 50돛을 맞으면서나 한번 더 차려줄수 있겠는지 그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과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앉아 **김정일**조직비서의 생일 40돛을 같이 쇠는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동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부부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가운데서 가장 뜨겁고 귀중한 사랑은 동지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김정일**조직비서의 생일축하연회를 차리도록 한것은 부자간의 사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랑을 초월하는 동지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방금 **김정일**조직비서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였습니다. 나는 **김정일**조직비서가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조직비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가 확고히 서고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안에 통일전선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가 당안에서 여러 파에 속해있던 사람들과 통일전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안에는 박헌영, 최창익, 박창옥, 박일우를 비롯한 화요파, 엠엘파, 연안파에 속해있던 종파분자들과 오기섭 같은 지방할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통일전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통일전선을 한것은 꺾렁꺾렁 함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파라는것은 모르면 무섭지만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과 국가의 요직에 배치하고 꾸준히 교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성실히 보답할 대신 종파적근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뒤에서 쏘라닥거리며 당을 반대하였

습니다.

박헌영은 미제의 고용간첩이었습니다. 그자는 남반부혁명을 다 말아먹었으며 북반부에 잠입하여서도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우리는 박헌영의 정체를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최종적으로 확증하였습니다.

...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우리 당의 내부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1956년 여름 내가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고있을 때 최창익, 박창옥을 비롯한 엠엘파, 화요파, 연안파계열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내가 소련을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나는 불가닌, 워로실로브, 몰로토프를 비롯한 소련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담화하면서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한 달동안 동구라파 사회주의나라들을 돌아보며 전후복구건설에 참고할만 한것을 배워가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불가닌, 워로실로브, 몰로토프는 나에게 지금 정세가 복잡한데 무엇때문에 두달씩이나 외국에 체류하겠는가, 외국방문기일을 예정보다 앞당기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조국을 떠날 때 계획하였던 외국방문일정을 변경하여 조국으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내려 영접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싸늘하였습니다. 특히 최창익과 박창옥의 낯색은 몹시 당황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최창익과 박창옥을 비롯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내가 외국방문을 떠난 기회에 뒤골방에서 당과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던 박금철과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박금철은 우리와 동상이몽하였습니다.

...

나는 소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결과를 보

고하려고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창익, 박창옥일당이 당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도전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최창익, 박창옥을 비롯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단죄하고 그자들을 단호히 숙청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전후복구건설시기 정세가 그렇게 복잡하였지만 나는 중국력사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운장이 고전분투하는것처럼 혼자서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사업을 맡아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과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은 고난에 찬 우리 당의 투쟁력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동지들!

나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당건설과 국가건설, 무력건설위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수호하였습니다. 내가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까지 역사적성공만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갔고 인민대중이 나를 적극 지지성원하였기때문입니다.

나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1957년 11월 내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10월혁명 40돐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에 참가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 회의에서 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은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그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나라들이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열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회의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

였습니다. 나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시종일관 자주적립장을 지켜왔기때문에 수정주의자, 대국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그 회의에서 서슴없이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할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당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김정일**조직비서가 전당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조직비서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당안에 통일전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 당안에는 핵심들도 든든히 꾸려져있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철통같이 단결되어있습니다.

전체 당원들이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운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어려운 일을 **김정일**조직비서가 훌륭히 해냈습니다. 나는 동지적립장에서 **김정일**조직비서가 이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낸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무들은 오늘 **김정일**조직비서의 생일축하연회에 참가한 기회에 그의 빛나는 공적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 당안에서 통일전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만큼 내부가 복잡하였던 우리 당이 오늘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가 확고히 선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된것만큼 우리는 이 당을 가지고 조국통일도 할수 있고 세계혁명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김정일**조직비서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

도자인 조선로동당을 능숙하게 령도하고있기때문에 당 제6차대회에서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력사에 거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대회로 전해질것입니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사회주의나라 당들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김정일조직비서는 사업과 실천을 통하여 탁월한 조직적수완과 비범한 령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김정일조직비서가 우리 당과 인민을 능숙하게 령도하고있기때문에 조국과 민족의 장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이제는 우리 로혁명가들이 김정일조직비서에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마음놓고 넘겨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매우 공고하며 위력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당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당은 수백만당원들을 가지고있으며 그들모두는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역세게 단련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의 장래에 대하여 마음을 폭 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동무들은 김정일조직비서를 잘 받들고 그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하루빨리 이 땅위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도 수행하고 세계자주화위업도 실현하여야 합니다.

레닌은 쏘베트정권에 전기화를 더하면 공산주의라는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나는 인민정권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하여

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게 될 최고 인민회의에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명제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김정일**조직비서가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여 나의 이 명제를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 감개무량하여 연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나는 **김정일**조직비서의 생일 40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정권 더하기 3대혁명으로 인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오찬회가 끝난 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두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김일성경기장 개건확장공사장으로 나가시였다.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가 모두의 눈앞에서 흘러가고있었다.

위대한 한쌍
당기발아래

내	곳	조	선	로	동	당	출	판	사
인	쇄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4	(2015)	년	x월	xx	일
발	행	주	체	104	(2015)	년	x월	xx	일
ㄱ-55175ㄴ							값 xx원		